

2022년 12월  
영남학 제83호

# 山南學

題書：淵民 李家源선생 글씨 集字

기획논문 -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장윤수: 江岸學의 학문 정체성과 몇 가지 문제점 검토 ..... 7

박인호: 낙동강 강안 지역의 사부류 편찬과 역사학적 의의 ..... 53

최은주: 낙동강 연안의 누정제영 창작과 그 의미 ..... 91  
-구미 선산의 梅鶴亭을 중심으로-

조유영: 낙동강 연안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 ..... 129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김학수: 寒岡學의 湖西 확장과 黃宗海의 계승의식 ..... 155

일반논문

徐榮教: 신라의 漢江유역 점령 · 유지와 國原 ..... 197

박광연: 7세기 중반 신라 밀교의례의 설행 주체 ..... 227  
-명랑의 정체성에 대한 검토-

이규필: 孤村 裴正徽의 삶과 문학론 연구 ..... 253  
-〈文說〉을 중심으로-

韓吉路: 松隱 安昌濟의 在滿 시기(1910~1931)의 移居와 交遊詩  
고찰 ..... 287

이인숙: 서양화가이자 전각가인 미술가 청남(淸南) 이상정 연구 ..... 317





## [기획논문]

###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장윤수:** 江岸學의 학문 정체성과 몇 가지 문제점 검토

**박인호:** 낙동강 강안 지역의 사부류 편찬과 역사학적 의의

**최은주:** 낙동강 연안의 누정제영 창작과 그 의미

-구미 선산의 梅鶴亭을 중심으로-

**조유영:** 낙동강 연안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김학수:** 寒岡學의 湖西 확장과 黃宗海의 계승의식



## 江岸學의 학문 정체성과 몇 가지 문제점 검토

장 윤 수\*

- I. 江岸學의 선행연구 검토
- II. 江岸學의 학문 정체성 가설
  - 1. 융합과 개방성 경향
  - 2. 우주론적 사유 경향
  - 3. 明體適用의 학문 경향
  - 4. 自得的 학풍 경향
- III. 江岸學의 正名 문제

### 국문초록

이 글은 가칭 ‘강안학’의 학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것이다. 필자는 강안학의 학문 정체성으로 네 가지 점을 주목하였는데, 첫째, 융합과 개방성 경향, 둘째, 우주론적 사유 경향, 셋째, 明體適用의 학문 경향, 넷째, 自得的 학풍 경향이다. 우선 강안학의 학문 정체성으로서 크게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은 ‘회통성’보다는 ‘개방성’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우주론적 학풍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은 곧 우주의 일관된 원리를 찾고

---

\* 대구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ysjang@dnue.ac.kr

이를 통해 세계 존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 했던 의도에서 기인한 것임을 해명하였다. ‘明體適用의 학문 경향’에 대해서는 맥락상 ‘명체’보다는 ‘적용’에 강조점을 두어 실천 지향의 의미와 실용적 博學風의 학문 경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自得’의 공부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학풍은 제3시대 영남학파의 비주류적 특징이라기보다는 성리학 본래의 이념에 충실하고자 했던 선산지역 초기 사림파의 학문 분위기와 남명 조식의 학문 경향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강안학의 이러한 학풍이 朱熹의 理學보다는 張載의 氣學의 학풍에 가깝고, 퇴계학보다는 남명학의 학풍에 가깝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 주제어

江岸學, 개방성, 明體適用의 학문, 우주론적 사유, 自得的 학풍, 寒旅學派

## I. 江岸學의 선행연구 검토

‘江岸’이라는 용어를 문화권의 개념과 연계하여 사용한 것은 국문학자 ‘이동영’이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조선조 嶺南詩歌의 연구』<sup>1)</sup>에서 시조 문학상 영남지역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고, 이것을 각각 嶺左, 嶺右, 江岸지역이라 했다. 그리고 ‘최동원’은 이 책의 서평에서 “강안지역의 문화권을 설정한 것은 특이한 착상이며 여러 가지 문제를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sup>2)</sup>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강안학 연구의 원류를 이동영으로 인정하는 말이다. 이동영은 영남지역을 통상적인 사례에 따라 上道와 下道, 嶺左(江左)와 嶺右(江右)지역으로 구분한 후에, 학맥과 문화환경으로 볼 때 이 두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지는 중간지역을 주목하여 ‘강안지역’이라 명명하였던 것이다.

이동영은 강안지역의 儒賢 중에서도 鄭述(1543~1620), 金宇顥(1540~1603), 鄭經世(1563~1633), 曹友仁(1561~1625) 등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특히 鄭述와 張顯光의 경우에는 영남의 左右를 접맥하는 경향이 있고, 鄭經世는 東西人들로부터 함께 존경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3)</sup> 그리고 그는 강안지역의 범위에 성주, 고령, 칠곡, 영천을 포함시키고 그 범주에 다시 상주를 포함시켰으며, 성주권(성주·고령·칠곡·영천)과 상주권을 詩歌上의 橫的 관계로 보았다.<sup>4)</sup> 이동영은 강안지역이 성리학적인 지형도로 볼 때 정구, 김우옹, 장현광, 정경세가 退溪 李滉을 연원으로 하여 인맥과 학맥을 형성한 곳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嶺南詩歌의 형성과정 및 발달에 있어서는 ‘歌壇’의 개념에 부합할만한 특징적인 성격이 없다고 평하였다.<sup>5)</sup> 그러므로 이동영이 언급한 강안지역이란 개

1)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출판한 것으로서 초판은 형설출판사(1984년)에서 간행하였고, 재판은 부산대학교출판부(1998년)에서 간행하였다.

2) 이동영, 『조선조 嶺南詩歌의 연구』,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404쪽(최동원, ‘서평’).

3) 이동영, 앞의 책, 308~309쪽 참조.

4) 이동영, 앞의 책, 382쪽 참조.

5) 이동영, 앞의 책, 385~386쪽 참조.

넘은 학문적·유과별로 엄밀하게 구분한 것이라기보다는 퇴계학의 전통이 강한 강좌지역과 남명학이 우세를 보이던 강우지역의 절충 또는 소외지역으로서 제3의 지역을 설정한 정도에 그친다.

이후 몇 명의 학자들이 강안학 논의의 대열에 참여하였다. ‘박병련’은 강안지역의 학문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정의하여, “일반적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여 영남을 江左와 江右로 나누고, 학파도 강좌를 퇴계학파로 보고 강우를 남명학파로 보는데, 여기서 필자가 강안지역이라 칭하고자 하는 것은 寒岡 鄭述, 旅軒 張顯光 등 소위 文穆淵源 또는 寒旅學派라는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지역을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주, 고령, 현풍, 창녕, 영산, 의령, 함안, 밀양, 청도, 김해, 창원지역을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다.”<sup>6)</sup>라고 하였다. ‘박병련’은 정구와 장현광의 학파를 중심으로 ‘강안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지역 대상으로 낙동강 중류지역인 성주와 고령에서부터 경남지역인 낙동강 하류 일대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였다. ‘설석규’는 강안학파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金聘壽(1535~1603)를 통해 강안학의 실학적 경향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sup>7)</sup> ‘정우락’ 또한 강안학의 학문체계를 수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는 강안학의 개념과 시·공간적 범위를 정리하면서, “강안학은 ‘16세기 이후 낙동강 연안의 유학사상’으로 개념과 범위가 설정될 수 있다. 이때 낙동강이라 함은 상주에서 창원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강안학은 16세기 이후라는 시간적 범위, 상주에서 창원에 이르는 공간적 범위, 유학사상이라는 학문적 범위를 포괄한 개념이다.”<sup>8)</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강안학의 학문 특징을 요약하여 (1)畿嶺學과 退南學을 융합한 ‘회통성’, (2)博學에 바탕한 실천정신의 ‘실용성’, (3)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독창성’ 등을 언급하였다.<sup>9)</sup> ‘김성윤’은 영남 유교문화권의

6) 박병련, 「광해군 復立 모의」 사건으로 본 강안지역 남명학파, 『남명학연구논총』 11집, 2002, 230쪽.

7) 설석규, 「강안학파의 실학적 풍모를 지킨 徵士-西溪 金聘壽」, 『선비문화』 12, 2008 참조.

8) 정우락, 「江岸學과 高靈 儒學에 대한 試論」, 『퇴계학과 한국문화』 43, 2008, 55쪽.

9) 정우락, 앞의 논문, 55~78쪽 참조.

지역학파를 안동문화권, 상주문화권, 성주문화권으로 구분하고, 강안지역에 해당하는 성주문화권에 대해 몇 가지 주목할만한 특징을 제시했는데, 특히 이 지역에서 邵雍의 象數學과 張載의 氣學이 유행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sup>10)</sup> ‘홍원식’은 강안학 대신에 ‘洛中學’(낙동강 중류지역에서 전개된 유학)이라는 용어를 제안하며, 2010년 이래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상기 학자들의 연구는 한국성리학에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지역의 학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강안학, 낙중학, 성주문화권 등의 용어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sup>11)</sup>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강안지역의 학문을 기존의 몇 가지 용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로 통일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필자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 지역의 문화권역 범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로 ‘대구권 성리학’이라는 명칭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사용하는 ‘대구권’이라는 말은 ‘대구지역’과 차별화 된다. ‘대구지역’은 행정구역으로서 현재의 대구광역시를 의미한다. 그런데 ‘대구권’이라고 할 때는 보다 광범위한 문화권역의 의미로서 대구 이외에도 성주, 고령, 칠곡, 영천, 경산, 청도를 비롯하여 선산(구미) 지역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다.<sup>12)</sup> 그러므로 필자가 제안하는 ‘대구권’이라는 말은 문화적 정체성을 함께하는 대구와 인근 지역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논의의 일관성과 편의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강안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0) 김성윤, 「영남의 유교문화권과 지역학파의 전개」, 『조선시대사학보』 37, 2006(a) ; 김성윤, 「조선시대 성주권 유림층의 동향」, 『역사와 경계』 59, 2006(b) 참조.

11) 장운수, 『대구권 성리학의 지형도』, 심산출판사, 2021, 21~24쪽 참조 ; 장운수, 「낙중학의 성과와 과제」, 『한국학논집』 85, 2021, 20~22쪽 참조.

12) 장운수, 앞의 책, 19~24쪽 참조.

## II. 江岸學의 학문 정체성 가설

### 1. 융합과 개방성 경향

이 글의 의도는 이른바 ‘강안학’의 학문 정체성을 가설적 입장에서 고찰하고, 이러한 가설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을 부각시켜 후속 연구의 논의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있다. 우선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융합과 개방성 경향이다. 선행연구에 있어서 강안학의 학문 정체성으로 가장 주목한 부분은 바로 ‘회통성’이다. 여기서 ‘회통’이란 주로 남명학과 퇴계학, 영남학과 기호학 간의 대립적인 요소를 포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정우락’은 강안지역의 회통적 접점 문화를 주목하면서 낙동강의 연안지역이 내륙지역에 비해 타문화의 흡수력이 빠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낙동강 물길을 통해 이질적인 문화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상주, 칠곡, 대구 등지에서 기호지역의 학문이 영남학과 융합되면서 畿嶺學의 회통이 이루어지고, 강안지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황과 조식을 함께 모시면서 退南學을 통섭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sup>13)</sup> 필자 또한 강안지역의 성리학이 교차문화의 절충적 성격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학풍을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왔다는 논지를 펼친 바 있다. 즉 강안지역의 학풍이 理氣心性論의 논변에 있어서 두드러진 인물은 적지만, 타지역에 비해 회통성과 자특성 그리고 실천성이라는 특징을 강하게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회통성은 타문화를 향해 열려 있는 적극성과 개방성을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서 미래지향적 가치관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14)</sup> 역사 지도로 볼 때 이러한 특징은 가야 문화의 영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 大伽倻의 근거지인 고령, 星山伽倻의 배경인 성주, 古寧伽倻의 지역으로 추정되는 선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주 咸昌까지도 낙동강

13) 정우락, 앞의 논문, 60~61쪽 참조.

14) 장윤수, 앞의 책, 6쪽 참조.



의 물질 문화로 인한 회통성과 개방적 특징을 드러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강안’이라는 용어는 강을 기준으로 하여 左와 右의 ‘접점’[岸]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도와 우도의 학문 경계를 넘나드는 회통적 의미를 일정 부분 지니게 된다. 강안지역 학자들의 師承 관계를 확인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목되는 점이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의 문하를 함께 드나든 학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성주지역의 鄭述와 金宇顥, 고령지역의 裴紉과 金沔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모두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큰 학자들로서 남명과 퇴계의 문하에 동시에 及門하였다. 남명과 퇴계의 학파적 경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기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두 선생 문하의 제자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그렇지만 단지 두 선생의 문하에 급문했다는 사실만으로 ‘회통’을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회통’의 진정한 의미는 대립과 갈등이 높은 차원에서 해소된 ‘하나’[通]에로의 ‘만남’[會]을 의미한다.<sup>15)</sup> 따라서 회통이란 어설픈 절충이 아니라 원래 ‘하나’인 진리의 조화를 의미하는 圓融會通의 정신을 상징한다. 그러한 면에서 강안학의 학문 특징을 ‘회통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지역의 학자들이 차별적인 학파 또는 사상의 두 가치를 엄연히 대립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하나로 조화시키고자 하는 뚜렷한 의식이 있었을까? 강안지역의 학자들이 강좌와 강우 또는 영남지역과 기호지역의 사상적 대립을 아우르고 넘어서 회통적인 자기 사상을 설파한 논리가 있는가? 과연 이 지역의 학문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독창성을 지니는 측면까지 나아갔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하기에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러므로 ‘회통’ 또는 ‘통섭’이라는 용어보다는 ‘융합’ 정도의 의미가 훨씬 부담 없이 다가온다. ‘강안학 수립’이라는 사상사적 기획이 성공하려면 우선 이 지역의 학자들이 대립적인 사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충시키고 융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15) 김종문·장윤수, 『한국전통철학사상』, 소강출판사, 1997, 51~52쪽 참조.

그리고 남명과 퇴계의 문하를 동시에 드나든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자들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지역학이 구체성에 바탕을 두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학문을 의도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강안학의 학문 정체성으로서 지금 우리들이 보다 분명하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회통성보다는 학문적 개방성이다. 선행연구에 있어서 강안학의 회통적 측면으로 주목한 요소는 사실 대부분 학문적 개방성으로 읽을 수 있다. 이 지역의 學脈을 살펴보면 남명과 퇴계는 말할 것도 없고, 畿湖南人 및 심지어 老論 계열의 학맥까지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sup>16)</sup> 남명학파가 수 차례 정치적 탄압을 받고 거의 멸절 상태에 이르게 된 후에도 이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남명의 학풍이 확인된다. 戊申亂 이후 외적으로는 퇴계학파가 이 지역의 학계를 주도해 나가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자득과 실천을 강조하는 남명의 학풍이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강안지역의 성리학자들 중에는 남명의 경우처럼 道家風의 학풍을 강하게 드러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독서록에서 당당하게 『莊子』를 읽을 것을 주문하기도 하며,<sup>17)</sup> 특히 氣學者인 張載와 象數學者인 邵雍의 사상을 중시한 사례가 많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北人 계열의 학자들은 물론이고 기호학과 계열의 老小論 학자들과도 비교적 자유롭게 교류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이 지역 학자들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강안지역의 융합적이고도 개방적인 학풍으로 연계된다.

일찍이 퇴계는 남명이 지은 기행문 <遊頭流錄>을 살펴본 뒤 그 학문적 所從來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sup>18)</sup> 남명의 학풍에는 확실히 老莊의 풍취와 氣學의 세계관의 특징이 강하게 배어있다. 남명은 특정 학문과 학파로써 자신을 구속하려 하지 않았다. 남명은 『學記圖』

16) 이동훈, 『學脈에 따른 高靈의 유학자』, 고령문화원, 2019, 23~72 참조.

17) 『遲庵集』 卷3, <答安靜瞻> 참조.

18) 『退溪集』 卷43, <曹南冥遊頭流錄跋> 참조.

제8도 <理氣圖>에서 程復心(1257~1341)의 <論理氣無適有形圖>를 인용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림 상단의 ‘太極’을 陰과 陽으로 나누어 圓으로 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남명이 태극을 陰陽 二氣로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인데,<sup>19)</sup> 程頤와 朱熹의 이원론적 관점이 아니라 張載와 陸九淵의 일원론적 관점을 계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0)</sup> 그런데 남명의 이러한 개방적인 학풍은 한강과 여현을 비롯한 강안지역의 학자들에게서도 강하게 드러난다.

한강 정구의 학문적 관심은 다양하다. 그는 특히 禮學에 조예가 깊었으며, 우리나라 예학 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강은 禮說 이외에도 地方志, 歷史書, 醫書 등 다양한 방면에서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문인 張興孝는 한강의 독서목록에 대해 언급하며, “선생(鄭述)은 異端의 서적조차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다만 그것이 이단이 되는 까닭을 알고 난 후에는 더이상 보려 하지 않았다.”<sup>21)</sup> 라고 증언하였다. 한강과 제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사상 분위기에서 독서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여현 장현광의 학풍 또한 대단히 개방적이었다.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로 氣學的 학풍을 예로 들 수 있다. 여현의 사상이 갖는 기학적인 측면은 道의 인식론적 문제와 수양론의 문제에 있어서 잘 드러난다. 여현은 우주 本有의 근원적 실체인 道, 太極, 理를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입과 혀로는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정기[精]와 정신[神]을 모으고 오랜 세월동안 수양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여현의 수양법은 정통 주자학 계열의 수양법과는 구분되는 기학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곧 張載의 『正蒙』 <神化篇>에서 강조하는 入神과 存神의 수양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sup>22)</sup> 여현의 사상이 장재의 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

19) 이승환, 『형설수설』, 휴머니스트, 2012, 159쪽 참조.

20) 장운수, 『정주철학원론』, 이론과 실천, 1992, 411쪽 참조.

21) 『寒岡言行錄』 卷1, <讀書>, “異端之書, 亦無不涉獵, 究知其所以爲異端之故, 然後輒不復看.”

22) 김성윤, 앞의 논문(2006a), 161~162쪽 참조.

왔다는 점은 그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여헌은 자신의 병을 조리하기 위해 僧房에 머문 일이 있다. 그는 당시 山寺에서 시를 읊었는데, “처소에 돌아와 누워 정신을 모으니 / 太虛가 곧 나의 마음이네 / 중을 불러 한잔 술 따라 마시니 / 하늘의 조화로운 기운이 내 가슴에 가득 차네.”라고 하였다.<sup>23)</sup> 이 짧은 시에서 표현한 凝神, 太虛, 天和의 용어들이 모두 장재의 사상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대구지역 성리학자인 徐思遠(1550~1615)의 독서록에 있어서도 개방적인 학풍을 엿볼 수 있다. 그의 독서목록에는 程·朱 계열의 성리학 경전 이외에도 道家와 氣學 관련 서책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sup>24)</sup> 예를 들면 1594년 10월에 孫處訥(1553~1634)이 『花潭集』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sup>25)</sup> 1604년에 郭再祐(1552~1617)가 와서 『悟眞篇』과 『金丹大成集』을 빌려갔다는 기록<sup>26)</sup> 등이 있다. 그리고 서사원은 자신이 氣學에 종사했던 적이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다.<sup>27)</sup> 이러한 사례들은 그가 순혈주의적 道統觀의 학풍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음을 말해준다.

강안지역의 개방적인 학풍은 朴而章(1547~1622)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이장은 작고하던 해인 1622년에 제자들에게 周·張·程·朱의 글을 읽게 하였다.<sup>28)</sup> 그는 23세 때에 남명 조식을 만나기 위해 德山에 갔으며, 그 뒤에 다시 盧守愼(1515~1590)을 찾아가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조식과 노수신은 모두 개방적인 학풍을 지닌 학자들로 유명하다. 그 외에, 고령 출신 한강의 제자인 李起春(1541~1597)도 만년에 張載의 氣學을 연구했다.<sup>29)</sup> 그리고 영천 출신의 성리학자인 鄭萬陽(1664~1730)·鄭葵陽(1667~1732) 형제도 장재의 학문을 중시했다. 그들은 보현산 자

23) 『旅軒集』 卷1, <強次僉詠>, “歸庵臥凝神, 太虛卽吾心, 呼僧酌一杯, 天和方滿襟.”

24) 『樂齋集』 卷2, <讀書如鍊丹>, <氣聽> 참조.

25) 『樂齋年譜』 卷1, 甲午年(1594년, 선조 27) 10月 條 참조.

26) 『樂齋年譜』 卷1, 甲辰年(1604년, 선조 37) 4月 條 참조.

27) 『樂齋集』 卷2, <讀書如鍊丹>, “臣嘗從事於氣學.” 참조.

28) 『龍潭集』 卷5, <年譜>, 壬戌年(1622년, 광해 14) 2月 條 참조.

29) 고령군지편찬위원회, 『高靈郡誌(사상과 민속)』 卷3, 고령군, 2022, 144쪽 참조.

락의 횡계 와룡암 근처에 六有齋를 짓고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六有’라는 말은 평소 장재가 강조하던 가르침이다. 이들 형제는 그들의 스승인 李玄逸에게 ‘장재의 六有 사상이 학자들에게 끼친 공이 매우 크다’고 하며 그 의미에 대해 묻기도 했다.

[問] 張子の ‘六有’는 학자들에게 매우 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에는 교훈이 있고 행동에는 법도가 있으며 낮에는 행함이 있다’는 것은 省察에 해당하고, ‘잠간 사이에도 보존함이 있으며 쉼 때에도 길러짐이 있으며 밤에 얻는 바가 있다’는 말은 涵養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答] ‘말에는 교훈이 있고 행동에는 법도가 있으며 낮에는 행함이 있다’라는 말은 動할 때의 공부이고, ‘잠간 사이에도 보존함이 있으며 쉼 때에도 길러짐이 있으며 밤에도 얻는 바가 있다’라는 말은 靜할 때의 공부이니, 굳이 省察과 存養으로 나눌 필요는 없네.<sup>30)</sup>

정만양과 정규양 형제는 이기론에서 퇴계학파의 입장을 따랐지만, 그러면서도 氣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尹拯(1629~1714)과의 교류를 통해 기호학파의 경향을 수용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직접 장재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들 형제가 남긴 저술 가운데 禮書의 비중이 가장 큰데,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는 퇴계의 학설에 의거하고 있으나 기호학파의 중심 학자인 金長生(1548~1631)의 저술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이들 형제는 정치적으로 보아 영남 南人系의 학자였지만 黨色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학문 활동을 하였다.<sup>31)</sup> 이러한 점들은 이들 형제의 개방적 학문관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퇴계학의 순수성과 탁월함을 변증하기에 여념이 없던 스승 이현일과 경북북부지역 성리학자들의 학문적 태도와 비교할 때 충분히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30) 『葛庵集』 卷15, <答鄭皆春昆仲(戊寅)>, “張子六有, 於學者極有功. 其曰言有教動有法書有爲者, 屬之省察, 而瞬有存息有養宥有得者, 屬之涵養歟. 言有教動有法書有爲者, 是動時工夫, 瞬有存息有養宥有得者, 是靜時工夫, 不必分爲省察與存養也.”

31) 우인수, 『영천 훈수 정만양 종가』, 경북대학교출판부, 2021, 50~67쪽 참조.

강안지역 학자들의 이러한 개방적인 학풍은 근현대 시기까지도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우선 18세기 칠곡지역의 성리학자인 李東流(1736~1804)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집 중에서 <請寒岡旅軒兩先生陞廡疏>는 그의 학문 연원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는 이상소문에서 한강과 여헌이 先賢의 正脈을 이어받아 옛 성인을 계승하고 후학을 開導한 공이 컸음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文廟에 陞廡시킬 것을 소청하였다.<sup>32)</sup> 이를 통해 한강과 여헌의 학문적 영향력이 18세기 당시까지도 강안지역의 학계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동항의 글 중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것으로 <答安靜瞻>이 있다.<sup>33)</sup> 이동항은 여기에서 그 나름의 독서법을 밝히고 있는데, 『논어』와 『시경』을 먼저 읽은 후에 『莊子』, 司馬遷, 左氏, 韓愈, 柳宗元 등의 글을 읽어야 문장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으로는 『장자』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통 성리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유학자들이 老莊의 서책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sup>34)</sup> 이러한 입장은 영남학과뿐만 아니라 기호학과 또한 동일하다. 예를 들면 1804년(갑자년)에 19세의 추사 김정희가 『노자』를 공부한다는 말을 듣고서 아버지 金魯敬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道德經』 오천 자에는 지극한 이치가 담겨 있다고 하나, 六經의 글에 비하면 차이는 조금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됨은 무수히 많다……하물며 네 병통의 근본이 오로지 경박하게 시문이나 꾸미는 습속과 기이하고 새로운 것만 좋아하는 폐단이 있으니, 그것을 버려야 한다.”<sup>35)</sup>라고 엄하게 훈계하였다. 이러한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에 불구하고 이동항이 『장자』를

32) 『遲庵集』 卷3, <請寒岡旅軒兩先生陞廡疏> 참조.

33) 『遲庵集』, 卷3, <答安靜瞻> 참조.

34) 宣祖 때에 寧海 출신 선비인 李涵은 과거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지만, 試券에 『莊子』의 글귀를 인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罷榜을 당하게 된다. [『朝鮮王朝實錄』, 宣祖33年(1600年, 庚子年), 4月19日(壬辰), ‘展試의 試券 문제로 下敎하다’ 참조]

35) 『西堂遺稿』 卷6, <與長子書(甲子)>, “道德五千言, 雖是至理所寓, 比之六經之文已, 是差毫謬千……況汝之病根, 專在於浮薄詞華之習, 務奇尙新之弊, 捨他.” 金魯敬의 『西堂遺稿』는 日本 ‘靜嘉堂文庫’에서 발행하였다.

당당히 독서목록에 올려놓은 것은 분명 개방적인 학풍의 면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동항은 각종 旅行記를 남겼는데, <方丈遊錄>, <海山錄>, <楓嶽總論>, <遊俗離山記>, <三洞山水記> 등이다.<sup>36)</sup> 그는 지리산 기행에서 특별히 남명의 신도비를 참배하고 남명의 후손 집안에 보관되어 오던 三劔과 칼자루에 새겨진 劔銘을 친견하기도 했다.<sup>37)</sup> 그리고 지리산 여행 중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불교의 사찰들을 빼놓지 않고 탐방하였으며, 불교의 사상이나 문화에 대해 비방하거나 배척하지 않았다. 그는 지리산 산사에 거처하던 승려들과 함께 儒佛의 교리에 관해 토론을 펼치기까지 하였다.<sup>38)</sup>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동항의 개방적인 학문관을 엿볼 수 있다.

1891년에 제정된 星山鄉約의 <講規>에서도 강안지역의 개방적인 학풍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淵源正學에 속하는 서책에 邵雍의 『皇極經世』와 張載의 『正蒙』을 함께 포함시켰다.<sup>39)</sup> 장재의 氣學을 증시하는 전통은 李種杞(1827~1902)의 경우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李種杞는 郭鍾錫(1846~1919)에게 답하는 서신에서 적극적으로 장재의 학설을 인용하였다.<sup>40)</sup> 그는 ‘맑고 한결같은 상태가 氣의 근본’이라고 한 장재의 사상을 직접 인용하면서, 氣의 精爽을 理로 해석하는 寒州學派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였다.<sup>41)</sup>

19세기 칠곡지역의 대표적 사상가인 張福樞(1815~1900)는 그의 선조인 장현광의 학문적 위상이 퇴계학과 내에서 부당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sup>42)</sup> 장복추는 사상적

36) 『遲庵集』 卷3, <方丈遊錄>; 卷4, <海山錄>, <楓嶽總論>; 卷5, <遊俗離山記>, <三洞山水記> 참조.

37) 『遲庵集』 卷3, <方丈遊錄>, 1790년(정조 14) 4월 23일 참조.

38) 『遲庵集』 卷3, <方丈遊錄>, 1790년(정조 14) 4월 17일 참조.

39) 김성윤, 앞의 논문(2006a), 159쪽에서 재인용함.

40) 『晚求集』 卷4, <答郭鳴遠> 19張 참고.

41) 『晚求集』 卷4, <答尹忠汝胄夏心說筭疑> 24~25張 참고.

42) 권상우, 「文辨至論에서의 성리학적 이론구조」, 『四末軒 張福樞의 經學思想과 性理思想』,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발표집, 2009, 60쪽 참조.

으로 퇴계학과 남명학을 융합하고자 했으며, 한강과 여헌의 학문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하였다.<sup>43)</sup> 장복추의 이러한 학문적인 경향은 당연히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에게도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강안지역의 융합적이고 개방적인 학풍은 19세기 후반을 넘어 20세기 초반까지도 이 지역에서 그 흔적을 남기게 된다. 어떠한 사상체계이든 그것은 그 시대의 현실적인 조건과 개인의 삶의 배경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단순히 유학적 道統의 입장에서만 사상의 우열을 따질 수 없다. 영남학파의 제3지대로 평가받는 강안지역의 성리학을 융합적이고 개방적인 학풍으로 해명해낼 수 있다면 이러한 학문전통이 오히려 소통과 열림의 세계를 지향하는 미래 학문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 2. 우주론적 사유 경향

北宋代 유학의 중심인물은 程顥(1032~1085)와 程頤(1033~1107) 형제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수 많은 학자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자기 나름의 체계적인 이론을 건립하여 성리학의 한 세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로는 周敦頤(1017~1073), 邵雍(1011~1077), 張載(1020~1077)가 이름이 높다. 이들은 주로 우주론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우주를 대상으로 하여 사색하던 북송 성리학은 이후 程氏 형제들에 의해 인간 내면의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된다. 즉 ‘세계’라는 통일체를 이론화하게 되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버리는 감이 있으므로, 마침내는 인간 본성의 문제, 인식론적인 문제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sup>44)</sup> 고대 그리스철학에 있어서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철학의 시대가 중심이 되지만, 그 이전에 ‘자연철학 시대’라고 불려진 때가 있었다. 중국에 있어서 사상적으

---

43) 최석기, 「四末軒 張福樞의 학술과 그 의미」, 『四末軒 張福樞의 經學思想과 性理思想』,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발표집, 2009, 3쪽 참조.

44) 張君勱, 『한유에서 주희까지』, 김용삼·장운수 옮김, 형설출판사, 1991, 201~202쪽 참조.



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던 시기가 바로 北宋代이다.

그런데 중국이나 한국의 성리학 전통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주론적 사상가들은 낮게 평가받아 왔다. 특히 소옹에 대한 정씨 형제의 평가는 혹독했다. 예를 들면 소옹의 학문과 인물에 대해 평하면서, “소옹의 학문은 먼저 이치라는 측면에서 意·言·象·數를 유추하고, 천하의 이치는 반드시 이 네 가지에서 나온다고 한다……그러나 그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요컨대 그의 학술로 천하 국가를 다스리기는 힘들다. 그의 사람됨은 무례하고 공손치도 못하면서 오직 알보고 조롱할 뿐이다. 심지어 天理조차도 알보고 조롱했다.”<sup>45)</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씨 형제는 집안 아저씨[表叔]인<sup>46)</sup> 장재의 사상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였다. 장재의 재능은 뛰어난지만 그의 학문은 ‘雜駁스럽다’고 비판하였으며,<sup>47)</sup> 심지어 장재의 제자들에게까지 과거에 잡스럽게 배웠기 때문에 이치에 어긋나게 된다고 자주 질책하였다.<sup>48)</sup> 정씨 형제 중에서도 특히 程頤의 이러한 관점은 제자들에게도 강한 영향을 주었고, 南宋代 朱熹와 주자학파의 학자들에게까지 강한 영향을 미쳐 그 후 正學을 가리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程朱學 계열의 학문 정통성을 주창하던 조선시대 성리학계의 학풍에서도 소옹과 장재는 결코 주류 사상가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강안지역의 학풍은 이러한 분위기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 학자들은 심성론보다는 우주론적 사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주돈이, 소옹, 장재와 같은 우주론적 사상을 펼친 학자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말해주는 사례가 바로 ‘明鏡堂’의 詩會이다. 1537년(중종 32년)에 선산지역의 학자인 朴雲(1493~1562)은 ‘明鏡堂’이라는 건물을 짓고 나서 朴英

45) 『河南程氏遺書』 卷2上, “堯夫之學, 先從理上, 推意言象數, 言天下之理, 須出於四者, 推到理處……然未必有術, 要之亦難以治天下國家. 其爲人則直是無禮不恭, 惟是侮玩, 雖天理一作地, 亦爲之侮玩.”

46) 장재의 아버지와 정씨 형제 할머니는 남매 간이다.

47) 『河南程氏遺書』 卷2上, ‘呂大臨에게 한 말’.

48) 『河南程氏遺書』 卷2上, ‘呂大臨에게 한 말’.

(1471~1540), 李彥迪(1491~1553), 金就成(1492~1551)과 함께 어울려 시를 읊었다. 명경당에서 가진 네 학자들의 시회는 모두 ‘無極而太極’을 주제로 시를 지었는데 당대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것은 우주론적 사유에 심취해 있던 당시 士林의 학풍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無極而太極’은 周敦頤의 <太極圖說> 가운데 나오는 첫 구절이다. 南宋 시대에 와서 朱熹와 陸九淵은 이 구절의 해석을 두고 열띤 논쟁을 펼쳤다. 이 논쟁은 단순한 해석상의 차이라기보다는 程·朱의 理學과 陸·王의 心學 간에 드러나는 세계관적 차이를 말해주는 중요한 징표이다. 그런데 ‘무극이태극’에 관한 논의가 한국유학사에 있어서 강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선산 출신으로서 박영의 제자인 金就成은 박영의 문하에서 存心養性の 방법과 觀物省察의 뜻을 터득하고, 無極과 太極의 妙用의 이치를 깨달았으며, 이로부터 잠심하여 大業과 規模에 이미 근본이 정해지게 되었다고 한다.<sup>49)</sup> ‘무극이태극’에 관한 본체론적 사색은 대구 출신 성리학자들에게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徐思遠은 52세 되던 1601년에 저술한 <工夫箚錄>에 무극과 태극의 요점을 비롯하여 理, 心, 性, 情, 敬, 修養 등 성리학의 핵심주제를 선현들의 학설에 기초해 간략하게 기록하였으며, 孫處訥은 陸九淵의 『象山集』에 수록된 ‘무극이태극’에 관한 이론이 주희의 이론과 다른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sup>50)</sup> 그리고 都聖俞(1571~1649)는 <總論無極太極>이라는 글에서 陸九淵 형제의 태극론을 비판하고 程朱學 계열의 道統論을 적극 지지하였다.<sup>51)</sup> 또한 칠곡지역의 성리학자인 李東汲(1738~1811)은 <無極太極說>에서 ‘무극’이 태극의 맨 처음 상태라고 설명하며, ‘태극’은 우주만물이 생긴 근원이자 본체라고 하였다.<sup>52)</sup> 강안

49) 『久庵集』 卷2, <伯氏眞樂堂先生墓誌>, “松齋發無極太極之妙以教之, 先生脫然契悟……松齋亟稱之曰, 君之才, 應不下古人, 自是潛心大業, 規模根本已定矣.” 참조.

50) 『慕堂日記』, 辛亥(光海君3年), 慕堂59歲, 3月15日 條, “話康侯, 論象山集無極太極說, 與朱先生不相似.” 참조.

51) 『養直集』 卷1, <總論無極太極(二首)> 참조.

52) 『晚覺齋集』 卷3, <無極太極說> 참조.

지역의 학자들이 ‘무극이태극’에 관해 이처럼 많은 관심을 표명했던 것은 우주론적 사유에 강한 흥취를 보였던 선산지역에 거처하던 초기 사림파(도학과)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장현광 또한 명경당 시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는 朴雲의 冑孫이자 자신의 외손이었던 朴慄을 격려하기 위해 명경당의 詩會와 관련한 글을 몇 편 짓기도 했다.<sup>53)</sup> 장현광은 독창적 사상가이다. 그는 퇴계와 율곡을 비롯한 그 어떤 학자의 사상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송시열은 장현광의 학문에 대해 평하면서 “그 학문적 연원을 後生이 감히 알지 못한다.”<sup>54)</sup>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장현광은 같은 영남학파의 학자인 李玄逸에게서도 그 사상의 문제점을 비판받기도 했다. 현대 학자들의 연구물에서조차 장현광의 학문 연원에 대해 자세하게 밝힌 바가 없고, 다만 그 사상의 自得處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상이든 사상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장현광의 사상적 연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선산지역 선배 학자들의 사유가 내재해 있고, 그 중심에 朴英을 비롯한 도학과 사상가들의 영향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현광은 박영의 사후에 태어났지만, 박영의 후손 및 제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의 문집 도처에서 박영에 대해 직접 언급하였다. 박영은 원래 武人の 업무에 종사하다가 同鄉의 학자인 鄭鵬(1467~1512)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文人の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후대 사람들은 무인의 삶에서 문인으로 전환한 박영을 일컬어 ‘동방의 橫渠(張載)’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장재 또한 젊은 시절 무예에 열중하다가 范仲淹의 권유로 유학에 전념했기 때문이다. 또한 박영은 평소 소용의 학문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는 자신의 시에서 “소강절(소용) 선생 그윽한 곳에 거처하며, 옛 성현 남긴 글을 초당에서 읊조리네.”<sup>55)</sup>라고 하였

53) 『旅軒集續集』 卷1, <次諸君韻, 題明鏡堂>; 『旅軒集續集』 卷4, <題明鏡堂四先生空字絕句後>.

54) 『宋子大全』 卷102, <答沈德升>, “張旅軒淵源, 後生有所不敢知耳.” 참조.

55) 『松堂集』 卷1, <雜詩四首(其四)>.

고, <空中樓閣記>에서는 소옹의 사상을 풀이하기도 했다.<sup>56)</sup> 장현광 또한 자주 소옹의 인품과 학문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특히 <空中樓閣賦>에서 소옹의 학문을 높이 칭송하였다.<sup>57)</sup> 장현광의 제자인 李彥英(1568~1639)은 “선생(장현광)의 도덕과 문장은 하늘이 만물을 덮어 주고 바다가 온갖 물을 포용하는 것과 같아서 진실로 형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담소하며 세상 사람들과 친함은 마치 소강절(소옹) 선생과 같다.”<sup>58)</sup>라고 하였고, 장현광의 아들인 張應一은 평소 아버지가 소옹의 <四事吟>을 손수 글로 써서 벽에 걸어놓고 목상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sup>59)</sup>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장현광이 얼마나 소옹의 사상을 귀중하게 여겼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年譜>에 의하면, 장현광의 대면 스승으로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은 盧守誠(1494~1521)과 張岫(1532~1571) 두 사람이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장현광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 장현광은 1562년(명종 17년) 9세 되던 해에 어머니의 명에 따라 선산에 사는 姊兄 노수함의 문하에 나아가 글을 배웠다. 노수함은 박영의 문인이므로 장현광은 곧 박영의 再傳 제자이다. 그리고 노수함의 아들인 盧景任은 장현광의 문인이는데, 일찍이 노경임은 한국 道學의 계보를 정리하면서 ‘鄭夢周-吉再-金叔滋-金宗直-金宏弼-鄭鵬-朴英’ 순으로 기록하였다.<sup>60)</sup> 장현광은 1567년(명종 22년) 14세 되던 해에 四從叔 관계인 張岫에게 나아가 수업하였다. 장순은 이 언적, 이황, 高應陟(1531~1605), 정구 등과 교유하였고, 박영의 문인인 朴雲, 金就文 등과도 가깝게 지냈으며, 박운의 손자인 朴成一을 사위로 맞이하였다. 장순은 張載가 지은 『正蒙』과 <西銘>을 읽고 감동을 받아 자신의 호를 ‘鶴渠’라고 지었다. 자신이 칠곡 鶴山 기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학산의 ‘학’과 횡거의 ‘거’자를 취해 ‘학거’라 하였던 것이다. 또

56) 『松堂集』 卷1, <空中樓閣記> 참조.

57) 『旅軒集』 卷1, <空中樓閣賦> 참조.

58) 『旅軒集續集』 卷9, <記聞錄(李彥英)>.

59) 『旅軒集續集』 卷10, <趨庭錄(子應一)> 참조.

60) 『松堂集』 卷3, <道統相承次第錄>. 이 기록은 盧景任의 『嵩善志』를 인용한 것이다.

한 장순은 소옹의 『皇極經世』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어 <皇極要義>를 짓기도 했다. 장현광은 15,6세 되던 무렵에 장순의 책상 위에서 『황극경세』를 보았는데, 이 책은 바로 박영의 집안에서 보관해오던 책이었다.<sup>61)</sup> 장현광이 장순의 가르침을 받아 『황극경세』를 읽어보니 마음에 맞았다고 한다. 장현광은 『황극경세』를 높게 평가하여 “이 한 권의 책은 천지와 더불어 마땅히 중말을 함께 할 것이다.”<sup>62)</sup>라고 극찬하였다. 장현광이 장재와 소옹의 사상을 강조했던 배경에는 바로 박영과 장순의 영향이 짙게 깔려 있다.

우주론적 사유를 즐겨하는 이러한 학풍은 후대 강안지역의 학자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확인된다. 한 가지 사례로 칠곡지역 李柱天(1662~1711)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주천은 한강과 여현의 及門弟子인 李彦英의 후손이다. 그는 특히 『주역』에 조예가 깊었으며, 당시 유학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도교사상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 『洛渚遺稿』의 ‘外篇’에는 <新增皇極內篇>, <新增太玄經>, <新增八陣圖>, <斷時占>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우주론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저작이다. <新增皇極內篇>은 주희의 제자인 蔡沈(1167~1230)의 『洪範皇極內篇』 가운데 일부를 주석하고 보완한 것으로서, 邵雍의 상수학적 연구에 바탕하고 음양오행설에 입각해 ‘洪範九疇’와 ‘三才’의 득실을 탐구한 연구물이다. 그리고 <新增太玄經>은 漢나라의 학자 揚雄이 저술한 『太玄經』을 보완한 것인데, 『太玄經』은 유가도가음양가의 사상을 종합한 저술로서 중국 상수학의 원류가 되는 책이다. <新增八陣圖>는 諸葛亮的의 八陣圖를 우리나라 고유의 지형에 맞게 응용한 것이다. 그리고 <斷時占>은 역학과 상수학의 원리로 단시점을 해설한 것이다.<sup>63)</sup> 이주천이 단시점을 연구한 것은 당시 성리학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보자면 매

61) 『旅軒集』 卷10, <趨庭錄(子應一)>, “吾十五六時, 見鶴渠案上有皇極經世書, 問之則乃朴松堂家藏內賜冊子也. 因請讀之, 如有所會心者然.” 참조.

62) 『旅軒集』 卷1, <觀物賦>, “然皇極經世之一書, 當與天地而終始.”

63) 이우봉, 「낙저유고와 시대정신」, 『낙저 이주천 선생의 역학사상 학술대회 자료집』, 칠곡문화원, 2022, 14~15쪽 참조.

우 생경한 모습이다.<sup>64)</sup> 상수학은 비록 주희가 『주역』을 해석한 기본틀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 학문 분야이다. 소옹의 상수학을 중시한 이주천의 학문적 특징은 그 선조인 이언영을 통해 계승된 가학의 전통이자 여헌 장현광을 비롯한 강안지역 학자들의 학풍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안지역 학자들이 지닌 우주론적 사유 경향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갖는다. 우선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 지역의 학자들이 『朱子大全』의 간행으로 인해 촉발된 본격적인 주자학적 사유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1427년(세종 9년)에 『성리대전』이 간행된 이후 무려 100여년이 지난 1543년(중종 38년)에 『주자대전』이 간행되었다. 퇴계 이황은 우리나라에서 『주자대전』을 거의 처음으로 완독하고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자이다. 그는 43세 되던 해인 1543년에 중종의 명에 의해 校書館에서 간행된 『주자대전』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낙향과 상경을 거듭해가며 『주자대전』의 연구에 깊게 몰두하였으며, 1556년에 드디어 『주자대전』의 방대한 내용을 간추려 총 20권의 『朱子書節要』를 편찬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지식인 사회에 있어서 주자학 발전을 이끌어간 커다란 動因이 되었으며, 일본사상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퇴계는 『주자서절요』를 편집하면서 爲學, 讀書, 日用工夫에 관한 서신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으며, 이러한 서신들을 통해 敬, 主敬, 持敬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리고 天을 窮理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天에 접근하는 듯한 표현, 이를테면 知天, 知天命, 知天意, 知天德 등과 같은 용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였다. 퇴계의 이러한 사상적 경향은 조선시대 주자학의 심성론적 담론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강안지역의 학자들은 이러한 심성론적 성리학이 주도하는 시대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 시대의 주제인 우주론적 사색에 머물고 있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렇지만 학문의 다양성과 개방성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

64) 서근식, 「『斷時占』과 洛渚 李柱天의 ‘河圖洛書觀」, 『낙저 이주천 선생의 역학사상 학술대회 자료집』, 칠곡문화원, 2022, 99쪽 참조.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퇴계의 주자학 몰입과 후학들의 주자학 정통주의 고수는 학문적 상상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강명관’은 이 점을 지적하여 “1543년 『주자대전』의 간행과 1561년 퇴계의 『주자서절요』의 간행은 주자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했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은 『주자대전』이라는 마르지 않는 거대한 호수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호수에 갇힌 그들은 다른 사유와 학문을 볼 수 없었다. 나는 1543년 『주자대전』의 인쇄와 퇴계의 『주자서절요』가 학문적 상상력을 제한하는 재앙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sup>65)</sup>라고 하였다. 특히 17세기 이후 주자학 절대주의를 신봉하던 시대 분위기에서 『주자대전』과 『주자서절요』는 조선시대 지식인 사회에 있어서 텍스트 권력이 되면서 학문적 상상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측면이 있다. 그런 시대 분위기에서도 주자학에만 함몰되지 않았던 강안지역 학자들의 우주론적 사유와 개방적 학풍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강안지역의 학자들은 왜 우주론적 사유에 강한 흥취를 가졌던 것인가? 『주자대전』에 관해 본격적인 연구를 하지 못했던 시대의 학자들은 예외로 하고서라도, 퇴계와 율곡이 주도한 주자 성리학의 심성론적 논의가 풍미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장현광의 경우에도 왜 그토록 우주론적 사유를 강조한 것일까?

장현광은 불과 18세에 <宇宙要括帖>이라는 글을 지었는데, 그는 여기에서 “천지 사이에 태어났으면 마땅히 우주 간의 사업으로써 자기 임무를 삼아야 한다.”<sup>66)</sup>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구를 위해 지은 <行狀>에서 “선생은 어릴 적에 자기 재주를 넉넉히 여겨 우리 인간은 우주 간의 수많은 일에 있어서 자기 책임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 없으니, 일의 大小, 精粗와 무관하게 모든 영역의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다. 算數, 兵陣, 醫藥, 風水 등의 학설에 이르기까지 모두 반드시 그 이치를 궁구하여 알고자 하여 대략을 알았다.”<sup>67)</sup>라고 하였다.

65) 강명관,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 푸른역사, 2007, 99쪽.

66) 『旅軒集續集』 卷5, <標題要語>, “生於天地, 當以宇宙間事業爲己任.”

장현광은 그 자신과 정구의 학문 특색이 ‘우주 사업’이라 여겼던 것이다. 여기서 장현광은 ‘우주 간의 수많은 일’[宇宙間許多事]이라는 개념을 정구가 세상의 모든 일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남명 조식 또한 兵法, 醫經, 地理志 등 세상사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학문에 두루 밝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점을 정구가 조식의 <祭文>에서 명기하고 있다는<sup>68)</sup> 사실을 통해 남명학과 강안학의 학문적 연계 고리를 추정해볼 수 있다. 장현광의 글 여러 곳에서 산견되는 聖人의 이상에 대한 꿈과 우주 사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sup>69)</sup> 장현광은 우주의 일관된 하나의 원리를 찾고자 애썼으며, 그의 이러한 일원화의 욕구는 ‘道一元論的 經緯說’로 구체화되었다. 강안지역의 우주론적 학풍 또한 크게 보아 우주의 일관된 원리를 찾고, 이를 통해 세계 존재를 체계적으로 해명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 3. 明體適用의 학문 경향

강안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요청되는 작업은 바로 강안학의 내포적 의미를 검토하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과 관련하여 ‘김낙진’의 연구<sup>70)</sup>를 주목할 만하다. 그는 철학사상의 측면에서 한려학파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애썼다. 그는 우선 한려학파의 내부적 동일성을 찾기가 쉽지 않고, 학문적 주요 이론이나 관점에서 볼 때 한강과 여헌 두 사람 간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강과 여헌을 하나의 학파로 묶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

67) 『旅軒集』 卷13, <寒岡鄭先生行狀>, “先生幼時, 自優其才, 以爲吾人於宇宙間許多事, 無不以爲己責, 則事無大小精粗, 皆不可以不學焉. 至於算數兵陣醫藥風水等說, 亦必究知其理而得其大略矣.”

68) 『寒岡集』 卷11, <祭南冥曹先生文>, “至於詩文兵法醫經地志, 雖無不曲暢旁通.” 참조.

69) 김낙진, 「조선 중기 寒旅學派의 철학사상」, 『한국학논집』 40, 2010, 182~183쪽 참조.

70) 김낙진, 앞의 논문 참조.



견을 제시하였다. ‘김낙진’은 그러한 측면에서 ‘사상의 구조적 유사성’에 주목하여 ‘明體適用의 학문’과 ‘規模의 학문’에 대해 언급하였다.

선생(정구)은 明體適用의 학문을 하겠다고 스스로 기약하였다. 그러므로 출사 하면 군주를 堯舜과 같은 聖君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경륜하려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sup>71)</sup>

위 인용문은 장현광이 찬술한 <寒岡行狀>에 등장하는 말이다. 김낙진은 ‘명체적용의 학문’이라는 용어가 한강과 여헌 두 사람 간의 학문적 공통성을 확인하려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추제협’ 또한 이러한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강과 여헌 간의 ‘明體適用之學’을 비교하였다. 추제협은 명체적용의 학문은 한강의 경우에는 심학과 예학에 있어서 잘 드러나고, 여헌의 경우에는 역학과 성리학에 있어서 두드러진다고 하였다.<sup>72)</sup>

명체적용의 학문을 통해 한강과 여헌의 사상적 공통지반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분명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이 점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명체적용의 학문’이라는 말 자체가 한강과 여헌의 고유한 사상적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용어라기보다는 성리학 일반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鄭道傳과 權近을 위시한 수많은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명체적용의 학문’을 거론하였다.<sup>73)</sup> 그리고 위에서 인용한 <寒岡行狀>의 언급처럼 명체적용에서 ‘적용’의 의미가 출사하여 군주를 성군으로 만들고 세상을 잘 경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의미를 여헌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여헌은 여러 차례 관직의 제수가 있었으나 대부분 사면하였고, 외직에 봉직하기는 했으나 그것도 단기간에 그쳤다. 여헌의 일생은 강학 활동으로 일관했으

71) 『旅軒集』 卷13, <寒岡鄭先生行狀>, “先生以明體適用之學自期焉. 故出可以堯舜吾君, 經綸斯世者, 其志也.”

7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조선 중기의 낙중학, 여헌 장현광의 삶과 사상(총서4)』, 계명대학교출판부, 2017, 70~105쪽 所收.

73) 『三峯集』 卷4, <會試策>; 『陽村集』 卷12, <義興三軍府舍人所廳壁記> 참조.

며, 그리고 그의 저작에서 특별히 명체적용을 강조한 부분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명체적용을 여헌 자신의 학문 특징으로도 보고, 더 나아가 이것을 한강과 여헌 양인 간의 학문적 공통특징으로 규정짓는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明體適用’이라는 말은 송대 이전에는 그 용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은 胡瑗(安定)과 그 제자들의 학문을 평하는 말로 등장하면서 후대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宋元學案』의 <安定學案>에는 胡瑗의 제자가 스승의 학문을 ‘明體達用之學’으로 표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近思錄』 권10의 ‘註’에 “胡安定(胡瑗)이 학자를 가르칠 때 經術에 통달하고 시무를 익혀서 명체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의 門人들이 모두 稽古와 愛民을 일삼았으니, 계고는 爲政의 법이요 애민은 위정의 근본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청대 철학의 첫 단계[明末清初~康熙 말년(1720)]에서 등장하는 명나라 遺老들(黃宗羲, 顧炎武, 王夫之, 顏元 등)의 학문 특징을 요약하여 흔히 經世致用, 經世達用, 明體達用, 明體適用의 개념을 강조한다. 특히 關中지역의 학자인 李顥(1627~1705)은 유학이라는 학문체계가 본래부터 가진 명체적용의 관점을 강조하였다. 이때 명체적용의 의미는 ‘虛를 배격하고 實을 숭상’하는 實學, 實事, 實證, 實行, 實踐, 實事求是의 의미를 가진다. 명체적용의 개념은 경세치용의 내용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경세치용이라는 용어에 비해 유학의 본질과 기능적인 측면을 훨씬 더 잘 표현하고 있다. 이옹의 경세치용 사상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명체적용에 있다.<sup>74)</sup> 그래서 이옹은 “儒者의 학문은 명체적용의 학문이다. 秦漢시대 이래로 이러한 학문이 밝지 못해 순박한 자들은 章句에 얽매이고 俊爽한 자들은 헛된 詞章學에 빠졌다.”<sup>75)</sup>라고 하였다. 또

74) 정병석, 「李二曲의 儒學의 본질에 대한 반성적 논의와 明體適用」, 『동양철학연구』 59, 2009, 424쪽; 孫萌, 「從“悔過自新”到“明體適用”: 李二曲思想脈絡的邏輯梳理」,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4년4期 참조.

75) 『二曲集』 卷14, <周至問答>, “儒者之學, 明體適用之學也. 秦漢以來, 此學不明, 醇學者梏於章句, 俊爽者流於浮詞.”

한 그는 『大學』의 학문이 명체적용의 학문이라고 여겨 이를 강조하였다. 즉 “德을 밝히는 것은 體이고 明德을 밝히는 것은 明體이다. 백성을 친애하는 것은 用이고 明德을 천하에 밝히고 新民하는 것은 適用이다.”<sup>76)</sup> 라고 하면서 『대학』의 3강령으로써 명체적용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용은 명체적용의 서책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하나는 明體類의 서책이고 다른 하나는 適用類의 서책이다. 그런데 適用類의 서책에 속하는 것들은 대부분 窮理致知之 핵심을 말하고 있으며 『大學衍義』, 『衍義補』, 『文獻通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책들은 경제치용·典章制度·정치역사법률·農政·水利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정치나 민생과 같은 실무적인 사안을 담고 있다.<sup>77)</sup> 이용이 주장하는 明體適用의 사상은 宋·元·明 시기의 공허한 성리학을 넘어서서 오히려 先秦시대의 孔孟儒學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면에서 이용은 宋·明 이래의 경제치용의 실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할 수 있다.<sup>78)</sup>

그런데 특이하게도 조선 지식인 사회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명체적용을 강조해 온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의 성리학자들은 경학 자체를 명체적용의 학문이라 하였다. 그래서 六學의 敎道官을 두어 과목별로 학업을 습득시키도록 하였다. 經學은 明體適用之堂, 兵學은 先計制勝之堂, 律學은 欽恤之堂, 算學은 詳明之堂, 醫術은 濟生之堂, 射藝는 觀德堂이라 하여 공경·대부로부터 士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成童(15세) 이상으로 서울에 살면서 아직 벼슬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여기에 소속시켰다.<sup>79)</sup> 퇴계 이황 또한 修己에 관해서 따로 院規를 지어 詳說하였는데, 伊山院規의 冒頭에서 讀書之方을 말하는 속에 躬行心得과 明體適用

76) 『二曲集』 卷29, <四書反身錄>, “明德是體, 明明德是明體, 親民是用, 明明德於天下, 作親民是適用.”

77) 정병석, 「李二曲의 儒學의 본질에 대한 반성적 논의와 明體適用」, 『동양철학연구』 59, 2009, 417~418쪽 참조.

78) 정병석, 앞의 논문, 419쪽 참조.

79) 『陽村集』 卷12, <義興三軍府舍人所廳壁記>, “又置六學敎道官, 分科肄業, 其經學曰明體適用之堂, 兵學曰先計制勝之堂, 律學曰欽恤之堂, 算學曰詳明之堂, 醫曰濟生, 射曰觀德, 公卿大夫至於士之子弟, 成童以居京未仕者皆屬焉.” 참조.

을 修己의 요체로 지적하였다.<sup>80)</sup> 그리고 율곡 이이의 <諡狀>에서는 율곡의 학문적 특색이 명체적용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개 선생(李珣)은 이치에 밝고 의리에 정밀하며 함양한 공부가 깊었다. 이것이 내면에 충실하여 德行이 되고 외면에 발현하여 사업이 된 것으로 모두 明體適用의 학문이었으니, 실로 침잠하여 자기의 학문만 할 뿐 世務를 익히지 않는 학자에 비할 바가 아니다.<sup>81)</sup>

그리고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策問에서도 明體適用을 주제로 한 물음이 초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예를 들면 정도전의 문집에 수록된 <會試策>에서 “諸生들은 明體適用의 학문으로써 有司의 물음을 기다린 지 오래일 것이니 그 모두를 글로 나타내게 하라.”<sup>82)</sup>고 하였으며, 正祖의 문집인 『弘齋全書』에 수록된 <策問>에서도 “아! 자신의 수행에서는 성취하는 공이 적고 남에게 베푸는 데에는 구제할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 고인의 明體適用의 학문은 아마도 이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sup>83)</sup>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 명체적용의 강조점은 明體보다 適用에 있다. 明體는 기본으로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맥락상 明體의 최종 목적을 適用에서 확인하려는 것이다.<sup>84)</sup> 그리고 조선시대 유학에 있어서 초기에 경학 자체를 명체적용의 학문이라 하기도 하고, 퇴계의 경우처럼 修己의 요체로 파악하기도 했지만, 율곡의 사

80) 『退溪集』卷41, <伊山院規>,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原, 小學家禮爲門戶, 尊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 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文章科舉之業, 亦不可不爲之, 旁務博通, 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 常自激昂, 莫令墮墮註.”

81) 『月沙集』卷53, <栗谷先生諡狀>, “蓋其理明義精, 養深積盛, 充而爲德行, 發而爲事業, 皆明體適用之學, 實非沈潛自守, 不閑世務之比也.”

82) 『三峯集』卷4, <會試策>, “諸生以明體適用之學, 待有司之問久矣, 其悉著于篇.”

83) 『弘齋全書』卷50, <到記儒生春試>, “噫. 修於身而少將就之功, 施於人而負拯濟之責. 古人明體適用之學, 恐不如是.”

84) 정병석, 「李顥의 悔過自新說과 치료적 사유」, 『철학』 98, 2009, 4~5쪽 참조.

례에서 보듯이 이론적 논변보다는 구체적 적용과 실천을 강조하는 맥락이 강하다. 여현이 한강의 학문적 특징을 明體適用이라 보고, ‘출사하면 군주를 堯舜과 같은 聖君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경륜하려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도 도학적 근원을 갖춘 성리학자로서의 구체적 경륜과 실천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림파(도학과)의 학자들은 명체적용의 학문을 달성하기 위해 『小學』의 실천을 강조하였다.<sup>85)</sup> 『소학』을 강조하는 사림파의 학풍은 조선 초기 성리학의 시대적 분위기이기도 하다. 조선 초기 성리학은 窮理보다는 居敬,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하였다. 조선 초기 성리학이 궁리보다는 거경을 중시했던 경향은 고려 말 元나라를 통해 성리학이 수용될 때의 사회상황이 형이상학적·사변적 탐구에 정열을 쏟을 만큼 한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리학 중에서도 理氣論보다는 持敬을 중시한 元의 大儒 許衡(1209~1281)의 학풍이 첨가됨으로써 성리학 중에서도 거경 쪽이 麗末 사상계의 주류로 인정받게 되고 이후 조선 초기까지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86)</sup> 왜냐하면 조선 초기의 시대 상황이 새로운 국가와 사회 건설에 있어서 성리학의 이론적 측면보다는 실천적 면이 훨씬 유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허형은 주희가 편찬한 『소학』을 天地神明과 같이 믿고 부모처럼 공경했으며 그 제자들에게도 灑掃應對로써 進德의 기틀을 삼으라고 강조했다.<sup>87)</sup> 허형의 영향으로 麗末 유학자들 사이에서 『소학』이 널리 읽히게 된다. 그러던 차 조선왕조의 개창과 더불어 『소학』은 15세기 관학의 필수교과목이 되고 조선 성리학자들에 의해 더욱 중요성을 인정받는데, 특히 『소학』공부를 강조하는 실천 윤리적 특징은 金宏弼(1454~1504)을 위시한 사림파의 전통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된다. 김굉필은 평소 실천 위주의 유학 공부를 쌓으며 자칭 ‘小學童子’라고 말할 만큼 『소학』에 따라 마음가짐

85) 김낙진, 앞의 논문, 180쪽 참조.

86) 문철영, 「朝鮮初期의 新儒學 수용과 그 性格」, 『한국학보』 10권 3호, 1984, 32~33쪽 참조.

87) 『宋元學案』 卷90, <魯齋學案> 참조.

을 한결같이 하였다. 김굉필의 실천 위주의 道學精神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 남명 조식의 경우에도 『소학』의 가르침을 중시하였고, 율곡 이이 또한 『소학』을 평생토록 尊信하였다. 율곡은 『소학』 이외에도 실천을 강조하는 초학자들의 학습서를 많이 편집하였다.<sup>88)</sup>

앞장에서 살펴본 우주론적 사유는 明體適用에 있어서 明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明體適用이라는 개념은 우선적으로 근간을 밝히는 연구[우주사업]에 주력한 뒤에 이를 현실세계에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즉 명체와 적용은 상호보완적 균형 관계를 이룰 때에 궁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사상에 있어서 학문 정체성으로 ‘明體適用의 경향’을 주장할 때는 대부분 ‘명체’보다는 ‘적용’에 강조점을 두어 실천 지향의 의미와 실용적 博學風의 학문 경향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조선 초기 성리학의 실천적 학풍, 『소학』을 尊信하며 기본윤리에 충실하고자 했던 도학과의 학풍,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경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에 충실하고자 남명학의 학풍은 강안지역의 학문 정체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4. 自得的 학풍 경향

필자가 생각하기에 강안지역 성리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自得的 학풍’이다. ‘自得’의 공부를 강조하는 이러한 학풍 또한 초기 사림파(도학파)의 분위기를 많이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산 출신의 도학자인 朴英과 그 문인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박영은 김굉필의 제자인 정봉을 매개로 하여 ‘道學’에 나아가게 되는데, 정봉과 박영의 교학과정에 있어서 특히 『대학』과 心得의 공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88) 『月沙集』 卷53, <栗谷先生諡狀>, “平生尊信小學, 病其舊註訛舛, 詳略互異, 乃折衷群言, 擇精要刪繁複, 其有未盡者, 補以己意, 名曰小學集註. 四書五經, 口訣釋義, 多所更定, 小註諸說, 亦多取舍. 且恐初學不知向方, 爲著擊蒙要訣, 學規等書.” 참조.

그렇다면 자득을 강조하는 박영과 그 문인들의 학풍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이것은 도학의 한 특징으로 특히 선산지역의 초기 사림파인 일명 ‘도학과’의 전통에서 일관성 있게 확인된다. ‘도학’이라는 명칭은 통상 성리학, 정주학 등과 통용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도학과를 언급하면 정몽주를 ‘理學의 祖’라고 여기며, 이로부터 도학이 유래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선시대 도학의 출발은 趙光祖부터라는 인식이 강하다. 조광조는 사상가라기보다는 실천적 측면에서 도학의 순정성을 발휘한 성리학자였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sup>89)</sup> 그런데 도학의 순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학문적 배타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원래 도학은 ‘참된 도의 학문’이라는 의미의 일반 명사로서 사용되었으나, 점차 하나의 학과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다. 주희는 도학의 교조라 할 수 있는 二程 형제의 자료를 수집하고 문헌의 교정을 통해 자신의 학통을 공고히 했는데,<sup>90)</sup> 그러한 과정에서 그 내부 및 주위의 학자들과 이론적으로 지나치게 갈등의 상황을 초래했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 성리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도학과와 전개과정에 있어서 ‘김굉필-조광조’ 계열의 單線的인 시각은 문제가 있다. 즉 한국성리학의 도학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보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학문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위한 전제가 된다.

선산 출신으로서 초기 사림파의 학자인 정봉과 박영 또한 도학자로서의 인식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었다. 특히 박영의 제자들은 스스로 도학과와 계보에 속한다고 강하게 자부하였다. 박영의 시대는 몇 차례의 士禍로 인해 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기상이 빼어난 학자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특히 存心養性의 수행에 힘썼던 도학자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였다.<sup>91)</sup> 이 시기에 선산을 포함한 강안지역은 우리

89) 장운수, 「송당 박영의 도학적 학풍과 성리학적 사유」, 『한국학논집』 66, 2017, 401~402쪽 참조.

90) 쓰치다 겐지로, 『북송도학사』, 성현창 옮김, 예문서원, 2006, 38쪽 참조.

91) 장운수, 앞의 논문(2017), 402쪽 참조.

나라 도학과의 중심지역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흔적이 바로 이 지역에서 폭넓게 확인되는 ‘자득적 학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박영의 학풍은 體認과 自得의 공부가 특징인데, 이러한 학풍은 한 세대 이후의 학자인 남명 조식과 그 문인들에게서도 강하게 확인된다. 남명이 작고하자 史官은 그의 학풍에 대해 평하면서, “조식의 학문은 마음으로 도를 깨닫는 것을 중시하였고 致用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是非를 논하거나 변론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제자들에게 경서를 풀이해 준 적도 없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 구하여 스스로 터득하게 하였다.”<sup>92)</sup>라고 하였다. 즉 남명의 학문은 마음으로 도를 깨닫는 心得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영과 조식의 학풍은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그들 학파의 인적 교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영의 문인들과 조식 간에는 깊고 폭넓은 교유 관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조식이 직·간접적으로 박영과 그 문인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영의 제자 중에서도 특히 成運(1497~1579), 申季誠(1499~1562), 李恒(1499~1576), 崔應龍(1514~1580), 權應仁(1521~?) 등이 조식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處士로 널리 알려진 성운은 조식의 가장 친밀한 벗이었으며, 조식이 그를 찾아 직접 속리산의 처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신계성 또한 조식으로부터 깊이 인정받았다. 조식은 <處士申君墓表>를 지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우리 고향에 인재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申君이 첫째라네.”<sup>93)</sup>라고 하며 신계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일찍이 黃俊良(1517~1563)은 스승 이황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凝川(밀양)에 사는 처사 신계성이 있는데, 평상이 뚫어지도록 40여 년 동안 학문을 닦아 自得한 功이 많습니다. 남명이 그를 스승으로 삼는다고 하니, 조만간에 한번 찾아가 그 사람됨을 보려고 합니다.”<sup>94)</sup>라고 하였다.

92) 『朝鮮王朝實錄』, 宣祖修正實錄5年(1572년, 壬申年), 1월1일(戊午) 條.

93) 『南冥集』 卷2, <處士申君墓表>, “吾黨有人, 申君爲最.”

94) 『錦溪集外集』 卷7, <答退溪先生書>, “凝川有申處士季誠, 穿牀四十餘年, 多有自得之



박영과 그 문인들은 조식과 일치하는 성향이 많다. 우선, 박영과 문인들의 성정에 있어서 호방한 성품과 무인의 기질이 크게 부각된다. 이 점은 박영은 물론이고 그 제자 중에서도 특히 성운과 이항에게 있어서 강렬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모두 處士로서의 삶을 선호하였으며, 대장부의 기개를 강조했다. 또한 경전 중에서도 특히 『대학』을 강조하였으며 道學에 대한 자각심과 自得의 공부법을 중시했다. 이러한 특징은 조식에게서도 비슷하게 드러나는데, 이러한 유사성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득과 실천을 중시하는 박영과 조식의 학풍은 정구와 장현광의 사상을 통해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정구는 평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독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章句를 표절하여 문장을 짓거나 과거시험에 급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성현들의 경전을 읽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體認’이고 둘째는 ‘體察’이고 셋째는 ‘體驗’이고 넷째는 ‘體行’이다. 독서함에 있어서 이러한 네 가지 법을 따르지 않으면 글의 의미도 분명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에 어떤 유익함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따라한다고 질책하는 옛사람의 비판이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sup>95)</sup>라고 하였다. 책을 읽는 데에 필요한 네 가지 법 즉 ‘四體法’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한강의 실천과 자득의 학문관을 여실하게 드러내 주는 사례이다. 장현광 또한 “독서를 소중히 여기는 까닭이 다만 마음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함에 달려 있다.”<sup>96)</sup>라고 하였다. 장현광의 경우는 정구의 사례보다 더 뚜렷하게 자득성과 독창성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는 퇴계의 학설도 묵수하지 않았고 율곡의 이론에 대해서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을 만큼 학문적 자부심이 대단했다. 특히 理氣, 性情의 관계를 經緯로써 비

功. 建中嘗稱爲師, 早晚一叩, 亦欲見其爲人矣.”

95) 『寒岡言行錄』 卷1, <讀書>, “先生於學者曰, 所貴乎讀書者, 非爲剽竊章句, 以成文章取科第而已. 讀聖賢經傳, 其法有四, 一曰體認, 二曰體察, 三曰體驗, 四曰體行. 苟不用此四法, 其義亦無以通曉, 況於吾身心有何益焉. 古人鸚鵡之譏, 可不懼哉.”

96) 『旅軒集續集』 卷9, <敬慕錄(金傑)>, “所貴乎讀書者, 只在於心會而身踐爾.”

유하는 創見이라든가 理에 대한 自得處 등에서는 그의 학문이 바로 伊洛의 연원에 직결된다고 생각했고, 前人未發의 경지를 개척했다는 자부심까지 내비쳤다.<sup>97)</sup> 자득과 실천을 강조하는 강안지역의 학풍은 조선 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18세기 대구 출신의 유학자인 崔興遠(1705~1786)은 스스로의 학문경력을 언급하면서, “내가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의심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가만히 깊이 연구하고 오랫동안 玩味하게 되면 文理가 저절로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로는 스스로 생각해서 깨닫고자 하였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게 될까 그것이 두려웠다.”<sup>98)</sup>라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강안지역의 이러한 학풍이 박영과 조식의 영향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방면에 있어서 선행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다. ‘선산지역 사림과의 학풍-남명학의 학풍-강안지역의 학풍’이 지니는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이 대단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런 중에도 이들 지역 간에 학맥의 연계성을 짐작할만한 사례들이 간간히 발견된다. 몇 가지만 예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정구가 대곡 성운의 문하생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구는 1566년 혹은 1567년 무렵에 성운을 찾아갔다. <行狀>에서는 정구의 학문 연원을 평하여 말하기를, “退陶의 문하로 들어가 淵源의 학문을 들어 歸宿할 곳이 있음을 알았으며, 높은 風度を 남명에게서 傳習하고 고상한 취미를 대곡(성운)에게서 이어받아 기개와 지조를 資賴하고 도움받은 바가 또한 많았다.”<sup>99)</sup>라고 하였다. 즉 정구가 성운으로부터 고상한 취미를 이어받아 기개와 지조를 형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았

---

97) 이완재, 「여헌 장현광의 철학사상」, 『여헌 장현광의 학문과 사상』, 선주문화연구소, 1994, 300~301쪽 참조.

98) 『百弗庵言行錄』 卷1, <年譜>, ‘英宗大王元年乙巳(1726年) 3月’ 條 참조.

99) 『旅軒集』 卷13, <寒岡鄭先生行狀>, “登退陶之門, 聞淵源之學, 而知有所歸宿焉, 至其襲高風於南冥, 承雅趣於大谷, 有以資助其氣槩志操者, 其亦多矣.”

다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정구로 대표되는 강안지역의 학풍에 조식과 성운의 학풍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성운을 통한 박영 학풍의 영향도 내재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19세기 성주 출신의 성리학자인 李源祚(1792~1871)의 언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원조는 文敬忠(1494~1555)의 『墓誌銘』에서 “남명선생은……일찍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문경충의 학문은 송당(박영) 이후 처음으로 균자다운 사람임을 보여준다’ 하였다……문경충은 성실하게 篤學하고 연마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송당 박영과 일제 이항이 뜻을 둔 業이다.”라고 하였다.<sup>100)</sup>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주의해보아야 한다. 하나는 조식이 박영을 균자다운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조식이 박영과 이항으로 이어지는 송당학파의 특징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19세기 강안지역의 대표 학자인 이원조의 의식 속에 이러한 사실들이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강안지역의 대표적 사림세력의 하나인 星州都氏 문중의 학문 연원에서도 박영의 학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都聖俞(1571~1649)와 從弟인 都汝俞(1574~1640)가 모두 송당 박영의 제자인 權應仁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권응인은 송당의 문인 중에서도 가장 젊은 부류에 속하는데,<sup>101)</sup> 그는 퇴계와 남명을 從遊하기도 했다. 권응인은 비록 庶子 출신이기는 하지만 詩文에 뛰어났으며 조식이 특히 그를 높게 평가하였다. 도성유는 10세 무렵에 부친의 명에 따라 권응인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는데, 권응인이 작고하여 후사가 없게 되자 그의 遺稿를 손수 편집하여 그 문장과 행적을 후세에 전하였다.<sup>102)</sup> 도여유 또한 10세 무렵부터 권응인의 문하에 나아갔는데, 권응인은 그를 매우 훌륭한 그릇으로 여기고 사랑했

100) 『擬窩集』 卷18, <四美亭文公墓碣銘>, “南冥曹先生……嘗謂其門人曰, 文兼夫學問, 朴松堂後始見, 君子人也……墓墓乎篤學實好則又朴松堂, 李一齋之志業也.”

101) 『松堂集』 卷3, <文人錄> 참조.

102) 『養直集』 卷3, <家狀>, “十歲, 以親命受學于松溪權應仁……松溪歿而無嗣續, 其所著詩文遺藁, 手自編輯, 使其文章行蹟, 不泯於後.”

다.103) 도여유는 평소 자득의 공부를 강조하여 말하기를 “학문은 자득하기를 귀하게 여기니, 자득하면 옛 사람들의 千言萬語가 황홀하게 친히 듣는 듯하여 나의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여서, 이른바 ‘귀로 듣고 입으로만 말하는 학문’[口耳之學]일 따름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104)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자득과 실천을 중시하는 선산지역 박영의 학풍과 조식의 학풍이 강안지역의 학자들에게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 Ⅲ. 江岸學의 正名 문제

『荀子』의 <正名>편에는 이름 붙이기와 관련하여 탁월한 이론이 수록되어 있다. ‘江岸學’이라는 이름의 타당성을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름에는 본디부터 고정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 거기에 의미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대상에 붙여 부르도록 명하고, 이 約定이 대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일컬어 이름과 대상이 서로 맞는 이름이라고 부른다……이름에는 본디부터 어울리는 좋은 것이 있는데, 쉬우면서도 거슬리지 않으면 이를 일컬어 ‘좋은 이름’(善名)이라 한다.105)

『순자』의 입장에서 말해 보면, 이름에는 본디부터 고정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강안학’이라는 명칭 또한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 다만 그 이름에는 반드시 의미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는 일이 필요하고, 이

---

103) 『小山集』 卷13, <鋤齋都公行狀>, “及就傳, 受學于權松溪應仁, 端居誦讀, 未嘗與同隊遊戲, 松溪甚器愛之.”

104) 『小山集』 卷13, <鋤齋都公行狀>, “學貴自得, 自得則古人千言萬語, 悅若親聞而爲我有矣, 否則書自書我自我, 所謂口耳之學, 何益之有.”

105) 『荀子』 第22, <正名>, “名無固宜, 約之以命, 約定俗成謂之宜……名有固善, 徑易而不拂, 謂之善名.”

러한 약정이 대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즉 강안학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내포적 의미와 외연의 범위를 크게 무리 없는 수준에서 약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안학이라는 이름이 거슬리지 않게 통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설득력 있는 논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關學’과 관련한 현대 중국의 학술논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關學’이란 宋代 理學의 주요 학파를 일컫는 ‘濂洛關閩’의 하나로서 통상 關中지역(현재의 중국 陝西省 일대)의 理學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關學의 正名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중국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sup>106)</sup> 즉 현대 중국의 철학자들은 關學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1950년대에 ‘侯外廬’가 主編한 『中國思想通史』에서는 北宋이 망한 이후 관학이 점차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sup>107)</sup> 이러한 주장은 1990년대에까지 지속된다. 예를 들면 ‘龔杰’은 張載를 기준으로 할 때 관학은 위로는 師承이 없고, 아래로는 繼傳이 없다고 하였다.<sup>108)</sup> 그렇지만 이와 다른 주장이 1980년대부터 등장한다. ‘陳俊民’은 관학이 장재가 창립한 중요한 학파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학문 전통은 宋元明清의 시대를 거치며 관중(섬서성)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다고 하였다.<sup>109)</sup> 그리고 최근에 와서 ‘林樂昌’은 관학의 역사적인 전개와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였다.<sup>110)</sup> 우선 그는 ‘관학’이라는 개념을 ‘시간’, ‘공간’, ‘學傳’이라는 3가지 시각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up>111)</sup> 그리고 관학의 학술적 특징으로 ‘以氣爲本’과 ‘以禮爲教’를 주장하며,<sup>112)</sup> 관학 학풍의

106) 주로 陝西省 내의 陝西師範大學, 西北大學, 寶鷄文理學院에 소속된 학자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107) 侯外廬 主編, 『中國思想通史(4卷上)』, 人民出版社, 1959, 제11장 참조.

108) 龔杰, 『張載評傳』, 南京大學出版社, 1996, 206쪽 참조.

109) 陳俊民, 「張載哲學思想及關學學派」, 人民出版社, 1986, 24쪽, 28쪽 참조.

110) 林樂昌, 『張載理學與文獻探研』, 人民出版社, 2016, 153~155쪽 참조.

111) 林樂昌, 『張載理學與文獻探研』, 157~161쪽 참조.

112) 林樂昌, 『張載理學與文獻探研』, 155쪽 참조.

기본특질로서 (1)道學과 政術을 두 가지로 보지 않고, (2)‘正心求益’의 爲學 방법을 사용하며, (3)‘深沉方有造’의 道學志趣를 지니고 있다 하였다.<sup>113)</sup> 최근 관학의 正名 문제를 언급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관학의 역사적 지속성 이론을 지지한다. 이 방면에서 주목할만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젊은 학자 ‘張波’는 관학의 일관된 宗風으로서 (1)躬行尙實, (2)自得造道, (3)崇正批邪, (4)崇尙志節을 거론한다.<sup>114)</sup> 또한 張波는 후대 관중지역의 학자들이 程朱理學과 陸王心學을 융합적으로 취하면서 동시에 經世致用 경향의 실학적인 해석의 경로를 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청나라 초기의 학자인 李顥이 明體適用의 학문을 통해 관학의 사상적 道脈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sup>115)</sup> 그리고 張波는 關學史 연구와 관련하여 시대별 특색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는데, 이 점은 관학의 내포적 의미를 명료히 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關學의 사례에 비추어 江岸學의 正名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강안학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리’를 위주로 할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물일 경우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할 것이며, 지리인 경우에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된다. 그런데 중심 인물과 지리적 범위를 논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강안지역의 학자들이 스스로 차별적인 학풍의 정체성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일부 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학문 전통이 후대에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되었는가 하는 점도 유의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우선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강안지역 학자들이 스스로 이 지역의 학풍이 갖는 ‘차별성’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고 강안지역 성리학의 중심인물인 한강과 여헌 양인 간에도 학파로서의 통일성과 정체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그들의 문인과

113) 林樂昌, 『張載理學與文獻探研』, 215~221쪽 참조.

114) 張波, 『關學宗師: 張載哲學的思想光輝』, 陝西人民出版社, 2014, 121~129쪽 참조.

115) 張波, 米文科, 『關學研究探微』,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28~29쪽 참조.

후손들 간에 과연 여현이 한강의 제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을 두고 오랜 기간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적어도 이 점에서 관학에 대한 논의는 강안학의 논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중지역의 학자들은 대부분 관학자로서의 자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關學編』 집성이다. 이 책은 明代 西安 출신의 학자인 馮從吾(1557~1627)가 1606년(萬曆 34)에 완성한 관학의 계보를 밝힌 서책이다. 이 자료는 그동안 중국학계에서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한국학계에는 거의 소개된 바가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관학의 구체적인 면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료이다. 관학이라는 명칭은 張載와 그 제자들의 주된 활동지역이 關中(섬서성)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 실체에 대해서는 馮從吾의 『關學編』 집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馮從吾의 『關學編』 작업은 그의 사후에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청나라 말기까지 지속적인 보완과 추가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자료를 총합하여 張驥는 1921년(民國 辛酉)에 陝西教育圖書社에서 『關學宗傳』을 편찬하였다. 이 책에는 張載로부터 시작하여 民國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273명에 이르는 관학파의 학자들을 대거 수록하였다.<sup>116)</sup>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關學의 면모를 구체화하고, 關學派의 지형도를 그려내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안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학파적 지형도를 어떻게 그려내야 하겠는가?

첫째, 인물을 중심으로 강안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강안학의 중심 인물은 당연히 한강 정구와 여현 장현광이다. 일찍이 李植(1584~1647)은 당시 영남지역에서 한강과 여현의 비중을 강조하며 말하기를, “영남에 학자다운 인물이 없으나 오직 한강만이 完人이며 여현이 그 高弟인데 여현이 죽은 후에는 영남의 학문이 그에서 그치고 말았다.”<sup>117)</sup>라고 하였다. 한강과 여현 이후에 ‘영남의 학문이 그치고 말았다’

116) 『關學宗傳』에서는 張載로부터 직접 수학한 門人이라 하더라도 關中 이외 지역 출신 학자들은 등재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만큼 두 사람의 사상사적 지위는 확고하다. 학파로는 한강의 계열이 우세하고, 학문 특색으로는 여헌의 학풍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문제는 강안학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사상적 특색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또한 강안지역의 후대 학자들에게서 일관된 학문 전통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지역을 중심으로 강안학의 지형도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關學은 關中지역의 학문을 의미한다. 關中이라는 지역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지금의 陝西省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이라는 점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다. 그렇지만 江岸이라는 명칭에 해당하는 구체적 지역은 모호하기 그지없다. 그로 인해 학자에 따라 강안을 대체하는 다양한 명칭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어느 것도 쉬우면서도 거슬리지 않는 ‘좋은 이름’[善名]이라 할 수 있는 용어가 없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크게 무리 없는 約定的 定義를 도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셋째, 과거 사실의 복원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강안학의 학문적 특징을 구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안학의 특징은 주류와 비주류, 정통성과 융합성, 이론적 순수사유와 자득적 실천성, 이원적 이론의 경향과 일원적 이론의 경향, 심성론적 사유와 우주론적 사유의 대립 구도에 있어서 비주류, 융합성, 자득적 실천성, 도학적 일원론, 우주론적 사유의 특색을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관학(장재 기학)과 남명학에서도 대부분 유사한 사상 구도가 확인된다.

‘강안학’을 정초하려는 학자들은 주로 江右의 남명학(파)과 江左의 퇴계학(파)의 사이에서 제3지대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강안지역의 학자들은 1728년 戊申亂 이후 외형상 정치적 당파로서는 대부분 영남 남인에 속하게 되고, 학파로서는 퇴계학파의 계열에 합류하게 된다. 그렇지만 내면적 학문특성과 기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명학파의 분위기가 강하다. 강안지역의 학자들은 퇴계와 남명이 직접 강학하던 시기에는 큰 부담 없이 兩門을 동시에 출입하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오히려

---

117) 『澤堂集別集』 卷15, <示兒代筆>.



퇴계보다 남명의 학맥이 우세한 형국이었다.<sup>118)</sup> 특히 영남의 左道와 右道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강안지역은 대부분 右道와의 관련성이 많다. 仁祖年間 量田을 시행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 영남 좌도의 巨邑으로 안동 이외에 경주를 언급하였고, 영남 우도의 大邑으로 진주 이외에 상주, 성산(성주), 선산, 고령을 거론하였다.<sup>119)</sup> 경남지역인 진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강안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성주, 선산, 고령과 심지어 상주까지도 영남 우도에 분류하였다. 그리고 사림의 초기 학맥에서 ‘길재-김숙자-김종직’은 모두 선산 출신이며, 김종직을 계승한 김굉필은 현풍, 정여창은 함양이었다. 이들 지역도 모두 우도에 속한다.<sup>120)</sup> 우도의 이러한 지리적 연고성이 ‘초기 사림과-남명학-강안학’의 유사한 학풍을 형성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자학의 純正性에 몰두했던 영남 좌도(특히 경북 북부지역)의 퇴계학과를 제외하고, 영남 우도, 기호지역(경기와 충청), 호남지역의 성리학까지 일련의 학문적 유사성과 융합의 연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6세기 조선 사림을 대표하는 3處士로서 경기지역의 徐敬德, 호남지역의 李恒, 충청지역의 成運을 거론한다. 이들은 영남 우도의 조식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사한 학풍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퇴계 이황은 평소 이들 처사형의 학자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서경덕과 박영의 학문에 대해 언급하면서, “화담(서경덕)은 자질이 소박한 것 같으나 실상은 허망하고, 학문이 고상한 것 같으나 실상은 잡박하다. 또 그가 理氣를 논한 부분은 들쭉날쭉 연달아 꼬여 전혀 분명하지 않다……송당(박영)의 理學도 의심할 만한 곳이 있는데, 그 문인들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추존하는 것 같다.”<sup>121)</sup>라고 하였다. ‘퇴계학과 대 비-퇴계학과’의 대립이라는 조

118) 김성윤, 앞의 논문(2006b), 161쪽 참조.

119) 『朝鮮王朝實錄』, 仁祖13年(1635年, 乙亥年), 3月19日(己巳), ‘경상 좌·우도의 量田을 다시 하게 하다’ 참조.

120) 정만조, 「17세기초 영남학파의 분기와 장현광의 학적 위상」, 『여헌 장현광 연구』, 태학사, 2009, 58쪽 참조.

121) 『退溪集』 卷14, <答南時甫>, “花潭其質似朴而實誕, 其學似高而實駁, 其論理氣處,

선시대 사상계의 이러한 형세는 조선시대 말기 유학에 이르러서도 비슷하게 확인된다. 당시 지역 유학계를 주도하던 경기지역의 李恒老(1792~1868), 호남지역의 奇正鎭(1798~1879), 강안지역의 李震相(1818~1886)이 당파와 출신지역의 차이를 넘어서 일원론적 경향의 유사한 학풍을 보여주며, 일정 부분 연대 의식까지 내비친다. 그렇지만 金誠一(1538~1593)의 후손으로서 안동에 거처하며 퇴계학통의 嫡傳을 자부하던 金興洛(1827~1899)의 경우는 이들과는 분명히 다른 이원론적 성리이론을 굳건하게 견지하였다.

그렇다면 경북북부지역의 퇴계학과를 제외하고 여타지역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사상적 유대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정원재’의 주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는 신유학의 계보를 제시한 기존의 학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론인 理學, 心學, 氣學의 3과설을 대신하여 心理氣學, 心理學, 心氣學을 주장하였다. 즉 존재론의 차원에서 구분한 전자의 명칭보다는 심성론의 관점에서 분류한 후자의 명칭이 훨씬 더 계보를 나누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心理氣學은 이원론적 입장이고, 心理學과 心氣學은 비록 理와 氣라는 차별성은 가지지만 일원화의 논리구조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다.<sup>122)</sup> 즉 우리가 앞서 살핀 강안학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경향의 학문으로 주목했던 사례는 모두 일원화의 논리구조를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퇴계학은 기본적으로 주희의 이원론적 관점을 철저하게 계승하였다.

일원화와 이원화의 논리구조로써 중국사상사를 분류하는 시도는 현대 신유학자인 牟宗三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맹자 계열의 사상에 장재와 육상산 등을 분류하고 이를 일원화 논리의 사상가라 칭하고 이 계보를 중국사상의 주류로 이해하였다.<sup>123)</sup> 그리고 ‘황갑연’은 맹자와 왕양명 계열의 사상을 특징화하여 狂者의 기상이라 칭하고, 그 구체적인

出入連累, 全不分曉……松堂之理學, 亦有可疑處, 而其門人推尊, 似恐過實.”

122) 정원재, 「신유학 3과의 이름과 대안의 모색」, 『철학』 127, 2016, 1쪽 참조.

123) 牟宗三, 『心體與性體(一冊)』, 正中書局, 1969, 45~53쪽 참조.

특징으로 자득 정신, 결단성, 큰 기상,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거론하였다.<sup>124)</sup> 張載의 氣學, 陸王의 心學을 맹자의 계보를 잇는 주류사상으로 보고, 이러한 일원론적 사상의 경향을 자득성, 결단성, 시대정신으로 읽어내는 독해법은 분명 강안학의 正名에 골몰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이제 지역학으로서 강안학을 그려내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 확립은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학은 구체성에 바탕을 두면서도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학을 의도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학과적 색채가 강렬하지는 않지만 타 문화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준 강안지역의 유학을 미래지향적 학문의 대안으로 주목하게 된다.

※ 이 논문은 2022년 10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124) 황갑연, 「양명학의 본질-자득」, 『이 시대의 한국양명학』, 충남대 유학연구소·한국양명학회 연합학술대회자료집, 2022, 45쪽 참조.

참고문헌

『荀子』

程顥程頤, 『河南程氏遺書』

李顥, 『二曲集』

黃宗羲(外), 『宋元學案』

『朝鮮王朝實錄』

權近, 『陽村集』

金魯敬, 『西堂遺稿』

金就文, 『久庵集』

都聖俞, 『養直集』

李光靖, 『小山集』

李東汲, 『晚覺齋集』

李東沆, 『遲庵集』

李植, 『澤堂集別集』

李源祚, 『凝窩集』

李廷龜, 『月沙集』

李種杞, 『晚求集』

李玄逸, 『葛庵集』

李滉, 『退溪集』

朴英, 『松堂集』

朴而章, 『龍潭集』

徐思遠, 『樂齋年譜』

徐思遠, 『樂齋集』

孫處訥, 『慕堂日記』

宋時烈, 『宋子大全』

張顯光, 『旅軒集』

張顯光, 『旅軒集續集』

鄭述, 『寒岡言行錄』

鄭道傳, 『三峯集』

正祖, 『弘齋全書』

崔興遠, 『百弗庵言行錄』

黃俊良, 『錦溪集外集』

강명관,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 푸른역사, 200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조선 중기의 낙중학, 여헌 장현광의 삶과 사상(총서4)』, 계명대학교출판부, 2017.

고령군지편찬위원회, 『高靈郡誌(사상과 민속)』 卷3, 고령군, 2022.

김종문·장윤수, 『한국전통철학사상』, 소강출판사, 1997.

쓰치다 겐지로, 『북송도학사』, 성현창 옮김, 예문서원, 2006.

우인수, 『영천 훈수 정만양 증가』, 경북대학교출판부, 2021.

이동영, 『조선조 嶺南詩歌의 연구』,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초판은 형설출판사에서 1984년 간행]

이동훈, 『學脈에 따른 高靈의 유학자』, 고령문화원, 2019.

이승환, 『횡설수설』, 휴머니스트, 2012.

張君勳, 『한유에서 주희까지』, 김용삼·장윤수 옮김, 형설출판사, 1991.

장윤수, 『대구권 성리학의 지형도』, 심산출판사, 2021.

장윤수, 『정주철학원론』, 이론과 실천, 1992.

龔杰, 『張載評傳』, 南京大學出版社, 1996.

牟宗三, 『心體與性體(一冊)』, 正中書局, 1969.

林樂昌, 『張載理學與文獻探研』, 人民出版社, 2016.

張波, 『關學宗師: 張載哲學的思想光輝』, 陝西人民出版社, 2014.

張波, 米文科, 『關學研究探微』,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陳俊民, 『張載哲學思想及關學學派』, 人民出版社, 1986.

侯外廬 主編, 『中國思想通史(4卷上)』, 人民出版社, 1959.

권상우, 「文辨至論에서의 성리학적 이론구조」, 『四末軒 張福樞의 經學思想과 性理思想』,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발표집, 2009.

김낙진, 「조선 중기 寒旅學派의 철학사상」, 『한국학논집』 40, 2010.

- 김성운, 「영남의 유교문화권과 지역학과의 전개」, 『조선시대사학보』 37, 2006(a).
- 김성운, 「조선시대 성주권 유림층의 동향」, 『역사와 경계』 59, 2006(b).
- 문철영, 「朝鮮初期의 新儒學 수용과 그 性格」, 『한국학보』 10권3호, 1984.
- 박병련, 「광해군 復立 모의」 사건으로 본 강안지역 남명학과, 『남명학연구논총』 11, 2002.
- 서근식, 『斷時占』과 洛渚 李柱天의 ‘河圖洛書’觀, 『낙저 이주천 선생의 역학사상 학술대회 자료집』, 칠곡문화원, 2022.
- 설석규, 「강안학과의 실학적 풍모를 지킨 徵士-西溪 金聘壽」, 『선비문화』 12, 2008.
- 이완재, 「여헌 장현광의 철학사상」, 『여헌 장현광의 학문과 사상』, 선주문화연구소, 1994.
- 이우봉, 「낙저유교와 시대정신」, 『낙저 이주천 선생의 역학사상 학술대회 자료집』, 칠곡문화원, 2022.
- 장운수, 「낙중학의 성과와 과제」, 『한국학논집』 85, 2021.
- 장운수, 「송대 박영의 도학적 학풍과 성리학적 사유」, 『한국학논집』 66, 2017.
- 정만조, 「17세기초 영남학과의 분기와 장현광의 학적 위상」, 『여헌 장현광 연구』, 태학사, 2009.
- 정병석, 「李顥의 悔過自新說과 치료적 사유」, 『철학』 98, 2009.
- 정병석, 「李二曲의 儒學의 본질에 대한 반성적 논의와 明體適用」, 『동양철학연구』 59, 2009.
- 정우락, 「江岸學과 高靈 儒學에 대한 試論」, 『퇴계학과 한국문화』 43, 2008.
- 정원재, 「신유학 3파의 이름과 대안의 모색」, 『철학』 127, 2016.
- 최석기, 「四未軒 張福樞의 학술과 그 의미」, 『四未軒 張福樞의 經學思想과 性理思想』,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발표집, 2009.
- 황갑연, 「양명학의 본질-자득」, 『이 시대의 한국양명학』, 충남대 유학연구소한국양명학회 연합학술대회자료집, 2022.

Abstract

## A Study on the Academic Identity and Several Problems of Ganganhak

Jang, Yun-su

This article established the academic identity of the tentatively named 'Ganganhak'(the study of the area near the Nakdonggang River) and reviewed several problems accordingly. I noted four points as the academic identity of Ganganhak. First, trends in convergence and openness, second, trends in cosmological thinking, third, academic trends in clarifying the fundamentals and pursuing practicality, and fourth, trends in learning to enlighten oneself. First of all, it was made clear that the concept that can be accepted as an academic identity of Ganganhak without difficulty is 'openness' rather than 'conversity'. And it was explained that the phenomenon in which the cosmological learning style was remarkably revealed in this region was due to the intention of finding a consistent principle of the universe and systematically explaining the existence of the world through it. In addition, he suggested that the academic style that emphasizes self-awakening study can be understood as an academic tradition that was intended to be faithful to the original ideology of Neo-Confucianism rather than a non-mainstream feature of the Yeongnam School in the 3rd region. In this article, I explained that the academic trend of Ganganhak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self-fulfilling practicality, philosophical monism, and cosmological thinking. These characteristics are closer to the academic trend of

Zhang Zai than to the academic trend of Zhu Xi, and to the academic trend of Nammyeonghak rather than Toegye.

**keywords :**

Ganganhak, Openness, Clarifying the fundamentals and pursuing practicality, Cosmological thinking, Enlighten oneself, Hanryeo school



## 낙동강 강안 지역의 사부류 편찬과 역사학적 의의

박인호\*

- I. 머리말
- II. 강안 지역의 사부 편찬물
- III. 강안 지역 사부 편찬물의 특징
  - 1. 연표형, 사략형 역사서의 편찬
  - 2. 강목과 춘추의 이념적 역사서의 편찬
  - 3. 선현, 명신 인물서와 함께 증인 인물서의 편찬
  - 4. 문물과 제도를 다룬 유서의 편찬
  - 5. 사찬 읍지의 편찬
  - 6. 일기류의 광범위한 편찬
  - 7. 빈약한 정치서의 편찬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강안 지역의 학문적 동향을 정리하려는 대주제 속에서 역사학의 동향을 살펴보려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다. 북쪽의 상주에서 남쪽의 의령 지역에서 나온 사부 편찬물을 지역별로 정리하여 그 편찬 양상을 정리함으로써 낙동강 강안 지역 역사학의 특징을 도출해 보았다.

낙동강 강안 지역의 역사학 분야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의 흐름을 간략하게 이해하기 위한 연표형, 사략형 사서가 다수 편찬되었다. 유교적 도덕주의 속에서 역사를 이념적으로 이해하려는 강목과 춘추 계열의 역사서가 다수 편찬되었다. 지역의 선현, 명신을

\* 금오공대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 inhopark@kumoh.ac.kr

추승하기 위한 인물서와 함께 새롭게 성장하는 중인들의 인물서가 다수 편찬되어 사림세력과 중인세력이 치열하게 갈등하는 현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선진 문물에 대한 관심에서 문물과 제도를 다룬 유서의 편찬이 활발하였다. 지역적 특색에 대한 관심은 광범위한 사찬 읍지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이 지역에서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정치적 이유에서나 혹은 조선 후기 정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일기류가 광범위하게 편찬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치 역사서의 편찬은 빈약하였다.

요컨대 강안 지역 역사서의 편찬에서는 理念性, 受容性, 融合性이 강하게 나타나며, 사회적 갈등으로 도덕주의와 현실주의가 첨예하게 부딪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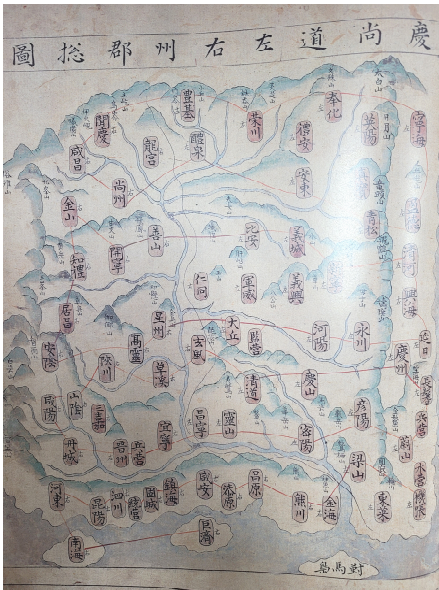
◆ 주제어

강안 지역, 유성룡, 정구, 장현광, 김면, 박재우

## I. 머리말

이 글은 낙동강 강안 지역의 학문적 동향을 정리하려는 대주제 속에서 역사학의 동향을 살펴보려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다. 역사학의 동향을 살펴보려면 대상이 되는 사료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라고 한다면 전통시대의 史部 편찬물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강안 지역에서 나온 사부 편찬물을 지역별로 정리한 다음 그 편찬양상을 정리함으로써 역사학의 특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강안 지역은 글자 그대로 낙동강 유역 지역을 의미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동여비고』에 수록된 「경상도좌우주군총도」<sup>1)</sup>로, 낙동강 유역의 여러 지역을 볼 수 있도록 회화식으로 그린 것이다.



<그림 1> 「경상도좌우주군총도」(부분)

그런데 이 그림으로 파악하는 낙동강의 좌우는 결과적으로는 동부의 영해, 영덕, 청하, 흥해, 영일, 장기 및 서부의 거창, 안음, 하동, 곤양, 사천 등 극동과 극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포함된다. 그 경우 ‘영남 지역’이라는 말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게다가 ‘江岸學’의 대상으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낙동강 유역의 모든 역사학적 성과를 다루고자 한다면 이 역시 너무 범위가 넓어져 그 독자성이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강안학의 범주로 북쪽의 상주에서 남쪽의 의령 지역

1) 『동여비고』, 「경상도좌우주군총도」, 경북대출판부, 1998.

에서 나온 사부 편찬물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관찬 읍지 등 지리류나 관제 등 정법류까지 다루려고 하였으나 대상이 너무 넓어지는 문제점이 생겨 경중에 따라 가감하였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경상좌도의 퇴계 이황과 경상우도의 남명 조식과는 구별되는 상주의 서애 유성룡, 성주의 한강 정구, 인동의 여헌 장현광, 고령의 송암 김면, 의령의 망우당 곽재우로 대표되는 학자와 그 후학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대상 지역을 정하고 보니 결과적으로 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이들은 낙동강을 끼고 성장하면서 독특한 학문적 독립성과 개별성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퇴계학과 남명학의 영남 양대 학맥에 일정하게 영향 관계를 주고받고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양대 학맥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주의 서애학파는 안동의 학봉학파와는 달리 관료 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학문적 자세에도 자유로운 기풍이 있었다. 성주의 한강학파는 기호의 후학들이 실학을 발전시켜 나갔다. 인동의 여헌학파는 퇴계학파로부터 독립을 주창하여 독자적 학문세계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고령의 송암학파는 영남 서부 지역에서 독특한 학문적 세계를 이루었으며, 특히 金沔은 趙穆, 成渾, 鄭述 등과 함께 遺逸로 천거될 정도로 그 위상이 남달랐다. 의령의 망우당학파는 주로 의병운동을 통해 지역의 향권을 장악하였다. 송암학파와 망우당학파는 퇴계학파와 남명학파와 서로 연결고리를 지니면서도 독립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퇴계학파나 남명학파에 비해 이들은 학파의 범위가 축소되고 학문적 자산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기반으로 하였던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 학문적 유산이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동일한 지역적 기반을 가진 역사 편찬물을 지역 단위로 묶어서 정리한다면 이들 학파의 餘薰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상주에서 의령에 이르는 지역에서 나온 사부 편찬물이 가지는 역사학적 의의를 드러내고자 한다. 설정된 연구 대상 지역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낙중학, 혹은 강안학의 범주와 비교하면 자의적인 면이 없지 않다. 다만 이러한 구분을 통해 영남 지역의 학문적 다양성과 강안

지역의 학문적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강안 지역의 사부 편찬물

강안 지역의 역사학 분야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먼저 해당 지역에서 나온 사료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전에 영남 지역에서 나온 史部 자료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리한 적이 있다. 사부 자료는 크게 보면 역사학의 기본 사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시 논문에서 다루었던 책들이 여기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영남 지역에서 나온 사부 자료 가운데 사부 편년류로는 18종, 사부 전기류로는 62종, 사부 잡사류 56종, 사부 지리류 80종, 사부 정법류 11종이 거론되었다.<sup>2)</sup> 그 이외에는 經部나 集部 가운데 역사 사료로 이용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런데 낙동강의 수로 가운데 교통로로 활용되었던 수로를 정리하면 대체로 문경과 봉화에서 시작하여 함창현, 낙동(상주), 월파정(선산), 해평(선산), 약목(인동), 팔거(성주), 동원(성주), 하빈(대구), 화원(성주), 가리(성주), 쌍산(현풍), 사막(초계), 마수원(창녕), 지산(의령), 불당원(칠원), 요광(영산), 주물연(창원), 수산(밀양), 요도저(김해), 용당(양산), 감동포(동래), 부산포로 이어진다.<sup>3)</sup>

이 가운데 상주에서 의령에 이르기까지 인근 지역에서 나온 사부 편찬물을 모으면 다음 표와 같다. 군현별로 제시된 책은 모두 강안 지역 역사학의 성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안동의 편찬물은 낙동강의 뱃길이 이어지므로 강안학의 성과로 보아야 좋을 것이나 퇴계학과 계승관계가 있을 경우 가능하면 제외하였다. 낙동강 하류의 김해, 진주도 마찬가지로 남명학과 계승관계가 있을 경우 가능하면 제외하였다.

2) 박인호, 「영남 지역 사부 고문헌 자료의 번역 현황과 과제」, 『영남학』 18, 2010.

3) 신경준, 『도로고』 권4, 「사행지로」, <수로>, 규장각; 『여암전서』, 경인문화사, 1976.

<표 1> 강안 지역의 군현별 사부 편찬물

지역	지역	편찬물(편찬자 생년순)
상류	봉화(춘양)	『史補略』·『歷代史選』(李時善, 1625~1715), 『東史評註』(姜再恒, 1689~1756)
	안동(예안)	『海東文獻總錄』(金焦, 1597~1638), 『中國古今歷代沿革地圖』(權架, 1672~1749)
	예천(용궁)	『大東韻府群玉』(權文海, 1534~1591), 『壬辰記錄』·『龍灣間見錄』·『龍蛇雜錄』(鄭琢, 1526~1605), 『浩齋辰巳錄』(郭守智, 1555~1598), 『壬辰遭變事蹟』(鄭榮邦, 1577~1650), 『海東雜錄』(權龜, 1589~1671), 『襄陽耆舊錄』(金麗昱·張大興 外, 1790), 『東國通志』·『勉學類鑑』(朴周鍾, 1813~1887), 『東國十志』(襄象鉉, 1814~1884), 『歷代史要』·『文蔭譜』·『縉紳八世譜』·『國朝典故』(朴周大, 1836~1912), 『著上日月』(咸陽朴氏家, 1834~1950), 『東書彙纂』·『譜學通編』(金庭植, 1862~1928)
	상주(함창)	『壬辰日記』·『辰巳錄』(趙靖, 1551~1629), 『可畦先生華日記』·『辰巳日記』·『公山日記』(趙翊, 1556~1613), 『商山誌』(李垞, 1560~1635), 『壬辰錄』(柳珍, 1582~1635), 『兄弟急難圖』(李增祿, 1652), 『看史剩語』(李渠, 1613~1654), 『昭代名臣行蹟』(鄭道應, 1618~1667), 『彙纂麗史』·『東國通鑑提綱』(洪汝河, 1620~1674), 『清臺日記』·『商山誌』·『鶴城誌』(權相一, 1679~1759), 『尙山吏蹟』(尙州鄉吏, 18세기), 『掾曹龜鑑』(李震興, 1731~1777), 『掾曹龜鑑續篇』(李明九, 1799~1874)
중류	의성	『征蠻錄』·『解頤錄』(李擢英, 1541~1610), 『亂蹟彙撰』(申伃, 1550~1614), 『朝天錄』(李民歲, 1570~1629), 『建州見聞錄』(李民賓, 1573~1649), 『倡義錄』(申適道, 1574~1663), 『仙槎誌』(申悅道, 1589~1647), 『鬱陵島事蹟』(張漢相, 1656~1724), 『東千字』(金浩直, 1874~1953)
	김천	『金陵誌』(呂以鳴, 1650~1737), 『朝鮮歷代名臣錄』(鄭東珣, 1932)
	선산(해평)	『兩賢淵源錄』(朴愷, 1660), 『一善志』·『朝天地錄』(崔暉, 1563~1640), 『義烈圖』(趙龜祥, 1645~1712), 『續義烈圖』(朴益齡, 1695~?), 『義狗傳』(安應昌, 1593~1673), 『三仁錄』(李尚逸, 1600~1674), 『西繡錄』·『藩槎錄』·『北幕錄』(朴來謙, 1780~1842), 『燕薊紀程』(朴思浩, 1784~1854), 『先考日記』(盧滄, 1721~1772), 『盧尙樞日記』·『加德鎮誌』·『善山邑誌』(盧尙樞, 1746~1829), 『葑園家塾續通鑑』(金錫祐, 1825~1899), 『一善續誌』(金志遠, 1841~1906)

낙동강 강안 지역의 사부류 편찬과 역사학적 의의(박인호)

	인동	『龍蛇日記』(張顯光, 1554~1637), 『玉山志』(張瑠, 1649~1724), 『北征日記』(申瀾, 1610 ~1665)
	칠곡	『京山志』(李元禎, 1622~1680), 『承政院日記』(李道長, 1607~1677), 『承政院史草』·『靜齋日記』(李聘命, 1646~1701), 『海東名臣言行錄』·『杜門洞遺史』(張錫蓋, 1841~1923)
	성주	『默齋日記』(李文樞, 1494~1567), 『續資治通鑑綱目』(金宇顥, 1540~1603), 『歷代紀年』(鄭述, 1543~1620), 『龍蛇日記』(都世純, 1574~1653), 『春秋集傳』·『春秋翼傳』(李震相, 1818~1886), 『嶠南誌』(鄭源鎬, 1940), 『續資治通鑑綱目』(宋浚弼, 1869~1943)
	대구	『退軒日記』(全克泰, 1640~1696), 『葵史』(達西精舍, 1858), 『嶺誌要選』(崔錫鳳, 1876)
	영천	『江都志』·『南宦博物』·『耽羅錄』·『耽羅巡歷圖』·『東耳刪略』·『北脣拾零』(李衡祥, 1653~1733)
	고령	『東史纂要』(吳湮, 1540~1617), 『海遊錄』·『奮忠紓難錄』(申維翰, 1681~1752), 『東華世紀』·『高靈誌』(李斗勳, 1856~1918)
	거창	『茅谿日記』(文緯, 1555~1632)
하류	경주	『歷年通考』·『西嶽書院志』·『文廟享祀志』(鄭克後, 1577~1658)
	청도	『雲臆日錄』(朴時默, 1814~1875), 『海東奇語』·『海東名人姓彙』(朴在馨, 1838~1900), 『海東春秋』(朴章鉉, 1908~1940)
	밀양	『海東樂府』(沈光世, 1577~1624), 『讀史劄記』(李翊九, 1838~1912), 『痛史節要』·『東方國界考』(盧相益, 1849~1941), 『東國氏族攷』·『歷代國界考』(盧相稷, 1855~1931), 『朝鮮史綱目』(李炳意, 1859~1936)
	김해	『慶尙道誌』(李鉉式, 1936)
	진주	『東儒學案』·『明史綱目』(河謙鎮, 1870~1946)

강안 지역 사부 편찬물의 목록을 살펴보면 인근의 퇴계학과나 남명학파, 혹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호 지역의 학계 동향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 학계는 대개 관부 중심으로 편찬사업이 진행되면서 거질의 사부 편찬물이 주로 이루어졌다. 개인이 편찬한다고 하여도 질과 양에서 압도적인 총서류가 다수 편찬되었다. 또한 개인이 편찬한 야사류에서는 다양한 당색을 가진 중앙 정계의 각 정치 집단이 자당의 입장에서 역사서를 편찬하여, 특정 당색에 국한된 지역의 학계와 비교해 사부

야사류의 정보량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sup>4)</sup> 현재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등 각 고전적 소장 기관에서 공개하는 원전의 사부를 보면 관심 분야가 전 영역에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퇴계 이황이 문봉 정유일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학에 심취한 것을 비판하고 덕성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서 보듯이<sup>5)</sup> 경상좌도의 퇴계학과와 경상우도의 남명학과에서는 대체로 도학과 경학 공부에 주력함으로써 사부 분야의 편찬물은 오히려 강안 지역에 비해 빈약한 편이다. 게다가 퇴계학과와 남명학과에서는 도학의 계승과 관련된 사부 전기류의 실기나 언행록류, 서원지 등이 다수 편찬되어 강안 지역과 차별성을 보인다.<sup>6)</sup> 그리고 양 학맥에서는 의병일기, 생활일기, 관직일기, 서원일기 등 유학자들의 활동과 관련된 책이 다수 편찬되었으며 사략형, 강목형의 사서류와 보학류, 의열류 도서가 다수 편찬되었는데<sup>7)</sup> 유교라는 동질의 이념을 지녔기 때문에 이 점은 강안 지역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서울 일원에서는 유서류의 경우 관찬 문헌비고류와 다양한 주제별 유서가 편찬되었으며, 인물전기류의 경우 거질의 명신록류, 언행록류가 다수 편찬되었다. 물론 강안 지역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인물 백과사전이 예천, 상주, 김천 등지에서 편찬되었다.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 양반들의 명현록과 언행록뿐만 아니라 서얼이나 중인들의 전기집이 의성, 예천, 상주, 대구 등의 강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는 점이다. 이곳은 물류의 발전에 따라 다른 지역보다 사회적 확대가 빨리 이루어진 지역이었으므로 신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앞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찬 읍지류는 처음 강안 지역의 학자들이 양난으로 피폐해진 향촌 사회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였지만 차츰 전국으로 퍼져나

4) 박인호, 『한국사학사대요』, 이회문화사, 2003, 281~287쪽, <한국사학사연표> 참조.

5) 『퇴계집』 권26, 「서」, <答鄭子中>. “夫看史抄書 昔之躬行君子 非不爲此事 但今不於本原心地上細加涵養省察直內方外之工 而惟以匆匆意緒 日向故紙堆中 尋逐已陳底粗迹 搜羅抄掇 以是爲能事而止 則是定無蓄德尊性之功 而反益麤心浮氣之長矣.”

6) 박인호, 앞의 논문, 331~333쪽, 338~339쪽, 350쪽.

7) 박인호, 앞의 논문, 340~350쪽.



가 군현별로 편찬되었으며 후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관찬 읍지도 시기 별로 편찬되어 나갔다. 이는 강안 지역에서 시작하여 전국의 각 지역으로 번져나간 것이다. 강안 지역은 이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정구와 장현광으로부터 직접 교시를 받아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찬 읍지와 비교해 이른 시기에 편찬을 시작하였다.

### Ⅲ. 강안 지역 사부 편찬물의 특징

#### 1. 연표형, 사략형 역사서의 편찬

낙동강 유역의 정보 교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부 편찬물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안 지역에서 연표형의 축약된 사서류가 편찬되고 이것이 안동권의 퇴계학파에서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연표형 사서로 鄭述(1543~1620)는 『歷代紀年』이라는 일종의 연대표를 만들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연대기를 알아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했지만 형태적으로는 간략하게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다루었다. 정구의 『역대기년』은 1985년 『한강전집』에 수록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sup>8)</sup> 1986년 김향수의 논문<sup>9)</sup>이 나와 『역대기년』의 학적 가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후 한강 정구에 대해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역대기년』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이 없다가 2016년 김남일이 같은 시기에 나온 다른 사서와 비교하면서 『역대기년』의 정통론을 다루었다.<sup>10)</sup> 이 연구들을 통해 정구는 엄격한 화이론적 정통론을 견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순쉬운 정보 파악을 위해 간략한 한중 합사의 형태로 편찬된 연표형

---

8) 『寒岡全集』, 驪江出版社, 1985.

9) 김향수, 「한강 정구의 학문과 역대기년」, 『한국학보』 12-4, 1986.

10) 김남일, 「한강 정구의 역사관과 정통론 - 역대기년의 중국사 체계에 대한 사학사적 고찰 -」, 『한국사학사학보』 34, 2016.

사서로 鄭克後(1577~1658)의 『歷年通考』가 있다. 『역년통고』는 2000년 박인호의 논문 발표 이후 전문 논문으로 연구된 것이 없으며 정극후의 문집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영남선현문집의 국역총서로 간행되었다.<sup>11)</sup> 박인호의 연구에서는 『역년통고』가 受命이나 正統 지위에 오른 해를 중시하고 기년 계산에서 철저히 유년칭원의 원칙을 지키는 정통론적 입장에 서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역년통고』 내 「동방국도고」는 고구려와 백제의 초기 국도에 대해 조선 전기의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한백겸의 남북이원적 발전관이 수용되어 역사지리학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건이라고 평가하였다.<sup>12)</sup> 이러한 연표 방식으로 쉽게 역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안동권에 이어진 사례로 도표식의 역사책인 權槩(1672~1749)의 『중국고금역대연혁지도』를 들 수 있다.<sup>13)</sup>

서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였던 강안 지역에서는 사략형 사서가 크게 유행하였다. 안동권에서는 李堦(1469~1517)가 편찬한 『동국사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강안 지역에서 함안(고령) 吳灑(1540~1617)은 편년 방식에 지리지와 열전을 가미한 『東史纂要』를 편찬하였다. 문경 洪汝河(1620~1674)는 기자에서 신라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강목의 형태로 편집한 『東國通鑑提綱』과 기전체 형식으로 고려 역사를 재정리한 『彙纂麗史』를 편찬하였다. 근대기에는 예천 金庭植(1862~1928)에 의해 단군조선에서 순종까지 다룬 『東書彙纂』이 나왔다.

사략형 사서로서 『동사찬요』, 『동국통감제강』, 『휘찬여사』는 일찍부터 역사학계에서 주목하였다. 『동사찬요』는 1977년 정구복이 16~17세기 유행한 사략형의 사서들을 다루면서 오운이 임란을 거치면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책을 저술했다고 하였다.<sup>14)</sup> 한영우

---

11) 『(國譯) 雙峯先生文集』, 박미경, 이지락, 김정기 옮김, 한국국학진흥원, 2016.  
12) 박인호, 「제왕역년통고에 나타난 정극후의 역사인식」, 『한국사학사학보』 1, 한국사학사학회, 2000.  
13) 박인호, 「중국고금역대연혁지도에 나타난 권구의 역사인식」, 『조선시대사학보』 4, 조선시대사학회, 1998; 이해영 외, 『병곡 권구의 학문과 사상』, 드림, 2017.  
14) 정구복, 「16~17세기의 사찬사서에 대하여」, 『전북사학』 1, 전북사학회, 1977.

는 당색에 따라 역사 기술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오운과 홍여하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다.<sup>15)</sup> 그 이후 여러 학자들이 이 책들에 대해 서지적, 혹은 역사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박인호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판본이나 수정본에 대한 고려가 없이 책의 체제적, 내용적 특징을 논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수정 시기에 따라 책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와 그것이 어떠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를 밝혀 사서에서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였다.<sup>16)</sup>

역사를 간략하게 이해하려는 성향은 연표류나 강목류의 역사서뿐만 아니라 약부체 시가, 강감형 사서, 몽학서 등에서도 보이고 있다. 밀양 沈光世(1577~1624)는 『海東樂府』를 저술하였다. 봉화에서는 은거생활을 하면서 성리학뿐만 아니라 노장에까지 관심 영역을 넓히고 있었던 李時善(1625~1715)은 중국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여 『史補略』, 『歷代史選』을 편찬하였다. 이시선에 대한 전문 논문은 보이지 않으나 『역대사선』에 대한 국역본이 간행되었다.<sup>17)</sup> 한말 고령 李斗勳(1856~1918)이 편찬한 『東華世紀』는 근대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유교 역사가가 전통적인 흥망관과 정통론에 따라 우리나라 역사를 綱鑑의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sup>18)</sup> 한말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한자 학습서에 역사 관련 내용이 첨입되어 역사 천자문이 다수 편찬되었는데 지역과 학파마다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성 金浩直(1874~1953)은 『東千字』를 남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편찬하였다.<sup>19)</sup>

---

15) 한영우, 「17세기 초의 역사서술 - 오운의 동사찬요와 조정의 동사보유 -」, 『한국사학』 6, 1985;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1989.  
 16) 박인호, 「동사찬요 열전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50, 2012.  
 박인호, 「동국통감제강에 나타난 홍여하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54, 2014.  
 박인호, 「회찬여사 열전에 나타난 홍여하의 역사인식」, 『장서각』 31, 2014.  
 17) 『(國譯) 歷代史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9.  
 18) 박인호, 「홍와 이두훈의 동화세기 편찬과 역사인식」, 『한국사학사학보』 41, 2020.  
 19) 정우락, 「일제강점기 김호직의 동천자 저술과 그 의의」, 『동양한문학연구』 22, 동양한문학회, 2006.  
 정우락, 「일제강점기 동천자류의 저술방향과 그 의의」, 『한국사상과 문화』 44,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2. 강목과 춘추의 이념적 역사서의 편찬

강안 지역에서는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학문적 분위기로 인해 속강 목류가 다양하게 편찬되었다. 먼저 성주 金宇顥(1540~1603)에 의해 『續資治通鑑綱目』이 편찬되었다. 이를 이어 선산 金錫祐(1825~1899)의 『葦園家塾續通鑑』, 밀양 李炳燾(1859~1936)의 『朝鮮史綱目』, 성주 宋浚弼(1869~1943)의 『續續資治通鑑綱目』이 편찬되었다.

김우옹은 商路의 『속강목』이 주자의 필법에 어긋난다고 보아 송·원 양조의 역사를 강목 형식으로 정리한 『속자치통감강목』을 편찬하였다. 1590년 편찬에 착수하여 1595년 완성하였으며 1771년 활자본과 1808년 목판본이 간행되었다. 1977년 경인문화사에서 『속강목』의 재화에 목판본을 영인하였다.<sup>20)</sup> 이어 1995년 청천서원에서 『동강선생전서』를 간행하면서 목판본도 같이 수록하였다. 최근 이 책에서 보이는 원사에 대한 이해를 다룬 연구가 이인복에 의해 이루어졌다.<sup>21)</sup>

『미원가속속통감』, 『조선사강목』, 『속자치통감강목』은 전문 연구 논문이 없다. 『조선사강목』의 경우 1982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되었으며, 강만길에 의해 간략한 해제가 있다.<sup>22)</sup> 한국사학사 분야에서 강목류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점이 영향을 미쳐 이들 책에 대한 연구가 늦어지고 있다.

한편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강안 지역의 학문적 풍토 아래에서 춘추의 정신을 역사에 적용하려는 생각은 당연하였다. 이는 성주 李震相(1818~1886)의 『春秋集傳』과 『春秋翼傳』, 청도 朴章鉉(1908~1940)의 『海東春秋』의 편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철학계에서도 주목하였다. 이진상의 춘추학에 대한 전문 논문으로는 2015년 박인호의 논문이 있으며,<sup>23)</sup> 최근 철학계에서는 김동민

20) 『續綱目』, 景仁文化社, 1977.

21) 이인복, 「김우옹의 원사 인식과 속자치통감강목」, 『한국사학사학보』 45, 2022.

22) 강만길, 「조선사강목해제」, 『조선사강목』, 아세아문화사, 1982.

23) 박인호, 「한주 이진상의 춘추학 - 춘추집전과 춘추의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24)</sup>

박장현은 『海東春秋』, 『彝傳』 등을 수록한 『中山全書』가 1983년 간행되면서 학계로부터 일찍부터 주목되었다.<sup>25)</sup> 1989년 문철영은 박장현 사학의 민족주의적 면모를 드러내었다.<sup>26)</sup> 1992년 『수촌 박영석 교수 화갑기념 논총』이 간행되면서 박장현에 대한 논문이 다수 수록되었으며 1993년에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논문이 수집되어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sup>27)</sup> 최근의 연구에서는 『해동춘추』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역사학자로서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sup>28)</sup>

강한 이념성은 사론과 사평류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다. 강안 지역에서는 姜再恒(1689~1756)의 『東史評証』, 李渠(1613~1654)의 『看史剩語』, 李翊九(1838~1912)의 『讀史筭記』 등이 나왔다. 봉화 강재항의 『동사평증』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논평을 가한 논평집이다.<sup>29)</sup> 문경 이구의 『간사잉어』<sup>30)</sup>와 밀양 이익구의 『독사차기』는 중국의 역사에서 나오는 사건에 대한 논평집이다. 이들 사평류는 모두 절의와 정통론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념적이고 도덕주의적 요소가

6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5.

24) 김동민, 「이진상 춘추집전의 성리학적 춘추 이해」, 『대동문화연구』 10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김동민, 「이진상의 춘추학에 보이는 화이관의 특징(1)」, 『유교사상문화연구』 81, 한국유교학회, 2020.

김동민, 「이진상의 춘추학에 보이는 화이관의 특징(2)」, 『한국철학논집』 67, 한국철학사연구회, 2020.

25) 『中山全書』, 中山全書刊行會, 1983.

26) 문철영, 「1930년대 민족주의 사학의 일양상 : 중산 박장현(1908~1940)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9, 1989.

27) 금장태 외, 『중산 박장현 연구 : 일제하 민족주의 사학자』, 민족문화사, 1994.

28) 박환, 「식민지시대 역사학자 박장현의 중산전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2014. 박환, 「1930년대 朴章鉉의 근대사서술 - 海東春秋를 중심으로 -」, 『숭실사학』 34, 2015.

29) 박인호, 「입재 강재항의 역사인식과 현실비판」, 『한국학논집』 53, 2013.

30) 박인호, 「활재 이구의 역사인식과 현실비판」, 『조선사연구』 22, 2013.

박인호, 「활재 이구의 시대인식과 사회활동」, 박인호 외, 『활재 이구와 식산 이만부의 생애와 사상』, 문경시 근암서원운영위원회, 2018.

강조되고 있다.

특정한 지역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유교적 도덕관의 확산으로 상주에서는 李鼎·李峻 형제의 의리를 그린 『兄弟急難圖』가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sup>31)</sup> 형은 전장에서 동생을 업고 나와 동생의 목숨을 구해 주었으며 동생은 형의 우애를 잊지 않고 있다가 1604년 주정사의 서장관으로 명에 갔을 때 중국인에게 그 일을 말하였다. 그러자 중국 화공이 형제의 급난도를 그려 선물로 주었으며, 그 그림에 대한 글까지 모아 현손인 李增祿이 1712년(숙종 38)에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형제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교화용 화보집이다.

의열류 가운데 선산에서는 매우 특이하게 개나 소까지 이와 같은 유교적 도덕을 준행한 것으로 강조한 책이 나왔다. 대표적인 것으로 의우와 의우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부사였던 趙纘韓(1572~1631)이 1630년(인조 8) <義牛圖序>를 쓰고 그림으로 판각함으로써 후대에 전하게 되었다. 손자인 趙龜祥(1645~1712)은 할아버지 조찬한의 의우도 관련 내용에 새로이 열녀 香娘 관련 내용을 합하여 1703년 『義烈圖』를 출간하였다. 『의열도』에는 1630년 작성한 趙纘韓의 <의우도서>, 1703년 조구상이 작성한 <향랑도기>, 1703년 작성한 權尙夏의 발문이 있다. 선산부사 安應昌(1593~1673)은 의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1665년(현종 6) 개의 의로운 행위를 기리는 「義狗傳」을 별도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sup>32)</sup> 1745년(영조 21) 선산 사람 朴益齡이 선산부사 閔百男의 도움을 얻어 조을생의 처 藥哥에 대한 그림과 안응창의 <의구도>와 「의구전」을 수록하여 『續義烈圖』를 출간하였다.<sup>33)</sup>

31) 이신성, 「상주 달내 마을 형제급난도에 대하여」, 『어문연구』 26, 충남대학교 문리과 대학 어문연구회, 1995.

이신성, 「창석 이준과 형제급난도」, 『한국인물사연구』 3, 한국인물사연구소, 2005.

32) 목판은 해주 정씨 신당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었으나 현재 구미 성리학박물관에 기증되었다.

33) 김석배, 「김수기 구장본 의열도에 대하여」, 『선주논총』 22, 2019.

김석배, 「김수기 구장본 의열도(중간본) 역주」, 『선주논총』 23, 2020.

김석배, 「의열의 고장, 그리고 의열도」, 『한국고전의 세계와 지역문화』, 보고사, 2021.

이러한 형제간의 의리나 짐승의 의열에 대한 이야기는 수령들의 향풍 교화라는 의지 속에서 나온 것이나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조선 후기로 가면서 하층민의 성장이 있었으며, 이들을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제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상주와 선산에서 이러한 의열 관련 저술이 나온 것은 강안 지역이 현실과 도덕 사이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되었던 곳이었음을 말해준다.

### 3. 선현, 명신 인물서와 함께 중인 인물서의 편찬

중앙에서는 전국 단위의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명신 관련 일화를 모은 명신록류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편찬사업을 진행한 인물고류가 대표적이다.<sup>34)</sup>

강안 지역에서는 지역의 선현을 추송하는 방법으로 인물에 대한 전기를 전문적으로 정리한 책을 편찬하고 있다. 지역에서 나온 대표적인 인물 관련 편찬물로 예천 權鼈(1589~1671)의 『海東雜錄』,<sup>35)</sup> 예천 金庭植(1862~1928)의 『譜學通編』,<sup>36)</sup> 상주 鄭道應(1618~1667)의 『昭代名臣行蹟』, 김천 鄭東珣의 『朝鮮歷代名臣錄』, 칠곡 張錫薰(1841~1923)의 『海東名臣言行錄』·『杜門洞遺史』, 청도 朴在馨(1838~1900)의 『海東名人姓彙』,<sup>37)</sup> 김해(밀양) 盧相稷(1855~1931)의 『東國氏族攷』, 진주 河謙鎭(1870~1946)의 『東儒學案』 등이 있다.

한편 강안 지역에서는 선현을 섬기는 일종의 명현록이 연속적으로 간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 단위에서의 인물에 대한 추송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산 지역을 예로 들면 신당 정봉과 송당 박영을 대상으로 한

34) 박인호, 「영정조대 인물서의 편찬과 역사학의 동향」, 권오영 외, 『영정조대 문예중흥기의 학술과 사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35) 박인호, 「해동잡록에 나타난 권벌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52, 2013.

36) 『譜學通編』, 필사본 4책, 예천박물관.

37) 박인호, 「진계 박재형의 저술과 학문사적 위상」, 『한국사학사학보』 39, 한국사학사학회, 2019.

朴愷의 『兩賢淵源錄』과 농암 김주, 단계 하위지, 경은 이맹전을 대상으로 한 崔暉(1563~1640)의 「三仁事蹟」, 李尙逸(1600~1674)의 『三仁錄』이 대표적이다.<sup>38)</sup> 이 책들은 양반층 가운데도 지역의 저명한 선현이나 명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지역에서 편찬된 인물 관련 편찬물에 대한 연구는 하경진의 『동유학안』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사회적 주류가 양반인 조선 사회에서 중인이나 농민층이 차츰 성장하면서 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강안 지역은 이러한 중간층의 성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었다. 상주 李震興(1731~1777)의 『掾曹龜鑑』,<sup>39)</sup> 상주 李明九(1799~1874)의 『掾曹龜鑑續篇』,<sup>40)</sup> 대구 達西精舍의 『葵史』<sup>41)</sup>, 그리고 현재는 남아 있지 않지만 의성 향리 李擢英(1541~1610)의 『解頤錄』, 상주 향리가 지은 『尙山吏蹟』<sup>42)</sup> 등이 있었다. 이는 후일 예천 향리 金麗昱·張大興 등에 의해 1790년 나온 『襄陽耆舊錄』,<sup>43)</sup> 안동 향리 權心度 등에 의해 1824년 나온 『安東鄉孫事蹟通錄』<sup>44)</sup>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책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중인계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서리 혹은 향리

---

38) 박인호, 『인재 최현』, 애드게이트, 2021.

박인호, 「15세기 초반~17세기 중반 선산 지역 지식인들의 향현 추송 활동」, 『선주는 총』 24, 2021.

39) 이훈상, 「연조귀감의 편찬과 간행」, 『진단학보』 53·54, 진단학회, 1982.

『掾曹龜鑑(附 掾曹龜鑑續篇)』,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2.

김정찬 역, 『연조귀감 : 향리의 사적을 담아 전하다』 1, 2, 민속원, 2017, 2018.

40) 이훈상, 『향리의 역사서 연조귀감과 그 속편을 편찬한 상주의 지식인 이명구 가문과 그들의 문서』,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92.

이훈상, 「19세기 향리 지식인 이명구의 지적 여정과 지방 이서들에 대한 미완의 역사 프로젝트 연조귀감속편」, 『진단학보』 132, 진단학회, 2019.

41) 정윤주, 「규사(1859)의 편찬과 간행동기」, 『역사학보』 137, 역사학회, 1993.

42) 이훈상, 「조선후기 상주의 호장·지방 명단과 소하의 도상 해제」, 『역사와경계』 11, 부산경남사학회, 1986.

43) 『國譯 襄陽耆舊錄』, 醴泉文化院, 1996.

44) 이훈상, 「안동향손사적통록의 간행과 조선후기의 안동향리」, 『한국사연구』 60, 한국사연구회, 1988.



출신이 남긴 기록으로 의성 李擢英(1541~1610)의 『征蠻錄』,<sup>45)</sup> 인동 劉席珍의 『戶長公日記』,<sup>46)</sup> 울산·신녕 金敬天의 『巽窩漫錄』,<sup>47)</sup> 성주 都漢基(1836~1902)의 『邑誌雜記』<sup>48)</sup> 등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었던 중인, 서리, 향리의 관점에서 적고 있다.

이 분야에서 상주 지역의 향리 기록은 주로 이훈상에 의해 발굴되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서얼이나 중인 관련 기록이 향후 추가로 대대적으로 공개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존에 공개된 자료만이라도 착실하게 추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강안 지역에서는 선현과 명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중인, 서얼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연조귀감』, 『연조귀감속편』, 『규사』와 같은 중인과 서얼 측의 기록이 상주, 대구 등에서 나온 것은 강고한 양반체제와 성장하는 중인 측의 갈등이 이 지역에서 크게 증폭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강안 지역이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인 수용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회적인 양상으로 해석된다.

#### 4. 문물과 제도를 다룬 유서의 편찬

강안 지역은 당시 문물의 중심이었던 기호 지역과는 달리 문화적으로 신진 문물을 수용하는데 있어 지체 현상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체 현상은 앞서서 새로운 문물을 창안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를 유형별로 정

45) 박인호, 「임진왜란기 지방 이서의 전쟁 경험과 정리 작업 - 이탁영의 정만록을 중심으로 -」, 『한국사학사학보』 34, 한국사학사학회, 2016.

46) 이훈상, 「어느 지방 이서의 임진왜란 증언과 진승 - 경상도 인동의 향리 유석진과 그의 임진왜란 일기 -」, 『영남학』 21,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2.

47) 김영진, 「손와만록자서를 통해 본 향리 출신 문인 김경천의 생애」, 『대동한문학』 41, 대동한문학회, 2014.

이대형, 이미자, 박상석 역주, 『손와만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5.

조혜훈, 「손와 김경천의 울산 거주시기에 대한 고찰」, 『인문연구』 76, 2016.

48) 이윤갑, 「읍지잡기(19세기 후반)의 사회경제론 연구」, 『대구사학』 36, 대구사학회, 1989.

강희대 역, 『국역 성주 읍지잡기』, 성주문화원, 2012.

리하고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좋은 학문적 풍토를 이루었다. 외부에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도입 지역은 문물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를 분류하고 종합하는 학문적 풍토가 있었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잘 보여주는 곳이 예천 지역이다.

예천의 지역적 환경은 안동권의 유학을 받아들이면서도 鳥嶺을 통해 기호 지역의 앞선 문화를 상대적으로 먼저 수용할 수 있었던 학문 통로의 위치에 있었다. 이에 따라 예천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여러 종류의 유서가 편찬되었다. 예천을 대표하는 유서로는 자전 사전인 權文海(1534~1591)의 『大東韻府群玉』, 인물 사전인 權鼈(1589~1671)의 『海東雜錄』, 사찬 백과사전인 裴象鉉(1814~1884)의 『東國十志』와 朴周鍾(1813~1887)의 『東國通志』, 학술 명언집인 朴周鍾의 『勉學類鑑』, 계보 사전인 朴周大(1836~1912)의 『文蔭譜』와 『縉紳八世譜』<sup>49)</sup>, 제도 사전인 박주대의 『國朝典故』 등이 있었다. 예천에서 나온 유서들은 전문 분야별로 편찬이 이루어져 경전의 구절을 정리하는 전통 유학의 경서류 유서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sup>50)</sup>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은 문학, 역사, 자전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3년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서 완역하였다.<sup>51)</sup> 백과사전으로서의 위상에 대한 연구는 2009년 옥영정 등에 의해 책자로 발간되었다.<sup>52)</sup> 『대동운부군옥』에 대한 문학 분야에서의 연구와는 달리 역사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빈약한 편이며 권문해의 역사인식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이 있을 뿐이다.<sup>53)</sup> 권문해가 『대동운부군옥』에서 말하고자 하였던 역사의식을 강안학의 관점에서 그 특징을 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

---

49) 『文蔭縉紳譜』, 여강출판사, 1989, 합본 영인.

50) 예천박물관 기획, 『예천의 기록문화와 백과사전』, 민속원, 2022.

51) 『大東韻府群玉』, 남명학연구소 경상한문학연구회 역주, 소명출판, 2003.

52) 옥영정 외, 『조선의 백과지식 : 대동운부군옥으로 보는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53) 박미라, 「대동운부군옥으로 본 초간 권문해의 역사인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권별의 『해동잡록』에 대해 2013년 박인호가 책에 수록된 역사 인물을 분석하였다. 『해동잡록』의 인물편은 영남 지역 선비의 인물인식이 투영되어서 절의, 성리학, 효행 등에 관련된 인물을 높이 평가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sup>54)</sup>

박주종의 『동국통지』는 한말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 장지연이 간행을 시도하였으나 일을 마치지 못하였으며, 1986년 태학사에서 영인하였다.<sup>55)</sup> 『동국통지』에 대한 연구로 이종휘의 연구 성과를 수렴했다는 한영우의 평가나 민족주의적 성향이 반영되었다는 정구복의 평가가 있으나 모두 단편적인 언급에 불과하였다. 본격적인 전문 논문으로는 서지학에서 민태희가 처음으로 『동국통지』 예문지의 특성을 정리해 그 학문적 가치에 주목하였다.<sup>56)</sup>

역사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박인호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박인호는 조선 후기 백과전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학문 분야의 성장 속에서 사찬의 지류가 차지하는 위상에 주목하면서 배상현의 『동국십지』와 박주종의 『동국통지』의 사학사적 의의를 다루었다.<sup>57)</sup> 이어 지방 지식인의 등장과 백과전서학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동국통지』를 다루었다.<sup>58)</sup> 그런데 유서류는 여러 분야를 다룬 것이므로 각 분야별로 그 의의가 밝혀져야 할 것인데 역사학 방면에서 본다면 『병위지』에 대한 박인호의 연구 외 아직까지 『동국통지』에 대한 각 분야별 연구는 이

54) 박인호, 「해동잡록에 나타난 권별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52,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55) 이수봉, 「해제」, 『동국통지』, 태학사, 1986.

56) 민태희, 「동국통지의 예문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서지학전공 석사학위논문, 1989.

57) 박인호, 「동국십지와 동국통지에 대한 연구 - 사학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 『청계사학』 9, 청계사학회, 1992.

58) 박인호, 「동국통지 지리지에 나타난 박주종의 역사지리인식」, 『한국사학사연구』, 나남, 1997.

박인호, 「박주종 - 조선후기 백과전서학의 발전과 지방 지식인」, 한영우선생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엮음, 『한국사인물열전』 3, 돌베개, 2003.

박인호, 「예천 함양 박씨 동원공파 고문헌의 성격과 내용」, 『조선사연구』 19, 2010.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sup>59)</sup>

안동 임하면 내앞 출신인 金傑(1597~1638)는 낙동강의 지류인 반변천 인근에서 성장하였는데 낙동강 인근의 인동 출신 여헌 장현광을 스승으로 모셨다. 김휴는 장현광의 권유로 일종의 고문헌 해제집인 『海東文獻總錄』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인물에 대한 주관적 해설을 가하고 있는데, 김휴가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도교나 불교에 관한 저술도 소개하고 있다.<sup>60)</sup> 밀양과 창녕의 盧相益(1849~1941), 盧相稷(1855~1931) 형제는 성재 허전의 문인으로 역대의 국계와 씨족에 대해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유서의 편찬은 강안학이 가진 융합성, 포용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하다. 다만 향후 이 분야에서는 책에 대한 소개와 해석을 넘어 강안 지역에 등장하는 백과전서학 책들이 어떠한 지역적 배경과 필요에 의해 지식의 집성이 행해졌으며, 이것으로 마련하려 했던 지식의 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로 나갈 필요가 있다.

## 5. 사찬 읍지의 편찬

16~17세기 사찬읍지는 전국적에서 유행처럼 편찬되었는데,<sup>61)</sup> 이러한 유행을 가져온 선구적 인물은 鄭述(1543~1620)였다. 정구는 1587년 『咸州志』를 직접 편찬하고<sup>62)</sup> 또한 자신이 수령으로 근무하였던 지역에서 읍지를 편찬하도록 명령하여 광범위하게 읍지의 편찬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정구와 관련된 읍지로는 1580년 창녕의 『昌山志』, 1584년 동북의 『同福志』, 1592년 통천의 『通川志』, 1594년 강릉의 『臨瀛志』,

---

59) 박인호, 「19세기 중반 동국통지 병위지의 편찬과 자료적 성격」, 예천박물관 기획, 『예천의 기록문화와 백과사전』, 민속원, 2022.

60) 박인호, 「해동문헌총록에 나타난 김휴의 학문세계」, 『선주논총』 9, 2006.

61) 최윤진, 「16, 17세기에 편찬된 경상도의 사찬 읍지」, 『전북사학』 17, 전북사학회, 1994.

62) 김경수, 「정구의 함주지 연구」, 『민족문화의 제문제 - 우강권태원교수정년기념논총』, 1994.

1596년 강원도지인 『關東志』, 1603년 충주의 『忠原志』, 1604년 주희와 자신이 거주한 무흘정사와 관련된 『谷山洞庵志』, 『武夷志』, 『臥龍志』, 1607년 안동의 『福州志』 등이 있다. 정구는 이러한 읍지의 편찬을 통해 선정을 펼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sup>63)</sup> 정구의 제자인 許穆(1595~1682)은 삼척 『陟州志』(1662), 함안 『咸安志提要』, 춘천 『宜春志提要』를 편찬하였다.<sup>64)</sup> 정구의 이러한 사찬읍지 편찬 시도는 장현광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張顯光(1554~1637)도 자신의 문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읍지를 편찬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여헌학과 내에서는 여러 제자들이 지지를 편찬하였다. 이원정의 『京山志』에는 여헌의 권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sup>65)</sup> 의성의 경우 陰崖 李耔(1480~1533)가 완성하였던 읍지가 임진왜란 때 병화로 없어졌는데, 장현광이 현감으로 있으면서 중수를 시작하였으나 직을 떠나게 되면서 매번 이곳의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일을 하도록 권면하였다는 것이다.<sup>66)</sup> 장현광의 제자인 安應昌은 동문인 申悅道, 李民賓의 도움을 받아 1656년 의성의 『聞韶志』를 완성하였다.

정구·장현광과 친분을 맺거나 지도를 받은 많은 이들이 인근 지역의 지지를 편찬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盧景任의 선산 『嵩善志』(1601), 崔

63) 김문식, 「16~17세기 한강 정구의 지리지 편찬」, 『민족문화』 29, 한국고전번역원, 2006.

64) 배재홍, 「삼척부사 허목과 척주지」, 『조선사연구』 9, 조선사연구회, 2000; 『조선시대 삼척지방사 연구』, 우물이 있는 집, 2007.  
배재홍 역, 『國譯 陟州誌』, 삼척시립박물관, 2001.

65) 『京山志』, <序>; 성주문화원, 1997. “曾於崇禎乙亥年中 旅軒張先生 以爲士林府庫之邦 不可使文獻無徵 屬鄉老金正郎 曠呂士人 爰 使志之 蓋是州於張先生爲外鄉也 二老者退與都公世純 略記西南二面舊聞 而自謂聞說見淺 不足副軒老之托 乃貽書吾先君而請之(지난 승정 율해(1635) 여헌 장선생이 사립의 부고(府庫)로 알려진 고을에 증빙할 만한 문헌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고을의 어른인 정랑 김주와 사인 여찬에게 위촉하여 읍지를 만들게 하였다. 이는 우리 고을이 장선생의 외가이기 때문이었다. 두 어른이 물리나면서 도세순에게 서면과 남면의 옛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록하게 하였으나 스스로 견문이 보잘 것이 없어서 여헌 선생의 유시에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나의 선군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 일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66) 『柏巖先生文集(安應昌)』 2, 「序」, <聞韶志序>.

峴의 선산 『一善志』(1618),<sup>67)</sup> 權應生·鄭克後的 경주 『東京志』(1638?),<sup>68)</sup> 申悅道の 울진 『仙槎誌』(1640),<sup>69)</sup> 金應祖의 영주 『榮川誌』(1646?),<sup>70)</sup> 安應昌의 의성 『聞韶志』(1656),<sup>71)</sup> 鄭秀民의 함양 『天嶺誌』(1656),<sup>72)</sup> 李張英의 예천 『襄陽誌』(1661),<sup>73)</sup> 李重慶의 청도 『鰲山志』(1673),<sup>74)</sup> 李元禎의 성주 『京山志』(1677),<sup>75)</sup> 張舉 및 張瑠의 인동 『玉山志』(1699)<sup>76)</sup> 등을 들 수 있다.<sup>77)</sup>

이러한 한려학과의 사찬 읍지 편찬 경향은 지역 내 다른 학과에도 영향을 미쳐 權紀의 안동 『永嘉誌』(1602),<sup>78)</sup> 李堉의 상주 『尙山誌』(1617),<sup>79)</sup> 李汝籲의 영주 『榮州誌』(1625),<sup>80)</sup> 金世濂의 현풍 『苞山志』(1635),<sup>81)</sup> 李採의 경주 『東京雜記』(1669),<sup>82)</sup> 呂以鳴의 김천 『金陵誌』

67) 박인호, 「선산 읍지 일선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역사학연구』 64, 호남사학회, 2016; 『구미 지역사 연구』, 보고서, 2022.

68) 황재현, 「동경통지 해제」, 『국역 동경통지』, 경주문화원, 1989.

69) 『懶齋先生文集』 권6, 「跋」, <仙槎誌跋>.

70) 『國譯 榮州三邑誌』, 동양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역, 소수박물관, 2012.

71) 『義城誌集錄』, 義城文化院, 1994. 안응창의 『문소지』는 현전하지 않고 후대 편찬된 읍지가 있다.

72) 『國譯 天嶺誌』, 咸陽文化院(大譜社), 2012.

73) 『國譯 襄陽誌』, 禮泉鄉土文化研究會, 1994.

74) 박홍갑, 「청도 사찬읍지 오산지(1673)의 편목과 특징」, 『중앙사론』 21, 중앙사학연구소, 2005.

75) 박인호, 「성주 읍지 경산지의 파판과 그 정치적 함의」, 『퇴계학과 유교문화』 58,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6.

76) 박인호, 「인동읍지 옥산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장서각』 2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77) 김학수, 「17세기 여헌학과 형성과 학문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인물사연구』 13, 2010.

최원석, 「여헌 장현광의 지리인식과 문인들의 지지편찬 의의」, 『동양고전연구』 49, 2012.

78) 임세권, 「영가지 편찬의 역사적 의의」, 『안동문화』 7, 안동문화연구소, 1986.

79) 『尙州史料集』, 尙州文化院, 1998.

80) 강주율, 「영주지 해제」, 『국역 영주삼읍지』, 영주시 소수박물관, 2012.

81) 이재두, 「1635년(인조 13) 현풍현감 김세렴의 포산지 편찬」, 『영남학』 58, 2016.

82) 유부현, 「동경잡기의 서지학적 연구」, 『서지학연구』 7, 서지학회, 1991.

김수태, 「유회당 권이진의 동경잡기간오」, 『도산학보』 6, 1997.

(1718),<sup>83)</sup> 權相一의 울산 『鶴城誌』(1749)<sup>84)</sup> 편찬으로 이어진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근대기 金志遠의 선산 『一善續誌』(1900 경), 李斗勳의 고령 『高靈誌』(1910), 崔奎東의 지례 『品川史集』(1930),<sup>85)</sup> 安秉禧의 밀양 『密州徵信錄』(1935, 1936), 李壽珪의 칠곡 『漆谷誌』(1936), 李舜欽 외의 성주 『星山誌』(1937)의 편찬으로 이어진다.<sup>86)</sup>

그리고 강안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부임한 수령이 중심이 되어 군현 단 위에서 지역의 인사를 동원해 사찬 읍지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申翊全의 밀양 『密陽誌』(1652), 南泰普의 의흥 『赤羅誌』(1753)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19세기 다양하게 나온 경상도읍지<sup>87)</sup>를 이어 도지를 편찬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는데 대구 崔錫鳳은 『영남여지』를 바탕으로 1876년 『영지요선』을 편찬하였으며 1931년경에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sup>88)</sup> 김해의 李鉉式은 『慶尙道誌』를 편찬하여 1936년 具翰會 발행으로 간행하였다.<sup>89)</sup> 성주 鄭源鎬는 경상도 관찰사 金世鎬의 1871년 무렵 진행된 군현지 편찬 사업을 이어 영남 지역의 지지 내용을 종합한 도지인 『嶠南誌』를 1937년 편찬하여 1940년 대구에서 간행하였다.<sup>90)</sup>

전덕재, 「동경잡기의 편찬과 그 내용」, 『신라문화』 1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1.

83) 박인호, 「김천 읍지 금릉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한국사학사학보』 30, 한국사학사학회, 2014.

84) 우인수, 「1749년(영조 25) 울산읍지 학성지의 편찬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17, 한국사연구회, 2002.

85) 『國譯 品川史集』, 金泉文化院, 2014.

86) 사찬 읍지의 출판과 번역 상황은 박인호, 「영남지역 사부 고문헌 자료의 번역 현황과 과제」, 『영남학』 18, 2010, 344~350쪽 참조.

87) 이재두, 「조선후기 경상도 읍지 편찬 사업 재검토」, 『대구사학』 138, 대구사학회, 2020.

88) 『韓國近代道誌』 7~8, 『嶺誌要選』 1~2, 韓國人文科學院, 1991.

김경대, 「영지요선과 ‘창원’ 관련 기록에 대하여」, 『가라문화』 27, 경남대학교박물관 가라문화연구소, 2015.

89) 『韓國近代道誌』 9, 『慶尙道誌』, 韓國人文科學院, 1991.

『慶尙道誌』, 景仁文化社, 2000. (韓國地理風俗誌叢書 57)

『慶尙道誌』, 아라, 2013.

90) 『嶠南誌』, 李根泳房, 1940.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찬 읍지별 소개와 분석은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또 이를 통해 16, 17세기 한려학파의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읍지 편찬을 주관하였으며, 읍지의 편목은 각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한려학파에서 편찬한 읍지를 살펴보면 다른 학맥의 『단성지』나 『금릉지』 등과는 달리 사회가 요구하는 개혁적 부분을 수용하기보다 대체로 주요 인물의 행적이나 이와 관련된 유적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중앙 정계에서 활동 반경이 축소된 한려학파의 정치적 처지와 향촌 사회에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사림 문화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6. 일기류의 광범위한 편찬

강안 지역에서는 임진왜란 관련 일기류가 광범위하게 편찬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 지역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운 및 내륙 교통로 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하였다. 이에 경상도 사람들은 관군이 아니더라도 일찍부터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의 침략에 저항하였다. 특히 강안 지역에서는 송암학파와 망우당학과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 자신의 행적과 관련된 일기를 다수 남겼다.

그런데 이들이 살았던 경상도 지역은 일본군의 침략 노정 위에 위치해 있었다. 경상도 지역이 일본의 침략에 쉽게 점령당한 이후 선조에 의해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sup>91)</sup> 이 지역의 인사들은 임진왜란 기간 동안 자신의 행동에 하자가 없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강안 지역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임진왜란 중의 일기 기록이 다른 지역에 비해 광범위하게 남게 되었다.

강안 지역에서 나온 대표적인 임진왜란 일기류 편찬물을 소개하면 예

---

『嶠南誌』 1~5, 景仁文化社, 1990.

『韓國近代道誌』 10~15, 『嶠南誌』 1~6, 韓國人文科學院, 1991.

91)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上曰 慶尙道人皆叛云 然耶”



천 鄭琢(1526~1605)의 『壬辰記錄』·『龍灣聞見錄』·『龍蛇雜錄』, 예천 鄭榮邦(1577~1650)의 『壬辰遭變事蹟』, 예천 郭守智(1555~1598)의 『浩齋辰巳錄』, 상주 趙靖(1551~1629)의 『壬辰日記』, 상주 柳軫(1582~1635)의 『壬辰錄』, 의성 申佐(1550~1614)의 『亂蹟彙撰』, 인동 張顯光(1554~1637)의 『龍蛇日記』, 대구 徐思遠의 『樂齋先生日記』, 성주 都世純(1574~1653)의 『龍蛇日記』, 거창 文緯(1555~1632)의 『茅溪先生日記』, 고령 全致遠(1527~1596)의 『壬癸別錄』, 밀양(고령) 申維翰(1681~1752) 평석의 『奮忠紓難錄』, 함안 李僈(1535~1600)의 『篁谷先生日記』 등이 있다. 그외 강안 지역 출신 인물들의 문집에 임진왜란 관련 일기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sup>92)</sup>

임진왜란 관련 일기 기록은 학계나 문중에 의해 다양하게 번역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인물 현양 차원에서 많은 학술대회가 개최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여러 연구 성과가 집적되었다.<sup>93)</sup> 다만 인물을 현양하는 차원에서 해당 일기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역사 사료로서의 的實性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sup>94)</sup>

이외에 병자호란과 만주족과 관련하여 의성 李民奐(1573~1649)의 『建州聞見錄』, 의성 申適道(1574~1663)의 『倡義錄』, 인동(칠곡) 申瀏(1610~1665)의 『北征日記』 등이 있다. 이민환이나 신유는 의성과 인동(칠곡) 출신의 인사가 원정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강안 지역에서는 관직 생활과 관련된 일기 기록도 다양하게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상주 趙翊(1556~1613)의 『可畦先生皇華日記』·『公山日記』, 상주 權相一(1679~1759)의 『淸臺日記』, 예천 함양박씨의

92) 박인호, 「임진왜란기 지방 지식인의 피난살이 - 장현광의 용사일기를 중심으로 -」, 『선주논총』 11,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2008.

93) 임진왜란 일기류에 대한 연구 성과는 여기에 따로 적기하지 않았다. <http://www.ris.s.kr> 에서 해당 도서에 대한 검색으로 대신한다.

94) 『화왕입성동고록』에 대한 사료로서의 적실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러한 점에서 학문사적 의의가 크다. 하영휘, 『화왕산성의 기억 : 신화가 된 의병사의 재조명』, 『임진왜란 : 동아시아 삼국전쟁』, 서강대학교, 2007.

『渚上日月』, 의성 李民宍(1570~1629)의 『朝天錄』, 선산 盧潛·盧尙樞 부자의 『先考日記』·『盧尙樞日記』, 선산 朴來謙(1780~1842)의 『西繡錄』·『藩槎錄』·『北幕錄』, 선산 朴思浩(1784~1854)의 『燕薊紀程』, 해평 崔暉(1563~1640)의 『朝天日錄』, 대구 全克泰(1640~1696)의 『退軒日記』, 대구 徐贊奎(1825~1905)의 『臨齋日記』, 영천 李衡祥(1653~1733)의 『江都志』·『南宦博物』·『耽羅錄』·『耽羅巡歷圖』·『東耳刪略』·『北屑拾零』, 고령 申維翰(1681~1752)의 『海遊錄』, 청도 朴時默(1814~1875)의 『雲牕日錄』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조천록, 여행록, 통신록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료 생활 일기 혹은 유관 기록이 수집되어 일찍부터 영인, 탈초, 번역 작업이 진행되었다.

강안 지역에서 나온 일기류들은 문중과 지역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일찍부터 번역과 연구가 이루어졌다.<sup>95)</sup> 그런데 최근 경향을 보면 일기에 대한 자료적 분석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는 크게 연구가 진전되었으나 일기가 가지는 사료로서의 적실성에 대해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기를 집필한 사람들에 대한 역사학적 관점의 접근에서도 부족함을 느낀다. 향후 일기를 적은 사람이 가진 문제의식이 나 역사의식에까지 연구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

## 7. 빈약한 정치서의 편찬

강안 지역에서는 정치 관련 역사서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 인조 대 서인이 집권하면서 광해군 정권에 협력하였던 퇴계학파의 월천계가 몰락하였다. 인조 집권 이후 인동의 여헌학파가 서인이 주도한 중앙 정

---

95)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5년부터 전국에 산재한 일기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작업을 벌여 최근 1,431종의 일기를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2022.12.7.). 조선시대 개인일기 국역총서도 발간하고 있다. 『조선시대 개인일기 1』(국립문화재연구소, 2015)에서는 대구·경북 소재 일기에 대한 해제집을 간행해 대구·경북에서 나온 일기 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문중의 지원으로 번역 간행된 책이 많아 여기서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는다.

계에 참여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현종 대 말과 숙종 대 초 일부 남인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는데 대표적인 집안으로 칠곡의 광주 이씨, 인동의 인동 장씨 등이 있다. 그러나 정권이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간 1694년의 갑술환국 이후 지역 출신 인물들의 정계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중앙 정계에서의 정치적 위상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다.

정치서는 주로 숙종 대 중앙에 진출하였던 광주 이씨 관련 책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庚申錄』은 광주 이씨 출신 李元禎(1622~1680)이 1680년 경신환국으로 추국 당하던 시기에 숙종 대 남인 정치가였던 李觀徵(1618~1695)이 쓴 경신년의 옥사관련 책이다. 대체로 남인의 입장에서 경신환국 이후의 동향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 중기에 적극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던 칠곡의 광주 이씨 집안에는 이와 관련된 정치 기록이 남아 있다. 李道長(1603~1644)은 1630년(인조 8)에서부터 1637년(인조 15)까지 승정원 가주서, 주서로 근무하면서 『주서일기』를 남겼는데 이를 영조 대 정서한 것이 최근 간행된 『승정원일기』이다.<sup>96)</sup> 李聘命(1646~1701)은 1672년(현종 13)에서 1675년(숙종 1)까지 승정원에서 국왕을 수행하면서 총 161책의 『승정원사초』를 기록하고 있다.<sup>97)</sup> 당시 중앙 정계의 동향을 남인 이담명의 시선으로 정리한 기록물이다. 이 집안에는 1670년(현종 11) 이담명이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아버지 이원정이 시관으로 있으면서 답지의 양식을 틀리게 사용한 답안지를 통과시켜 합격하게 해 주었다는 시비에 대해 이원정이 자신의 입장에서 기술한 『畏壬錄』이 남아 있다. 1712년(숙종 38) 이원정의 손자인 李世瑗이 조부의 신원을 위해 격쟁을 한 기록인 『天鑑錄』이 남아 있다. 그리고 1680년 8월 이원정이 유배지에서 소환되어 국청에서 사망한 이후 1691년 9월에 이르기까지 주위에서 있었

96) 『承政院日記』, 韓國學中央研究院, 2010.

정수환, 「17세기 이도장의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성격」, 『승정원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97) 李聘命, 『(廣州李氏家) 承政院史草』, 서울역사박물관, 2004.

김경수, 「조선후기 이담명의 주서일서에 대한 연구」, 『한국사학사학보』 12, 한국사학사학회, 2005.

던 일을 기록한 이담명의 『靜齋日記』가 남아 있다.<sup>98)</sup>

이와 같이 숙종 대 정치적으로 몰락했던 광주 이씨 이원정 집안에서는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 여러 정치서를 남겼다. 그러나 서인을 표방한 집안을 제외하고<sup>99)</sup> 남인 출신으로는 정치적으로 출세를 하거나 정치의 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울이나 충청도 지역에 비해 강안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 관련 역사서의 편찬이 빈약하다.

#### IV.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전통시대 강안 지역에서의 역사학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시도로 강안 지역에서 산출된 사부 편찬물의 정리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강안학의 범주로 대체로 북쪽 상주에서 남쪽 의령까지 해당 지역에서 나온 사부 편찬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 중기 이 지역에서는 상주 서애학과, 성주 한강학과, 인동 여헌학과, 고령 송암학과, 의령 망우당학파가 나와 경상좌도의 퇴계학과, 경상우도의 남명학과와 경쟁하고 있었다. 지역별 사부 편찬물의 정리는 이들 학파의 지역에 남긴 학문적 여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낙동강의 물류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던 조선시대에 강안 지역은 당시 문물의 중심이었던 기호 지역에 비해 문화적으로 지체 현상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체 현상은 새로운 문물을 창안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를 수용하면서 간략하게 정리하거나 유형별로 정리하기 좋은 학문적 풍토를 이루었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은 사부 편찬물의 편찬에도 영향을 미쳤다.

---

98) 박인호, 『영남 남인의 정치 중심 돌발, 칠곡 귀암 이원정 증가』, 예문서원, 2015.

이들 정치 관련 자료는 대부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되어 있다.

99) 박인호, 「만오 박래겸의 암행어사 직임 수행 배경에 대한 일고찰」, 『선주논총』 17, 금오공대 선주문화연구소, 2017, 311~312쪽.

이러한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낙동강 강안 지역의 역사학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역사의 흐름을 간략하게 이해하기 위한 연표형, 요약형 사서가 다수 편찬되었다. 유교적 도덕주의 속에서 역사를 이념적으로 이해하려는 강목과 춘추 계열의 역사서가 다수 편찬되었다. 지역의 선현, 명신을 추송하기 위한 인물서와 함께 새롭게 성장하는 중인들의 인물서가 다수 편찬되어 사람세력과 중인세력이 치열하게 갈등하는 현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선진 문물에 대한 관심에서 문물과 제도를 다룬 유서의 편찬이 활발하였다. 지역적 특색에 대한 관심은 광범위한 사찬 읍지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이 지역에서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정치적 이유에서나 혹은 조선 후기 정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일기류가 광범위하게 편찬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치 역사서의 편찬은 빈약하였다.

이상과 같이 강안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부 편찬물에서는 理想性, 受容性, 融合性의 사상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현실적으로는 도덕주의와 현실주의의 첨예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유형적 특색이 다른 지역 혹은 기호 지역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각 사서의 특성을 모두 살펴본 다음에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 10월 18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廣州李氏家承政院史草』, 서울역사박물관, 2004.
- 『(國譯) 歷代史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9.
- 『(國譯) 雙峯先生文集』, 박미경, 이지락, 김정기 옮김, 한국국학진흥원, 2016.
- 『京山志』, 성주문화원, 1997.
- 『慶尙道誌』, 경인문화사, 2000. (韓國地理風俗誌叢書 57)
- 『慶尙道誌』, 아라, 2013.
- 『嶠南誌』 1~5, 경인문화사, 1990.
- 『嶠南誌』, 李根泳房, 1940.
- 『國譯 襄陽耆舊錄』, 예천문화원, 1996.
- 『國譯 襄陽誌』, 예천향토문화연구회, 1994.
- 『國譯 榮州三邑誌』, 동양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역, 소수박물관, 2012.
- 『國譯 陟州誌』, 배재홍 역, 삼척시립박물관, 2001.
- 『國譯 天嶺誌』, 함양문화원(大譜社), 2012.
- 『國譯 品川史集』, 김천문화원, 2014.
- 『大東韻府群玉』, 남명학연구소 경상한문학연구회 역주, 소명출판, 2003.
- 『東輿備考』, 경북대출판부, 1998.
- 『懶齋先生文集』
- 『旅庵全書』, 경인문화사, 1976.
- 『文蔭縉紳譜』, 여강출판사, 1989, 합본 영인.
- 『柏巖先生文集』
- 『續綱目』, 경인문화사, 1977.
- 『義城誌集錄』, 의성문화원, 1994.
- 『朝鮮史綱目』, 아세아문화사, 1982.
- 『中山全書』, 중산전서간행회, 1983.
- 『寒岡全集』, 여강출판사, 1985.
- 『韓國近代道誌』 10~15, 『嶠南誌』 1~6, 한국인문과학원, 1991.
- 『韓國近代道誌』 7~8, 『嶺誌要選』 1~2, 한국인문과학원, 1991.
- 『韓國近代道誌』 9, 『慶尙道誌』, 한국인문과학원, 1991.

- 강구울, 『영주지 해제』, 『국역 영주삼읍지』, 영주시 소수박물관, 2012.
- 강희대 역, 『국역 성주 읍지잡기』, 성주문화원, 2012.
- 금장태 외, 『중산 박장현 연구』, 민족문화사, 1994.
- 김경수, 「정구의 함주지 연구」, 『민족문화의 제문제 - 우강권태원교수정년기념논총』, 1994.
- 김경수, 「조선후기 이담명의 주서일서에 대한 연구」, 『한국사학사학보』 12, 한국사학사학회, 2005.
- 김남일, 「한강 정구의 역사관과 정통론 - 역대기년의 중국사 체계에 대한 사학사적 고찰 -」, 『한국사학사학보』 34, 2016.
- 김동민, 「이진상 춘추집전의 성리학적 춘추 이해」, 『대동문화연구』 10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 김동민, 「이진상의 춘추학에 보이는 화이관의 특징(1)」, 『유교사상문화연구』 81, 한국유교학회, 2020.
- 김동민, 「이진상의 춘추학에 보이는 화이관의 특징(2)」, 『한국철학논집』 67, 한국철학사연구회, 2020.
- 김문식, 「16~17세기 한강 정구의 지리지 편찬」, 『민족문화』 29, 한국고전번역원, 2006.
- 김석배, 「김수기 구장본 의열도(중간본) 역주」, 『선주논총』 23, 2020.
- 김석배, 「김수기 구장본 의열도에 대하여」, 『선주논총』 22, 2019.
- 김석배, 「의열의 고장, 그리고 의열도」, 『한국고전의 세계와 지역문화』, 보고서, 2021.
- 김수태, 「유회당 권이진의 동경잡기간오」, 『도산학보』 6, 1997.
- 김영진, 「손와만록자서를 통해 본 향리 출신 문인 김경천의 생애」, 『대동한문학』 41, 대동한문학회, 2014.
- 김정대, 「영지요선과 ‘창원’ 관련 기록에 대하여」, 『가라문화』 27, 경남대학교박물관 가라문화연구소, 2015.
- 김정찬 역, 『연조귀감 : 향리의 사적을 담아 전하다』 1, 2, 민속원, 2017, 2018.
- 김학수, 「17세기 여헌학과 형성과 학문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인물사연구』 13, 2010.
- 김학수, 「한강 정구의 학문과 역대기년」, 『한국학보』 12-4, 1986.
- 문철영, 「1930년대 민족주의 사학의 일양상 : 중산 박장현(1908~1940)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9, 1989.

- 민태희, 「동국통지의 예문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서지학전공 석사학위논문, 1989.
- 박미라, 「대동운부군옥으로 본 초간 권문해의 역사인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인호, 「15세기 초반~17세기 중반 선산 지역 지식인들의 향현 추승 활동」, 『선주논총』 24, 2021.
- 박인호, 「19세기 중반 동국통지 병위지의 편찬과 자료적 성격」, 예천박물관 기획, 『예천 지역 기록문화와 백과사전』, 민속원, 2022.
- 박인호, 「김천 읍지 금릉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한국사학사학보』 30, 한국사학사학회, 2014.
- 박인호, 「동국십지와 동국통지에 대한 연구 - 사학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 『청계사학』 9, 청계사학회, 1992.
- 박인호, 「동국통감제강에 나타난 흥여하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54, 2014.
- 박인호, 「동국통지 지리지에 나타난 박주종의 역사지리인식」, 『한국사학사연구』, 나남, 1997.
- 박인호, 「동사찬요 열전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50, 2012.
- 박인호, 「만오 박래겸의 암행어사 직임 수행 배경에 대한 일고찰」, 『선주논총』 17, 금오공대 선주문화연구소, 2017.
- 박인호, 「박주종 - 조선후기 백과전서학의 발전과 지방 지식인」, 한영우선생정년 기념논총간행위원회 엮음, 『한국사인물열전』 3, 돌베개, 2003.
- 박인호, 「선산 읍지 일선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역사학연구』 64, 호남사학회, 2016.
- 박인호, 「성주 읍지 경산지의 파관과 그 정치적 함의」, 『퇴계학과 유교문화』 58,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6.
- 박인호, 「영남 지역 사부 고문헌 자료의 번역 현황과 과제」, 『영남학』 18, 2010.
- 박인호, 「영정조대 인물서의 편찬과 역사학의 동향」, 권오영 외, 『영정조대 문예중흥기의 학술과 사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 박인호, 「예천 함양 박씨 동원공파 고문헌의 성격과 내용」, 『조선사연구』 19, 2010.



- 박인호, 「인동읍지 옥산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장서각』 2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박인호, 「임진왜란기 지방 이서의 전쟁 경험과 정리 작업 - 이탁영의 정만록을 중심으로 -」, 『한국사학사학보』 34, 한국사학사학회, 2016.
- 박인호, 「임진왜란기 지방 지식인의 피난살이 - 장현광의 용사일기를 중심으로 -」, 『선주논총』 11,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2008.
- 박인호, 「입재 강제항의 역사인식과 현실비판」, 『한국학논집』 53, 2013.
- 박인호, 「제왕역년통고에 나타난 정국후의 역사인식」, 『한국사학사학보』 1, 한국사학사학회, 2000.
- 박인호, 「중국고금역대연혁지도에 나타난 권구의 역사인식」, 『조선시대사학보』 4, 조선시대사학회, 1998; 이해영 외, 『병곡 권구의 학문과 사상』, 드림, 2017.
- 박인호, 「진계 박재형의 저술과 학문사적 위상」, 『한국사학사학보』 39, 한국사학사학회, 2019.
- 박인호, 「한주 이진상의 춘추학 - 춘추집전과 춘추의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6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5.
- 박인호, 「해동문헌총록에 나타난 김휴의 학문세계」, 『선주논총』 9, 2006.
- 박인호, 「해동잡록에 나타난 권벌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52,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 박인호, 「홍와 이두훈의 동화세기 편찬과 역사인식」, 『한국사학사학보』 41, 2020.
- 박인호, 「활재 이구의 시대인식과 사회활동」, 박인호 외, 『활재 이구와 식산 이만부의 생애와 사상』, 문경시 근암서원운영위원회, 2018.
- 박인호, 「활재 이구의 역사인식과 현실비판」, 『조선사연구』 22, 2013.
- 박인호, 「휘찬여사 열전에 나타난 흥여하의 역사인식」, 『장서각』 31, 2014.
- 박인호, 『구미 지역사 연구』, 보고서, 2022.
- 박인호, 『영남 남인의 정치 중심 돌발, 칠곡 귀암 이원정 증가』, 예문서원, 2015.
- 박인호, 『인재 최현』, 애드게이트, 2021.
- 박홍갑, 「청도 사찬읍지 오산지(1673)의 편목과 특징」, 『중앙사론』 21, 중앙사학연구소, 2005.
- 박 환, 「1930년대 박장현의 근대사서술 - 해동춘추를 중심으로 -」, 『송실사학』 34, 2015.

- 박 환, 「식민지시대 역사학자 박장현의 증산전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2014.
- 배재홍, 「삼척부사 허목과 척주지」, 『조선사연구』 9, 조선사연구회, 2000; 『조선시대 삼척지방사 연구』, 우물이 있는 집, 2007.
- 예천박물관 기획, 『예천의 기록문화와 백과사전』, 민속원, 2022.
- 옥영정 외, 『조선의 백과지식 - 대동운부군옥으로 보는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우인수, 「1749년(영조 25) 울산읍지 학성지의 편찬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17, 한국사연구회, 2002.
- 유부현, 「동경잡기의 서지학적 연구」, 『서지학연구』 7, 서지학회, 1991.
- 이대형, 이미지 박상석 역주, 『손와만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5.
- 이수봉, 「해제」, 『동국통지』, 태학사, 1986.
- 이신성, 「상주 달내 마을 형제급난도에 대하여」, 『어문연구』 26,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1995.
- 이신성, 「창석 이준과 형제급난도」, 『한국인물사연구』 3, 한국인물사연구소, 2005.
- 이윤갑, 「읍지잡기(19세기 후반)의 사회경제론 연구」, 『대구사학』 36, 대구사학회, 1989.
- 이인복, 「김우옹의 원사 인식과 속자치통감강목」, 『한국사학사학보』 45, 2022.
- 이재두, 「1635년(인조 13) 현풍현감 김세렴의 포산지 편찬」, 『영남학』 58, 2016.
- 이재두, 「조선후기 경상도 읍지 편찬 사업 재검토」, 『대구사학』 138, 대구사학회, 2020.
- 이훈상, 「19세기 향리 지식인 이명구의 지적 여정과 지방 이서들에 대한 미완의 역사 프로젝트 연조귀감속편」, 『진단학보』 132, 진단학회, 2019.
- 이훈상, 「안동향손사적통록의 간행과 조선후기의 안동향리」, 『한국사연구』 60, 한국사연구회, 1988.
- 이훈상, 「어느 지방 이서의 임진왜란 증언과 전승 - 경상도 인동의 향리 유석진과 그의 임진왜란 일기 -」, 『영남학』 21,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2.
- 이훈상, 「연조귀감의 편찬과 간행」, 『진단학보』 53-54, 진단학회, 1982.
- 이훈상, 「조선후기 상주의 호장·이방 명단과 소하의 도상 해제」, 『역사와경계』 11, 부산경남사학회, 1986.
- 이훈상, 『향리의 역사서 연조귀감과 그 속편을 편찬한 상주의 지식인 이명구 가문과 그들의 문서』,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92.

- 임세권, 「영가지 편찬의 역사적 의의」, 『안동문화』 7, 안동문화연구소, 1986.
- 전덕재, 「동경잡기의 편찬과 그 내용」, 『신라문화』 1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1.
- 정구복, 「16~17세기의 사찬사서에 대하여」, 『전북사학』 1, 전북사학회, 1977.
- 정수환, 「17세기 이도장의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성격」, 『승정원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정우락, 「일제강점기 김호식의 동천자 저술과 그 의의」, 『동양한문학연구』 22, 동양한문학회, 2006.
- 정우락, 「일제강점기 동천자류의 저술방향과 그 의의」, 『한국사상과 문화』 44,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정윤주, 「규사(1859)의 편찬과 간행동기」, 『역사학보』 137, 역사학회, 1993.
- 조혜훈, 「손와 김경천의 울산 거주시기에 대한 고찰」, 『인문연구』 76, 2016.
- 최원석, 「여헌 장현광의 지리인식과 문인들의 지지편찬 의의」, 『동양고전연구』 49, 2012.
- 최윤진, 「16, 17세기에 편찬된 경상도의 사찬 읍지」, 『전북사학』 17, 전북사학회, 1994.
- 하영희, 「화왕산성의 기억 : 신화가 된 의병사의 재조명」, 『임진왜란 : 동아시아 삼국전쟁』, 서강대학교, 2007.
- 한영우, 「17세기 초의 역사서술 - 오운의 동사찬요와 조정의 동사보유 -」, 『한국사학』 6, 1985;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1989.
- 황재현, 「동경통지 해제」, 『국역 동경통지』, 경주문화원, 1989.

## The Compilation of the Sabu Historiography of the Nakdong River riverside area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Park, In-ho

In this thesis, in an attempt to examine the trend of historiography in the riverside(Gangan) area in the traditional era, I summarized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bu compilation produced in the Gangan area. Here, the category of the riverside(Gangan) area was mainly targeted at the Sabu compilations from Sangju in the north to Uiryeong in the south.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in these areas, the Sangju Seoae School, the Sungju Hangang School, the Indong Yeoheon School, the Goryeong Songam School, and the Uryeong Mangwoodang School were competing with the Toegye School of Gyeongsang Reft Province and the Nammyung School of Gyeongsang Right Province. Here, if I summarize how the sabu history books was compiled by region, you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virtues left in the area of these schools.

The riverside(Gangan) area of the Nakdong River formed an academic group represented by Seoae of Sangju, Hangang of Sungju, Yeoheon of Indong, Songam of Goryeong, and Mangwoodang of Uiryeong, and the academic tendency of these schools was active in bureaucratic activities and had a free spirit in academic attitude. They showed reformism enough to be linked to practical studies(Silhak), advocated academic independence different from existing academia,

and tried to build a unique academic world through this. In addition, there was a cultural lag phenomenon in the riverside area compared to the Kiho area near Seoul, which was advantageous in briefly organizing or sorting by type while accepting the culture of other areas. And even though it could not create new culture, it has achieved a good academic climate to compile various types of books that emphasize the morality of Confucianism.

Due to these academic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many chronological and brief history have been compiled to briefly understand the flow of history in the field of history. On the other hand, many historical books of the Kangmok and Chunchu series were compiled to understand ideologically in Confucian morality. In the Gangan area, a number of encyclopedias of newly growing middlemen were compiled along with encyclopedias of characters to honor the local prestige and the gods. This also shows that the Gangan area has become a scene where the Sarim forces and the growing forces are fiercely conflicted. In the area corresponding to the way down from Seoul, the compilation of encyclopedias dealing with culture and institutions was active in the interest of advanced cultures. The interest in regional characteristics was compiled by the geography of the towns(Sachan eupji), which is widely compiled by the Hangang and the Yecheon schools. In this area, diary was widely compiled to show his position for political reasons or in political conflic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However, the compilation of political books that comprehensively deal with political events was poor.

In short, the Gangan area has strong ide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Ideology, rationality, acceptability through the compilation of history books. On the other hand, moralism and realism have been sharply encountered due to social conflicts.

**keywords :**

riverside(Gangan) area of the Nakdong River, Ryu Seong-ryong,  
Jeong Gu, Jang Hyeon-gwang, Kim Myeon, Kwak Jae-woo

# 낙동강 연안의 누정제영 창작과 그 의미

## -구미 선산의 梅鶴亭을 중심으로-

최은주\*

- I. 머리말
- II. 구미 선산 지역 낙동강 연안의 누정 분포와 제영시
- III. 매학정의 건립과 역사적 자취
- IV. 매학정 제영시의 창작자와 작품 현황
- V. 문학적 소통 공간으로서의 매학정과 그 의미
- VI.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누정과 그 문학적 소통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강이 지닌 경계의 역할과 함께 소통의 기능을 전제 하면서 낙동강 연안의 누정을 중심으로 어떤 양상의 문학적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그 실제적 모습을 탐색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 대상으로 구미 선산 지역의 매학정을 선정한 것은 지금도 존재하는 누정으로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

구체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먼저 구미 선산 지역 낙동강 연안의 누정

---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 ejchoi@koreastudy.or.kr

전반과 관련 제영시 현황을 검토했다. 조선시대 편찬된 선산 관련 지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선산 지역 누정은 19세기 말까지 公廨를 포함해 총 32개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누정은 모두 11개였다. 이 누정들은 오랜 시간 동안 생성과 소멸을 거듭했는데, 한결같이 명맥을 유지했던 것은 매학정을 포함해 월파정과 노자정 3곳 정도였다. 이것은 제영시 현황에 있어서도 비슷한 현상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매학정의 건립 배경과 역사적 자취를 살펴보았다. 매학정은 1533년(중종28) 황기로가 처음 건립했다. 이후 사위이자 율곡의 동생인 玉山 李瑀(1542~1609)에게 물려주면서 이우의 자손들이 매학정을 관리 보존했다. 임진왜란을 거치고 시간도 오래 지나면서 매학정은 점점 퇴락했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우의 고손자 李東溟(1624~1692)이 1653년(효종4)에 완전하게 복구했다. 19세기 전반 화재로 다시 소실되었는데, 1862년(철종13) 황기로의 7대손 황민술이 원래 그 자리에 다시 지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매학정 제영시에 대해서는 1533년부터 1866년까지 약 330년 동안 40명에 달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은 분량의 작품을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학정 건립 초기의 제영시들은 창작 배경에 있어서 정자 주인 황기로와 매학정 그 자체에 연결고리가 닿아있었다. 그러나 황기로가 사위 이우에게 매학정을 물려주면서 그곳에는 율곡 이이의 동생인 이우의 자취가 깃들기 시작했다. 기사환국때 송시열의 당으로 지목되어 유배를 당할 만큼 노론계 핵심 인물로 활동했던 이동명은 매학정을 복구하면서 당대 유명 문인들에게 시와 서문을 받기 위해 광폭 행보를 보였는데, 이 때문에 17세기 중엽부터는 매학정 제영시가 서인 노론계 인물들의 작품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누정 자체를 읊은 누정 제영시는 정서적 소통의 측면이 두드러졌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데, 오랜 시간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공간 인지가 시간을 종적으로 넘나들기도 하고 횡적인 시간대를 기준으로 창작자의 공간이 지역을 넘나들기도 했다. 누정 제영의 창작 배경으로서 누정 주인과 그에 따른 역사적 자취는 문학적 소통 양상의 특징을 구획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매학정 제영시들이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동시에 낙동강 뱃길 연안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매학정은 명승지라는 타이틀과 함께 다양한 방면에서 다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었음 알 수 있었다. 이 위에서 문학적 소통 역시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 주제어

누정제영(樓亭題詠), 매학정, 강안학, 낙동강 연안 누정, 문학 공간, 황기로(黃耆老), 이우(李瑀), 이동명(李東溟)

## I. 머리말

본고는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문학적 소통 공간으로서의 누정을 주목한 것이다. 낙동강은 지리적으로 좌도와 우도를 가르는 뚜렷한 경계였기 때문에 사회문화 제 분야에서 지역적 특징을 구분 짓게 만드는 차단의 기능을 했다. 그러나 동시에 강의 본류와 지류에 연결된 수많은 나루터를 통해 인적 물적 소통이 이루어지던 교류의 장이었으므로, 정치·사회·문화 제반에 걸쳐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정신적 교류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했다. 학계는 일찍부터 낙동강 연안이 사이를 가르는 경계를 넘어 소통과 통섭으로 나아간 접경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해 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의 특징적 경향을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을 시도해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江岸學과 洛中學이란 용어이다.

이동영이 영남 지역의 시가문학적 특성을 살피면서 좌도·우도와 뚜렷이 변별되는 완충지역을 ‘강안’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설정한 이후, 이 용어는 낙동강 연안 지역의 유학 사상사를 새롭게 읽으려는 시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sup>1)</sup> 이러한 기반 위에서 정우락은 강안학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고령 유학을 대상으로 실험적인 논의를 진행했다.<sup>2)</sup> 이후 홍원식은 ‘강안학’을 두고 문제의식 등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뿌리가 같다면에서도 영남 유학에서 학파의 분포를 고려할 때 낙동강 중류 지역의 유학은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낙중학’의 개념을 제안했다.<sup>3)</sup> 강안학이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라면, 낙중학은 지역적 한계를 설정해 영남 유학을 읽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제한적이고 구체적이다. 영남 유학을 대상으로 하는 낙중학 연구는 이때부터 심도

---

1) 이에 대해서는 정우락의 「강안학과 고령 유학에 대한 시론」(『퇴계학과유교문화』 43,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8)과 홍원식의 「영남유학과 낙중학」(『한국학논집』 40,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0)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2) 정우락, 앞의 논문(2008).

3) 홍원식, 앞의 논문(2010).

있게 진행되어 꽤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된 편이다.<sup>4)</sup> 최근 장운수가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이 10년 동안 수행해 온 ‘낙중학 연구’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 자체가 낙중학 연구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sup>5)</sup>

이에 비해 강안학은 강안 지역 문학 활동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시도로 나아가면서 아직은 개념적 범주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sup>6)</sup> 각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종합과 진전을 성취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답보 상태인 것이다.<sup>7)</sup> 정우락이 낙동강 연안 지역의 공간 감성과 이에 기반한 문학적 소통에 대해 전반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강안학은 문학 연구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화된 측면이 있다.<sup>8)</sup> 본고가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누정과 그 문학적 소통 양상을 규명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

4) 이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에서 간행한 낙중학 총서 시리즈에 대부분 집성되어 있다. 근 10년 동안 총 8책이 간행되었는데, 그 주제와 서명은 다음과 같다.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지역의 유학』(2012); 『낙중학의 원류, 조선 전기 도학파의 사상』(2013); 『조선 중기의 낙중학,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2017); 『조선 중기의 낙중학, 여헌 장현광의 삶과 사상』(2017); 『조선 후기 낙중학의 전개와 ‘한려학파’』(2018); 『조선말의 낙중학, 한주 이진상의 삶과 사상』(2018); 『근대 시기 낙중학, ‘주문팔현’과 한주학파의 전개』(2020); 『녹봉정사와 조선 중기의 낙중학』(2020); 『일제강점기의 낙중학, 한주학파의 재전 제자들과 낙중 지역 유현들』(2021).

5) 장운수, 「낙중학의 성과와 과제(철학 분야)」, 『한국학논집』 제8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1.

6) 정우락, 「조선중기 강안 지역의 문학활동과 그 성격: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7) 낙동강 연안의 문학에 대한 초기 연구로 황위주의 「낙동강 연안의 유람과 창작공간」(『한문학회』 18, 우리한문학회, 2008)이 있다. 김학수의 「船遊를 통해 본 洛江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의식-17세기 한려학인을 중심으로」(『영남학』 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는 문학 분야의 연구는 아니지만 낙동강 연안의 船遊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 성과로 참고할 만하다. 최근에 문학 연구 방면에서 낙동강을 대상으로 강안학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 사례가 조금씩 축적되고 있다. 황명환, 「부강정 관련 한시에 나타난 공간 감성과 지역적 특징」, 『인문학21』 9,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김소연, 「간송 조임도의 문학에 나타난 낙동강 연안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84, 한국문화학회, 2020.

8)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 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제의식에 닿아있다. 강이 지닌 경계의 역할과 함께 소통의 기능을 전제하면서 낙동강의 연안의 누정을 중심으로 어떤 양상의 문학적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그 실제적 모습을 탐색해보려는 것이다. 그 대상으로 구미 선산 지역의 매학정을 우선 선정한 것은 지금도 존재하는 누정으로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草聖 황기호가 매학정을 건립해 그의 사위이자 율곡의 동생인 이우에게 물려주었기에 영남 남인계와 기호 노론계 문인들이 동시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몇몇 특징적 양상이 포착되기 때문이다.<sup>9)</sup>

구미 선산의 매학정에 대해서는 몇몇 논문에서 간략한 언급만 있었을 뿐 지금까지 그 구체적인 실상과 그 창작 제영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의 진행을 위해 먼저 구미 선산 지역 낙동강 연안의 누정 전반과 관련 제영시 현황을 검토해 정리하고, 이 속에서 매학정이 가지는 누정 제영 창작의 배경적 요소들을 짚어볼 것이다. 그리고 매학정의 건립 배경과 역사적 자취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매학정 제영시의 창작 현황의 특징적 양상을 이와 결부시켜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매학정이라는 누정을 매개로 이루어진 낙동강 연안 지역의 문학적 소통 양상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 II. 구미 선산 지역 낙동강 연안의 누정 분포와 제영시

낙동강의 본류는 북쪽 태백산 黃池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안동 부근에 이르러 半邊川을 비롯한 여러 지류와 합류해 서쪽으로 흐르고, 상주와 문경 부근에서 내성천과 영강을 합류한 뒤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며 구미시 중앙을 관통한다. 아래의 지도를 보면 낙동강이 구미시

---

9) 정우락, 앞의 논문(2014), 199~200쪽 참조, 정우락은 매학정의 이러한 특징적 경향을 간략하게 언급하며 강안 지역의 대표적인 소통 공간으로 주목했다.

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10)</sup> 낙동강 오른쪽 강변으로 도개면과 해평면이 길게 닿아있고, 왼쪽으로는 옥성면과 선산읍 그리고 고아읍이 접해있다. 구미시 남쪽 아래로 칠곡군 경계에 닿아있는 곳이 인동군의 일부 지역인데, 1977년 구미시에 통합되었다. 선산읍과 고아읍 사이를 가르는 하천은 감천(甘川)이다.



<그림 1> 구미시 지도

지금의 구미시는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볼 때 선산도호부와 인동도호부의 일부 지역이 통합된 도시이다. 본고에서 구미시 선산 지역으로 지리적 공간을 명기한 것은 누정 분포의 역사적 맥락을 규명하기 위해 조선시대

10) 구미시청 홈페이지(<https://www.gumi.go.kr>) 참고.

편찬된 선산 지역 지리서들을 근거 자료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리적 공간 범위를 파악할 때 지금의 구미시 대부분이 조선시대 선산 지역과 중첩되므로 결과론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크지 않다고 하겠다.

선산 관련 지리서는 조선 개국 이후 1937년까지 관찬과 사찬 모두 합해서 약 26차례에 걸쳐 편찬되었다.<sup>11)</sup> 이 가운데 일부는 전국 지리지에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는 선산 지역만을 대상으로 삼은 읍지 성격의 것들이다. 15세기에 편찬된 선산 관련 지리서는 4종 정도인데, 이 가운데 누정과 題詠 등 문화적 항목이 들어간 것은 1469년에 편찬된 『慶尙道續撰地理誌』뿐이다.<sup>12)</sup> 여기에 수록된 ‘선산도호부’의 내용을 보면 유명누대로 청형루과 월파루 2곳을 기록하고 있다. 월파루는 월파정을 가리킨다.

아래의 도표는 선산 관련 지리지를 시대별로 검토해 그 누정 분포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16세기는 1531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참고했고, 17세기는 崔暉(1563~1640)이 편찬한 『一善誌』<sup>13)</sup>와 柳馨遠(1622~1673)이 편찬한 『東國輿地志』<sup>14)</sup>를 조사했다. 18세기 지리서로는 1757~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간행한 전국 지방지 성격의 『輿地圖書』를 참고했다.<sup>15)</sup> 19세기 지리서로는 4종을 확인했는데, ①1832년 무렵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慶尙道邑誌』, ②金正浩

11) 박인호, 「지리서를 통해 본 전통시대 선산 사회의 변화」, 『조선사연구』 23호, 조선사연구회, 2014, 140~141쪽.

12) 『경상도속찬지리지』(필사본 1책)는 1469년(예종1) 경상도관찰사 金謙光(1419~1490), 김해부사 李孟賢, 경주교수 朱伯孫, 성주교수 張繼弛, 안동교수 趙昱 등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것으로 『경상도지리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13) 『일선지』는 여러 이본 가운데 최현에 의해 만들어진 초기 『일선지』로 추정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참고했다.(박인호, 「선산 읍지 『일선지』의 편찬과 편찬 정신」, 『역사학연구』 64집, 호남사학회, 2016, 79쪽.)

14) 유형원의 『동국여지』는 ‘한국고전종합DB’에 구축되어 있는 원문DB를 참고했다.

15) 필사본 55책이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국가편찬위원회에서 원문을 텍스트화해 한국사료총서 20집으로 간행했는데, 현재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원문DB가 구축되어 있다.

낙동강 연안의 누정제영 창작과 그 의미(최은주)

(1804~1866)가 1861~1866년경에 편찬한 『大東地志』, ③『일선지』를 바탕으로 고종대까지의 내용을 후보해 1877년경에 간행한 『일선읍지』, ④1899년 전국 읍지 상송령에 의해 선산에서 편찬한 『善山邑誌』이다. 19세기의 경우 각 지리지에 실린 ‘누정’ 항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전체 현황을 기록하고, 그 옆 칸에는 수록된 지리지를 표기하였는데 지리서 앞에 매긴 번호를 기준으로 삼았다. 아래의 표에 진한 테두리로 구분한 것은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누정들이다. 마지막 부분에 公廨로 구분한 누정은 19세기에 편찬된 『경상도읍지』와 『선산읍지』에 의거한 것이다.

<표 1> 선산 지역 누정 분포의 추이와 현황

연번	누정명	16세기 『신증동국 여지승람』	17세기		18세기 『여지도서』	19세기	
			『일선지』	『동국여지』		현황	수록 지리서
1	淸迥樓	○	破毀	今未重建	今無	今無	①③④
2	月波亭	○	○	○	○	○	①②③④
3	養素樓	○	破毀	今未重建	今廢	今廢	①④
4	鷗鷺亭		○	○	○	頽圮/遺墟	①②③④
5	松堂		○	○		今毀撤	①③
6	梅鶴亭		○	○	○	○	①②④
7	滄巖亭		廢墟			今爲廢墟	③
8	綠野亭		○			○	③
9	灑然亭		○			○	③
10	詠歸亭		○	○		○	③
11	洛西亭				○	今無	①③④
12	獨醒亭					○	③
13	濟南樓					○	②
14	後澗堂					○	①③④
15	採薇亭					○	①③④

16	明鏡堂					○	①④
17	拱北亭					今無	①
18	讀書齋					今無	①④
19	西山齋					○	①④
20	龍首巖					○	①③④
21	霽月樓					○	④
22	一鑑亭					○	④
公廨	雲鏡亭				○	○/今無	①④
	鳳下樓		○	○		○	①②③④
	正正樓					○	①②③④
	察眉樓					○	①③④
	洛南樓					○	④
	憑虛閣					○/今無	①④
	禦牧軒					○	①④
	君子亭					○/今無	①④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청형루와 월과정 외에 양소루 1곳이 새롭게 추가되었음[新增]을 확인할 수 있다. 청형루는 宮室 北館의 남쪽에 있던 누정이었다, 양소루는 북관 북쪽에 사신 접대를 위해 세운 것이었다.<sup>16)</sup> 17세기에 최현은 『일선지』를 편찬하며 청형루와 양소루 모두 누정이 아닌 ‘公署’ 가운데 客官의 부속 건물로 수록했다. 그리고 객관은 정유재란 당시 부서져 훼손되었다고 기록했다. 이보다 조금 늦게 편찬된 『동국여지』에는 누정 항목이 따로 없고 누정이 ‘궁실’에 포함되어 있는데, 북관·남관·청형루·양소루 모두 정유재란 때 파괴되었으나 당시까지 증언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봉하루 또한 ‘公署’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누정은 선산부사에 부임했던 趙纘韓(1572~1631)이 1629년

16) 양소루에 대해서는 曹偉(1454~1503)의 <善山養素樓記>(『梅溪集』 권4 수록)에서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조위의 기문이 수록되어 있다.



(인조7)에 건축한 것이다.

위의 표에 근거하면 선산 지역 누정은 19세기 말까지 公廨를 포함해 총 32개로 집계할 수 있다. 훼손 및 소멸 상태와 상관없이 누정 존재의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16세기에 3개, 17~18세기에 11개, 19세기에는 32개이다. 18세기 『여지도서』의 편찬 시기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누정이 18세기 후반부터 건립되었다가 소멸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것은 모두 11개이다. 위의 표에서 유색으로 표시해 구분했는데, 이 11개 누정의 위치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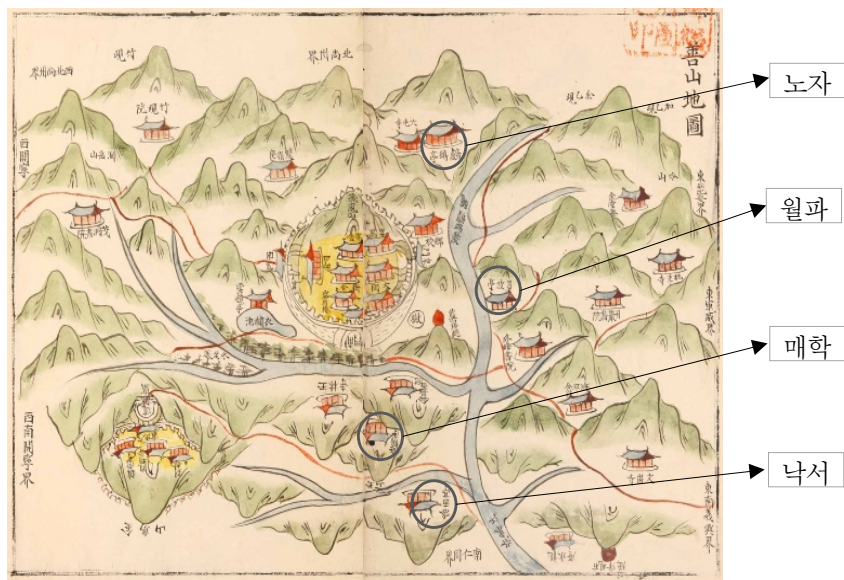
<표 2> 선산지역 낙동강 연안의 누정 위치

누정명	위치	건립배경
月波亭	낙동강 鯉埋淵 하류 餘次尼津 위	閔霽(1339~1408)의 명으로 崔關이 고을에 부임해 건립 *1399년경
鷗鷺亭	낙동강 서쪽 언덕 노자암 위	
松堂	태조산, 낙동강가에 임해있고 冷山을 마주하고 있음	朴英(1471~1540)이 건립 *1530년대
梅鶴亭	孤山 위, 낙동강과 감천이 교류하는 곳	黃耆老(1521~1567) 건립 *1533년
滄巖亭	노자암 상류 낙동강변 바위절벽 위	진사 金世忠이 거쳐, 폐허
綠野亭	해평리 孤山 위	최치운, 최치우 형제가 건립
灑然亭	楓川 위, 좌측으로 낙동강이 흐름	
詠歸亭	일과정 뒤쪽 鯉埋淵 아래	盧景任(1569~1620)이 건립 *1613년
洛西亭	府 남쪽 緋山津 위	李堉(1629~1704)가 건립
獨醒亭	낙동강 鯉埋淵 위	
龍首巖	府 동쪽 甌峰 아래 낙동강 위	

낙동강 연안의 11개 누정 중에 오랜 시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했던 것은 월파정과 매학정 두 곳뿐임을 알 수 있다. 월파정이 매학정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지어졌으니 그 역사가 좀 더 길다고 할 수 있겠다. 17~18세기 지리지에 어김없이 등장했던 노자정과 송당의 경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훼손되거나 무너져 빈터만 남았다. 그리고 17세기 최현의 『일선지』에서부터 그 존재가 나타나든 녹야정·쇄연정·영귀정은 영귀정이 『동국여지지』에 수록된 것을 제외하면 19세기 『일선읍지』에서만 확인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선읍지』는 최현의 『일선지』를 토대로 고종대까지의 내용을 추보한 것이다. 녹야정이나 쇄연정의 경우 최현·김윤안 등 17세기 몇몇 문인들의 문집에서만 그 자취를 드물게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 영귀정은 盧尙樞(1746~ 1829)가 1763년부터 1828년까지 기록한 『노상추일기』에 간혹 등장하지만 일기에서 빈터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아 18세기 후반에 이미 건물은 사라지고 이름만 남은 것으로 파악된다.

낙서정은 19세기 지리지에서 이미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독성정은 『일선읍지』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만 역시 『노상추일기』에서 빈터로 기록되었기에 사실상 언제 세워져서 언제 허물어졌는지 그 역사적 자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용수암은 19세기 지리지에서 대부분 확인되고 『노상추일기』에서도 드물게 언급되었지만, 건립 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고 하겠다.

아래의 지도는 1832년 간행된 『경상도읍지』 9책에 수록된 ‘선산도호부’의 지도이다.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대표적인 누정을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대략 4곳 정도이다.



<그림 2> '선산도호부'의 지도(『경상도읍지』 9책)

선산 지역에 많은 누정들이 생성되고 또 소멸했다. 그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했던 곳은 사실상 위의 지도에 표기된 누정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낙서정은 건립부터 소멸까지 다른 누정에 비해 그 시간이 비교적 짧았으므로, 월파정·노자정·매학정 3곳 정도만이 긴 시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어 그 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누정으로는 이 중에서 매학정이 유일하다고 하겠다. 이 때문에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누정의 제영시는 이 3곳을 제외하면 몹시 소략한 형편이다.

월파정의 경우 권근·서거정·김종직·성현·송순·노경임·정약용 등의 제영시들이 다수 남아있다. 그러나 정약용이 “우리나라에 月波亭이라고 불리는 정자가 세 군데 있는데, 나는 세 곳에 모두 가보았다.”라며, 하나는 영남의 낙동강가에 또 하나는 노량진의 서편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黃州城 동쪽에 있다<sup>17)</sup>고 언급한 것처럼 월파정 제영시를 추출해

그 현황을 정리하는 것은 작품과 작자 모두 면밀하게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자정은 긴 시간의 역사에 비해 제영시는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 金允安(1560~1622) 등 약 8명 정도가 파편적으로 노자정 제영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되는 정도이다.

### Ⅲ. 매학정의 건립과 역사적 자취

『일선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매학정은 黃耆老(?~1567)가 건립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아래의 예문을 보면 대략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處士 黃公[黃耆老]은 우리 동방의 草聖이다. 영남 지역 낙동강 서쪽의 寶泉灘 위에 정자를 짓고는 산을 孤山이라 부르고 정자는 梅鶴亭이라 불렀는데, 이는 대개 和靖 林逋를 흠모해서이다. 공의 先祖께서 일찍이 이 지역을 좋아하였으므로, 공이 선대의 뜻을 이어받아 정자를 지은 것이다. 그 해는 嘉靖 癸巳年(1533, 중종 28)으로,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이다.<sup>18)</sup>

鄭斗卿(1597~1673)이 황기로의 외예손 李東溟(1624~1692)의 요청으로 칠언율시 <梅鶴亭>을 창작해 줄 때 서문도 함께 써주며 ‘매학정’의 내력을 언급한 바 있다. 위의 글은 그 가운데 일부이다. 황기로가 중국 송나라의 林逋를 흠모했기에, 그가 西湖의 孤山에 은거하며 매화나무를 심고 학을 기르며 지낸 것을 본받아 황기로 본인도 낙동강변의 낮은 산을 고산이라 부르고 그곳에 매학정을 지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때를 1533년(중종28)이라 기록했다. 아마 이동명이 그렇게 알려준 것으로 보여진다. 황기로는 글씨와 초서로 유명하지만, 정작 그의 행적과 선대에

17)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14, <黃州月波樓記>.

18) 鄭斗卿, 『東溟集』 권7, <梅鶴亭并序>, “處士黃公 我東草聖 作亭於嶺南洛江之西寶泉之上 山號孤山 亭號梅鶴 蓋慕林和靜也 公先祖嘗愛此地 公承先志結構焉 在嘉靖癸巳 去今百四十餘年矣.”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부친 황계옥이 조광조를 탄핵한 것 때문에 출사의 뜻을 접고 선산에 매학정을 지어 그곳에서 필법을 익히며 노년을 보냈다는 사실 정도가 전해질 따름이다.<sup>19)</sup>

宋純(1493~1582)은 1552년(명종7) 선산도호부사로 부임해 황기로의 매학정을 유람하면서<sup>20)</sup> 3편의 시를 남긴 바 있다. 그중 1편이 황기로의 매학정시에 차운한 것이다. 이로 보아 당시에 선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매학정을 찾아 유람할 만큼 이미 명성이 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배경에는 황기로의 사위 李瑀(1542~1609)의 영향력도 적지 않다. 이우의 호는 玉山이고 본관은 德水인데, 李珥(1536~1584)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후대의 문인들이 더욱 주목한 경향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황기로의 외예손 이동명이 곧 이우의 증손자이다. 이동명은 이우의 시문을 수집해 간행을 도모했고, 그 과정에서 宋時烈(1607~1689)에게는 서문과 墓表를 李端夏(1625~1689)에게는 玉山傳을 요청했다. 아래의 예문은 이단하가 쓴 옥산전의 일부분이다.

만년에 一善[선산]의 처가로 돌아가 孤山의 梅鶴亭을 수리해 낚시질로 스스로 즐거워하였다. 號를 玉山主人이라 하였는데, 遺稿 2권이 집안에 보관되어 있다. 감사 崔峴이 『일선지』를 저술하면서 공에 대해 별도로 立傳했으며, 수록한 그의 詩篇 제목에 ‘一善三絶’이라고 표기했다. 德山黃氏를 배필로 맞이했으니, 고산처사 황기로의 딸로 친척과 이웃들이 그 어진 덕행을 칭송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景節이다.<sup>21)</sup>

19) 황기로의 부친 黃季沃은 正德 癸酉年[1513]에 進士試에 합격했고, 靜庵 趙光祖의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조부 黃璫은 牧使로 호는 橡亭이다. 증조부 黃允獻은 한성부 參軍을 지냈으며 낙동강가에 無盡亭을 건축했다고 한다.(宋純, 『侂仰集』 권3, <次黃上舍(耆老)梅鶴亭韻>)

20) 宋純, 『侂仰集』 권5 附錄, <年譜>, “壬子嘉靖三十一年(明宗七年) 先生六十歲 閏三月二十三日 命絀外任 二十六日 降授善山都護府使 …(중략)… ○遊黃孤山耆老梅鶴亭.”

21) 李瑀, 『玉山詩稿』 附錄, <玉山傳>(李端夏), “晩年歸一善婦家庄 修孤山梅鶴亭 漁釣自娛 號玉山主人 有遺稿二卷藏于家 崔監司峴(\*峴의 오기) 著一善志 於公別立傳 錄所著詩篇 題曰一善三絶 配德山黃氏 孤山處士耆老之女 親戚鄉黨 推其賢德 有一男二女 男景節.”

이우가 말년에 선산의 처가로 내려가 장인의 매학정을 수리해 그곳에서 낚시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는 기록이 분명하다. 이때가 대략 1605년(선조38)년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4년 뒤 처가에서 세상을 떠났고 자손들이 선산 舞萊山에 장사지냈다. 이우는 덕산황씨와 혼인해 1남 2녀를 두었고, 그 아들이 李景節(1571~1640)이다. 이경절은 1606년(선조39) 진사시에 합격했지만 이후 과거에 대한 뜻을 접고 매학정에서 날마다 향리 사람들과 소요하며 은거했다고 한다.<sup>22)</sup> 인조반정 이후에 관직에 나아가 황산도찰방, 문경현감 등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崔有淵(1587~1656)이 쓴 이경절의 행장에 따르면, 이경절은 매학정의 正寢에서 임종했다고 한다.<sup>23)</sup> 이경절은 광주김씨와 혼인했는데, 공조참의 金穎男(1555~1617)의 딸이다. 사이에 3남을 두었으니 李楫 · 李穡 · 李穰이고, 장남 이즙(1597~1671)이 沈光世(1577~1624)의 딸 청송심씨와 결혼해 5남 1녀를 두었다. 이즙 차남이 곧 이동명이다. 송시열은 이경절의 묘갈명뿐만 아니라 이즙의 묘갈명도 지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선산부에 매학정이 있는데, 그 좋은 경치가 남쪽에서 으뜸인 까닭에 황공(황기로)이 건립했다고 들었다. 옥산 이우가 황공의 사위가 되었는데 한성에서 거처할 때부터 자손들이 가문을 이루었다. 옥산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司議 景節이라고 한다. 사의가 김영남의 딸에게 장가들어 공을 낳았으니 공의 휘는 楫이다. …(생략)… 마침내 다시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선산으로) 돌아가 매학정에서 湖山の 즐거움을 누렸다. 승정 신해년(1671) 3월 28일 향년 75세로 매학정에서 졸하였다.<sup>24)</sup>

22) 宋時烈, 『宋子大全』 권175, <司議贈左承旨李公墓碣銘>, “所居善山 有梅鶴亭別業 公日與鄉人逍遙其上 若將終身焉”

23) 崔有淵, 『玄巖遺稿』 권4, <故聞慶縣監李公行狀>, “公外祖孤山處士黃公耆老也 草聖傳天下 家洛濱 以此自皇考卜居洛濱 庚辰九月 公卒於梅鶴亭之正寢”

24) 宋時烈, 『宋子大全』 권177, <平昌郡守李公墓碣銘>, “善山府有梅鶴亭 其勝致甲於南州 故聞人黃公耆老所築 李玉山瑀爲黃氏壻 自漢師寓居 而子孫因家焉 玉山有子 曰司議景節 司議娶參議金穎男女 生公 公諱楫 …(생략)… 遂不復至京邑 歸享湖山之樂于梅鶴亭 崇禎辛亥三月廿八日 享年七十五 而卒于梅鶴亭”

송시열은 이우부터 이경절, 그리고 이즙까지 이르는 3대의 묘도문자를 모두 작성했다.<sup>25)</sup> 이 글들에서 그가 꼭 언급했던 것은 이이와의 관계 그리고 선산의 매학정이었다. 위의 글에서는 생략했지만 송시열은 이즙의 묘갈명에서도 덕수이씨 가문이 예부터 명문거족이었으며 이우가 율곡의 동생임을 적시했다. 묘갈명대로라면 이즙은 평창군수를 마지막으로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고, 선산으로 내려가 매학정에서 산수를 즐기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동명은 선대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증조부 이우의 문집 간행을 주도한 것이나 송시열에게 조부와 부친의 묘도문자를 부탁한 것 등이 이러한 의지의 결과물일 것이다. 무엇보다 매학정을 복구하면서 그에 대한 제영시를 당대 유명 문인들에게 널리 요청하고 수집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았는데, 정두경은 <매학정>의 詩序에서 이동명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임진년을 거친 이후로부터 정자는 무너져 없어지고 단지 그 터만 남아 있었으므로 호사자들이 한스럽게 여겼다. 使君 李東溟이 황공의 외예로서 개연히 정자를 다시 지을 뜻을 가지고 경영하니 찬란하게 옛 모습을 회복했다.<sup>26)</sup>

임진왜란을 거치고 시간도 오래 지나면서 매학정은 점차 허물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우가 장인의 매학정을 수리해 은거하고, 아들 이경절 역시 정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1640년(인조5) 매학정의 正寢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 기간 동안에는 매학정의 외형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었던 것 같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완전히 허물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趙任道(1585~1664)가 <梅鶴亭懷古>를 지으면서 첫

25) 모두 『송자대전』에 수록되어 있다. <軍資監正李公墓表>(『송자대전』 권193)는 이우의 묘표이고, <司議贈左承旨李公墓碣銘>(권175)는 이경절의 묘갈명이며, <平昌郡守李公墓碣銘>(권177)은 이즙의 묘갈명이다. 이우의 묘표는 그의 시집 『옥산시교』에도 수록되어 있다.

26) 鄭斗卿, 『東溟集』 권7, <梅鶴亭并序>, “自經壬辰以後 亭已毀滅 只有基址 好事者恨之 李使君東溟 卽黃公外裔 慨然有堂構之志 經之營之 煥然復古.”

구절에 “가을바람에 배를 저어 맑은 강 거슬러 올라가, 오래되어 무너진 孤山의 정자를 방문하였네.”라고 한 것에서도 그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임도는 시 후반부에서 이름만 남은 매학정이 처량하다며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슬프다고 표현했다.<sup>27)</sup>

무너진 정자를 이동명이 완전하게 복구했던 시기는 1653년쯤으로 파악된다. 황기호가 매학정을 건립한 것은 1533년(중종28)이었다. 李頤命(1658~1722)이 쓴 <梅鶴亭題詠錄跋>에 따르면, 정자가 건립되고 60여년이 지났을 때 전쟁으로 인해 정자가 불타 섬돌이 파손되고 기와가 부서졌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60여년이 지난 즈음에 이동명이 선조의 유업을 계승하려는 독실한 효심으로 오래된 정자를 중건해 학을 기르고 매화를 심었다고 했다.<sup>28)</sup> 매학정 복구 시기를 1653년(효종4)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이명의 이 기록에 의거해서이다. 이동명은 매학정을 새롭게 단장한 후 당대 유명 문인들에게 시와 기문을 받기 위해 광폭 행보를 보였다. 매학정 제영의 창작자와 작품 현황을 살펴보면 그의 이러한 노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우가 선산 처가로 내려온 후 그의 자손들은 선산에 대대로 세거했다. 이동명의 주거지는 선산부 망장면 예곡리였는데,<sup>29)</sup> 이후 李鼎華(1650~?) - 李廣義(1675~1749) - 李壽海 - 李春彬 - 李曙 - 李載喆 - 李敏復 - 李琦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거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0)</sup> 남아있는 기록으로만 볼 때 매학정과 선산 덕수이씨 가문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이동명 대까지만 확인된다. 그 이후 매학정의

---

27) 趙任道, 『澗松集』 권2, <梅鶴亭懷古>, “西風一棹泝空明 來訪孤山舊廢亭 日暮殘雲棲古樹 秋深缺月印寒汀 琴書寂寞今何處 梅鶴淒涼只有名 惆悵名區久無管 一江鷗鷺亦含情.”

28) 李頤命, 『疎齋集』 권10, <梅鶴亭題詠錄跋>

29) 이동명 준호구 참조. 선산 덕수이씨 문중의 자료들은 현재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에서 이 문중의 자료들을 해제하여 DB정보로 구축했다.

30) 이들의 호구단자와 준호구 또는 교지류 자료들이 대거 남아있으므로, 이 자료들에 의거해 그 거주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http://cksm.kangwon.ac.kr>))



자취에 대해서는 앞의 장에서 살펴보았던 선산 관련 지리지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약간의 시문에서 그 존재 확인이 가능한 정도이다.

선산 지역에 세거했던 盧尙樞(1746~1829)가 남긴 일기에 매학정이 간혹 등장하는데, 관찰사 일행이 선산을 지나가거나 선산부사가 뱃놀이를 할 때 경유했던 곳으로 기록되었다. 낙동강을 오르내리는 뱃길의 중간 나루터 역할을 주로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가하면 노상추의 조카가 매학정을 방문해 喪人 李胤彬을 조문했다는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 이윤빈에 대한 인물정보는 상세하지 않지만, 이우의 6세손 이춘빈의 항렬을 볼 때 덕수이씨 문중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노상추가 일기를 기록한 기간은 1763~1828년까지이다.<sup>31)</sup>

宋秉璿(1836~1905)·宋秉珣(1839~1912) 형제가 1866년(고종 3) 금오산을 유람할 때 매학정에 들러 송시열의 매학정시에 차운한 작품이 나란히 남아있는데,<sup>32)</sup> 송병순의 시 마지막에 ‘정자가 불타고 재만 남아 근래 비로소 중건했기에 제2연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亭入於火劫 近始重建 故第二聯云]’라는 주석이 보인다. 매학정의 역사적 자취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다. 이 기록으로 본다면 지금의 매학정은 19세기 전반에 불타 없어졌다가 1866년 직전에 중건된 것이다.

매학정은 1974년 경상북도 기념물 제16호에 지정되었다. 현재 행정구역 주소는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면 예강리[예곡]이며, 덕수이씨 문중의 소유이다. 매학정 앞의 안내문을 참고하면 황기로가 1533년 조부의 뜻을 받들어 처음 건립하였고, 1862년(철종13)에 화재를 입은 것을 황기로의 7대손 黃敏述이 원래의 자리에 다시 지었다고 한다. 누정에 걸린 현판들을 통해 누정의 중수 내력 등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

31) 『(국역)노상추 일기』 1~3, 한국사료총서 번역서 11-13,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대 이터베이스).

32) 宋秉璿, 『淵齋集』 권1, <梅鶴亭 敬次文正公韻>; 宋秉珣, 『心石齋集』 권3, <梅鶴亭 敬次文正先祖板上韻 二首>

#### IV. 매학정 제영시 창작자와 작품 현황

황기로가 매학정을 건립한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문인들이 매학정을 노래했다. 초기에는 주로 누정을 방문한 이들이 낙동강변의 뛰어난 경치를 읊으며 은연중에 황기로를 떠올리거나 누정에 얽힌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황기로를 제목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 예컨대 신광환의 <書孤山黃(耆老)梅鶴軒>이나 송순의 <次黃上舍(耆老)梅鶴亭韻>, 임억령의 <孤山梅鶴亭> 또는 황준량의 <梅鶴亭八景 爲黃台叟次林石川韻>과 <次申駱峯韻 贈黃台叟梅鶴亭>과 같은 작품들이다.

1533년부터 1866년까지 약 330년 동안 40명에 달하는 인물들이 매학정 제영시를 창작했다.

매학정 제영시를 창작한 인물들과 그 작품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표 3> 매학정 제영시 창작 현황

성명	생몰연도	시 제목	수록문집
申光漢	1484~1555	書孤山黃(耆老)梅鶴軒	『企齋集·別集』 권1
宋純	1493~1582	次黃上舍(耆老)梅鶴亭韻 2수	『俛仰集』 권3/ 『一善誌』
		五月十五夜 與天章同宿梅鶴亭 2수	『俛仰集』 권3
		梅鶴亭與諸公飲酒 *『면앙집』에는 <自海平歷參司馬會於江亭>이란 제목으로 2수가 수록	『俛仰集』 권3/ 『一善誌』
林億齡	1496~1568	孤山梅鶴亭	『石川詩集』 권4
		再用梅鶴亭韻	『石川詩集』 권6
成運	1497~1579	次梅鶴堂韻 *『일선지』에는 <次梅鶴亭韻>	『大谷集』 권상/ 『一善誌』
趙昱	1498~1557	題梅鶴亭 3수	『一善誌』
李滉	1501~1570	次(梅鶴亭)	『一善誌』
李楨	1512~1571	次梅鶴亭韻 丁未	『龜巖集』 권1
		次梅鶴亭二首 *一首入元集	『龜巖集·續集』 권1

낙동강 연안의 누정제영 창작과 그 의미(최은주)

黃俊良	1517~1563	梅鶴亭八景 爲黃台叟 次林石川韻	『錦溪集』 권2/ 『一善誌』
		次申駱峯韻 贈黃台叟梅鶴亭	
		梅鶴堂 次退溪韻	
		次(梅鶴亭) 2수	『一善誌』
李珥	1536~1584	訪梅鶴亭	『栗谷全書·拾遺』 권1
鄭岷壽	1538~1602	梅鶴亭 別從弟進 甥盧克	『栢谷集』 권1
李瑀	1542~1609	梅鶴亭卽事	『玉山詩稿』 詩
		梅鶴亭 贈李伯生戚兄 辛未春	
金涌	1557~1620	次孤山梅鶴亭韻 贈李生景節 2수	『雲川集』 권1
洪瑋	1559~1624	題梅鶴亭	『西潭集』 권1
金瑩	1571~1648	次石心韻 題梅鶴亭帖	『北渚集』 권1
趙任道	1585~1664	梅鶴亭懷古	『澗松集』 권2
		孤山梅鶴亭懷古(*위와 같은 시)	『澗松集·續集』 권1
金焦	1597~1638	送別黃伯見	『敬窩集』 권2
鄭斗卿	1597~1673	梅鶴亭 并序	『東溟集』 권8
金得臣	1604~1684	梅鶴亭古基(7언절구)	『栢谷詩集』 책2
		梅鶴亭古基(5언율시)	『栢谷詩集』 책3
宋時烈	1607~1689	次李百宗(東溟) 梅鶴亭韻	『宋子大全』 권4
		書孤山梅鶴亭題詠卷後	『宋子大全』 권148
俞瑒	1614~1690	寄題梅鶴亭 并序	『秋潭集』 권후
李翔	1620~1690	題梅鶴亭圖	『打愚遺稿』 권1
李翊相	1625~1691	李承宣百宗(東溟) 送孤山梅鶴亭題詠 索拙語甚勤 次軸中韻以博一粲	『梅澗集』 권5
李敏敘	1633~1688	次孤山梅鶴亭韻 贈主人李百宗(東溟) 2수	『西河集』 권4
		寄題李承旨百宗梅鶴亭	『西河集』 권5
金錫胄	1634~1684	寄題梅鶴亭	『息庵遺稿』 권4
		再題梅鶴亭	
趙持謙	1639~1685	次鄭君平韻 寄李承宣(東溟)梅鶴亭	『迂齋集』 권1

任壁	1640~1724	次韻題梅鶴亭詩帖	『水村集』 권5
李畬	1645~1718	次尤丈和溟翁韻 題李承旨(東溟)梅鶴亭詩卷	『睡谷集』 권1
李世龜	1646~1700	望孤山先賦	『養窩集』 책2
		梅鶴亭 次主人李公(瑀) 壁上懸板韻	
趙正萬	1656~1739	梅鶴亭 庚寅	『寤齋集』 권1
李頤命	1658~1722	追和梅鶴亭題詠韻 并序	『疎齋集』 권1
		梅鶴亭題詠錄跋	『疎齋集』 권10
申聖夏	1665~1736	善山梅鶴亭	『和菴集』 권2
金鎮商	1684~1755	梅鶴亭 次玉山韻	『退漁堂遺稿』 권3
鄭基安	1695~1755	梅鶴亭 次族祖東溟公韻	『晚慕遺稿』 권1
宋明欽	1705~1768	梅鶴亭 別權弟亭叔(震應)	『櫟泉集』 권2
李胤永	1714~1759	梅鶴亭	『丹陵遺稿』 권4
李重慶	1724~1754	到梅鶴亭有感	『雲齋遺稿』 권1
姜鼎煥	1741~1816	梅鶴亭主人李仲涉 泛舟下飛山津 先吟一律 余在座次之	『典庵集』 권2
宋秉璿	1836~1905	梅鶴亭 敬次文正公韻	『淵齋集』 권1
宋秉珣	1839~1912	梅鶴亭 敬次文正先祖板上韻 二首	『心石齋集』 권3

황기로의 문집이 별도로 남아있지 않고 『일선지』나 기타 관련 지리지에도 황기로의 매학정 시는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누정에 걸린 현판에서 황기로가 1549년(명종4)에 조부 黃瑋의 시에 차운한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황기로의 매학정시를 차운한 작품은 송순의 <次黃上舍(耆老)梅鶴亭韻>과 임억령의 <再用梅鶴亭韻>, 그리고 성운·조옥·이황·이정의 작품이다. 성운과 이정의 시는 본인의 문집과 『일선지』에 모두 수록된 반면, 조옥과 이황의 시는 문집에서 찾아볼 수 없다.<sup>33)</sup>

33) 『일선지』에 수록된 조옥의 <題梅鶴亭> 3수는 첫 번째 작품만 韻字가 같고 뒤의 2수는 韻字가 다르다. 수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배경을 알기는 어렵다.

송순의 시 3편은 그가 1552년(명종7) 선산부사로 부임했을 때 매학정을 직접 방문해 창작한 것이다. 모두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일선지』에 <梅鶴亭與諸公飲酒>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작품은 송순의 문집인 『면양집』에는 <自海平歷參司馬會於江亭>이란 제목으로 2수가 실려 있다. 江亭이 매학정을 가리켰던 것으로 보인다. 임억령의 경우 어떤 계기로 매학정 제영시를 지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1542년(중종37) 宣慰使가 되어 영남에 가서 일본사신을 영접한 이력이 있는데, 이때 매학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성운·조옥·이황·이정의 매학정시도 그 창작배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성운의 경우 시에서 황기로를 처사에 빗대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마지막 구절에서 “명리를 잊고 은거한 지가 벌써 십 년이라[逃世忘名已十年]”라고 했으므로, 황기로가 매학정을 짓고 은거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 창작한 것이 아닌지 그 창작 시기 정도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정도이다.

황준량은 매학정 제영시를 가장 많이 남겼다. 시 제목에서 직접적으로 黃台叟에게 준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여덟 경치를 별도로 읊을 정도로 황기로와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일선지』에 실린 차운시 2수는 황기로의 시에 차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는 황준량의 문집인 『금계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른 시들은 신광한과 임억령 그리고 이황의 시에 차운한 것으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 초기에 매학정 제영시를 남긴 인물들은 어떤 형태였든 간에 황기로를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매학정 건립 초기의 제영시들은 창작 배경에 있어서 정자 주인 황기로와 매학정 그 자체에 연결고리가 닿아있었다. 그러나 황기로가 사위 이우에게 매학정을 물려주고, 이우가 만년에 처가인 선산으로 내려와 매학정에 은거하면서 매학정에는 울곡의 동생인 옥산 이우의 자취가 깃들기 시작했다. 이이가 지은 <訪梅鶴亭>에는 매학정을 방문했을 때 주인 황기로가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고, 그와 성주에서 우연히 만났던 것이 자신이 원하던 바였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이는 1557년(명종12) 성주목사에 재직중이던 盧慶麟의 딸과 혼

인했기에, 혼인 당시 성주를 오고 갔을 때 황기रो와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동생 이우가 황기रो의 사위가 되었던 것이다. 이우는 매학정을 소재로 두 편의 시를 지었다.

위의 도표를 보면 옥산 이우의 제영시 아래로 대부분 서인 노론계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김용·홍위·조임도·김휴 등 극소수의 인물만 영남 남인계로 분류할 수 있을 따름이다. 김용은 김성일의 조카이자 이황의 손녀 사위이다. 1599년(선조32)부터 2년 동안 선산부사를 역임한 바 있다. 김용의 시는 황기रो의 매학정시에 차운해 이경절에게 준 것이었다. 시 제목의 세주에는 이경절을 이우의 아들이 아닌 고산 황기रो의 외손으로 표기하고 있다. 홍위는 군위 출신으로 유성룡의 문인이었고, 정경세·이준·장현광 등과 교유했던 인물이다.

함안 출신 조임도는 장현광의 문인으로 퇴계 이황 - 한강 정구 - 여헌 장현광의 학맥을 계승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조임도가 매학정을 찾아갔을 때는 정자가 거의 무너졌을 때였다. 조임도 역시 그곳에서 황기로만을 떠올리며 시를 지었다. 김휴 역시 장현광의 문인이다. 김휴는 매학정에서 黃伯見을 송별하며 시를 지었는데, 황백견은 시 제목 아래 세주에 따르면 이름이 黃震龍으로 황기로 族孫이라 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본다면 영남 출신의 남인계 인물들은 의식적이었던 무의식적이었던 매학정을 두고 시를 지을 때 황기로는 떠올릴지언정 이이와 이우는 배제되었다. 그것은 창작 배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17세기 중엽부터 매학정 제영시가 서인 노론계 인물들의 작품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은 이우의 손자 이동명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李東溟의 자는 白宗, 호는 鶴汀이다. 1652년(효종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경주 부윤, 예조참의, 서천군수, 청송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689년(숙종15) 기사환국 때 富寧으로 유배되었다가 4년 뒤인 1692년에 유배지에서 죽었다. 아래의 예문은 鄭澣(1648~1736)가 지은 이동명의 신도비명 중에 일부분이다. 정호는 송시열의 문인이자 정철의 고손자이다.

공(이동명)이 일찍이 매학정 옛터에 정자를 새롭게 수리해서는 항상 초야의 옷에 지팡이를 짚고 낮밤으로 노닐었다. 尤庵선생부터 정두경 공, 김석암[김석주], 남호곡[남용익] 등 여러 공들이 모두 시를 지어 노래하였다.<sup>34)</sup>

이동명이 매학정을 새롭게 수리해 그곳에서 노닐었다는 것과 송시열부터 정두경, 김석주 남용익 등 여러 문인들이 매학정 제영시를 지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정호는 이동명의 신도비명을 쓰면서 “영남 선비들의 습속이 黨論에 고질병이 있는데, 공의 敎導에 힘입어 나아진 효과가 없지 않았다.”라거나 “己巳年(1689)에 이르러 기미를 틈타 독기가 뻗쳐 우암 송선생이 먼저 참화를 당하자 이에 공이 宋某의 黨으로 ‘선한 무리를 해쳤다[戕害善類]’라고 지목되면서 마침내 유배를 당했으니 심하구나! 黨癩之禍여.”<sup>35)</sup>라고 기록했다. 이동명은 송준길을 효종의 묘청에 배향시키자고 상소한 바 있으며, 노론의 영수 송시열·이이명 등과도 매우 가깝게 교류했다. 결국 기사환국때 송시열의 당으로 지목되어 유배를 당할 만큼 그는 노론계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이동명의 이러한 정치적 입지와 행적에 힘입어 서인 노론계의 쟁쟁한 인물들이 매학정 제영시를 창작했던 것이다.

송시열과 이이명이 『매학정제영록』에 각각 발문을 쓴 것이나<sup>36)</sup> 김류와 임방, 이여가 시 제목에서 梅鶴亭詩帖 또는 梅鶴亭詩卷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 그리고 정두경·유창·이민서가 매학정 제영시를 지을 때 병기한 詩序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이동명이 매학정시첩을 만들어 교류하던 문인들에게 보여준 사실과 제영시를 받기 위해 적

34) 鄭澐, 『丈巖集』 권15, <府尹李公神道碑銘>, “公嘗修葺梅鶴舊址 常以野服藜杖 日夕徜徉 自尤庵先生以下如鄭公斗卿·金息庵·南壺谷諸公 皆爲詩以詠歌之.”

35) 鄭澐, 『丈巖集』 권15, <府尹李公神道碑銘>, “嶺南士習 癩於黨論 賴公敎導 不無遷幽之效 …(중략)… 及至己巳 乘機逞毒 尤庵宋先生首被慘禍 乃以公黨於宋某 戕害善類爲日 卒至竄謫 甚矣 黨癩之禍也.”

36) 송시열은 <書孤山梅鶴亭題詠卷後>을 이이명은 <梅鶴亭題詠錄跋>을 지었는데, 작품 현황을 정리한 도표에서 송시열과 이이명의 작품 부분에 유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이 발문들이다.

극적 행보를 보였던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아래의 예문은 이이명이 쓴 발문 중에 일부분이다.

이것은 (덕수)이씨 가문에 보관되어 있는 『매학정제영록』인데, 앞뒤로 詩文 약 간 편이니 모두 아울러 1권이 된다. 皇明 嘉靖 癸巳年(1533)부터 지금 임금의 甲子年(1684)까지 실로 일백 오십여 년 동안 총 60여 명이고, 대부분 당시의 名賢, 鉅公들이다. 간혹 인물과 시문 중에 반드시 취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지만 대개 얻는 대로 기록한 것이어서 그다지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략)… 공이 젊어서부터 조정의 어진 대신들과 두루 교유하며 선대의 아름다움을 선양하고자 歌詩를 널리 구하였는데 말년에 이를 때까지도 그만두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華陽 [송시열], 瑞石 [김만기], 息菴 [김석주], 松磻 [이단하], 鄭君平 [정두경], 南雲卿 [남용익] 등 여러 공들과 나의 숙부인 西河先生 [이민서]이 모두 즐거이 그를 위해 그 일을 칭송하였는데 주옥같은 시편들이 卷帙에서 빛나니 이 또한 한 시대의 성대한 일이다.<sup>37)</sup>

이이명이 본 『매학정제영록』에는 누정이 건립된 1533년부터 1684년까지 약 150년 동안 60명에 달하는 문인들의 창작 제영시가 수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매학정제영록』에 실린 시문과 창작자 가운데 일부는 수록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아마도 당파를 달리했던 인물들에 대한 간접적인 배척이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이명은 당쟁의 격화가 심화되던 시기 노론 4대신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매학정은 지리적 위치 자체가 영남의 선산이었고,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다양한 인물들이 제영시를 창작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도 지역의 문인들이 종종 들를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다.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처럼 이동명은 집안에서 보관하던

37) 李頤命, 『疎齋集』 권10, <梅鶴亭題詠錄跋>, “右李氏家藏梅鶴亭題詠錄 前後詩文凡若干篇 并爲一卷 自皇明嘉靖癸巳 訖今上甲子 實一百五十有餘年 摠六十有餘人 率多當時名賢鉅公 間有人與文不必取者 蓋隨得而錄 不甚甄別也 …(중략)… 公乃自早歲 盡交朝廷在位賢者 揄揚先美 廣求歌詩 至于末年而猶未已 是以華陽瑞石息菴松磻鄭君平南雲卿諸公及我叔父西河先生 皆樂爲之稱道其事 瓊琚琳琅 輝映卷秩 斯又極一時之盛也.”



매학정 제영시를 편집해 『매학정제영록』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젊어서부터 말년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주변 문인들에게 제영시를 요청하며 지속해서 제영록을 증보해 나갔다. 그래서 당대 문인들이 대거 참여한 시첩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이명이 기록한 시첩의 대표적 인물들을 보면 노론계 핵심 인물들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이동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매학정이 서인 노론계 인물들의 제영으로 가득하게 된 것은 물론 이동명의 행적과 노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송시열의 간접적인 영향도 고려할 만한 여지가 있다. 『매학정제영록』 발문과 매학정 차운시, 그리고 이동명의 요청으로 지어 준 이우·이경·이즙 3대의 묘도문자에서 송시열은 선산의 덕수이씨 집안을 모두 율곡이이와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다. 매학정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아래의 예문은 송시열이 쓴 <書孤山梅鶴亭題詠卷後> 가운데 일부분이다.

이 孤山 梅鶴亭題詠 1권은 承宣 李百宗[이동명]이 편집한 것이다. 孤山은 百宗의 증조부 옥산공의 遺業이며, 옥산은 율곡 선생의 막내 동생이다. 그 詩卷 중에 退陶[이황]와 大谷[성운] 이상의 시가 들어있는 것은 산에 정자가 있었던 것이 대개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으로 인해 명승지가 된 것은 옥산[이우]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속일 수는 없다.<sup>38)</sup>

송시열은 孤山을 이동명의 증조부 즉 이우의 유업으로 인식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서처럼 이우가 율곡의 동생임을 언급했다. 뒤이어 『매학정제영록』 안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이황과 성운처럼 그 이전 시대를 살았던 인물의 작품이 들어간 것은 누정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 명승지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덧붙이며, 고산에 있는 매학정은 옥산 이우 때문에 명승지가 된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 박았다. 송시열은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매학정은 이우 때문에 이름이 났고 이우는 율곡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38) 宋時烈, 『宋子大全』 권148, <書孤山梅鶴亭題詠卷後>, “右孤山梅鶴亭題詠一卷者 李承宣百宗之所編也 孤山 百宗曾王考玉山公之遺業 而玉山 栗谷先生之季弟也 其卷中有退陶 大谷以上諸詩 山之有亭蓋久矣 而其因人而勝 則自玉山不可誣矣.”

는 것을 말하고 있다. 황기로가 매학정을 건립했고 그것을 사위 이우에게 물려주었다는 사실은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동명의 부탁으로 매학정 제영시를 창작했던 다른 서인 노론계 문인들도 매학정을 인식하는 시각은 비슷했다. 그러나 송시열처럼 심하게 경도되지는 않았다. 이들의 시는 제목에서 이동명을 직접 언급하거나 아니면 매학정시첩에 쓰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거나 또는 이우의 시에 차운한다는 것 등으로 서로의 창작 행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

이동명의 대가 지나가면서 매학정 제영시는 다시 감소하였다. 누정을 직접 방문해 시를 짓는 개별적 창작 활동이 산견되는 정도이다. 주목되는 것은 송병선·송병순 형제가 지은 시이다. 이들은 1866년 금오산 유람 당시 매학정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누정에 걸린 9대조 송시열의 시를 보게 되었다. 송병순은 그때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일행은 곧장 梅江에 정박해 매학정에 올랐다. 정자는 고산 황기로 공이 건립한 것으로 사위 옥산 이우에게 물려준 것이다. …(중략)… 몇몇 공의 시판 두세 개가 있었는데, 우리 선조 尤翁[송시열]이 지은 시 두 편도 동쪽 門楣에 걸려 있었다. …(중략)… 돌아와 매학정에 오르니 상사 김진영과 옥산 후손 이민재도 와서 모였다. 모여든 젊은 선비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돌리다가 선조의 시판 2수에 차운해 시를 지었다.<sup>39)</sup>

송시열은 매학정을 유명하게 만든 인물이 곧 율곡의 동생 이우임라고 하였다. 송병선·송병순 형제가 매학정에서 선조 송시열을 추모하며 그에 차운시를 지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들에게 매학정은 황기로와 이우의 공간이기 전에 송시열이 인연을 맺고 차운시를 창작했던 대상으로서의 공간이었다.<sup>40)</sup> 단편적이기는 해도 이러한 지점

39) 宋秉珣, 『心石齋集』 권12, <遊金烏錄>, “一行直泊梅江 登梅鶴亭 亭是孤山黃公耆老之作 而付其婿李玉山者也 …(중략)… 有諸公二三詩板 我先祖尤翁所製二律 亦揭東楣 …(중략)… 回上梅鶴亭 金上舍晉永及玉山後孫李敏載亦來會 莘莘襟佩 列坐巡觴 仍次先祖板上韻二首”

40) 宋秉璿, 『淵齋集』 권19, <遊金烏山記>.

에서 누정 제영 창작의 지속적인 확산이 이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작품들이 축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문학적 소통 공간으로서의 매학정과 그 의미

전통 시대에 누정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강학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고, 契會 · 宗會 · 詩會 등의 모임 장소로도 이용되었으며, 개인 별장처럼 조용히 은거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누정의 활용은 어떤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지었는지와 밀접하게 연동된다.

문학적 소통 공간이라는 시각으로 제한해서 보더라도 누정의 활용은 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여러 사람이 누정에 모여 시를 짓는 詩會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누정 신축이나 중건을 기념하기 위해 정자 주인이 일시적으로 축하시를 요청하기도 하며,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그 감흥을 읊기도 한다. 개인적인 창작의 경우에도 소통의 측면에서는 역시 단순하지 않다. 방문 계기부터 누정 주인과의 관계나 건립 배경에 대한 이해까지 시에서 드러내는 정서적 소통 양상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기도 하고, 누정에 걸린 詩板에 차운할 때에도 선택적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詩會처럼 집단 창작의 공간으로서 직접적인 모임 장소로 이용될 때에는 누정 자체가 吟詠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때의 누정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문학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 그 자체로서 장소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누정 자체를 읊은 누정 제영시는 정서적 소통의 측면이 뚜렷해진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든다. 매학정 제영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랜 시간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공간 인지가 시간을 종적으로 넘나들기도 하고, 횡적인 시간대를 기준으로 창작자의 공간이 지역을 넘나드는 양상 같은 것이다. 이동명이 동료들에게 요청해 많은 작품들을 수집했지만, 그중에 매학정을 실제로 방문

한 이는 거의 없었다. 이동명의 이야기와 먼저 지은 선후배의 작품들을 토대로 누정 공간의 실제적 이미지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俞場(1614~1690)은 <寄題梅鶴亭>를 지으며 쓴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기록한 바 있다.

나는 산수를 몹시 좋아해서 매번 아름다운 경치를 만날 때마다 마음을 뺏앗겼다. 유독 孤山의 매학정만은 일찍이 가보지를 못했으니 꿈속에서 상상하며 달려간 것이 대개 오래되었다. 이에 承宣 李百宗[이동명]이 先外祖 黃孤山[황기로]의 유업을 이어받아 매학정을 중수하고 나에게 책자를 보여주며 그 사실을 읊어달라고 요청했다.<sup>41)</sup>

유장은 매학정에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동명은 유장에게도 책자를 보여주며 시를 지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책자가 앞에서 언급했던 『매학정제영록』일 것이다. 이동명의 인맥 네트워크 속에서 『매학정제영록』을 매개로 이루어진 매학정 제영시의 집단 창작은 누정의 실제적인 장소 관념과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유장은 이어지는 글에서 자신이 매학정을 가만히 살펴보니 다섯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첫 번째는 산과 물의 아름다움을 모두 얻어야 했던 장소, 두 번째는 그곳에 누정을 건립한 것, 세 번째는 그 누정을 오래도록 전승한 것, 네 번째는 그 후예가 다시 완성한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후예가 세상의 번거로운 形役에서 벗어나 누정의 승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다섯 가지의 어려움은 비단 매학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뒤집어서 본다면 매학정의 경우 이러한 다섯 가지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순조롭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매학정 제영시가 뚜렷하게 보여준 것처럼 누정 제영의 창작 배경으로

---

41) 俞場, 『秋潭集』 卷亨, <寄題梅鶴亭 并序>, “不佞癖於山水 每遇佳境 輒融神焉 獨於孤山梅鶴亭 足未曾及 而夢想心馳者蓋久矣 迺者李承宣百宗能官構其先外祖黃孤山遺業 投示一冊子 屬余賦其事.”

서 누정 주인과 그에 따른 역사적 자취는 문학적 소통 양상의 특징을 구획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누정의 지리적 위치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하다. 산과 물의 아름다움을 모두 얻어야 한다는 유장의 언급은 한쪽 측면에서만 본다면 누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유장의 의도와 무관하게 누정의 위치가 강에 임해있는 것은 접근성의 측면에서 소통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매학정의 경우 낙동강 뱃길이 이어지는 강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나루터로도 종종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예문은 『노상추일기』에서 매학정이 언급된 내용 가운데 일부분으로 매학정의 지리적 위치와 그에 따른 기능을 짐작케 한다.

- ① 들으니 옛 순찰사 金河震이 오늘 善山府에 들어와서 梅鶴亭 나루를 건넜다고 한다.<sup>42)</sup>
- ② 들으니 신임 관찰사 李載榦 比安에서 葛峴을 거쳐 桃開를 지난 뒤에 梅鶴亭을 경유해 採薇亭에서 즐기고 星州로 향했다고 한다.<sup>43)</sup>
- ③ 仁同의 陽村으로 향하다가 梅鶴亭에 도착하여 잠시 쉬었다.<sup>44)</sup>
- ④ 이날 부사가 松堂 江倉津의 배 위에 앉아서 뱃놀이를 하려고 龍山에 도착할 즈음에야 趙氏 부녀의 시신을 건졌다고 한다. 부사는 용산진에서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梅鶴亭으로 내려갔다고 한다.<sup>45)</sup>

매학정을 나루터라 직접적으로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경상도관찰사 행차가 선산을 경유할 때 지나던 누정으로, 길손이 오고 가며 들르는 누정으로, 낙동강 뱃길의 여러 나루터 중 하나인 동시에 뱃놀이가 가능한 누정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매학정은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42) 노상추, 『노상추일기』, 1774년 6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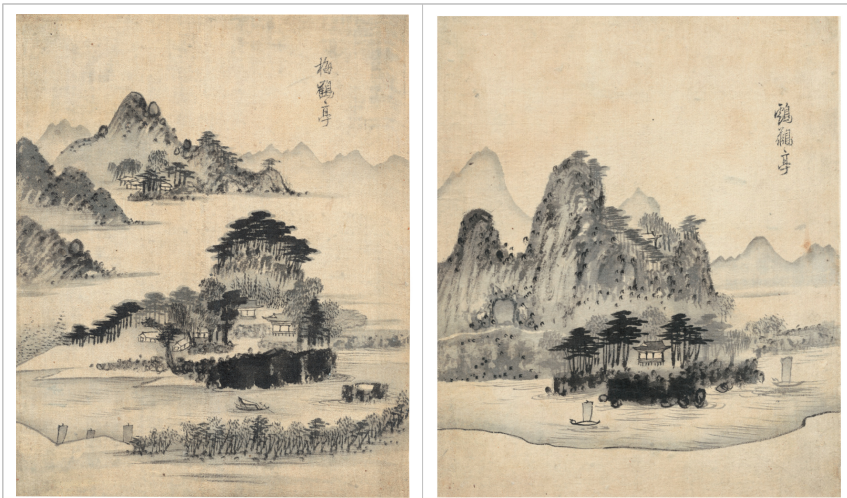
43) 노상추, 『노상추일기』, 1778년 9월 21일.

44) 노상추, 『노상추일기』, 1780년 5월 4일.

45) 노상추, 『노상추일기』, 1824년 5월 2일.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공간이 되었다. 아마도 이 때문에 건물은 퇴락과 복원을 거듭했지만, 그 자취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았고 또 잊혀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깊은 산속 궁벽진 곳이었거나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지 못하는 곳에 누정이 위치해 있었다면,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문학적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19세기 작자미상의 산수팔경도 가운데 매학정과 노자정 부분이다. 누정 앞에 강이 흐르고 그 물길을 따라 지나가는 배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작자미상, 조선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도록』 제27집, 국립중앙박물관, 2019.

이러한 사실로 유추해 볼 때 낙동강 뱃길 연안에 위치한 누정들은 명승지라는 타이틀과 함께 다양한 방면에서 다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었음 알 수 있다. 이 위에서 문학적 소통 역시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겠다.

## VI. 맺음말

본고는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누정과 그 문학적 소통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강이 지닌 경계의 역할과 함께 소통의 기능을 전제 하면서 낙동강 연안의 누정을 중심으로 어떤 양상의 문학적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그 실제적 모습을 탐색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 대상으로 구미 선산 지역의 매학정을 선정한 것은 지금도 존재하는 누정으로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

구체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먼저 구미 선산 지역 낙동강 연안의 누정 전반과 관련 제영시 현황을 검토했다. 조선시대 편찬된 선산 관련 지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선산 지역 누정은 19세기 말까지 公廨를 포함해 총 32개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누정은 모두 11개였다. 이 누정들은 오랜 시간 동안 생성과 소멸을 거듭했는데, 한결같이 명맥을 유지했던 것은 매학정을 포함해 월파정과 노자정 3곳 정도였다. 이것은 제영시 현황에 있어서도 비슷한 현상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매학정의 건립 배경과 역사적 자취를 살펴보았다. 매학정은 1533년(중종28) 황기로가 처음 건립했다. 이후 사위이자 율곡의 동생인 玉山 李瑀(1542~1609)에게 물려주면서 이우의 자손들이 매학정을 관리 보존했다. 임진왜란을 거치고 시간도 오래 지나면서 매학정은 점점 퇴락했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우의 고손자 李東溟(1624~1692)이 1653년(효종4)에 완전하게 복구했다. 19세기 전반 화재로 다시 소실되었는데, 1862년(철종13) 황기로의 7대손 황민술이 원래 그 자리에 다시 지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매학정 제영시에 대해서는 1533년부터 1866년까지 약 330년 동안 40명에 달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은 분량의 작품을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학정 건립 초기의 제영시들은 창작 배경에 있어서 정자 주인 황기로와 매학정 그 자체에 연결고리가 닿아있었다. 그러나 황기로가 사위 이우에게 매학정을 물려주면서 그곳에는 율곡 이이의 동생인 이우의 자취가 깃들기 시작했다. 기사환국때 송시열의 당으로 지목되어 유배를 당

할 만큼 노론계 핵심 인물로 활동했던 이동명은 매학정을 복구하면서 당대 유명 문인들에게 시와 서문을 받기 위해 광복 행보를 보였는데, 이 때문에 17세기 중엽부터는 매학정 제영시가 서인 노론계 인물들의 작품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누정 자체를 읊은 누정 제영시는 정서적 소통의 측면이 두드러졌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데, 오랜 시간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공간 인지가 시간을 종적으로 넘나들기도 하고 횡적인 시간대를 기준으로 창작자의 공간이 지역을 넘나들기도 했다. 누정 제영의 창작 배경으로서 누정 주인과 그에 따른 역사적 자취는 문학적 소통 양상의 특징을 구획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매학정 제영시들이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동시에 낙동강 뱃길 연안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매학정은 명승지라는 타이틀과 함께 다양한 방면에서 다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었음 알 수 있었다. 이 위에서 문학적 소통 역시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 이 논문은 2022년 10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 한국고전종합DB.  
『여지도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경상도읍지』·『대동지지』·『일선읍지』·『선산읍지』, 규장각 소장.  
유형원, 『동국여지지』, 한국고전종합DB.  
崔暉, 『一善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상추, 『노상추일기』,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  
宋秉璿, 『淵齋集』, 한국고전종합DB.  
宋秉珣, 『心石齋集』, 한국고전종합DB.  
宋純, 『俛仰集』, 한국고전종합DB.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고전종합DB.  
俞場, 『秋潭集』, 한국고전종합DB.  
李瑀, 『玉山詩稿』, 한국고전종합DB.  
李頤命, 『疎齋集』, 한국고전종합DB.  
鄭斗卿, 『東溟集』, 한국고전종합DB.  
鄭澮, 『丈巖集』, 한국고전종합DB.  
趙任道, 『澗松集』, 한국고전종합DB.
- 박인호, 「지리서를 통해 본 전통시대 선산 사회의 변화」, 『조선사연구』 23, 조선사 연구회, 2014.  
박인호, 「선산 읍지 『일선지』의 편찬과 편찬 정신」, 『역사학연구』 64, 호남사학회, 2016.  
정우락, 「강안학과 고령 유학에 대한 시론」, 『퇴계학과유교문화』 43, 경북대 영남 문화연구원, 2008.  
정우락, 「조선중기 강안 지역의 문학활동과 그 성격: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 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연구』 53, 한국한학회, 2014.  
홍원식, 「영남유학과 낙중학」, 『한국학논집』 40,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0.

嶺南學 제83호(2022)

장윤수, 「낙중학의 성과와 과제(철학 분야)」, 『한국학논집』 85,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원, 2021.

Abstract

A Study on the Creation of Nujeongjeyeong (樓亭題詠)  
in the Coast of the Nakdong River and Its Meaning

-Focused on Maehakjeong (梅鶴亭) in Seonsan, Gumi-

Choi, Eun-ju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Nujeong located in the coast of the Nakdong River and the aspect of literary communication. Assuming there is the function of communication along with the role of the river's boundary, it aimed to explore the practical aspect of literary communication centered around Nujeong on the coast of the Nakdong River. Maehakjeong in Seonsan, Gumi was first selected because it has a very long history as Nujeong that still exists today. In addition, this is because some characteristic features are captured in that the writers of both Yeungnam Namin-line and Giho Noron-line were interested in it because Choseong (草聖) Hwang Gi-ro (黃耆老) built Maehakjeong (梅鶴亭) and handed it down to his son-in-law and Yulgok's younger brother, Lee Woo.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Nujeong in the coast of the Nakdong River in Seonsan, Gumi by examining the geography books related to Seonsan (善山) published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found that there were a total of 11 Nujeong. Four of these existed for a long time, but since Nakseojeong maintained its existence relatively shorter from construction to collapse, compared to other Nujeong, only three places, Wolpajeong, Nojajeong, and Maehakjeong, had a long history. In particular, Maehakjeong is the only one that still exists so that its

traces can be found. Maehakjeong was built by Hwang Gi-ro in 1533 (28th year of King Jungjong's regime). Later, as Hwang Gi-ro handed it down to his son-in-law, Lee Woo (李瑀 (1542 ~ 1609), Maehakjeong became the property of the Deoksu Lee clan. Maehakjeong was managed for three generations from Lee Woo, Lee Gyeong-jeol, and Lee Jeup, but the pavilion completely collapsed during the Imjin War. In 1653 (4th year of King Hyojong's regime), Lee Jeup's second son Lee Dong-myeong completely restored and remodelled Maehakjeong, and while he was trying to receive poems and letters from famous writers of the time, 'Maehakjeong' received a lot of attention from the writers of Giho Noron-line.

After Hwang Gi-ro built Maehakjeong, many writers sang poems for Maehakjeong for a long time. For about 330 years from 1533 to 1866, 40 people created Maehakjeong-Jeyong poems. The creation background of the Jeyong poems in the early construction of Maehakjeong involves a link between the pavilion owner Hwang Gi-ro and Maehakjeong itself. However, as Hwang Gi-ro bequeathed Maehakjeong to his son-in-law Lee Woo, and Lee Woo came down to Seonsan, his wife's parents' home, in his later years to live in Maehakjeong, the traces of Yulgok's younger brother, Oksan Lee Woo began to appear in Maehakjeong. It was because of the influence of Lee Woo's grandson Lee Dong-myeong that Maehakjeong-Jeyong poems were filled with the works of Noron-line from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Nujeong and its historical traces are important factors that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literary communication as the creative background of Nujeongjeyeong.

**keywords :**

Ganganhak, Nakjunghak, the coast of Nakdong river, Nujeongjeyeong, Maehakjeong, Maehakjeong-Jeyongrok, Hwang Gi-ro(黃耆老), Oksan Lee Woo(玉山 李瑀), Hakjeong Lee Dong-myeong(鶴汀 李東溟)

# 낙동강 연안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

##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조 유 영\*

- I. 서론
- II. 낙동강 연안 구곡문화의 양상
- III. 낙동강 연안 구곡문화의 특징
  - 1. 회통성-경쟁과 조화
  - 2. 개방성
  - 3. 사상적 지향성
- IV.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낙동강 연안 구곡문화의 존재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이 지역 구곡문화가 가지는 특징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에 낙동강의 본류가 시작되는 상주권과 낙동강의 중류를 형성하는 대구권의 구곡문화를 중심으로 20개소의 구곡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회통성, 개방성, 사상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특징을 구명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이러한 특징들은 논의의 편의상 세 가지로 분류하긴

---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 uyoung24@jejunu.ac.kr

하였으나, 서로 밀착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낙동강 연안 구곡문화는 주자 성리학의 강력한 영향 속에서 남명학의 강좌와 퇴계학의 강우를 한강 정구를 통해 수용하고, 상하로는 기호학과 영남학이 경쟁하고 조화하면서 이 지역의 구곡문화를 형성해 나갔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지향성 속에서 구곡원림 설정과 구곡시가 창작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어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들은 다시 회통성으로 수렴되는데, 낙동강 연안이 가진 이러한 회통성은 결국 다른 지역의 구곡문화와 낙동강 연안의 구곡문화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구곡문화, 낙동강, 회통성, 개방성, 사상적 지향성

## I. 서론

남송의 朱子(1130-1200)는 54세(1182)에 武夷山에 武夷精舍를 건립하고, 무이산 계류를 거슬러 오르며 <武夷權歌><sup>1)</sup>를 창작함으로써 동아시아 구곡문화의 始原을 이루었다. 주자를 존송했던 조선의 사대부들은 중국에서 유입된 『武夷志』와 <武夷九曲圖>, 그리고 관련 詩文들을 통해 무이구곡을 그의 삶과 학문의 상징적 표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조선조 사대부들의 사유는 하나의 문화적 양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은 주자의 무이산 은거를 모방하여 자신의 藏修處에 九曲園林을 설정하고, <무이도가>를 차운한 구곡시를 창작하면서 구곡문화를 향유하였다.

그러나 조선조 성리학이 송대 성리학의 단순한 이식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들이 창출해 낸 구곡문화 또한 주자의 무이구곡 경영을 단순히 모방하는 데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조 사대부들은 구곡원림을 경영하면서도, 이 땅의 지리적 환경과 그들이 가진 공간 상상력에 따라 九曲만이 아닌 十曲, 또는 七曲이나 五曲 등으로 변형하기도 하고,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것만이 아닌 물길을 따라 내려오는 형태의 구곡 경영을 시도하기도 하였다.<sup>2)</sup> 이와 함께 <무이도가>에 대한 비평의식<sup>3)</sup>을 토대로 한시체인 구곡시와 국문체인 구곡가를 창작하기도 하고, 선현의 구곡을 <九曲圖>로 남김으로써 학맥과 도통의 상징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sup>4)</sup> 이처럼 조선조 사대부들은 주자의 무이구곡 경영과 <무이도가>를

- 
- 1) 朱熹, 『晦庵集』 卷9, <淳熙甲辰中春精舍閑居戲作武夷權歌十首呈諸同遊相與一笑>. 이하 <武夷權歌>로 지칭한다.
  - 2) 대표적으로는 權相一의 淸臺九曲(문경), 申弼夏의 竹溪九曲(영주), 洪良浩의 牛耳九曲(서울), 盧性度的 煙霞九曲(괴산), 申聖燮의 臥龍山九曲(대구) 등이 있다.
  - 3) 조선 중기 문인이었던 퇴계 이황, 고봉 기대승, 하서 김인후, 포저 조익 등은 중국에서 유입된 『權歌詩註』와 같은 책들을 읽고 주자의 <무이도가>를 入道次第의 造道詩로 이해하기도 하고, 因物起興의 敍景詩로 이해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비평 담론을 개진한 바 있다. <무이도가>에 대한 조선 중기 문인들의 비평의식과 관련된 논의로는 이민홍(『증보 사림과 문학의 연구』, 월인, 2000), 심경호(『포저 조익의 문학관과 문학』, 『한국실학연구』 14, 한국실학학회, 2007), 신두환(『조선 사인의 <무이도가> 비평양상과 그 문예미학』, 『대동한문학』 27, 2007)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개방적으로 이해하면서 자신들의 구곡문화를 매우 다채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갔다.

조선조 구곡문화는 16세기 사림과의 성장과 함께 나타나 조선 후기에는 전국 각지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sup>5)</sup> 이러한 흐름에서 조선조 구곡문화를 양분한 것은 기호와 영남이었다. 특히 영남지역은 기호지역과 서로 경쟁하고 화합하면서 조선조 구곡문화를 선도했던 지역이다.<sup>6)</sup> 특히 영남은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기호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태백의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을 중심으로 산간 분지의 수많은 물길들이 수려한 자연환경을 만들어내는 지역이다. 또한 사상적으로는 조선조 성리학의 본류인 영남학파의 터전이 되었던 지역으로, 영남이 가진 이러한 지리적 환경과 인문적 배경은 이 지역 구곡문화 발달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낙동강은 비록 태백의 황지로부터 발원하지만, 그 본류는 상주·문경에서 시작되어 중류지역인 대구권을 거쳐 남하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구곡원림이 존재해 왔다. 이와 함께 조선조 구곡문화는 기본적으로 조선 중기 이후의 사상사적 흐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낙동강 연안은 조선 중기 이후 영남학파의 주무대라 할 수 있으며, 퇴계 이황으로 대변되는 江左와 남명 조식으로 대변되는 江右를 통합하면서 나름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나갔던 지역이다. 따라서 낙동강 연안 지역에 분포하는 다수의 구곡문화를 이러한 사상사적 흐름 속에서 정치하게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

4) 대표적인 구곡도가 율곡 이이의 고산구곡을 그린 <高山九曲圖>나 한강 정구의 <武屹九曲圖>, 우암 송시열의 <華陽九曲圖>이며, <구곡도>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을 그린 <陶山圖> 또한 이러한 사유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5) 조선조 구곡문화의 통시적 흐름에 대해서는 조유영의 연구(「조선조 구곡가의 시가사적 전개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참조.

6) 구곡시가의 통시적 전개양상을 살핀 김문기의 연구(「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양상」, 『국어교육연구』 23, 국어교육연구회, 1990)에서도 구곡시가 작품을 기호학과와 영남학과로 나누어 논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조선조 구곡문화 연구자들 대부분은 지역적 구분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또한 학파나 사상적 차이는 단편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어 한계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영남지역 구곡문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개별 구곡원림과 구곡시가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sup>7)</sup> 그 외에는 조선조 구곡문화의 통시적 전개양상에 주목하여 영남지역의 구곡문화를 논의하고자 한 경우가 더러 존재한다.<sup>8)</sup>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지역 구곡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특정 권역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의미를 밝히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정우락의 경우,<sup>9)</sup>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구곡문화가 가진 인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밝히고, ‘낙동강 연안의 유학’을 지칭하는 강안학<sup>10)</sup>적 관점에서 이 지역 구곡문

7) 김문기, 「도산구곡 원림과 도산구곡시 고찰」, 『퇴계학과 한국문화』 43,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김문기, 「퇴계구곡과 퇴계구곡시 연구」, 『한국의 철학』 42,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임노직, 「퇴계학과의 <무이도가> 수용과 도산구곡」, 『안동학연구』 9, 한국국학진흥원, 2010.

정우락, 「한강 정구의 무흘 경영과 무흘구곡 정착과정」, 『한국학논집』 4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정우락,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 무흘구곡-무흘구곡의 일부 위치 비정을 곁하여」, 『한국의 철학』 54,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조유영, 「蔡澐의 <石門亭九曲棹歌>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그 의미」, 『어문론총』 60, 2014.

조유영, 「청대 권상일의 청대구곡 경영과 그 의미」, 『대동한문학』 49, 대동한문학회, 2016. 등이 대표적이다.

8) 김문기,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양상」, 『국어교육연구』 23, 국어교육연구회, 1990.

조지형, 「17-18세기 구곡가 계열 시가문학의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조유영, 「조선조 구곡가의 시가사적 전개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9) 정우락, 앞의 논문, 2013.

정우락, 「대구지역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 『한민족어문학』 77, 한민족어문학회, 2017.

정우락, 「구곡원림의 양상과 경북 구곡의 문화사적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77, 2019.

10) 강안학은 낙동강 연안의 유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회통성·독창성·실용성을 주요 특징으로 삼는다. 이 가운데 회통성은 강의 좌우로 퇴계학과 남명학의 회통, 상하로 기호학과 영남학의 회통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정우락, 「백두대간 속리산권 구곡동천

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일부분 수용하면서 낙동강 중류지역<sup>11)</sup>의 구곡문화를 중심으로 이 지역 구곡문화의 특징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낙동강 중류 지역은 낙동강 상류지역인 안동권의 구곡문화와 낙동강 하류지역인 부산권의 구곡문화와의 차별성 속에서 다수의 구곡문화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낙동강 중류지역은 수평적으로는 강좌와 강우를 통합하고, 상하로는 기호와 영남의 문화적 소통이 강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조선조 구곡문화의 핵심 지역이었던 영남지역의 구곡문화 중 낙동강의 본류인 중류지역의 구곡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를 토대로 이 지역 구곡문화가 가진 특징들을 논의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영남지역 구곡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 낙동강 연안 구곡문화의 양상

낙동강은 태백산의 황지에서 발원한 후 남쪽으로 흘러내려, 안동 부근에서 서쪽으로 곡류하다 문경 함창 부근에서 내성천 등의 지류를 합하고, 상주와 구미, 대구 등을 거쳐 남하한다. 이후 창녕, 영산, 밀양, 창

---

문화의 인문학적 가치와 의미-문경과 상주 일대를 중심으로], 『남명학』 18, 남명학 연구원, 2013, 각주8 참조)

11) 낙동강은 태백의 황지에서 발원한 물이 봉화와 안동을 거쳐 문경과 상주를 지나고, 이후 대구권을 지나 부산으로 흘러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낙동강을 일반적으로 안동권인 상류지역, 대구권인 중류지역, 부산권인 하류지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정우락, 「강안학과 고령 유학에 대한 시론」, 『퇴계학과 한국문화』 43,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53쪽) 본고에서 낙동강 중류지역이라 함은 대구권을 중심으로 낙동강의 본류가 시작되는 상주-문경지역을 포괄하는 용어로 활용한다.

원, 김해, 부산 등을 거쳐 남해로 흘러든다. 총 길이는 500여 Km에 달하고, 물길이 영남 내륙을 관통하는 까닭에 오랜 시간 동안 영남의 지역 문화 형성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 왔다. 낙동강이라는 명칭에 대한 유래설은 두 가지 정도이다. 먼저 상주의 함창 일대는 옛 고령가야(古寧伽倻)가 위치해 있던 땅이었기에, ‘옛 가락(伽洛-가야)의 동쪽을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에서 낙동강이라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 다른 설은 상주를 예로부터 ‘上洛’, ‘商山’, ‘洛陽’ 등으로 불려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上洛의 동쪽을 흐르는 강’이라는 뜻에서 오래전부터 낙동강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다.<sup>12)</sup> 이 두 유래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낙동강이라는 명칭은 상주와 깊은 관련 있으며, 낙동강 본류의 시작을 옛 사람들은 상주지역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낙동강 중류 지역의 구곡문화는 이처럼 낙동강의 본류가 시작되는 상주·문경지역의 구곡문화를 기점으로 대구지역까지의 구곡문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영남을 강좌와 강우로만 나누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sup>13)</sup> 낙동강 연안을 중심으로 상하와 좌우를 아우르며 독자적 문화권을 형성했던 낙동강 연안 지역의 구곡문화를 명칭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제 낙동강 중류를 중심으로 낙동강 본류와 그 지류들 사이에 어떠한 구곡이 설정되고 있었는지를 아래의 표<sup>14)</sup>를 통해 살펴보자.

12) “상주의 동쪽을 흐르는 강”이란 뜻에서 낙동강의 명칭이 유래했다고 한 대표적인 이는 『燃藜室記述』을 쓴 李肯翊(1736-1806)이다.

13) 강좌와 강우를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낙동강의 상류인 안동권은 강좌에, 낙동강의 하류인 부산권은 강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4) <표>에서 제시한 구곡 외에도 쌍계구곡(성주), 조양구곡(성주), 명연구곡(칠곡) 등도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으나, 필자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표>에는 수록하지 않는다.

<표 1> 낙동강 중류 지역 구곡문화(20개소)

권역	구곡명	소재지	경영자 및 설정자	비고 <sup>15)</sup>
상주 권역 <sup>16)</sup>	花枝九曲	경상북도 문경	權 燮(1671~1759)	구곡시, 정격형, 계곡형
	淸臺九曲	경상북도 문경	權相一(1679~1760)	구곡시, 변격형, 하천형
	石門九曲	경상북도 문경	蔡 灑(1715~1795)	구곡시, 구곡가, 정격형, 하천형
	山陽九曲	경상북도 문경	蔡 灑(1715~1795)	구곡시, 정격형, 하천형
	仙遊七曲	경상북도 문경	南漢朝(1744~1809)	구곡시, 변격형, 계곡형
	仙遊九曲	경상북도 문경	丁泰鎭(1876~1956)	구곡시, 정격형, 계곡형
	雙龍九曲	경상북도 문경	閔禹植(1885~1973)	구곡시, 변격형, 계곡형
	淵嶽九曲	경상북도 상주	康應哲(1562~1635)	淵嶽九曲記, 정격형, 계곡형
대구 권역	武屹九曲 <sup>17)</sup>	경상북도 성주	鄭 述(1543~1620) 鄭東璞(1732~1792)	구곡시, 구곡도, 정격형, 계곡형
	布川九曲	경상북도 성주	李源祚(1792~1871)	구곡시, 정격형, 계곡형
	洛江九曲	경상북도 고령	朴履坤(1730~1783)	구곡시, 정격형, 하천형
	桃津九曲	경상북도 고령	朴履坤(1730~1783)	구곡시, 정격형, 하천형
	黃南九曲	경상북도 김천	李寬彬(1759~?)	구곡가, 변격형, 계곡형
	西湖屏十曲	대구시 달성군, 북구	都錫珪(1773~1837)	십곡시, 변격형, 하천형
	龔淵九曲	대구시 동구	崔孝述(1786~1870)	구곡시, 정격형, 계곡형
	雲林九曲	대구시 달성군, 북구	禹成圭(1830~1905)	구곡시, 정격형, 하천형
	門巖九曲	대구시 북구, 동구	蔡準道(1834~1904)	구곡시, 정격형, 계곡형
	臥龍山九曲	대구시 달서구	申聖燮(1882~1959)	구곡시, 변격형, 하천형
	居然七曲	대구시 달성군	蔡晁源(1883~1971)	칠곡시, 변격형, 계곡형
	守南九曲	대구시 달성군	미상	『달성군지』(1992)에 수록, 계곡형

15) <표>의 비교 부분에는 구곡시거나 구곡도와 같은 구곡문화의 여러 요소들과 구곡원림 설정에 있어 무이구곡의 설정 방식을 따르는 형태인 정격형 구곡과 이를 따르지

위의 <표>을 보면 낙동강 중류 지역의 구곡은 모두 20개소이다. 낙동강의 본류가 시작되는 상주권역에서는 문경을 중심으로 총 8곳의 구곡이 확인되며, 그 아래 낙동강 중류인 대구권역에서는 총 12곳의 구곡이 발견된다. 최근 발간된 조사보고서를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되는 구곡의 수가 100개소를 상회하고, 이름만 전하는 것을 포함하면 160개소에 육박한다.”<sup>18)</sup>라고 보고된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비춰 보더라도 낙동강 중류 지역의 구곡 경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곡 경영이 이루어진 시기를 보면 주로 18세기와 19세기를 중심으로 다수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고, 근대로 접어들던 20세기에도 일부 부분 구곡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지역 구곡문화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넘어 근대로 진입하던 시점에서도 여전히 전통지식인들에게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외세의 침탈과 서구 문물의 유입에 의해 해체되어 가던 성리학적 질서를 고수하기 위한 전통지식인들의 실천적 행위로서의 문화적 함의를 가진다.

구곡원림은 기본적으로 그 지형적 특징에 따라 계곡형 구곡원림과 하천형 구곡원림으로 나눌 수 있다.<sup>19)</sup> 계곡형 구곡원림은 산간 계곡의 계류에 설정된 구곡으로 산악지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않고 변형을 보여주는 변격형 구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리고 구곡원림이 설정된 지역의 지형에 따른 유형 분류인 하천형과 계곡형 등을 표시하여 각 구곡이 가진 특징적인 모습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읽는 이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16) 예부터 문경지역은 문화적으로 상주의 영향권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본고의 논의 방향 또한 낙동강 연안의 구곡문화를 살피는 것이므로, 편의상 문경권역보다는 상주권역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 17) 武屹九曲은 寒岡 鄭述의 무흘정사 경영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장소로서 실질적으로 구곡이 설정된 것은 18세기 鄭東璞(1732-1792)에 의해 이루어졌다.
- 18) 경상북도, 『백두대간 구곡문화지구 세계유산 등재방안 연구』, 2015, 128쪽.
- 19) 지형적 특징에 따른 구곡원림의 유형에 대해서는 조유영의 연구(「영남지역 구곡원림의 유형에 따른 시적 형상화 양상과 그 지역문화적 특징」, 『어문학』 143, 한국어문화회, 2019) 참조.

러한 계곡형 구곡원림은 일반적으로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행위는 물의 근원인 源頭를 찾아가는 행위이기에, 성리학의 수양론적 측면에서 인욕을 제거하고 인간 본성의 근원을 지향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표>에서 볼 수 있는 계곡형 구곡원림들은 대부분 낙동강 본류나 대하천보다는 낙동강 주변 산간 계곡을 배경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달리 하천형 구곡원림은 산간 분지 사이의 평지를 흐르는 크고 작은 하천을 배경으로 설정된 구곡이라 할 수 있다. <표>를 통해 하천형 구곡원림의 지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낙동강 중류 지역의 구곡원림은 계곡형 구곡원림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하천형 구곡원림도 8개소나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낙동강 중류 지역 구곡문화가 낙동강 연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조선조 구곡원림은 그 설정 방식에 따라 정격형 구곡원림, 변격형 구곡원림, 복합형 구곡원림으로 나눌 수 있다. 정격형 구곡원림은 주자의 무이구곡 경영을 그대로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달리 무이구곡의 설정 방식을 따르지 않고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변격형 구곡원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구곡원림 속에 정격형과 변격형이 함께 설정되는 경우는 복합형 구곡원림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하지만 정격형 구곡원림이 단순히 주자의 무이구곡을 모방한 것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정격형 구곡원림은 비록 주자의 무이구곡 설정을 차용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구곡원림 설정에 있어서는 중국이 아닌 이 땅의 지리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구곡문화의 향유에 있어서도 중국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를 살펴보면 낙동강 중류 지역의 구곡원림 중 정격형 구곡원림은 모두 13개소이며, 변격형 구곡원림은 7개소로 나타난다. 그 중 변격형

---

20) 조선조 구곡원림의 설정 방식에 따라 정격형, 변격형, 복합형으로 유형을 분류한 논의로는 정우라의 연구(정우라, 「세계유산 추진을 위한 경북의 대표구곡 제안」, 『백두대간 구곡문화지구 세계유산 등재방안 연구』, 경상북도, 2015, 130-138쪽. 참조)가 있다.

구곡원림은 구곡원림 설정에 있어 매우 다채롭게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 대구 지역의 문인이었던 도석규가 경영한 서호병십곡은 9곡이 아닌 10곡의 형태로 확장되어 있으며, 이에 비해 남한조의 선유칠곡, 채황원의 거연칠곡은 9곡에서 7곡으로 축소된 형태를 보인다. 또한 권상일의 청대구곡이나 신성섭의 와룡산구곡의 경우에는 물길을 거슬러 오르며 설정되는 정격형 구곡원림과는 달리 물길을 따라 내려오며 설정된 구곡원림이라는 점에서 변격형 구곡원림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민우식의 쌍룡구곡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류가 아닌 두 줄기의 계류에 걸쳐 구곡이 설정된다는 점,<sup>21)</sup> 이관빈의 황남구곡의 경우에는 계곡을 따라 오르기보다는 산길을 따라 설정된 구곡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 구곡원림의 다양성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낙동강 연안 구곡문화는 그 구곡 설정 방식에 있어서도 구곡 경영자들의 개성적인 공간 상상력과 이 지역이 가진 특유의 산수 지형이 결합함으로써 변격형 구곡원림이 다수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곡원림과 함께 구곡문화의 핵심적 요소인 구곡시가를 살펴보면 또한 여러 특이점이 보인다.<sup>22)</sup> 먼저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구곡 경영에는 주자의 <무이도가>의 영향 속에 한시체 구곡시가 창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경지역에서 석문구곡을 경영했던 채헌과 구미 선산지역에서 황남구곡을 경영했던 이관빈의 경우에는 한시체 구곡시가 아닌 국문 가사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채헌의 경우에는 한시체 구곡시인 <石門亭九曲棹歌韻>과 가사체 구곡가인 <石門亭九曲棹歌>를 함께 창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이관빈의 경우에는 한시

21) 민우식의 쌍룡구곡은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에 위치하며 도장산 기슭의 내서천과 쌍룡천이 어우러지는 공간에 설정되었다. 쌍룡구곡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김문기의 저서(『문경의 구곡원림과 구곡시가』, 한국학술정보, 2005)에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22) 주자의 무이구곡 경영과 무이도가 창작에 영향을 받아 성립된 조선조 구곡문화는 다양한 문화적 양식으로 나타났다. 구곡원림의 경영, 정사의 건축, 구곡도의 향유, 구곡시가인 한시체 구곡시와 국문체 구곡가의 창작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화이다.(조유영, 앞의 논문, 2017, 34쪽)

체 구곡시는 짓지 않고, 가사체 구곡가인 <黃南別曲>만을 창작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따라서 낙동강 연안 지역의 구곡문화는 구곡시가 향유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23)</sup>

정리하자면 낙동강의 중류인 상주권역부터 대구권역까지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 다수의 구곡이 경영되었지만, 단순히 주자의 무이구곡 경영을 모방하는데 머물렀던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구곡 경영에 있어 정격형만큼 변격형 구곡원림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과 구곡시가 향유에 있어서도 한시체 구곡시뿐만 아니라 가사체 구곡가가 향유되었다는 점, 한시체 구곡시 또한 <무이도가>의 고정된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 구곡문화가 가진 독자성과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Ⅲ. 낙동강 연안 구곡문화의 특징

#### 1. 회통성-경쟁과 조화

주지하다시피 낙동강 연안은 내륙에 비해 인적 교류와 물류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공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시대 낙동강 연안은 상하로는 기호와 영남의 소통이 활발하게 나타났고, 좌우로는 강우와 강좌가 서로 만나는 공간이었다. 특히 낙동강 연안 지역 중에서도 상주와 문경지역은 영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기호학과 영남학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안동의 퇴계학적 자장과 함께,<sup>24)</sup> 기호학을 일부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기

23) 이 뿐만 아니라 한시체 구곡시에서도 <무이도가>를 화차운하여 창작된 작품도 있고, 도석규의 <西湖屏十曲>이나 권상일의 <淸臺九曲詩>의 경우에는 <무이도가>를 차운하지 않고, 서시를 제외한 9수나 10수의 연작시로 자신의 구곡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24) 문경 지역의 구곡 중에서도 퇴계학의 영향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호학과 영남학의 회통을 이루어냈던 지역이기도 하다.<sup>25)</sup> 따라서 이러한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이 지역의 구곡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 중 문경지역은 앞서서도 살폈듯이 영남지역 내에서도 구곡문화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던 지역이다. 문경은 지리적으로 황정산과 주흘산 등의 높은 산과 여러 하천이 발달되어 있었고, 조령과 같은 고개를 중심으로 기호와 영남의 경계를 이루었던 지역이다. 또한 문경은 영남과 기호의 접미지대이기에, 서인 노론계 인사의 九曲 경영 또한 확인된다.<sup>26)</sup>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 후기 서인 노론계 문인이었던 玉所 權燮(1671~1759)의 花枝九曲이다. 권섭이 경영했던 화지구곡(일명 身北九曲)은 문경 성주봉 아래에 위치한 花枝洞(현 문경시 당포리)을 중심으로 설정된 구곡원림이다. 만년의 권섭은 문경 화지동에 자신의 별서를 마련하고 화지구곡을 경영하면서 이를 대상으로한 <花枝九曲歌><sup>27)</sup>와 <花枝九曲記>를 남긴 바 있다.

大院

九曲登高始豁然  
不知斯處是窮川  
千山在下千峰立  
日月雲烟是別天

구곡이라 높이 오르니 눈앞이 확 트이고,  
이곳이 시냇물 시작하는 곳인지는 모르겠네.  
수많은 산 아래 수많은 산봉우리 들어서 있으니,  
해와 달과 구름과 안개, 이곳이 별천지라.

구곡이 권상일의 청대구곡이다. 권상일은 조선 후기 영남 남인계 문인으로서 흔들리던 퇴계학맥의 입지를 재구축하고자 노력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의 구곡 경영은 퇴계의 산수 인식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면서 구곡이 가진 문화 규범으로서의 위상을 실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경 지역의 구곡문화가 안동권의 구곡문화와 일정한 관련이 있음을 청대의 청대구곡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조유영, 「청대 권상일의 청대구곡 경영과 그 의미」, 『대동한문학』 49집, 대동한문학회, 2016)

- 25) 상주·문경지역 및 낙동강 연안의 기호학과 영남학의 회통에 대해서는 정우락의 연구(양의 논문, 2008, 60~62쪽) 참조.
- 26) 조유영, 위의 논문, 249~250쪽.
- 27) 權燮, 『玉所集』, 卷1, <身北九曲次武夷權歌韻>. 원제는 이러하나,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계에 쓰이고 있는 <화지구곡가>라는 명칭을 활용한다.

위의 작품은 화지구곡의 극치인 대원을 노래한 부분이다. 이곳은 권섭이 만년에 본가가 있는 청풍의 寒泉庄과 별서가 있는 문경 화지동을 오고 가면서 넘나들던 고개이다. 인용한 작품을 살펴보면 비록 권섭은 자신이 설정한 구곡의 극치를 대원으로 설정하였지만, 이곳을 구곡의 물길이 시작되는 원두처로는 확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많은 산봉우리가 늘어져 있고, 해와 달과 구름과 안개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는 곳이 대원이기에 이곳을 현실과는 다른 별천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인식은 일반적으로 구곡의 극치를 별천지이며 원두처로 이해하고자 했던 영남지역 구곡 경영자들의 인식과는 일부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sup>28)</sup> 이처럼 문경지역의 구곡문화는 대부분 이 지역의 문인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는 하지만, 여기에 기호지역의 문인들이 고개를 넘어 구곡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영남과 기호의 구곡문화가 회통하는 접이지역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구곡문화는 낙동강 연안 지역의 구곡문화가 가진 주요한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낙동강 연안 지역은 상주와 문경을 중심으로 수용된 기호학이 물길을 따라 빠르게 전파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sup>29)</sup> 이러한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지역이 낙동강 연안인 구미 선산지역이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기호학과 인물은 栗谷 李珣(1536-1584)의 아우인 玉山 李瑛(1542-1609)로, 그는 草書로 유명했던 黃耆老(1521~?)의 딸과 혼인하여 처가가 있던 현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로 낙향하였다. 그리고 이후 이우의 후손들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덕수 이씨 옥산공파를 형성하게 된다. 조선 후기 황남구곡을 경영했던 李寬彬(1759-?) 또한 덕수 이씨 옥산공파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sup>30)</sup> 이관빈의 황남구곡은 지금의 김천

28) 영남지역 문인들의 구곡 경영에 있어 일반적으로 구곡의 극치를 원두처로 이해하면서 자신의 구곡시에는 이러한 인식을 담아내는 경우가 많다.

29) 낙동강 연안 지역에는 기호학과와 관련된 여러 서원이 존재한다. 상주의 서산서원(김상헌·김상헌 봉향), 흥암서원(송준길 봉향), 김천의 춘산서원(송시열 봉향), 고령의 노강서원(송시열 등 봉향), 성주의 수덕서원(김창집 등 봉향), 합천의 옥계서원(이이 등 봉향) 등이 있다.(정우락, 앞의 논문, 2008, 각주36) 이러한 서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낙동강은 영남 지역 내 기호학 전파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황학산 남쪽의 洞天을 대상으로 설정된 구곡원림으로, 그는 자신의 구곡을 한시체 구곡시가 아닌 가사체 구곡가 <黃南別曲>으로 노래하였다. 이 작품은 『鶴亭集』이라는 책에 송시열의 <譯高山九曲歌>, 주자의 <武夷權歌>와 함께 실려 있는데, 이 책은 신사임당의 <山水圖跋>을 비롯한 덕수 이씨 선대 관계 문헌들을 필사해서 묶어둔 雜文集이다.<sup>31)</sup> 따라서 이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옥산공과 후손들은 이관빈의 황남구곡 경영과 <황남별곡> 창작이 주자와 율곡의 구곡 경영과 구곡시가 창작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영남 남인계열 문인이었던 尹永燮(1774-?)의 <黃山別曲>에서는 이관빈의 황남구곡에 대한 다른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황산별곡>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황남별곡>과는 개작 관계에 놓여 있는 작품으로 이관빈과 윤영섭은 같은 선산 지역에 살았던 동시대 인물이었다. 그리고 윤영섭은 이관빈의 <황남별곡>을 접한 후, 이를 개작하여 자신의 <황산별곡>을 창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sup>32)</sup> <황산별곡>의 개작 방향은 기호학과 문인이 가진 도통 의식을 배제하고, 영남 남인 계열 문인의 도통 의식을 황남구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sup>33)</sup> 또한 스스로를 黃鶴山人으로 지칭할 만큼 황학산에 애정이 컸던 윤영섭은 이관빈의 황

30) 이관빈의 생애와 가문 이력에 대해서는 조유영의 연구(「조선 후기 향촌사족의 이상향 지향과 그 의미-〈황남별곡〉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1, 우리말글학회, 2016) 참조.

31) 구수영, 「黃南別曲의 研究」, 『한국언어문학』 10, 한국언어문학회, 1973, 336쪽.

32) 윤영섭의 <황산별곡> 개작 과정은 조유영의 연구(「조선후기 영남지역 가사에 나타난 도통 구현 양상과 그 의미-〈황남별곡〉과 <황산별곡〉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03, 한국언어문학회, 2017) 참조.

33) 이관빈이 <황남별곡>에서 제시한 도통은 이언적-이황-이이-송시열의 순이며, 이러한 도통 인식은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기호학과 문인으로서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윤영섭이 <황산별곡>을 통해 제시한 도통은 정몽주-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정구-허목-이상정의 순이다. 이러한 도통은 영남 남인과 근기 남인을 포괄하는 도통 인식이라 할 수 있으며, 그가 가졌던 학문적 배경이 만들어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유영의 연구(조유영, 위의 논문, 2017) 참조.

남구곡을 자신의 입장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황산별곡>이라는 가사체 구곡가로 노래하였다.<sup>34)</sup> 따라서 이관빈의 <황남별곡>과 윤영섭의 <황산별곡>을 통해 학맥적 차이에 의한 차별화된 구곡 인식과 그것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를 일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낙동강 연안지역의 구곡문화는 기호학과 영남학이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강안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기호와 영남의 구곡문화가 경쟁하고 조화하면서 이 지역 구곡문화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낙동강 연안 구곡문화가 가진 특징 중 하나는 결국 기호와 영남의 인적 그리고 사상적 교류 속에서 나타난 문화적 회통성이라 할 수 있다.

## 2. 개방성

회통성에 이어 낙동강 연안의 구곡문화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은 개방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낙동강 연안의 구곡원림 설정 방식과 이를 대상으로 한 구곡시가 창작에 있어서이다. 앞 장에서 살폈듯이 낙동강 연안의 구곡원림은 무이구곡이 그러한 것처럼 물을 거슬러 오르며 9곡을 설정하는 정격형이 양적인 측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나, 권상일의 청대 구곡이나 신성섭의 와룡산구곡 등과 같이 물길을 따라 내려오며 설정하는 변격형 구곡원림 또한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淸臺九曲-權相一

제1곡 愚巖, 제2곡 碧亭, 제3곡 竹林, 제4곡 佳巖, 제5곡 淸臺, 제6곡 溝棧, 제7곡 觀巖, 제8곡 箴巖, 제9곡 穌湖

조선 후기 영남 남인이었던 권상일은 문경 錦川에 자신의 서실인 尊道書窩를 짓고, 1곡 愚巖으로부터 9곡 穌湖까지 물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

34) 조유영, 위의 논문, 2017.

청대구곡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곡 설정 방식을 취하였던 이유는 1곡인 우암이 그의 세거지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고, 물길의 종착지인 9곡 소호에는 武夷村이라는 마을과 함께, 楊若齋 金九容(1338-1384)과 退溪 李滉의 흔적이 남아 있는 淸遠亭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5)</sup> 이처럼 권상일의 청대구곡은 문경 錦川邊의 지리적 환경을 배경으로, 김구용이나 이황과 같은 옛 선현들을 따르고자 했던 권상일의 지향의식이 만들어낸 구곡원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권상일은 주자의 <무이도가>를 차운하지 않고, 서시가 없이 9수의 칠언절구인 <淸臺九曲詩>를 지었는데,<sup>36)</sup> 이는 그가 일반적인 한시체 구곡시의 관행을 따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대구곡이 일반적인 구곡원림 설정 방식과는 달리 변형된 형태로 설정된 것처럼, <청대구곡시> 또한 여타의 차운 구곡시와는 다른 형식적 개방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낙동강 연안 구곡원림들 중 도석규의 서호병십곡은 9곡이 아닌 10곡으로 확장되면서 시의 형식 또한 전형적인 구곡시가 아닌, 八景詩와 같은 集景詩의 형식을 차용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十曲維舟泗水濱	십곡이라 사수가에 배를 매니,
汪洋吾道萬年新	넓고 넓은 우리 도는 만년토록 새로워라.
翔鱗活潑天機定	뛰노는 물고기 활발해 천기가 정해지니,
宛在中央知性人	완연한 가운데 性을 아는 사람 있구나.

위의 작품은 도석규가 지은 <서호병십곡>의 마지막 부분인 10곡 泗水濱을 노래한 부분이다. 그가 배를 타고 대구의 금호강을 거슬러 올라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한강 정구가 만년에 강학을 했던 대구의 사수

35) 권상일은 <淸臺九曲詩>의 구곡시 결구에서 “청원정에 남아 있는 고벽은 비었네(淸源亭留古壁空)”라고 노래하고 있다.

36) 權相一, 『淸臺集』 卷3, <淸臺九曲詩註>, “구곡을 따라 시를 지어 그 승경을 기록하였으나 감히 주자의 무이구곡시를 효방하지는 않았다.(逐曲賦詩, 以記其勝, 非敢效晦翁武夷九曲詩也)”

동이다. 그리고 극치인 이곳에서 그는 天理의 활발함을 인식하면서 대구 유학의 비조인 한강 정구를 떠올린다. 이처럼 도석규의 <서호병십곡>은 전형적인 구곡시의 내용을 가지기는 하지만, 형식적 측면에서는 9곡에서 확장된 10곡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구곡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 낙동강 연안의 구곡문화가 구곡이라는 형식적 틀에서 일정부분 벗어나 개방적으로 이해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남한조의 선유칠곡이나 채황원의 거연칠곡과 같은 경우에는 9곡이 아닌 7곡으로 축소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낙동강 연안 구곡문화가 가진 개방성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낙동강 연안 구곡문화의 개방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사체 구곡가인 채헌의 <석문정구곡도가>와 이관빈의 <황남별곡>이다. 蔡瀾(1715-1795)은 지금의 문경시 산양면과 산북면 일대의 錦川과 大下川을 중심으로 石門九曲을 설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가사체 구곡가인 <石門亭九曲棹歌>와 한시체 구곡시인 <石門九曲次武夷棹歌韻>을 창작한 바 있다. 그는 일찍이 같은 동향이면서 영남 남인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던 권상일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으며, 권상일이 금천을 배경으로 청대구곡을 경영하였던 것처럼, 그 또한 금천의 상류에 지은 자신의 石門亭을 중심으로 석문구곡을 경영하였다.<sup>37)</sup> 그의 구곡가는 연시조 형태의 구곡가와는 달리, 연속체 율문이라는 가사의 특성을 충실히 활용하여 구곡에 대한 다양한 미적 체험과 복합적인 공간 인식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그는 가사라는 갈래적 정체성과 향유 방식을 통해 한시체 구곡시와는 다른 미적 성취를 일구어내었고,<sup>38)</sup> 채헌의 이

37) <석문정구곡도가>에서 채헌은 “어위야 一曲水에 一葉船 츠러내여/桂棹兮 蘭槳으로 泛泛히 周流호니/權先生 노던고지 景物도 도호시고/岩上的 弄淸臺호 岩下的 存道窩라/庭前的 석근대와 岸下的 늘근술은/눌위호여 푸르릿노”라고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1곡을 농침대의 존도서와로 설정함으로써 스승의 학문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의 구곡 경영이 스승의 영향력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8) 채헌의 <석문정구곡도가>의 구곡가적 위상과 미적 성취에 대해서는 조유영의 연구(「채헌의 구곡시가 창작의 보편성과 특수성-시적 대상의 표현을 중심으로」, 『우리말

러한 가사체 구곡가는 낙동강을 따라 이관빈의 <황남별곡>과 윤영섭의 <황산별곡>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구곡문화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낙동강 연안의 구곡문화는 구곡원림 경영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구곡시가 창작에 있어서도 <무이도가> 차운시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말 노래인 가사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지역 구곡문화가 가진 개방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성은 강의 물길을 따라 상하와 좌우가 소통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던 낙동강 연안 지역의 독특한 공간적 성격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 3. 사상적 지향성

조선 중기 이후 영남지역은 퇴계학맥을 중심으로 주자성리학에 더욱 매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남지역의 사대부들은 자신이 은거하는 공간을 성리학적 이상 세계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작계는 편액이나 당호에 성리학적 의미를 담기도 하고, 크게는 자신의 세거지 주변에 구곡원림을 설정하고 경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몸소 실천하였다.

九曲回頭更喟然	구곡이라 머리 돌려 다시 탄식하노니,
我心非爲好山川	이내 마음 산천만 좋아함이 아니라네.
源頭自有難言妙	원두엔 절로 형언하기 어려운 묘리가 있으니,
捨此何須問別天	이를 버려두고 어찌 별천지를 물으리. <sup>39)</sup>

위의 작품은 寒岡 鄭述가 창작한 <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十首>의 마지막 구곡을 노래한 부분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이 구곡의 妙處까지 온 것은 산수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물의 근원인 源頭를 찾기

글』 75, 우리말글학회, 2017) 참조.

39) 鄭述, 『寒岡集』 卷1, <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十首>.

위해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구곡시에서의 源頭는 활수가 솟아나는 곳을 말하며, 조선조의 사대부들은 이러한 원두의 이미지를 통해 道體의 미묘함과 良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sup>40)</sup> 결국 정구는 물을 거슬러 오르는 행위를 이러한 원두를 찾는 행위, 즉 성리학적 수양론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조선조 구곡문화를 향유했던 이들의 일반적 사유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낙동강 연안의 구곡 문화 또한 이러한 사유방식이 강하게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九曲商山轉闊然	구곡이라 상산이 환하게 트이니,
連雲麥浪渺原川	구름이 닿은 보리 물결 들판에 아득하네.
平湖極目眞奇境	平湖에서 눈 닿는 곳까지 진실로 가경이니,
莫自窮.源上九天	극처에서 하늘로 오르지 말라.

위 작품은 고령지역 문인이었던 朴履坤(1730-1783)이 洛江九曲을 경영하면서 지은 <洛江棹歌敬次武夷韻>의 9곡시이다.<sup>41)</sup> 그의 선조인 竹淵 朴澗(1517-1572)은 남명 조식과 교유하였고, 桃源 朴元甲(1564-1618)은 松庵 金沔(1541-1593) 등과 임진왜란 때 함께 창의한 바 있었다. 따라서 박이곤의 가문은 일정부분 남명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는 靑泉 申維翰(1681-?)을 스승으로 모신 바 있다.<sup>42)</sup>

그의 낙강구곡은 鶴巖 朴廷璠(1550-1611)의 浮來亭이 있던 1곡 浮來에서 낙동강가의 여러 나루터와 현풍의 도동서원을 거쳐 9곡 商山까지 설정된 구곡원림이다. 인용한 작품을 살펴보면 낙강구곡의 극처인 商山은 주자의 <무이도가> 9곡시의 공간과 닮아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넓게 펼쳐져 있는 보리밭과 잔잔한 호수가 일상적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만

40) 조선조 문인들의 원두에 대한 문화적 인식에 대해서는 정우라의 연구(「주자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觀書有感〉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5) 참조.

41) 낙강구곡에 대해서는 김문기의 저서(『경북의 구곡문화Ⅱ』, 경상북도·경북대 퇴계연구소, 2012) 참조.

42) 김문기·강정서 공저, 『경북의 구곡문화』 Ⅱ, 경상북도·경북대 퇴계연구소, 2012, 350~351쪽.



들어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화자는 이곳이 極處이기에 遊人은 다시 하늘로 오르려고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그의 구곡 유람이 현실 세계와 이격된 별천지를 찾는 행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道를 窮究하고자 하는 修道 행위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낙동강 연안의 구곡문화는 조선의 구곡문화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자의 무이구곡 경영을 전범으로 삼아 주자 성리학적 가치를 이 땅에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낙동강 연안의 구곡문화가 단순히 조선조 구곡문화가 지향했던 사상적 지향성만을 담아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낙동강 중류를 양분하는 상주권과 대구권의 사상적 지향성이 일부분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낙동강 연안 구곡문화가 가진 사상적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주권의 경우에는 권상일의 <청대구곡> 경영에서도 볼 수 있듯이 퇴계학의 강한 영향력 속에 구곡문화가 향유되기도 하고, 권섭의 경우처럼 기호학과의 관련성 속에 구곡문화가 자리잡은 측면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대구권의 경우에는 한강 정구를 중심으로 구곡문화가 형성되고 향유되었던 측면이 매우 강하다.<sup>43)</sup> 정구는 만년에 대구 사수동에서 泗陽精舍를 짓고 강학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인재들을 길러냄으로써, 이 지역 문인들에게 대구 유학의 비조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도석규의 <서호병십곡>을 비롯한 다수의 대구지역 구곡문화 속에 오롯이 담겨 있다.<sup>44)</sup> 특히 그들이 구곡의 극처로 제시했던 공간 대부분이 정구와 관련된 사양정사와 研經書院 등이었음을 볼 때, 대구지역 구곡문화 경영자들의 사상적 지향성이 어디로 향

43) 이에 대해서는 정우락의 연구(「대구지역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 『한민족어문학』 77, 한민족어문학회, 2017) 참조.

44) 도석규의 서호병십곡의 극처인 10곡은 泗水濱으로 설정되어 있고, 우성규의 운림구곡의 9곡은 泗陽書堂, 채준도의 문암구곡의 1곡은 畫巖 즉 研經書院이며, 신성섭의 와룡산구곡 또한 1곡이 泗水로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낙동강 연안 구곡문화는 영남학과 기호학을 아우르며, 퇴계학과 남명학을 함께 수용하였던 한강학이 중요한 사상적 배경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낙동강 연안의 구곡문화는 근세까지 지속되었는데,<sup>45)</sup> 특히 대구지역의 구곡문화 대부분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설정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대구지역의 구곡문화는 근세에도 여전히 한강학의 자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낙동강 연안의 구곡문화가 가진 이러한 사상적 지향성은 근대를 살았던 전통지식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였음을 알 수 있고, 전근대 사회의 산물인 구곡문화가 근세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

이처럼 낙동강 연안의 구곡문화는 낙동강 연안의 사상사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근세까지 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강좌와 강우를 통섭하고자 했던 한강학과 만나기도 하고, 낙동강의 상하를 아우르며 기호학과 영남학의 조화와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독자성을 확보하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V. 결론

본고에서는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낙동강 연안 구곡문화의 존재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이 지역 구곡문화가 가지는 특징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낙동강의 본류가 시작되는 상주권과 낙동강의 중류를 형성하는 대구권의 구곡문화를 중심으로 20개소의 구곡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회통성, 개방성, 사상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특징을 구명하였다.

---

45) 상주권은 외재 정태진이 선유구곡을 경영한 것에서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고, 대구권의 경우에는 우성규의 운림구곡, 채준도의 문암구곡, 신성섭의 와룡산구곡 등 다수가 근세에 경영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이러한 특징들은 논의의 편의상 세 가지로 분류하긴 하였으나, 사실은 서로 밀착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낙동강 연안 구곡문화는 주자 성리학의 강력한 영향 속에서 남명학의 강좌와 퇴계학의 강우를 한강학을 통해 수용하고, 상하로는 기호학과 영남학이 경쟁하고 조화하면서 이 지역의 구곡문화를 형성해 나갔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지향성 속에서도 구곡원림 설정과 구곡시가 창작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어, 이 지역 구곡문화가 가진 강한 개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특징들은 다시 회통성으로 수렴되는데, 낙동강 연안이 가진 이러한 회통성은 결국 다른 지역의 구곡문화와 낙동강 연안 구곡문화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강은 源頭에서 흘러나온 물이 또 다른 물을 만나 더 큰물이 되어 흐른다. 그리고 강은 산과 평지를 만나면 물길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며 흐르지만, 물의 정체성은 잃지 않고 바다를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간다. 낙동강 연안의 구곡문화 또한 좌우와 상하의 사상적 다양성을 아우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이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왔다. 따라서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강이 가진 문화적 함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낙동강 연안의 구곡문화 또한 현재적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 10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경상북도, 『백두대간 구곡문화지구 세계유산 등재방안 연구』, 2015.
- 김문기, 『문경의 구곡원림과 구곡시가』, 한국학술정보, 2005.
- 김문기·강정서 공저, 『경북의 구곡문화』, 경상북도·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 김문기·강정서 공저, 『경북의 구곡문화』 II, 경상북도·경북대 퇴계연구소, 2012.
- 문화재청, 『전통명승 洞天九曲 조사보고서』, 2007.
- 이민홍, 『증보 사림과 문학의 연구』, 월인, 2000.
- 이민홍, 『조선 중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출판부, 2000.
- 정우락, 『한강 정구와 무흘구곡 이야기』, 경인문화사, 2014.
- 정우락,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 역락, 2022.
- 강정서, 「퇴계의 <무이도가> 시인식의 한 국면」, 『동방한문학』 14, 동방한문학회, 1998.
- 강정서, 「조선후기의 무이도가 시인식」, 『동방한문학』 17, 동방한문학회, 1999.
- 구수영, 「黃南別曲의 研究」, 『한국언어문학』 10, 한국언어문학회, 1973.
- 김문기,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양상」, 『국어교육연구』 23, 국어교육연구회, 1990.
- 김문기, 「도산구곡 원림과 도산구곡시 고찰」, 『퇴계학과 한국문화』 43,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 김문기, 「퇴계구곡과 퇴계구곡시 연구」, 『한국의 철학』 42,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 신두환, 「조선 사인의 <무이도가> 비평양상과 그 문예미학」, 『대동한문학』 27, 2007.
- 심경호, 「포저 조익의 문학관과 문학」, 『한국실학연구』 14, 한국실학학회, 2007.
- 이종호, 「한국 구곡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구곡경영과 구곡시의 전개를 중심으로」, 『안동학연구』 10, 한국국학진흥원, 2011.
- 임노직, 「퇴계학과의 <무이도가> 수용과 도산구곡」, 『안동학연구』 9, 한국국학진흥원, 2010.

- 정우락, 「강안학과 고령 유학에 대한 시론」, 『퇴계학과 한국문화』 43,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 정우락, 「한강 정구의 무흘 경영과 무흘구곡 정착과정」, 『한국학논집』 4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 정우락, 「백두대간 속리산권 구곡동천 문화의 인문학적 가치와 의미-문경과 상주 일대를 중심으로」, 『남명학』 18, 남명학연구원, 2013.
- 정우락,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 무흘구곡-무흘구곡의 일부 위치 비정을 곁하여」, 『한국의 철학』 54,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 정우락, 「주자시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觀書有感〉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5.
- 정우락, 「대구지역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 『한민족어문학』 77집, 한민족어문학회, 2017..
- 정우락, 「구곡원림의 양상과 경북 구곡의 문화사적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77, 한국유교학회, 2019.
- 조성덕, 「무이도가의 수용과 변용에 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유영, 「蔡澍의 <石門亭九曲棹歌>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그 의미」, 『어문론총』 60, 2014.
- 조유영, 「청대 권상일의 청대구곡 경영과 그 의미」, 『대동한문학』 49집, 대동한문학회, 2016.
- 조유영, 「조선조 구곡가의 시가사적 전개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조유영, 「영남지역 구곡원림의 유형에 따른 시적 형상화 양상과 그 지역문화적 특징」, 『어문학』 143, 한국어문학회, 2019.
- 조지형, 「17-18세기 구곡가 계열 시가문학의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Characteristics of Gugok Culture along the Nakdonggang River

-Focusing on the middle part of the Nakdonggang River-

Jo, Yu-young

In this paper, we tried to examine the existence of Gugok culture along the coast of Nakdonggang River, focusing on the middle and upper reaches of the Nakdonggang River, and based on this, we tri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Gugok culture in this region.

Accordingly, 20 were presented, focusing on the Gugok culture in the Sangju area where the main stream of the Nakdonggang River begins and the Daegu area that forms the middle stream of the Nakdonggang River, and based on this, its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Comprehensiveness, openness, and ideological orientation.

These characteristics presented in this paper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for convenience of discussion, but in fact, they were closely attached to each other.

**keywords :**

Gugok Culture, Nakdonggang River, Comprehensiveness, Openness, Ideological orientation.

## 寒岡學의 湖西 확장과 黃宗海의 계승의식

김 학 수\*

- I. 머리말
- II. 한강학의 湖西 확장 : 鄭述의 木川寓居와 호서권 ‘寒岡門派’의 형성
- III. 鄭述의 학연과 寒岡學派 편입
  - 1. 家學 : 퇴계학적 친연성
  - 2. 한강문화 입문과 동문의식
- IV. 淵源意識의 확대 및 강화 : 퇴계학에 대한 衛道意識
  - 1. 정인홍의 ‘晦退辨序’과 그 대응 : 1611년의 ‘晦退辨疏’
  - 2. 퇴계학 文獻의 玩味와 發揮
  - 3. 퇴계-한강 폼파 및 誤認論에 대한 변론 : 金長生과의 논변
- 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寒岡學의 湖西 확장 양상을 木川 출신의 寒岡門人 黃宗海 (1579-1642)의 사례를 통해 시론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강학은 영남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고, ‘江岸學’ 또는 ‘洛中學’이란 틀 속에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졌다.

정구가 영남 출신이고, 한강문인의 절대 다수가 영남지역에 분포함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강학을 지역학의 범주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확장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글의 핵심 논점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한국사학전공 부교수 / ksoya@aks.ac.kr

황중해의 한강문화 입문은 木川을 비롯한 호서 일원에 한강문화가 형성되는 마중물이 되었고, 그가 가졌던 계승의식은 호서권을 한강학의 副心地로 설정해야 하는 역사적 근거가 된다. 동시에 이것은 한강학이 지역학으로서의 嶺南學을 넘어 조선의 지식인들이 공유·공감했던 학술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진단의 과정이기도 하다.

◆ 주제어

---

정구, 한강학, 한강문화, 황중해, 목천, 오선생예설, 죽림서원



## I. 머리말

낙동강 연안의 성주에서 金宏弼의 학자적 유산을 家學으로 수용하고, 16세기 영남학의 兩宗 退溪學과 南冥學의 과감한 접목을 통해 대동하기 시작한 寒岡學은 인근의 대구·칠곡·현풍·고령·창녕 등지를 부심지로 삼아 점차 그 외연을 확장했고, 鄭述(1543-1620)의 졸년인 1620년 무렵에는 영남의 전역이 그의 학문적 영향권 속으로 편입됨으로써 사실상 17세기 초반의 ‘嶺南學’을 대변하는 학문공동체로서의 體와 格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영역 확장의 광폭적 행보는 한강학이 퇴계학과 남명학으로 양분되었던 영남의 좌도·우도를 통섭하는 ‘집단지성’으로서의 존재성을 천명하는 과정이었고, ‘斯文盟主論’에 바탕한 사림의 寒岡認識은 이런 해석의 역사적 근거가 된다.

논자에 따라서는 한강학의 結晶 공간으로서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 중류지역에 주목하여 ‘洛中學’으로 명명하는 견해가 있고,<sup>1)</sup> 낙동강 전역으로 그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입론에 바탕하여 ‘江岸學’을 주창하는 학설도 있다.<sup>2)</sup> 두 주장은 交集의 영역이 넓다는 점에서 상보성을 지니고 있고, 합리적 논리에 근거 또한 뒷받침되고 있어 한강학의 판도 구획에 있어 양대 시준으로 자리잡았다. 한강문인의 분포 및 활동 양상에 비추어 볼 때, 尙州~金海에 이르는 낙동강 연안이 주된 영토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여기서 한가지 짚어둘 것은 한강학을 ‘지역학’의 범주 속에 가두는 것은 영남이 釀成했던 知的 자산의 축소 또는 손실의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한강학의 嶺外 확산의 경로 및 동

- 
- 1) 홍원식 외, 『낙중학 :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 지역의 유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 홍원식 외,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 : 조선 중기의 '낙중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 홍원식 외, 『낙중학의 전개와 한려학과』,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8.
  - 2) 정우락, 「江岸學과 高靈 儒學에 대한 試論」, 『퇴계학과 유교문화』 4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 정우락, 「강안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한강학연구원 제1차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2.

선을 추적하는데 주안점이 있으며, 그 교량적 인물로서 木川 출신의 한강문인 黃宗海(1579-1642)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강학의 기호 전파는 許穆(1595-1682)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星湖學으로 대변되는 근기남인계[京南] 실학의 연원 또한 이 구조 위에서 가닥이 잡혔다.

그렇다면 새삼스럽게 황중해의 학자적 존재와 역할에 주목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한강문하 입문 시점이 허목보다 15년 선행하고, 성장 및 활동 공간이 그간 한강학의 변방으로 여겨진 湖西라는 점, 무엇보다 師說의 계승과 적용 및 연원의식에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궤적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황중해에 대한 논의는 한강학이 ‘江岸學’ 또는 ‘洛中學’을 넘어 17세기 조선이 공유했던 知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진단하는 학문적 실험의 장이 될 것이다.

## II. 한강학의 湖西 확장

### : 鄭述의 木川寓居와 호서권 ‘寒岡門派’의 형성

정구는 40대에 師道를 표방하고 檜淵草堂[百梅園]을 거점으로 후진을 양성하기 시작했고 이후 社倉(성주)⇒武屹精舍(성주)⇒蘆谷精舍(칠곡)를 거쳐 1620년(광해군12) 泗陽精舍(칠곡)에서 사망하기까지 약 40년 동안 총 342명의 문인을 양성했다. 趙穆의 月川門人(19명) 柳成龍의 西厓門人(117명), 鄭仁弘 來庵門人(115명), 金誠一의 鶴峯門人(40명), 曹好益의 芝山門人(94명) 등 李滉·曹植 문하의 동문들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구의 학자적 역량과 학문적 영향력을 증명하는 수치적 근거가 된다.

한편 정구는 서울 남부 好賢坊에 주거가 있었던 중형 鄭崑壽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서울 출입이 잦았고, 창녕현감(1580), 동북현감(1584), 함안군수(1586), 통천군수(1591), 강릉부사(1593), 강원감사(1596), 성

천부사(1597), 충주목사(1602), 안동부사(1607) 등 외직을 수행하며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과 관계망을 형성했다.

<표 1> 16-17세기 영남학파의 주요 學派[門派]<sup>3)</sup>

문파	문인수	전거	비고
退溪門人 (李滉)	309	『陶山及門諸賢錄』	『退溪全書』
南冥門人 (曹植)	50	『山海師友淵源錄』	朴綱(編)
來庵門人 (鄭仁弘)	115	『南冥學派의 形成과 展開』	李相弼(著)
月川門人 (趙穆)	19	「月川先生門人錄」	光山金氏 後彫堂 所藏
西厓門人 (柳成龍)	117	「西厓先生門賢錄」	『西厓全書』
鶴峯門人 (金誠一)	40	「鶴峯先生門人錄」	金龍洙(編)
芝山門人 (曹好益)	94	「芝山先生師友錄」	道岑書院 所藏

이 과정에서 정구는 근기·호서 등 기호권에서 최소 15명에 이르는 문인을 규합하게 된다. 이는 한강학파가 갖는 지역성의 완화 또는 탈색의 과정으로 해석이 가능할만큼 의미로운 노정이었고, 특히 1602년의 목천우거는 한강학의 호서 확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학문적 행보였다.

정구의 목천우거는 중형 鄭崑壽(1538-1602 ; 初名 鄭達, 당숙 鄭承門을 계후하면서 崑壽로 개명)의 사망에 따른 喪失의 고통, 李福長 등 목천지역 사우들의 호의적 권유가 복합된 결과로 파악된다. 정구는

3) 김학수, 「조선중기 寒岡學派의 등장과 전개 -門人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113쪽.

1602년(선조35) 정월 충주목사에 임명된 지 불과 3개월만인 동년 4월 經書諺解校正廳 당상에 임명되어 입경했고, 교정청 업무를 보던 도중인 11월 중형 정곤수의 부음을 듣게 된다. 이후 그는 1603년 2월 臨津縣 津東面 栢木谷 선영에 안장할 때까지 한 해 전에 사망한 장질 鄭檄(1561-1601)를 대신하여 질서 張顯光과 함께 치상을 주관했다.<sup>4)</sup> 정구에게 중형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고, 그런 정서는 제문에 몹시 애뜻하게 표현되어 있다.<sup>5)</sup>

평소 밋고 의지했던 중형의 부재는 정구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던 것 같다. 치상 이후 곧바로 성주의 본가나 강학처인 檜淵으로 돌아가지 않고 목천 우거를 곁행한 것도 이런 심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쉽게도 목천 우거의 구체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主人’이 되어 정구의 우거를 주선했는지는 추론의 영역에 속하므로 여러 정황을 통해 유추해보기로 한다.

정구의 목천 우거는 1603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자취는 매우 뚜렷하다. 우선 그는 이른바 ‘寒岡禮學’의 정수를 담은 『五先生禮說』을 이곳에서 저술했고, 후일 호서지역 한강문파의 구심점이 되는 竹林書院(1676년 道東으로 賜額) 건립의 단초를 열었으며, 황중해와 같은 문인을 길러냄으로써 한강학의 학문적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구의 목천 우거처는 近東面に 위치한 葛田里(一名 礪溪)였다.<sup>6)</sup> 이곳은 평산한씨 출신의 韓應箕·應南 형제가 낙향하여 定居한 마을이었다. 공간적 연고에 비추어 볼 때, 평산한씨의 역할이 컸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정구의 우거는 특정 개인과의 관계를 넘어 목천지역 사족 사회의 집단의지와 연동시켜 바라볼 필요가 있다.

安鼎福(1712-1791)의 『大麓志』에 따르면, 17세기 초반 목천의 사족 사회는 안동김씨·평산한씨[정주한씨]·수안이씨·회덕황씨 등 10여 가문에

4) 鄭崑壽, 『栢谷集』, 「年譜」, <壬寅>(1603); 鄭述, 『寒岡集』, 「年譜」, <壬寅>(1603).

5) 鄭述, 『寒岡集』 卷11, <祭仲氏西川君文>.

6) 金得臣, 『栢谷集』 冊7, <答時庵書>.

의해 주도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가문의 학문적 계통은 크게 退溪學統[寒岡門派]과 花潭學統[杏村·鼎山·剡溪門派]<sup>7)</sup>으로 양분된다. 퇴계·화담학통을 정파로 치환할 경우 17세기 초반 목천의 유력 사족은 퇴계·화담학의 토대 위에서 정치적으로는 동인의 색채가 강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한가지 전제할 것은 퇴계학통[寒岡門派]의 경우 정구의 목천 우거 이후 문도 규합의 결과라는 사실이며, 이는 정구의 우거가 목천 사족의 학문적 지형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뜻한다.

<표 2> 17세기 초반 木川 지역 유력 사족[전거 : 『大麓誌』(安鼎福)]

世居	家門	주요 인물	학문 계통
柏田	안동김씨	金忠甲/金緻/金得臣	退溪·朽川學統
礪溪	평산한씨	韓應箕/韓應南	寒岡/剡溪(李潛)學統
柳洞	청주이씨	李孝範	寒岡學統
衣洞	청주곽씨	郭說/郭希泰	杏村(閔純)學統
好德	청주곽씨	郭希震	杏村(閔純)學統
晩梅	고흥류씨	柳活	南冥學統
雨山	수안이씨	李福長/李仁長/李成己/李成俊	退溪學統
綾谷	경주이씨	李廷龍/李來慶	
孔村	회덕황씨	黃德基/黃宗海/黃鶴立	寒岡學統
南華	광주안씨	安應元/安時賢	
官洞	밀양박씨	朴自凝	
飛龍	전주이씨	德信正(李鸞壽)	鼎山(朴洲)學統

위 표에 제시된 유력 諸家 중에서도 한강학풍의 유입과 확산을 이끈

7) 閔純(花潭門人)의 杏村門派, 李潛(화담문인 朴枝華의 제자)의 剡溪門派, 朴洲(화담문인 李仲虎의 제자)의 鼎山門派는 그 연원에 있어 모두 서경덕의 花潭學統으로 소급된다.

것은 安東金氏·平山韓氏·遂安李氏·懷德黃氏였다. 柏田에 세거 기반을 둔 안동김씨는 김충갑(金忠甲, 1515-1575) 일가였다.

김충갑은 기묘사림의 한 사람인 金神童의 사위로 명종~선조조에 활동한 전형적인 사림과 관료였다. 그는 1547년 ‘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21년간 청주에서 적거했고, 선조 초반 해배되면서 정착한 곳이 목천현 栢田[천안시 병천면 가전리]이었다.

김충갑의 학통관계는 분명치 않지만 아우 金悌甲이 『陶山及門諸賢錄』에 입전되어 있고,<sup>8)</sup> 李楨이 청주목사 재임시에 간행한 『朱子感興詩』의 ‘跋文’(1553), 『家禮儀節』의 ‘跋文’(1555)을 찬술한 점을 고려할 때,<sup>9)</sup> 이황 및 그 문인들과 긴밀한 연대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특히 이정의 性理學 서적 편찬 및 간행은 이황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전개된 지식문화인프라 조성사업이라는 점에서<sup>11)</sup> 퇴계학과의 친연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김충갑의 손자 金緞(1577-1625)는 1619년 泗陽精舍에서 정구를 사사한 睦大欽(1575-1638)의 매부였고, 증손 김득신은 ‘朽川行狀’을 비롯하여 ‘竹林書院講堂上樑文’ 등의 예식문자를 찬술하며 죽림서원 원랑론을 완결한 황종해의 실질적 계승자였다.

韓應箕·應南은 李潛(朴枝華門人) 문하에서 수학하여 徐敬德→朴枝華로 이어지는 화담학통을 계승한 인물이었다. 한응기는 임란 당시 포의 신분으로 선조의 扈從을 자임하는 등 志氣로써 신망이 높았고, 한응남은 덕망

8) 『陶山及門諸賢錄』 卷3, <金悌甲>.

9) 金忠甲, 『龜巖集』 卷1, <朱子感興詩跋>, <朱文公家禮儀節跋>.

10) 1817년 이황의 『退溪集』 改刊 전말을 기록한 일기에 따르면, 당시 도산서원을 방문했던 김충갑의 7세손 金學元을 ‘先生門人 忠甲의 후손’으로 적고 있다. 이는 이황의 자손을 비롯한 예안사람들이 김충갑을 退溪門人으로 인식했음을 뜻한다(『先生文集改刊日記』, <1817年 5月 10日>).

11) 우정임, 「退溪 李滉과 그 門徒들의 서적 간행과 서원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2008; 우정임, 「言行錄類 서적의 수입과 이해과정을 통해 본 16세기 道統 정립과 정 연구」, 『역사와 세계』 47, 2015.; 우정임, 「龜巖 李楨의 서적편찬과 간행이 道統 확립에 미친 영향」, 『지역과 역사』 38, 2016.; 안현주, 「龜巖 李楨의 도서간행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 2011.

과 학식으로 명성을 얻었다.<sup>12)</sup> 특히 한응남은 자신의 마을[葛田]에 우거 하던 정구를 사사함으로써 퇴계학으로까지 학연을 더욱 확장하게 된다.

松巖公[韓應南]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임천에 은거하여 후진을 지도하였으며, 한강 정선생이 공을 방문하여 더불어 담론하고는 군자의 풍모를 지닌 사람이라고 했다.<sup>13)</sup>

위 인용문에서 보듯, 19세기 초반의 노론계 학자 宋釋圭는 한응남을 한강문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는 喪祭禮와 관련하여 정구와 여러 차례 문답한 바 있고, 『檜淵及門錄』에도 입전되었다.<sup>14)</sup>

朱熹·金宏弼·鄭述의 제향처로 건립되었고, 황종해의 추배를 통해 호서 지역 한강학파의 구심점으로 기능하게 되는 竹林書院의 院基 또한 그가 정자를 짓기 위해 예비해 둔 곳이라는<sup>15)</sup> 점에서도 한강학의 공간적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구와 한응남과의 사승은 호서와 영남의 학문적 교류의 촉매가 되었다. 한강문파에 한정할 때, 양측의 교류는 서사원의 淸安縣監 재임, 정구의 충주목사 재임을 통해 물꼬를 튼 상황에서 정구의 목천우거와 문도 규합이 이런 흐름을 더욱 촉진했던 것이다. 1605년 당시 의성현령에 재임하던 李得胤(1553-1630)이 정구의 강학처 蒼坪山 夙夜齋를 방문하여 서사원·손처눌 등 한강문인들과 토론한 것은 좋은 예가 된다.

이득윤이 숙야재를 방문한 것은 1605년 7월 7일이었다. 정구를 비롯하여 徐思遠(1550-1615)·孫處訥(1553-1634)·宋遠器(1548-1615) 등과 합좌한 자리에서 서사원과 학문을 토론했다. 토론 주제는 易學이었는데, 서사원은 『周易』에 정통했던 이득윤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에 정구가 토론에 개입하는 다소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이날의 토론은 ‘嶠湖會話’의 색다른 장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12) 宋釋圭, 『剛齋集』 卷6, <書礪溪松巖二韓公實蹟後>.

13) 宋釋圭, 『剛齋集』 卷6, <書礪溪松巖二韓公實蹟後>.

14) 『檜淵及門錄』 卷3, <韓應南>.

15) 宋釋圭, 『剛齋集』 卷6, <書礪溪松巖二韓公實蹟後>.

일찍이 밤에 夙夜齋에서 선생을 모실 적의 일이다. 당시에 行甫[徐思遠]가 술에 취해 克欽[李得胤]과 易의 이치에 대해 논하면서 매번 모순에 빠지자, 선생이 이르기를, ‘역은 하나인데 어찌 두 가지 뜻이 있겠는가’라고 하셨다.<sup>16)</sup>

이어 이득윤은 자못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다. 한강문인들이 정구를 지나치게 존송하는데, 자칫 士禍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계였다. 몹시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한 이방인의 언설에 대해 손쳐놓은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변명한다.

克欽[李得胤]이 (寒岡門人들이 鄭述를) 지나치게 존송하여 사림의 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경계하였는데, 이는 듣기에 미안한 말이었다. 전날의 사화는 모두 그 원인이 있었다. 한 세상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고상한 체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시기하여 화를 일으킨 것이다. 우리 선생은 처세와 사람을 대함에 있어 말은 공손하고 기색은 온화하여 仁愛한 마음이 잠시도 빈틈이 없었던 까닭에 사람들이 감히 이간질 할 수 없었는데, 누가 선생을 폄훼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극혐의 말은 서로 경계하며 좋아하고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리라.<sup>17)</sup>

한강문과를 바라보는 17세기 학계 일각의 시선은 이런 것이었다.<sup>18)</sup> 손쳐놓이 애써 변명을 하면서도 한 타자가 던진 경계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에서 한강문과의 비판 수용의 폭을 가늠할 수 있다.

정구의 목천 우거에 있어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李福長이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인적 정보는 목천 雨洞 출신으로 효행이 있었고, 임진왜란 때 창의한 사실 외에는 크게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그의 아우 李仁長이 퇴계문인 宋彦愼의<sup>19)</sup> 처남이라는 사실은 수안이씨 李福長·仁長 일가의

16) 『寒岡言行錄』 卷1, <教人>, ‘孫處訥錄’

17) 孫處訥, 『慕堂日記』, <1605年 7月 7日>.

18) 李得胤은 1615년 서사원이 사망하자 淸安儒生을 대신하여 제문을 지어 애도했고, 1620년 정구의 사망 때도 淸州儒生을 대신하여 제문을 짓는 등 호서유림과 한강문과의 교량적 역할을 했다(李得胤, 『西溪集』 卷3, <祭徐淸安思遠文>(代淸安儒生作); 卷3, <祭寒岡鄭先生文(代淸州儒生作)>).

19) 宋彦愼은 柳希春·許曄·盧守愼을 중유하다 퇴계문하에 입문하여 博文約禮와 忠信篤



정치·학문적 성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정구는 그를 ‘어린 시절 이웃에 살았던 경겨운 벗’으로 회고하고 있다. 아래는 정구가 목천 우거를 정리하고 성주로 돌아간 지 3년째 되던 1605~1606년 경 이복장의 죽음을 애도한 만사의 한 대목이다.

憶昔同鄰寓	어릴 적 이웃에서 살던 우리가
重歡舊契深	다시 만나 옛 정이 한결 깊었지 <sup>20)</sup>

이들이 어릴 적 교계를 맺은 곳이 ‘星州’인지 정곤수의 주거가 있었던 서울 ‘好賢坊’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공간인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이복장이 성주 인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런 불분명성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사립의 기간이 길고, 평소의 교분 또한 매우 두터웠던 사이였음은 사실인 것 같다. 정구의 목천우거의 실질적 주선자로 이복장을 지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繫我之愚	어리석은 이내 몸은
早荷相知	일찍 친교 맺었는데
自始識面	얼굴 처음 안 이후
卅餘星霜	삼십여 년 그동안
愛余之深	세상 어느 누구보다
特出尋常	나를 깊이 사랑했네
癸卯之春	계묘년 봄철에는
寓卜芳鄰	공 마을로 이사하여
同堂合席	한지붕 한자리에
逐日連旬	몇 날 며칠 함께 살며 <sup>21)</sup>

敬의 가르침을 입었으며, 선조에게 『退溪集』의 간행을 건의했을만큼 尊師意識이 높았다. 특히 이항 사망 때 지은 친필 제문이 현전하는데, 여기서 그는 이항을 孔子↔朱子로 이어지는 유학의 集大成者로 평가했다(『陶山及門諸賢錄』卷3, <宋彦愼>; 한국국학진흥원, 『陶山諸賢遺墨』(木), 160~165쪽, <宋彦愼祭文>).

20) 鄭述, 『寒岡集』 別集 卷2, <挽李仲綏福長>.

21) 鄭述, 『寒岡集』 卷12, <祭李仲綏福長墓文>.

정구에게 이복장은 益友였다. 목천 우거를 애도의 시간, 휴식의 공간을 넘어 학문적 결실의 장으로 활용하게끔 이끈 사람이 그였기 때문이다.

내가 계묘년(1603) 봄 湖西 木川 고을에 있을 적에 죽은 벗 李福長 仲綏가 나에게 여러 선생이 논한 禮를 類別로 편집하여 열람하기에 편하도록 하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선비 15명 정도를 불러들여 붓을 잡고 나의 작업을 도와주게 하여 겨우 반달 만에 초고가 완성되었다. 仲綏는 또 이것을 판각하여 책으로 찍어내려 하였는데, 나는 ‘이 일은 본디 늦고 병든 내가 편하게 상고하기 위해 시도한 작업이다. 어찌 판각하여 널리 전파할 것까지야 있겠는가. 게다가 내용이 거칠고 소략하니 더욱 함부로 세상에 내놓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고, 극력 만류하여 중지시키고 상자 속에 던져두었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나는 영남으로 돌아오고 증수는 세상을 떠났다.<sup>22)</sup>

『心經發揮』와 함께 한강학의 핵심 텍스트로 규정할 수 있는 『오선생에설』 초안의 저작 공간이 목천이었고, 그 후견인이 이복장이었던 것이다. 15명의 선비를 寫役に 지원함은 물론 간행까지 주선한 것에서 이복장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물론 『五先生禮說』의 초고는 1614년 칠곡 蘆谷精舍 화재로 소실되어 1617년 重撰되기까지 큰 곡절을 겪게 되지만<sup>23)</sup> 初撰 원고본의 목천 탈고는 조선시대 예학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장면으로 착상된다. 즉, 목천은 ‘寒岡禮學’의 창작 공간이

22) 鄭述, 『寒岡集』 別集 卷2, <五先生禮說分類跋>.

23) 蘆谷精舍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1614년 1월 23일이며, 동년 4월부터 重撰 작업에 착수하여 9월 경에는 80-90% 정도의 복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여러 차례의 교정작업을 거쳐 중찬을 완료한 것은 1617년 5월 7일이었고, 이때 정구는 ‘慰同苦喜重成’의 취지를 담은 小宴을 마련하여 문인들의 노고에 답한 바 있다. 중찬을 위해서는 『文獻通考』·『二程全書』·『二程粹語』·『儀禮經傳』 등 10여 종에 이르는 참고 문헌이 필요하였는데, 영천 소재 喜好益家(정구의 아들 鄭樟의 妻叔家)에 관련 문헌의 借覽을 요청했다가 그 부인 居昌愼氏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등 적지 않은 고충이 따랐다. 이후 『五先生禮說』은 정구의 아들 鄭樟이 호남의 亞使로 활동할 때 호남 某處에서 간행하려 했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1618년 李潤雨가 巡檢使 從事官으로 활동할 당시 南原에서 일부 간행된 바 있으며, 공식 完刊된 것은 이윤우가 潭陽府使에 재임하던 1629년이다(위의 경과에 대해서는 孫處訥, 『慕堂日記』; 李潤雨, 『石潭集』 卷3, <五先生禮說跋> 참조).

었고, 이곳에서 입문한 황종해가 한강예학의 착실한 계승자로 성장한 것은 인간 및 공간을 매개로 한 학문적 인과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Ⅲ. 鄭述와의 학연과 寒岡學派 편입

#### 1. 家學 : 퇴계학적 친연성

황종해의 본관은 懷德이며, 주거 기반은 목천현 孔村이었다. 그의 선대는 고려말 문과에 합격하여 閤門祇候를 지낸 黃有吉 이래 일정한 사환을 유지하였으나 정치·학문적으로 드러난 인물은 배출되지 못했다.

황종해의 선대가 회덕 본향에서 목천으로 이거한 것은 6대조 黃尙文 대인 15세기 중후반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정착한 곳은 細城面 공촌이었고, 이 기반은 황종해와 그 자손 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sup>24)</sup> 회덕황씨가 정착한 이후에도 18세기 중반까지 공촌에는 청주한씨 [韓世塘家], 청주한씨 [韓命祚家], 함양여씨 [呂復吉家], 의령남씨 [南亮采家], 남양홍씨 [洪義載家], 경주이씨 [李億虞家], 안동권씨 [權禮謙家], 순흥안씨 [安晉家], 여흥민씨 [閔德顯家] 등이 순차적으로 입거하여 목천의 사족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sup>25)</sup>

황종해의 유교적 인격 형성과 학자적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은 부친 黃德休(1539-1606)와 숙부 黃德基(1545-1601)였다. 황덕휴는 병약했던 탓에 학문에 전념하지 못함으로써 뚜렷한 사회적 직위를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유교적 가정윤리의 실천에 독신했던 지식인이었고,<sup>26)</sup> 그런 가치는 황종해가 ‘孝友’의 가풍을 체득하며 양질의 주자학적 인격체로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24) 安鼎福, 『大麓誌』 卷下, 「姓氏」, <孔村>.

25) 위와 같음.

26) 玄德升, 『希菴遺稿』 卷4, <黃公德休墓誌>.

숙부 황덕기는 목천 회덕황씨의 家道 전환을 이끈 인물이다. 그것은 사회지향적 성향에서 학자가문으로의 이행이었고, 그 최대의 수혜자가 황종해였다. 황덕기와 황종해의 숙질로서의 情誼와 사제로서의 分誼는 ‘仲父行狀’에 상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황덕기는 학자적 포부만큼이나 자긍심 또한 컸던 인물이었다. 황종해의 표현에 따르면, 조부 黃友參과 외숙 韓仁祖를 통해 내외의 가학을 傳受했던 황덕기는 20세 이전에 이미 鉅儒의 자질을 갖추면서 더 이상 外傳를 섭기지 않았다고 한다.<sup>27)</sup> 그 역시 청년기에는 과업에 종사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중년 이후로는 학문에만 전념했다. 그는 『家禮』를 熟讀·玩味하여 그것의 일상적 적용에 힘을 쏟았을만큼 예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sup>28)</sup> 후일 황종해가 17세기를 대표하는 예학자의 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황덕기의 학문적 범주는 예학에 국한되지 않았다. 경사자집을 두루 섭렵하는 가운데 『周易』에 더욱 공력을 쏟았고, 『近思錄』·『心經』 등 性理諸書에도 정통함으로써 16세기 후반 목천 일대의 학풍을 선도하는 주자학자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29)</sup> 이 과정에서 황종해는 숙부로부터 학문은 물론 行身の 규범까지 薰習함으로써<sup>30)</sup> ‘黃氏家學’의 사회적 확장을 예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황덕기의 학문적 門路는 어떤 범주에서 설정할 수 있을까? 앞에서 언급한 조부[黃友參] 및 외숙[韓仁祖]과의 유년기 학연이 문로 설정의 가늠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황종해는 ‘仲父行狀[黃德基]’에서 일가의 학문적 지향을 천명한 바 있는데, 그것은 이황과의 학연을 통한 퇴계학 계승의식이었다.

숙부[黃德基]께서는 일찍이 陶山記를 책상 위에 두고 늘 玩心하시며 정성스럽

27) 黃宗海, 『朽淺集』 卷8, <仲父行狀>.

28) 黃宗海, 『朽淺集』 卷8, <仲父行狀>.

29) 黃宗海, 『朽淺集』 卷8, <仲父行狀>.

30) 黃宗海, 『朽淺集』 卷8, <仲父行狀>.

게 후생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는 공께서 퇴계 선생 만년에 태어났고, 또 예안과 목천은 1,000리나 떨어져 있어 비록 문하에 입문하지는 못했지만 깊이 사모하는 정성이 언어 사이에 드러난 것이었다.<sup>31)</sup>

이에 따르면, 황덕기는 세대 및 지역의 차이로 인해 퇴계문하에 입문하지는 못했지만 ‘私淑門人’에 준할만큼 이황에 대한 경모심은 컸다. 그의 학자적 명성은 淸安縣監(1595-98)에 재직했던 한강고제 徐思遠을 통해 영남으로까지 전파되었던 것 같다. 청안과 목천의 지역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예망치 못했음을 ‘好賢禮法’의 결손으로 자책했을만큼<sup>32)</sup> 서사원은 황덕기의 학행을 信認했고, 그런 평가는 정구를 비롯한 제 한강문인들에게 공지된 것으로 짐작된다. 아래 인용문은 정구가 서사원을 통해 황덕기의 학자적 존재를 인지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樂齋 徐先生[徐思遠]은 대구 사람이다. 일찍이 청안현감을 지냈는데, 파직되어 돌아간 뒤에 사람들에게 ‘내가 호서에서 벼슬살이 할 때 한번도 황공[黃德基]을 만나보지를 못했으니, 어진이를 좋아함에 정성을 쏟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부군께서 돌아가신 뒤에 한강 선생께서 이 고을에 우거하실 때 종해가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자 선생께서 ‘공의 중부의 行誼는 내가 익히 듣고 있었는데, 종유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것이 애석할 따름이다’고 하셨다.<sup>33)</sup>

이처럼 정구는 황덕기의 後嗣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표하는 등 그를 好賢의 범주에서 예우했는데, 황종해가 한강문하를 출입하게 된 실마리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정구가 황덕기를 종유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던 데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황종해가 ‘仲父行狀’에서 언급한 황덕기의 ‘道義之友’는 洪翼賢·李德敏·任琦·姜鳳壽·金應禧·李福長·李芬 등 7인이다.<sup>34)</sup> 이 가

31) 黃宗海, 『朽淺集』 卷8, <仲父行狀>.

32) 「樂齋年譜」에 따르면, 徐思遠은 1596년 李夢鶴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木川으로 출병한 바 있지만 軍務의 시급함으로 인해 士友 회합과 같은 사사로운 용무는 모색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3) 黃宗海, 『朽淺集』 卷8, <仲父行狀>.

운데 특히 주목할 인물은 李福長과 李芬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복장은 정구의 知舊로서 『五先生禮說』의 찬술을 권유했던 인물이고, 아산 출신의 이분은 정구의 문인으로 한강예학을 전수받아 『家禮剝解』를 저술한 예학자였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정구와 황덕기의 교유는 예견된 측면이 있었지만 황덕기가 정구의 ‘木川寓居’ 1년 여 전인 1601년 4월에 사망함으로써 영남·호서 두 학인의 증유는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 2. 한강문화 입문과 동문의식

### 1) 한강문화 입문과 ‘寒岡認識’

황종해가 정구를 사사한 것은 24세 때인 1603년(선조36)이었다.<sup>35)</sup> 이후 1620년 정구가 사망할 때까지 두 사제가 공유했던 역사적 시간은 17년이었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황종해의 한강문화 입문은 숙부 黃德基에 대한 정구의 학자적 推許, 金忠甲 일가의 퇴계학에 대한 친연성,<sup>36)</sup> 李福長·韓應箕·韓應南의 우거 환경 조성 등 복합적 배경 위에서 이루어졌다.

황종해는 정구의 목천 우거를 호서의 주자학적 ‘文明化’ 또는 ‘開明化’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즉, 황종해는 동방의 문명화를 이끈 존재로 箕子 ⇨ 鄭夢周 ⇨ 4賢 [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 ⇨ 李滉 ⇨ 鄭述로 인식한다. 이 統緒는 朱子學 및 ‘爲己之學’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었고, 그 결과 신라~고려의 인물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무엇보다 ‘五賢’이라 총칭하지 않고 ‘四賢’과 이황을 구분한 것 또한 尊賢의 등위의식과 관련하여 곱씹어 볼 대목이다.

34) 黃宗海, 『朽淺集』 卷8, <仲父行狀>.

35) 1602년에 事師했다는 기록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寒岡祭文’ 등 황종해의 자술에 근거하여 1603년 입문설을 수용하기로 한다.

36) 사천목씨에 기준할 때, 황종해는 金忠甲의 손자 金緻와 5촌친이었다. 김치는 睦稱의 손서였고, 황종해는 외증손이었다. 김치의 아들 金得臣이 황종해의 문하를 출입하며 ‘朽川行狀’을 지은 것도 척연과 관계가 깊어 보인다.

퇴계·남명 양문의 고제라는 정구의 門路는 그를 영남학의 틀 속에 가두는 측면이 있었음에 반해 1603년의 목천 우거는 한강학의 지역적 팽창, 지역과 정파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 학문으로서의 가능성을 시험·진단하는 과정이었으며, 그 최대의 수혜자가 자신을 비롯한 목천사림[寒岡門人]이었던 것이다.

宗海等	저 종해 등은
買櫝小儒	세상에 재주를 판 변변찮은 선비요
雕蟲末學	문장이나 다루는 하찮은 학문으로
久仰德範	오랜 동안 도덕을 흠양하면서
無路及門	문하에는 들어갈 길이 없다가
歲在執徐	계묘년에 이르러서
德照湖分	덕성이 호수에 비치
始因張繹	비로소 장역 통해
獲拜伊川	이천을 찾아보니
互鄉得師	호향 동자가 스승을 얻고
潮人向學	조주 백성이 향학했는데 <sup>37)</sup>

그리고 이것은 맹목적 추앙이 넘어 목천이 한강학의 변방이 아닌 새로운 거점이라는 자의식의 발현으로 읽힌다.

입문 이후 17년 동안 직접 가르침은 받은 것은 1603년[1차 寓居]과 1608년[2차 寓居] 두 차례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는 한강학의 종지인 예학을 傳受하였음을 자부한다. 그런 자의식은 고금의 예에 대한 활발한 문답, 『오선생예설』 편찬 작업 참여와 같은 實事に 근거를 두고 있었다.

及夫戊申	무신년에 미쳐서
再駐軒蓋	행차 재차 머무를 제
雖愧立雪	향학의 정성 알아 부끄럽긴 했어도
咸喜坐春	춘풍 속에 앉은 듯 모두 기뻐하였네
前後摠衣	두 번 직접 수업하여

37) 黃宗海, 『朽淺集』 卷6, <祭先師鄭寒岡文>(庚申四月).

古今問禮	고금의 예 여쭘으며
叨陪繕寫	모시고서 예서 등사
作爲成書	완전한 책 만들었네
親炙既多	친히 배운 학문이 이미 많았고
飽德亦久	은덕 입은 세월도 오래됐거니
慳慳小子	무지몽매한 소자들
孰不自新	누가 각오 새롭게 아니 가지랴 <sup>38)</sup>

허목이 ‘黃徵君行狀’에서 ‘한강학의 宗旨를 얻었다’고 한 것과 김득신이 ‘黃朽淺行狀’에서 ‘성학의 의난처를 商論했다’고 한 것은 양자의 학문적 수수관계에 대한 정통한 이해에 바탕하는 知言이다.

- ① 24세에 처음으로 寒岡 선생을 섬겨 학문의 宗旨를 들었다.<sup>39)</sup>
- ② 임인년에 한강 선생께서 목천에 우거하실 때 공은 늘 문하에 나아가 聖學의 의심스럽고 난해한 곳을 商論하였는데, 이 때 공의 나이 24세였다.<sup>40)</sup>

『寒岡言行錄』의 기사에 따르면, 정구와 황종해의 사제관계는 자못 친밀했던 것 같다. 우거 초기인 1603년 3월 17일 정구는 부친 鄭思中의 기일을 맞았다. 親忌 등 齋戒를 해야 할 때 정구는 謝客을 법도로 삼았음에도 황종해의 방문만큼은 사양하지 않았던 것은 일상적 왕래에서 검증된 호학의 열성을 미답게 여긴 때문이었다.

선생은 재계하는 날 牌를 만들어 문 밖에 걸어두었고, 객은 그 폐를 보고 돌아갔다. 종해가 일찍이 선생을 뵈었는데, 선생께서는 마침 선고의 기일을 맞았다. 선생께서, ‘군은 늘 왕래하는 사람인 까닭에 응접하는 것이다’고 하셨다. 이로써 미루어 보자면, 재일에 손을 맞는 것은 예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sup>41)</sup>

---

38) 黃宗海, 『朽淺集』 卷6, <祭先師鄭寒岡文>(庚申四月).  
 39) 許穆, 『記言』 別集 卷26, <黃徵君行狀>.  
 40) 金得臣, 『柏谷集』 冊6, “壬寅歲 寒岡先生僑居木川 公每造其門 商論聖學疑難處 時年二十四”  
 41) 『寒岡言行錄』 卷2, <奉先>, ‘黃宗海錄’



1608년 이후 정구와 황중해의 사제 대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 서간을 통한 활발한 문답이었다. 주로 예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논담은 『寒岡集』에 실릴만큼 학술적 의미가 컸고, 동시에 이것은 강안권 한강문인들이 황중해를 주목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寒岡言行錄』 편찬 때 ‘筓記’를 찬술한 ‘18문인’의 범주에 들게 되는데,<sup>42)</sup> 이는 한강문파에서 그의 위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정구를 향한 경모의 마음은 시문에도 잘 드러나 있다. 아래는 1615년 성주로 가는 벗 鄭迪을 송별할 때 지은 작품이다. 스승 가까이로 가는 벗에 대한 부러움을 통해 師에 대한 그리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더구나 이 작품은 정구의 詩語에서 착상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감성이 더욱 도드라진다.

吾君別業近寒岡	그대의 별업 한강과 가까우니
此去應知數拜床	이번 걸음 응당 비을 일 많을테지
若問湖西秋後景	선생께서 호서 땅 가을 경치를 물으시거든
一枝殘菊獨凌霜	한떨기 남은 국화가 홀로 서리를 견딘다 전해주게 <sup>43)</sup>

이 외 정구에 대한 학문적 憤悱의 마음과<sup>44)</sup> 弟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송구한 마음을 담은 詩作<sup>45)</sup> 또한 사제간의 깊은 情誼와 分誼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황중해는 ‘禮詩’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詩作을 남겼는데, 허목은 그 내용과 취지를 이렇게 평설한다.

42) ‘筓記’ 찬술자는 張顯光(인동)·徐思遠(대구)·孫處訥(대구)·文緯(거창)·郭赳(현풍)·李厚慶(영산)·崔恒慶(성주)·張興孝(안동)·朴明胤(성주)·李籟(성주)·李天封(성주)·李潤雨(칠곡)·李埵(성주)·金大澤(하양)·裴尙龍(성주)·黃宗海(목천)·李壘(성주)·許穆(연천)이며, 이 가운데 嶺外 인물은 황중해와 허목 둘 뿐이다(鄭述, 『寒岡全書』, 『寒岡言行錄』; 『寒岡言行錄』(4卷2冊, 木版本)).

43) 黃宗海, 『朽淺集』 卷1, <送鄭迪之嶺南(乙卯)>.

44) 黃宗海, 『朽淺集』 卷1, <憶寒岡鄭先生>.

45) 黃宗海, 『朽淺集』 卷1, <商顏途中 憶寒岡鄭先生>.

첫째는 事親, 둘째는 訓子, 셋째는 君臣, 넷째는 夫婦, 다섯째는 兄弟, 여섯째는 事師, 일곱째는 長幼, 여덟째는 朋友, 아홉째는 總論인데, 五倫을 미루어 부연하고 『소학』을 祖述하여 篇章을 이룬 것이다.<sup>46)</sup>

이에 따르면, 황종해는 ‘五倫’을 ‘八倫’으로 확장한 셈인데, 이른바 제6륜에 해당하는 것이 ‘師’에 대한 ‘弟’의 도리를 규범화 한 ‘事師’이다. 유교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구를 향한 門弟 의식의 선언처럼 읽힌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규범은 ‘범하거나 숨김이 없는 마음’, ‘終生토록 변치 않는 의리’, ‘사후 心喪 예법의 실천’ 등이다.<sup>47)</sup> 즉, 황종해는 ‘의리의 지속과 심상의 실천’을 사제관계의 과정과 결과로 인식했던 것이다. 『후천집』에서 황종해가 정구 사후 심상을 행했다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禮詩’의 창작 의도에 미루어 볼 때, 실천 여부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적어 보인다.

심상은 예학에 본령을 둔 한강학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禮法으로 17세기 사림사회가 주목했던 사제간의 ‘義理規範’이기도 했다. 그런 시각은 德山 출신으로 李命俊·朴知誠·趙翼의 문하를 출입한 17세기 湖西學人 趙克善(1595-1658)의 『忍齋日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21년 4월 8일. 또 基甫[崔自弘]가 仁同에서 부친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 ‘鄭寒岡의 제자 가운데 心喪을 입은 사람이 두 명인데, 대구의 蔡夢硯과 靈山の 李厚慶이다.’라고 했다. 그 사람됨을 상상하니 필시 어진 사람일 것이다.<sup>48)</sup>

정구 사후 심상을 행한 한강문인은 蔡夢硯·李厚慶 외에도 崔恒慶·李籥·李天封·裴尙龍·李道孜 등을 꼽을 수 있지만,<sup>49)</sup> 심상의 규범화를 통해 ‘弟職’을 확대, 정립한 것은 황종해였다.

46) 許穆, 『記言』別集 卷26, <黃徵君行狀>.

47) 黃宗海, 『朽淺集』卷1, 「禮詩」, <事師第六>.

48) 趙克善, 『忍齋日錄』, <1621년 4월 8일>.

49) 김학수, 「趙克善의 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지식인의 師弟觀 -‘숨김과 드러냄’-」, 『장서각』 3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7, 48~49쪽.

## 2) 江岸圈 한강문인과의 교류와 연대

황종해는 1620년 1월 정구의 상례 때 목천지역 한강문인을 대표하여 제문을 지었지만 조문치는 못했다.<sup>50)</sup> 이후 그는 이듬해인 1621년 7~8월 무렵 영남을 방문하여 강안권 한강문인들과 회동하는 기회를 갖는다. 진주 柰洞 출신의 한강문인 朴敏의 『凌虛年譜』는 이런 사실을 간명하게 담아내고 있다.

8월 黃朽川[黃宗海]이 방문했다. 후천의 이름은 중해인데, 선생과 한강문하의 동문이다. 방문하여 이들을 묵으며 『中庸』·『心經』·『禮記』 등 여러 서책을 강론했다.<sup>51)</sup>

이와 관련하여 『凌虛集』에는 황종해가 늦봄에 자신을 방문하면서 裴尙龍(1574-1655)의 편지를 전했다는 기사도 있다.<sup>52)</sup> 여기서의 ‘늦봄[春末]’이 위 인용문의 ‘8월’의 오기인지 아니면 황종해가 두 차례 박민을 방문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두 기록에 따르면, 황종해가 1621년 또는 다른 어느 시기에 성주를 경유하여 진주로 간 것은 분명하다. 성주를 방문한 것은 조문에 더해 정구의 유적, 즉 한강학의 현장을 체험, 感覺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 더 이상의 단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비록 단회적이지만 裴尙龍과의 만남은 중요한 장면으로 포착된다. 그는 정구의 만년 고제로 허목과 한강문인의 연대에 교량적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sup>53)</sup>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1621년의 영남행은 강안권 한강문인들과 동문의식을 다지는 제휴의 행

50) 정구 상례 때 호서권 한강문인을 대표하여 泗陽精舍로 와서 조문한 사람은 李恒이란 인물이며, 趙相禹의 제문을 代奠한 이도 그였다.

51) 朴敏, 『凌虛集』 卷3, 附錄 「年譜」, <辛酉>(1621).

52) 朴敏, 『凌虛集』 卷1, <與裴子章>.

53) 1643년 許穆·趙任道 등 寒旅門人들의 회합의 자리로 모색된 開津船遊를 기획하고, 허목의 부탁으로 『寒岡集』과 『五服沿革圖』를 보내준 인물도 배상룡이었다(김학수, 「船遊를 통해 본 洛江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 의식 -17세기 寒旅學人을 중심으로-」, 『영남학』 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89~90쪽). 배상룡 또한 언행록 차기를 작성한 ‘18門人’ 가운데 한 사람이다.

보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박민은 그를 두고 ‘한강을 사사하여 학문의 宗旨를 들었고, 과거를 폐하고 경전 공부에 전념한 학인’으로<sup>54)</sup> 평가함은 물론 시무에 밝은 ‘經世家로서의 재능’에 대해서도 깊은 신뢰를 보였다.<sup>55)</sup> 황중해의 학문과 경륜에 대한 박민의 신뢰는 그 자손들이 ‘동약[柰洞洞約]’의 제정과 운영에 있어 황중해의 ‘공촌동약’을 參用하는 단계로 확장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황중해에 대한 한강문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는 한강고제로서 『寒岡言行錄』의 편찬을 주도했던 李厚慶의 『畏齋年譜』이다.

晴暉堂[李承] 유사록에, ‘한강 선생의 諸子 가운데 자질이 뛰어난데다 好學하는 이는 李畏齋[李厚慶]·黃朽川[黃宗海]·文茅溪[文緯]를 으뜸으로 친다’고 했다.<sup>56)</sup>

위 기사는 李承의 ‘晴暉堂遺事’를 인용한 것인데, 황중해를 李厚慶·文緯와 함께 ‘三好學’으로 평가한 것은 강안권 한강문인의 ‘朽川認識’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외 황중해가 교유했던 인물로는 張顯光·申達道 등이 있다.<sup>57)</sup> 특히 장현광은 정구 사후 황중해가 事師의 뜻을 표명했을만큼 존경했던 인물이다.<sup>58)</sup>

한편 황중해는 정구 사후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師說의 수용 및 계승에 주력하여 1625년(인조3)에는 ‘讀書錄要語續選并附傳書跋’, 1629년에는 ‘五服沿革圖跋’을 찬술하였다. 1629년의 ‘家禮剝解跋’은 한강문인 李芬의 저서에 붙인 발문이다.<sup>59)</sup> 황중해와 이분은 한강예학의 계승과

54) 朴敏, 『凌虛集』 卷4, 附錄, 「師友錄」, <黃朽川>.

55) 朴敏, 『凌虛集』 卷3, 附錄, 「言行別祿」.

56) 李厚慶, 『畏齋集』, 「年譜」, <庚寅>(1590).

57) 영남 인물은 아니지만 장현광의 旅軒門下를 출입했던 秦川 출신의 학자 鮮于浹에 대해서도 학문적인 신뢰와 함께 중유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黃宗海, 『朽淺集』 卷1, <次徐秀夫贈鮮于遜庵韻贈秀夫>).

58) 장현광과의 관계는 竹林書院 院享論을 분석할 별고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59) 黃宗海, 『朽淺集』 卷7, <家禮剝解跋>.

발휘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발문의 찬술은 예학을 매개로 한 동문의식의 제고 과정이었다.

#### IV. 淵源意識의 확대 및 강화 : 퇴계학에 대한 衛道意識

##### 1. 정인홍의 ‘晦退辨斥’과 그 대응 : 1611년의 ‘晦退辨誣疏’

정구와의 사승은 五賢, 특히 이언적·이황에 대한 경모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퇴계·남명 양문의 고제라는 정구의 이원적 사승은 문인들의 연원인식에 혼선을 초래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대구 출신의 한 강고제 서사원·손처눌이 정구의 학통을 파악함에 있어 각기 남명문인과 퇴계문인에 주안점을 두고 자신들의 문로를 인식한 것이 그 단적인 예가 된다.<sup>60)</sup>

황종해는 ‘퇴계문인’으로서의 정구를 계승하고자 했고, 이런 의식은 鄭仁弘(1535-1623)의 ‘晦退辨斥’을 계기로 더욱 공고해졌다.

동시대의 여느 학인과 마찬가지로 황종해 역시 ‘五賢道統論’을 신중했고, 그에게 오현은 조선 유학의 집대성자로 정립되어 있었다.<sup>61)</sup> 오현 외에 그가 특별히 존승했던 선유는 成守琛(1493-1564)이었다. 그는 성수침을 出處·學問·行誼를 겸한 哲人이자 간절한 尙友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이다.<sup>62)</sup>

오현에 대한 존승은 ‘晦退景慕論’으로 압축된다. 이언적의 경우, 先正으로 존칭하며 周敦頤에 비유한 것이라든지<sup>63)</sup> 예학 공부에 있어 李彥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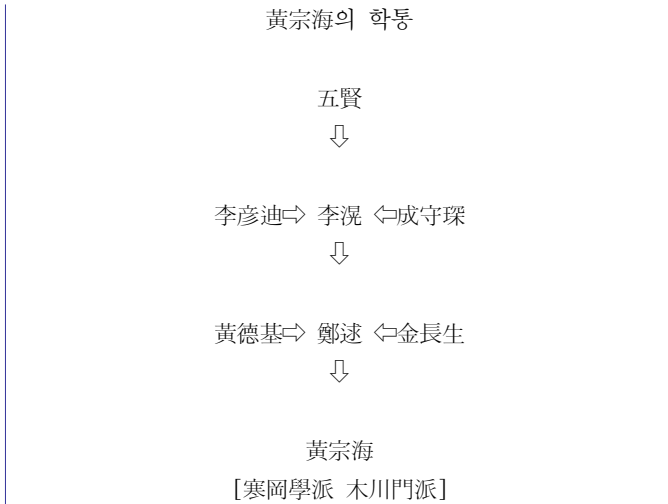
60) 김형수, 「17세기초 대구사림의 형성과 분화」, 『歷史教育論集』 36, 역사교육학회, 2006.;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61) 黃宗海, 『朽淺集』 卷1, <次安士儼韻>.

62) 黃宗海, 『朽淺集』 卷1, <敬次成聽松韻>.

63) 黃宗海, 『朽淺集』 卷1, <次陸慶州 長欽 韻 甲戌冬 >.

의 『奉先雜儀』를 주요 텍스트의 하나로 활용한 것에서도<sup>64)</sup> 敬信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황에 대한 인식은 더욱 절실하다. 그에게 이황은 ‘도학의 宗旨를 전수받은 유일한 존재’,<sup>65)</sup> ‘斯文의 盟主’<sup>66)</sup>, ‘유적 하나까지도 범상하게 여길 수 없는 존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되었다.<sup>67)</sup> 1611년 정인홍이 오현의 문묘중사에 반발하여 ‘晦退辨斥’을 단행했을 때 호서사림을 규합하여 변무소를 추진하고, 예학에 있어 김장생의 ‘퇴계평화론’에 대한 반박, 『退溪先生言行拾遺』 및 『退溪雜詠』의 ‘발문’ 찬술, 1634년(인조12) 이황의 靜退書院 봉안문을 찬술한 것은 연원의식의 實事的 행위였다.

특히 1611년(광해군3) 3월에 단행된 정인홍의 ‘회퇴변척’<sup>68)</sup>에 대응하

64) 黃宗海, 『朽淺集』 卷5, 「答問(下)」, <祭禮> ‘時祭卜日’.

65) 黃宗海, 『朽淺集』 卷1, <敬次朱夫子梅溪館韻>.

66) 黃宗海, 『朽淺集』 卷1, <次李恒德久韻>.

67) 黃宗海, 『朽淺集』 卷1, <過仙遊洞>.

68) 『光海君日記』, <光海君 3年 3月 26日>.

는 과정에서 황종해는 정치·학문적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다. 회퇴변척은 퇴계학과와 남명학과의 정면 충돌을 넘어 사림의 집단적 저항을 초래하여 동년 4월에는 정인홍이 靑衿錄에서 삭제되는 판관이 있었다.<sup>69)</sup> 이에 정인홍계에서는 정구를 ‘스승 남명을 저버렸다[背師南冥]’는 罰目으로 강우지역 3서원, 즉 德川(晉州)·香川(三嘉;龍巖書院)·新山書院(金海) 유적에서 삭명하는 조치로 맞섬으로써 양측의 갈등도 한층 격화되었다.<sup>70)</sup>

이런 흐름 속에서 퇴계학과권에서는 성주의 한강·여헌문과, 예안·안동의 월천·서애·학봉문과가 중심이 되어 류성룡의 문인 金奉祖를 소두로 변무소를 추진하였다. 이 소사와 관련하여 한강문과의 대변자적 역할을 자임했던 것은 ‘扶正斥邪通文’을 지어 정인홍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孫處訥이었다.<sup>71)</sup>

金奉祖 등의 영남유소는 ‘회퇴변척’이 단행된지 두 달 열흘만인 1611년 6월 4일이었음에<sup>72)</sup> 비해 황종해의 ‘罪鄭仁弘疏’는 영남보다 조금 빠른 5월에 추진되었다. 영남·호서와 서울 사이의 거리를 감안할 때, 사실상 동시에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소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남 유림과의 조율 및 협모 양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황종해의 상소는 목천 등 호서권 퇴계추종론자의 사론을 대변하며, 조선 유학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언적·이황에 대한 尊賢意識과 주자학적 가치의 수호라는 衛道論이 복합된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황종해가 陳疏를 위해 입경했을 때의 심경을 토로한 詩作에는 ‘회퇴변척’이라는 행위, 그 행위를 주도한 ‘정인홍’이라는 인간에 대한 분노가 잘 드러나 있다. 황종해에게 정인홍은 ‘천지를 晦塞시키는 毒’, ‘霖雨·陰雲과 같은 不祥의 조짐’, ‘邦國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해악’에<sup>73)</sup> 다름 아니었다.

69) 『光海君日記』, <光海君 3年 4月 10日>.

70) 孫處訥, 『慕堂日記』, <1611年 10月 22日>.

71) 孫處訥, 『慕堂集』 卷5, <扶正斥邪通文(辛亥)>.

72) 『光海君日記』, <光海君 3年 6月 4日>.

황종해의 상소는 이언적·이황을 朱熹·陳德秀와 같은 사문의 동량으로 인식하고, 정인홍의 회퇴변적을 誣賢 행위로 규정하고 그 죄를 묻는데 논점이 집중되어 있다.

정인홍은 이황이 조식을 ①‘傲物輕世’, ②‘難要中道’, ③‘老莊爲崇’로 지목한 것을 명백한 폄훼행위로 간주했고, 조식의 벗 成運을 ‘淸隱’으로 평한 것 또한 동일 맥락에서 인식했다. ‘회퇴변적’은 이런 사안을 둘러싸고 쌓인 불만이 오현의 문묘중사를 통해 이언적·이황이 선정의 반열에 든 것을 기화로 기탄없이 분출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정인홍은 회퇴를 ‘科擧出身’으로 폄하하고, 鳳城君 사건과 결부시켜 出處不正으로 규탄하는 가운데 ‘輕許後輩論’, 즉 이황이 李楨(1512-1571)·黃俊良(1517-1563)과 같은 문인·후학들을 경솔하리만큼 과도하게 인정한 점, 이언적·이황의 畜妾 등 신변상의 문제까지 끌어들이 비난의 수위를 높였던 것이다.

황종해는 ‘罪鄭仁弘疏’에서 이런 비판적 논거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한편 광해군에 대해서도 정인홍이 범한 誣賢의 죄상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扶正抑邪’의 대의를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던 것이다.<sup>73)</sup>

황종해의 상소는 『光海君日記』에 수록되지 않아 비답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扶正抑邪’를 명분으로 영남권 퇴계학과와 공동보조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황종해의 상소는 정구의 목천우거가 예비했던 ‘호서지역 한강문파’의 정치·학문적 입장 표명이었고, 이 과정에서 황종해는 사림사회에서 得名의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후일 ‘朽川行狀’의 찬자[許穆/金得臣撰] 및 ‘朽淺集序’의 찬자[姜栢年/崔錫鼎/權愈]들이 한결같이 이 사안을 특서한 것 또한 그가 확보했던 사회적 명성의 실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73) 黃宗海, 『朽淺集』卷1, <辛亥五月以二賢卡誣事封疏入洛 遇大雨 時鄭仁弘構陷晦齋退溪>.

74) 黃宗海, 『朽淺集』卷2, <罪鄭仁弘疏 辛亥五月>.



## 2. 퇴계학 文獻의 玩味와 發揮

1611년 이언적·이황 변무소는 황종해가 남인 퇴계학과[寒岡門派]로서의 장치·학문적 좌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退溪雜詠跋’(1617)과 ‘退溪先生言行拾遺序’(1636)는 그런 행보의 뚜렷한 자취였다.

『退溪雜詠』은 이황이 자신의 주거 ‘兔溪’에서의 삶을 노래한 것으로 총 138首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1585년(선조18) 『陶山雜詠』(116首)과 함께 합본되어 나주에서 『溪山雜詠』이란 서명으로 간행되었는데, 이를 주관한 것은 시인 나주목사 金誠一이었다.<sup>75)</sup>

황종해가 열람한 『退溪雜詠』은 동향의 후배 李成己 소장본이었다.<sup>76)</sup> 이성기는 정구에게 『오선생예설』 편찬을 권유했던 李福長의 아들인데, 두 사람의 긴밀한 교유관계는 회덕황씨[黃宗海家] 및 수안이씨[李福長家]를 중심으로 한 퇴계·한강학맥의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退溪雜詠跋’은 일종의 독후감이다. 여기서 그는 이황의 詩를 학문을 통해 응축된 도덕의 외적 표현으로 평가했고, 言辭의 간명함에서 간취되는 뜻[旨]의 오묘함, 성정의 바름과 조예의 극치라는 표현에서는 이황에 대한 존경이 酷慕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sup>77)</sup>

한편 ‘退溪先生言行拾遺序’는 『退溪先生言行拾遺』의 입수 경위, 著者[撰者]의 比定, 讎校 과정을 밝힌 글이다. 『퇴계선생언행습유』는 숙종 연간 林泳(1649-1696)이 편찬하는 『退溪先生語錄』의 핵심 저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황종해는 전주 출신의 門人 金君重으로부터 ①‘조선의 산천 및 형승’, ②‘御諱 및 관부의 명칭’ 그리고 ③‘이황의 언행과 출처’ 등 여러 내용이 합철된 기록을 입수하게 된다.<sup>78)</sup> 특히 그는 ③의 기록들이 『퇴계집』 등

75) 金誠一, 『鶴峯集』, 「年譜」, <乙酉>(1585).

76) 黃宗海, 『朽淺集』 卷7, <退溪雜詠跋>.

77) 黃宗海, 『朽淺集』 卷7, <退溪雜詠跋>.

78) 黃宗海, 『朽淺集』 卷7, <退溪先生言行拾遺序>.

여타 문집류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임에 착안하여 저자 파악에 골몰한 끝에 의례 문답 조항에 근거하여 김성일의 기술임을 밝혀내기에 이른다.<sup>79)</sup> 그는 이 기록을 ‘退門論語’로 극찬했을만큼<sup>80)</sup> 퇴계학 문헌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여 탈루된 문장을 보완하고, 誤字를 정정한 다음 『退溪先生言行拾遺』로 명명했던 것이다.<sup>81)</sup> 퇴계학의 주요 문헌 가운데 하나가 비영남권인 목천의 한강문인에 의해 발굴·정비된 것이다.

『退溪先生言行拾遺』의 문헌적 가치를 인정한 인물은 林泳이었다. ‘退溪語錄’의 편찬에 착수한 임영은 朴世采·尹拯의 교정을 거쳐 숙종 초반인 1676년 경 초고를 완성하여 박세채에게 발문을 받았다.<sup>82)</sup> 이후에도 편차 및 수정작업은 지속되었고, 1689년 박세채에게 보낸 서간에는 諸저본의 명칭과 편차 방침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책은 『朱子語類』와 같이 분량이 많지 않은데도 한 권의 책에 대해 조목을 나누어 내용별로 정리한 것이 너무 번잡합니다. 다만 『二程遺書』와 『二程外書』의 예에 따라 먼저 黃氏本을 기록하고 『記善錄』을 그 다음에, 拾遺와 같은 종류를 그 다음에 기록하되, 다만 그 가운데 후 아래에 주석으로 표시해 둔 것을 취하여 ‘이하는 性理를 논한 것이다.’, ‘이하는 학문을 논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또 『주자어류』 중에 자세하게 분류하고 명확하게 경계를 정한 예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한다면 번잡하고 자질구레한 병폐가 없을 것이고 조리도 절로 문란해지지 않을 것이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sup>83)</sup>

인용문에 보이는 ‘黃氏本’이 곧 황종해의 『退溪先生言行拾遺』이다. 임영이 『퇴계선생어록』을 편찬함에 있어 핵심 문헌으로 활용된 것이 황종해의 『퇴계선생언행습유』였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79) 黃宗海, 『朽淺集』 卷7, <退溪先生言行拾遺序>.

80) 黃宗海, 『朽淺集』 卷7, <退溪先生言行拾遺序>.

81) 黃宗海, 『朽淺集』 卷7, <退溪先生言行拾遺序>.

82) 朴世采는 林泳의 부탁으로 ‘退溪語錄’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근거를 통해 『退溪先生言行拾遺』의 저자가 김성일임을 더욱 분명하게 밝혔다(朴世采, 『南溪集』 正集 卷69, <跋退溪先生語錄 丙辰七月二日(1676)>).

83) 林泳, 『滄溪集』 卷7, <上玄江(己未)>.

황종해의 ‘퇴계인식’이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아산 靜退書院 봉안문이다. 정퇴서원은 趙光祖·李滉·洪可臣<sup>84)</sup>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1634년(인조12)에 건립되었다. 건원론을 주도한 인물은 아산의 유학자 趙相禹(1582-1657)였고,<sup>85)</sup> 예식문자는 조상우와 황종해가 분담하여 찬술했다. 이런 공조가 가능했던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굳건하게 맺어져 있었던 척연 및 학연 때문이었다. 이들은 외가 쪽으로 3從[8촌]의 척분이 있었고,<sup>86)</sup> 긴밀한 종유 관계를 통해 17세기 초반 아산·남양·천안·목천지역 학풍을 주도했다. 조상우는 정구와 면대한 적은 없지만, 정구는 1603년(선조36) 목천 우거 당시 그의 충신·효자로서의 행의와 학자적 성취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sup>87)</sup> 1620년 정구가 사망하자 조상우는 만사 및 제문을 통해<sup>88)</sup> 정구를 鄭夢周⇨五賢⇨李滉의 적전으로 인식하며<sup>89)</sup> 지난날의 推許에 답하게 된다.

무엇보다 그는 사실상 한강문인을 자처하며<sup>90)</sup> 정구의 수많은 저술 가

84) 洪可臣의 학문적 교류망에 대해서는 김학수, 「洪可臣家の 역사적 전개와 인적 네트워크-변모와 확장 그리고 통섭-」, 『인산서원 배향인물 재조명-만전당 홍가신을 중심으로-』, 아산학연구소·한국서원학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22. 참조.

85) 趙相禹, 『時庵集』 卷5, <靜退書院創建時通諭士林文(甲戌)>; <靜退書院上樑文(甲戌)>.

86) 趙相禹의 외가[平山韓氏; 淸州韓氏로 改貫]는 목천현 細城面 孔村인데, 황종해의 주거와 같은 마을이다. 조상우는 황종해의 제문에서 외가로 3從의 척분이 있다고 했다. 후일 ‘朽淺集序’를 찬술하는 姜栢年(1603-1681)은 조상우(1582-1657)의 손아래 처남이다. 이런 관계망을 바탕으로 황종해의 아들 黃鶴立은 강백년을 사사했고, 그 연장 선상에서 ‘朽淺集序’까지 칭하게 된 것이다.

87) 趙相禹, 『時庵集』 卷1, <寒岡鄭先生述挽>; 趙相禹, 『時庵集』 卷6, 附錄, <遺事>.

88) 조상우는 정구의 상에 직접 문상하지는 못했고, 李恒을 보내 대신 致祭하게 했다.

89) 趙相禹, 『時庵集』 卷5, <祭寒岡鄭先生述文>.

90) 趙相禹, 『時庵集』 卷5, <祭寒岡鄭先生述文>. 조상우는 유년기에 洪信民이라는 관료에게 수학했고, 그 뒤 황종해를 비롯하여 洪慶臣·洪可臣·李廷龜·閔後騫·李有謙·柳根·申欽 등 다양한 인사들과 교류했고, 尹宣舉·趙克善 및 황종해의 아들 黃鶴立 등이 상례를 주관한 것으로 보아 그의 당대에는 정파·학파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다만, ‘行狀’을 宋時烈이 찬술한 것을 고려한다면, 후손들은 노론 기호학과를 표방했던 것으로 보인다(趙相禹, 『時庵集』 卷6, 附錄, <遺事>; 宋時烈, 『宋子大全』 卷210, <時菴趙公行狀>).

운데 『오선생예설』을 특정하여 禮敎의 典範으로 평가하였는데,<sup>91)</sup> 이는 이 저술이 갖는 호서[목천]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靜退書院의 건립과 3현[趙光祖·李滉·洪可臣]의 봉안은 조상우·황종해가 중심이 된 호서권 한강문인에 의해 釀成된 원향론이었다.

네 편의 예식문자 가운데 ‘春秋享祝’을 제외한 3편의 봉안문은 모두 황종해의 찬술이다.<sup>92)</sup> ‘퇴계봉안문’에서 그는 이황을 ‘특별한 사승없이 성인의 말씀을 體行한 학인’으로 표현하는 한편 『聖學十圖』·『朱子書節要』·『理學通錄』을 저술의 정수로 꼽았다.

‘퇴계인식’의 정수는 ‘心’과 ‘學’에 집약되어 있다. 마음[心]은 ‘秋月寒水’[朱熹]이고, 학문[學]은 ‘精金美玉’[程顥]이라는 표현이<sup>93)</sup> 대변하듯 황종해에게 이황은 程顥와 朱熹의 착실한 계승자, 즉 ‘조선의 程朱’였던 것이다.

### 3. 퇴계·한강 폄하 및 誤認論에 대한 변론 : 金長生과의 논변

황종해와 김장생의 학문적 교류가 시작된 것은 1618년(광해군10)이다. 이 해 그는 연산의 金長生(1548-1631)을 방문하여 예학을 토론했고, 이듬해인 1619년 재방한 이후로는 서신 왕래를 통해 담론을 이어갔다. 첫 방문 때 김장생은 뒤늦은 증유를 몹시 안타까워 했고, 두 번째 방문 때 황종해는 김장생을 ‘옛 賢人の 풍도를 지닌 사람’에 비기며 이윽하여 살지 못하는 아쉬운 저서를 노출시킬만큼 경도되어 있었다.

무오년(1618) 여름 공이 金沙溪[金長生]를 방문하자 사계가 공을 보고 ‘명성을 익히 듣고 있었는데, 만남이 어찌 이토록 늦어졌단 말입니까?’라고 했다. 이듬해

91) 趙相禹, 『時庵集』 卷5, <祭寒岡鄭先生述文>.

92) 黃宗海, 『朽淺集』 卷6, <靜退書院退溪李先生奉安文(甲戌冬)>, <靜退書院靜庵趙先生奉安文>, <靜退書院晚全洪先生奉安文>.

93) 黃宗海, 『朽淺集』 卷6, <靜退書院靜庵趙先生奉安文>.

봄 다시 사계를 방문하고 지은 시에서 ‘화기 가득한 사계를 두 번째 찾음에, 덕스런 그 풍모 옛 현인 그대로이네. 난치의 병마에 일신이 메여, 좋은 이웃에 터를 잡아 옮겨 살 수 없음이 한스럽네’라고 했다.<sup>94)</sup>

이로써 그는 김장생의 從學人으로 인식되었고, 『沙溪門人錄』에도 입전되어 있다.

자는 大進이고, 호는 朽淺이다. 平海人[懷德人의 오기]으로 처음에 寒岡 鄭述에게 수학하다가 만년에 선생을 섬기면서 예를 배웠다. 참봉에 천거되었고, 저서로는 『후천집』이 있다. 목천의 道東書院에 향사되었다.<sup>95)</sup>

이처럼 황종해는 한강·사계 양문을 출입했지만 배움의 곁은 사뭇 달랐다. 정구에게서 ‘成己之恩’을 입었다면,<sup>96)</sup> 김장생으로부터는 ‘學禮之恩’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成己’가 道의 영역에 속한다면 ‘學禮’는 문자 그대로 배움의 영역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더구나 김장생 또한 황종해를 ‘寒岡門生’으로 특정한 것을 보더라도<sup>97)</sup> 사승의 비중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김장생과 황종해는 대면 또는 서간을 통해 예학 강론 및 학술 정보를 교환하는 등 그 관계가 매우 돈독했다.<sup>98)</sup> 김장생은 황종해와의 강론 과정에서 정구 및 한강문인들의 학문적 동향, 특히 예학 부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구의 『오선생예설』을 李潤雨(1569-1634)에게 借覽한 사실, 한강문인 李芬(1566-1619)의 인적 정보와 『家禮剝解』의 저술 사실 등

94) 金得臣, 『柏谷集』 冊6, <黃朽淺行狀>.

95) 金長生, 『沙溪全書』 卷47, <門人錄>, ‘黃宗海’. 成海應도 황종해를 한강사계 양문 출입으로 파악하면서도 각기 ‘受學’과 ‘從講’으로 관계를 다르게 표현했다(成海應, 『研經齋全書』 卷53, <逸民傳>, ‘黃宗海’).

96) 황종해는 徐挺然과 師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구로부터 ‘成己之恩’을 입었다고 자술한 바 있다(黃宗海, 『朽淺集』 卷2, <答徐秀夫 挺然 書>).

97) 金長生, 『沙溪全書』 卷9, <松江鄭文清公澈行錄>.

98) 金得臣은 ‘朽川行狀’에서 김장생과 왕래한 答問이 40여 조목에 이른다고 했는데, 대부분 『沙溪全書』 및 『朽淺集』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을 언급한 것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寒岡이 지은 禮說을, 지난해 상경했을 때 私親의 칭호 등에 관한 일을 상고하기 위해 담양부사 李潤雨에게 빌려서 대충 보았으나, 이런 것과 비슷한 예가 없어서 곧바로 돌려보냈습니다. 편지에서 말한 默軒은 아산의 문신 李芬입니다. 그가 지은 『家禮剝解』가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는 곧 寒岡門人입니다.<sup>99)</sup>

이 과정에서 황종해는 이분이 자신과 한강문하의 동문이고, 『가례박해』라는 예서를 저술했음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sup>100)</sup> 이는 김장생과의 종유가 양질의 학술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가 되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김장생은 때로 그릇된 사실 또는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고, 심지어 이황의 예학적 수준을 폄평하는 단계에서는 난처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황종해는 사실 및 합리적 추론에 근거하여 眞僞나 오류를 바로잡는 등 공세적 주장 또는 변론을 주저하지 않게 된다.

황종해는 김장생으로부터 『寒岡抄禮』라는 題名の 예서를 입수한 바 있었다. 원출처는 『오선생예설』의 간행자 李潤雨였으므로 정황상 정구의 저작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황종해는 이를 세밀하게 검토한 뒤 아래 세가지 이유를 들어 『한강초례』가 정구의 저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sup>101)</sup>

- ① 예학적 주장이 정구가 생전에 論定한 것과 차이가 있다.
- ② 정구가 자신의 저술에 스스로를 ‘寒岡’이라 기명하는 것은 통례에 벗어난다.
- ③ 정구는 평소 이황을 ‘李先生’ 또는 ‘退溪先生’으로 일컬었는데, 이 책에서는 ‘退溪’로 칭하고 있어 매우 의심스럽다.

특히 그는 ③의 사유를 『寒岡抄禮』가 정구의 저작일 수 없는 명확한

99) 金長生, 『沙溪全書』 卷3, <答黃大進>.

100) 황종해는 1629년 문인 朴喜得으로부터 『家禮剝解』 草本을 입수한 뒤 발문을 통해 『家禮剝解』의 예학적 가치, 저자 李芬의 학문적 기여를 특서했다(黃宗海, 『朽淺集』 卷7, <家禮剝解跋>).

101) 黃宗海, 『朽淺集』 卷2, <答金沙溪書>(第1書).

근거로 단정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치밀한 검증 없이 김장생에게 이 책을 전한 이윤우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는 가운데 ‘최종 판단은 張顯光에게 품의한 뒤에 내리겠다’고 했다.<sup>102)</sup> 하지만 이는 학문적 신중함이었을 뿐 번복의 여지는 없어 보였다. 그는 김장생의 배려에 힘입어 『오선생예설』이 더욱 광범하게 유포되는 것에 사의를 표하면서도<sup>103)</sup> 한강학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는 작은 흠결조차도 간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황중해는 김장생이 제기한 ‘退溪禮學疎漏論’의 변론에도 부심하게 된다. 김장생과 예학을 문답하는 과정에서 그 조짐을 감지한 황중해는 이를 ‘퇴계평회’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선생께서 전후로 보내주신 답문 가운데 ‘퇴계는 예학에 힘을 쏟지 않아 많은 부분이 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퇴계의 예학은 소루하여 일일이 존신하여 따라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sup>104)</sup>

황중해 또한 모든 학자는 주장에 있어 전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초년의 주장 가운데 미처 고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후대에 의혹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程子の 미흡한 주장을 朱子が 고쳤다고 해서 정자를 두고 예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고, 『가례』의 일부 오류를 楊復이 수정했다고 해서 양복이 주자를 부족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논리로써 이황을 변론했다.<sup>105)</sup>

나아가 그는 이황이 중년 이후에야 예학에 공력을 쏟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이황의 시대는 禮文이 전폐되어 고금을 斟酌할 수 밖에는 없었던 상황임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황이 문인과의 論禮 문답에서 예를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검사했던 것은 예를 그릇되게 논하는 허물에 빠지는 것을 우려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sup>106)</sup>

102) 黃宗海, 『朽淺集』 卷2, <答金沙溪書>(第1書).

103) 黃宗海, 『朽淺集』 卷2, <答金沙溪書>(第2書).

104) 黃宗海, 『朽淺集』 卷2, <答金沙溪書>(第4書).

105) 黃宗海, 『朽淺集』 卷2, <答金沙溪書>(第4書).

106) 黃宗海, 『朽淺集』 卷2, <答金沙溪書>(第4書).

전후 상황을 놓고 볼 때, 이황의 예학이 고인에 부합하지 않고, 소루함으로 비쳐질 수도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情文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주희가 정호에게 했던 것처럼 고치면 될 것을 ‘소루하다’, ‘존신할 수 없다’라고 평하는 것은 先學을 각박하게 몰아붙이는 처사로 간주했다.<sup>107)</sup>

마지막으로 그는 이황의 학문적 功은 禮文의 해박함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立言垂後에 있음을 강조한다. 즉, 이황은 國俗이 투박했던 시대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문의 가치를 일깨우고, 『가례』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禮治의 토대를 닦은 학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었다.<sup>108)</sup> ‘禮學’의 기반을 조성한 이황에 대해 일부 禮文의 해석 및 적용의 當否를 문제삼아 평론하는 것은 대체를 잇은 가벼운 논의라는 것이 김장생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변론의 요지였던 것이다. 김장생이 황종해의 항의성 변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김장생의 수용 여부보다는 변론 그 자체가 가지는 퇴계학통 한강문파로서의 학문적 정체성이었고, 그것은 朱熹⇨李滉⇨鄭述⇨黃宗海로 이어지는 학통에 대한 自意識이었다.

## V. 맺음말

寒岡學의 嶺外 전파는 정구와 허목 사이의 사승관계를 중심으로 논의 되어 왔지만 黃宗海의 사례는 호서지역으로까지 강한 영향을 미쳤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강학의 외연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단서로 드러났다.

두 학인의 학연은 정구의 ‘목천우거’라는 우연성에 바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회덕황씨[黃宗海家], 수안이씨[李福長·仁長家], 안동김씨

107) 黃宗海, 『朽淺集』 卷2, <答金沙溪書>(第4書).

108) 黃宗海, 『朽淺集』 卷2, <答金沙溪書>(第4書).



[金忠甲-得臣家] 등과 공유하고 있었던 친퇴계학적 성향이 정구의 우거를 견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603년과 1608년 두 차례에 걸쳐 단시적으로 이루어졌던 정구의 우거는 단순히 휴식을 위한 ‘일시적 머무름’을 넘어 저술과 후진양성이라는 역동성이 두드러지는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우선 정구는 이곳에서 자신의 대표적 저술인 『五先生禮說』의 草稿를 완성하는 한편 황중해·韓應南·李孝範 등 다수의 문인을 규합함으로써 호서[목천] 지역 한강문과 형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황중해는 『五先生禮說』 저술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 그 연장 선상에서 한강예학의 충실한 계승자로 성장했던 것이다.

황중해는 1621년 영남의 星州 및 晉州 일대를 예방하였는데, 이는 한강학의 본거지에 대한 순례적 의미에 더해 江岸 지역 한강문인들과의 동문의식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그는 진주 출신의 한강문인 朴敏을 방문하여 하루를 묵으며 학문과 시사를 담론했는데, 후일 박민이 증손 朴泰茂가 황중해의 공촌동약을 참용하여 ‘柰洞洞約’을 제정한 것도 양자 사이의 학문적 교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강안권 한강문인들과의 교유는 朱子·鄭述·金駟孫의 제향처인 竹林書院을 건립하는 단계에서 장현광에게 위차를 자문하고, 檜淵·川谷書院에 물력의 지원을 요청하는 동력이 되었는데, 이 또한 별고를 통해 해명하기로 한다.

한강문하 입문은 퇴계학파로의 편입을 의미했고, 그것은 다시 연원의 식으로 발전했다. 1611년 ‘퇴계변무소’의 추진이 정치적 대응의 성격을 띠었다면, 『退溪雜詠』의 완미와 ‘跋文’의 찬술, 『退溪先生言行拾遺』가 김성일의 찬술임을 밝힌 것은 학문적 영역에서의 뚜렷한 계승 양상이었다. 특히 『退溪先生言行拾遺』는 황중해 스스로 ‘退門論語’로 평가했을만큼 퇴계학의 핵심 문헌이었고, 나아가 林泳의 편저 『퇴계선생어록』의 핵심 저본이 된다는 점에서 지성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황중해는 변론을 통해서도 이황·정구에 대한 연원의식을 천명했다. 金

長生이 이황의 예학을 폄하한 것에 대해 ‘예치기반조성론’으로 대응한 것이라든지 정구의 저술로 傳稱되는 제 예학 관련 저술의 진위를 밝힌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호서지역 한강문인으로서의 황중해의 역할과 비중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정구의 예학을 계승하여 목천 등 호서일대 사우들과의 강론 및 문답을 통해 사회적 확장 및 적용을 모색했고, 정구의 유의에 따라 죽림서원 건립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호서지역 한강학 거점의 출현을 이끌었으며, 정구의 ‘檜淵月朔講契’를 응용하여 ‘孔村洞約’을 제정·운영함으로써 한강학이 추구했던 明體適用의 실천성을 강화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 이 논문은 2022년 11월 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鄭述, 『寒岡集』; 鄭述, 『寒岡全書』; 金得堉, 『柏谷集』; 鄭崑壽, 『栢谷集』; 檜淵及門錄』; 『寒岡言行錄』; 『陶山及門諸賢錄』; 金忠甲, 『龜巖集』; 宋穉圭, 『剛齋集』; 孫處訥, 『慕堂日記』; 李得胤, 『西溪集』; 『陶山及門諸賢錄』; 安鼎福, 『大麓誌』; 玄德升, 『希菴遺稿』; 黃宗海, 『朽淺集』; 許穆, 『記言』; 趙克善, 『忍齋日錄』; 朴敏, 『凌虛集』; 李厚慶, 『畏齋集』; 金誠一, 『鶴峯集』; 朴世采, 『南溪集』; 林泳, 『滄溪集』; 趙相禹, 『時庵集』; 金長生, 『沙溪全書』;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趙亨道, 『東溪集』; 張福樞, 『四未軒集』; 裴尙龍, 『藤庵集』; 朴泰茂, 『西溪集』; 申達道, 『晚悟集』; 『書院謄錄』; 『先生文集改刊日記』

홍원식 외,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 지역의 유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홍원식 외,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 조선 중기의 '낙중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홍원식 외, 『낙중학의 전개와 한려학과』,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8.

김학수,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학수, 「船遊를 통해 본 洛江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 의식 -17세기 寒旅學人을 중심으로-」, 『영남학』 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김학수, 「趙克善의 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지식인의 師弟觀」, 『장서각』 3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7.  
 김학수, 「조선중기 寒岡學派의 등장과 전개 -門人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김학수, 「洪可臣家の 역사적 전개와 인적 네트워크-변모와 확장 그리고 통섭-」, 『인산서원 배향인물 재조명-만전당 홍가신을 중심으로-』, 아산학연구소·한국서원학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22.  
 김형수, 「17세기초 대구사림의 형성과 분화」, 『歷史教育論集』 36, 역사교육학회, 2006.  
 안현주, 「龜巖 李楨의 도서간행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 2011.

- 우정임, 「言行錄類 서적의 수입과 이해과정을 통해 본 16세기 道統 정립과정 연구」, 『역사와 세계』 47, 2015.
- 우정임, 「龜巖 李楨의 서적편찬과 간행이 道統 확립에 미친 영향」, 『지역과 역사』 38, 2016.
- 우정임, 「退溪 李滉과 그 門徒들의 서적 간행과 서원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2008.
- 정우락, 「강안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한강학연구원 제1차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2.
- 정우락, 「江岸學과 高靈 儒學에 대한 試論」, 『퇴계학과 유교문화』 43,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Abstract

## The Expansion of Hangang Study to Hoseo Area and Hwang Jong-hae's Consciousness of Succession

Kim, Hak-su

This article analyzes the expansion pattern of Hangang Study into the Hoseo area through the case of Hwang Jong-hae (黃宗海). Until now, Hangang Study has been studied mainly in Yeongnam, and in-depth understanding has been achieved within the framework of Ganganhak (江岸學) or Nakjunghak (洛中學).

It is clear that Jeong Gu is from Yeongnam, and the absolute majority of Hangang disciples are distributed in Yeongnam, but the main point of this article is that Hangang Study needs to be highlighted more extensively, not limited to the category of regional studies.

Hwang Jong-hae's becoming disciple to Hangang served as the beginning of the formation of the Hangang Study division in Mokcheon and other Hoseo areas, and his sense of succession served as the basis for setting the Hoseo area as a sub-center of Hangang Study. At the same time, this is also a process of rigorous diagnosis on whether Hangang Study can acquire value as an academic and cultural asset shared and sympathized with Joseon intellectuals.

**keywords :**

Jeong Gu, Hangang Study, Hangang Study division, Hwang Jong-hae, Mokcheon, Theories on Rites of Five Teachers [五先生禮說], Jungnim seowon



## [일반논문]

**徐榮教:** 신라의 漢江유역 점령 · 유지와 國原

**박광연:** 7세기 중반 신라 밀교의례의 설행 주체  
-명랑의 정체성에 대한 검토-

**이규필:** 孤村 裴正徽의 삶과 문학론 연구  
-〈文說〉을 중심으로-

**韓吉路:** 松隱 安昌濟의 在滿 시기(1910~1931)의 移居와  
交遊詩 고찰

**이인숙:** 서양화가이자 전각가인 미술가 청남(�淸南) 이상정 연구





## 신라의 漢江유역 점령 · 유지와 國原

徐榮教\*

- I. 머리말
- II. 漢城백제의 南遷과 신라의 성장
- III. 진흥왕의 國原 순행과 漢江하류 강악
- IV. 北漢山城 · 晝長城의 兵站線, 南漢江
- V. 맺음말

### 국문초록

552년 한강 유역을 석권한 신라는 이후 방어를 엄두에 두고 가늘고 긴 그 군사적 경계 지대를 건설하여 남북으로 조여 오는 麗濟의 공격으로부터 그곳을 끝까지 사수해냈다. 그 요인 가운데 하나로 필자는 한강 수로에 주목했다.

앞서 백제의 稅穀은 한강 유역의 수로를 통해 한성 倉庫에 집적되었고, 그것이 한성백제의 國富의 근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400년 광개토왕이 남진하여 상류인 國原(충주)지방을 차지하면서 백제의 수취 물량은 감소하였고, 475년 한성이 고구려의 공격에 결정타를 맞았다. 한강수로가 그 기능을 상실하자,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했다.

이후 백제와 신라를 하나로 묶어준 것은 고구려에 대한 공포였다.

\* 중원대학교 한국어교육문화학과 부교수 / syk367@naver.com

481년부터 羅濟同盟軍은 고구려의 공격에 대항하였다. 551년 羅濟聯合軍이 한강 하류 방면으로 진군했다. 백제가 한강 하류의 6군을 차지하는데 신라가 병력을 보내 주었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 승세를 타고 신라는 한강 상류의 10군을 차지하였다. 그해 진흥왕이 남북 교통의 요충이었던 國原에 들렀고, 553년 7월 신라는 백제가 포기한 한성에 무혈 입성했고,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여 新州를 설치했다.

한강 중상류가 신라의 수중에 있는 한 백제가 하류를 지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언제든지 신라군이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보급을 받으며 진군해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백제가 한성까지 육로보급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백제가 우세한 군대를 한성지역에 장기간 집중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라가 그곳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61년 고구려가 신라의 북한산성(아차산성)을 치기 이전에 선제공격한 곳은 여주의 述川城이었다. 그 작전은 남한강을 타고 내려오는 신라의 식량 수송에 장애를 주기 위해 감행되었다.

672년 정월 나당전쟁 와중이었다. 신라는 한산주에 둘레 4360보에 달하는 거대한 晝長城(남한산성)을 쌓았다. 근자에 성 내에는 대형 창고를 지어 많은 군량미와 병장기를 비축한 신라유적이 발굴되었다.

1625년(인조 3) 10월 한강 중상류의 여주, 이천, 충주(가흥창) 등에 비축된 식량이 한강 수로를 타고 옮겨져 남한산성의 창고를 채웠다. 순리적으로 볼 때 신라 晝長城·二聖山城(한성) 창고도 그러했을 것이다. 남한강을 이용한 보급품 운송이 신라가 하류 지역을 사수할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

◆ 주제어

國原, 漢江, 漢城, 北漢山城, 晝長城, 南漢山城, 述川城

## I. 머리말

553년 신라의 한강 유역 석권에 대해 今西龍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 이후 신라는 한강 유역을 점령하여 南陽邊에서 支那(중국)에 교통하는 길을 획득하여 半島의 形勢에 大變化를 가져왔다.”<sup>1)</sup>

津田左右吉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신라의 한강유역 사수는 쉽지 않았다. “(신라에게) 한강유역의 영토가 멀고 서북쪽으로 길게 돌출하여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사이에 끼여 남북으로 적의 공격을 받았다. 그 때문에 신라가 한강 유역을 보유하는 데 힘을 많이 소비했다는 점은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100여 년에 걸친 이 지방의 전투는 신라인의 너리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들 사이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sup>2)</sup>

지리적으로 볼 때 신라가 麗濟의 침공으로부터 한강 유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細長한 군사적 境界地帶를 필요로 하였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1백 년 이상 한강전선은 대체로 固着되어 있었다.<sup>3)</sup>

그렇다면 신라가 어떻게 한강 유역을 끝까지 사수했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주로 국제정치적 시각이 투영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4)</sup> 이제 그것

1) 今西龍, 「百濟略史」, 『百濟史研究』, 京城近沢書店, 1934, 26~27쪽.

2) 津田左右吉, 「羅濟境界考」, 『朝鮮歷史地理』 第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羅濟 경계고」(이부오·장익수 譯), 『新羅史學報』 16, 2009, 362쪽.

3) 李基東, 「新羅의 風土와 그 역사적 특성」, 『千寬宇還曆紀念論叢』, 1985; 『新羅社會史研究』, 일조각, 1997, 6쪽.

4) 今西龍은 앞의 책, 같은 쪽에서 “聖明王 29년 辛未年(551)에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 任那의 군대도 가세하여 고구려를 伐하러 나섰는데 聖明王은 친히 軍을 인솔하고 진격하여 漢城(廣州)을 取하고, 南平壤(京城)을 討하여, 蓋鹵王 시대에 탈취당한 6郡을 탈환하였지만, 翌年에 가서 신라는 永年の 同盟國이었던 백제를 도외시 하고 高구려와 和好하는 형세가 되어 백제·加羅·安羅 및 日本府의 臣 등이 사신을 조정에 보내 國원을 청하여, 백제는 前年에 획득했던 漢城地方을 포기(棄)하였다. 신라는 즉시 점령하여 漢山에 新州를 설치하였고,…” 주보돈,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 『北方史論叢』 11, 2006, 92-96쪽에서 고구려와 密約을 맺은 신라의 공격을 우려한 백제가 스스로 한성지역에서 철수했다고 했다. 노중국, 「신라 진흥왕의 한강 유역 점령과 巡狩」, 『鄕土서울』 81, 2012, 51쪽에서 주보돈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김수

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 지리적 요인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여기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이라는 수로에 주목했다. 수로보급이 신라의 한강유역 방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sup>5)</sup>

먹지 않고 군대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보급에 있어 수로 운송의 효율성을 넘어서는 수단은 없다. 어느 전쟁사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200톤의 밀가루와 600톤의 목초를 운반하기 위해서 배는 9척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같은 양을 육로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600대 이상의 짐수레가 필요하다고 한다.<sup>6)</sup> 물론 그것도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군대가 강을 따라 행군하면서 보급을 받는 경우는 역사에 너무나 흔한 모습이고, 그 補給線이 승패를 결정했다. 그 때문에 군대가 補給船의 적화가 가능한 강에서 멀리 벗어나 작전하는 것은 어렵다. 벗어나면 운반수단인 말소가 자신의 등짐을 먹어 치우며, 병사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흩어져 다니며 식량을 소비해야 한다. 이 경우 전력의 감소를 피할 수 없다.<sup>7)</sup>

6세기 중반 함께 북진한 羅濟를 한강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중상류를 점령한 신라와 하류의 백제 가운데 누가 유리한 입장이었을까. 순류·역류이나 하는 강의 흐름은 군대의 보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어느 것도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자연의 효율을 뛰어넘을 수 없다. 중상류의 장악은 하류 지배의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된다.

---

태, 『백제의 전쟁』, 주류성, 2007, 150-160쪽에서 백제가 한강 유역을 포기하고 가야를 선택했다고 보았다. 今西龍의 글에 羅麗密約(和好)說, 백제 한강하류 포기說, 백제 가야 선택說이 모두 서술되어 있다.

5) 서영일 「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유역 방어체계」, 『고고학』 9-1호, 2010, 136쪽에서 國原을 군수지원 거점으로 보았다.

6) Martin van Creveld, *Supplying War: Logistics from Wallenstein to Patt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보급전의 역사』(우보형 譯), 플래닛미디어, 2010, 31쪽 참조.

7) John Keegan, *A History of Warfare*, Random House, New York, 1993; 「병참과 보급」(4장 보론) 『세계전쟁사』, 유병진 옮김, 까치, 1996, 427-446쪽.

이에 필자는 먼저 백제의 한강 유역 상실과 신라의 성장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신라의 國原(충주) 지방 점유가 한강 하류 석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신라의 北漢山城(아차산성)과 晝長城(남한산성)에 대한 수로 보급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 II. 漢城백제의 南遷과 신라의 성장

475년 겨울 고구려 장수왕이 대군을 일으켜 백제 王城(한성)을 공격하여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백제의 국왕(蓋鹵王)과 太后 · 王子 등을 모두 죽였다.<sup>8)</sup> 그리고 남녀 8천을 잡아서 돌아갔다.<sup>9)</sup>

“(475년)高麗王이 軍兵을 크게 일으켜 百濟를 伐盡하였다. 이때(476년 겨울) 조금 남은 무리들이 倉下에 모여 있었는데 軍糧이 이미 소진되어 근심하며 울었다.”<sup>10)</sup>

476년 겨울에 한성에 남은 백제인들이 倉庫 아래에 모여 있었다.<sup>11)</sup> 군량이 없어 그들은 절망했다. 여기서 한성의 창고 모습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백제본기 전지왕 2년(406) 9월 조가 주목된다.

解忠을 達率로 삼고, 漢城租 1千石을 하사하였다(以解忠爲達率, 賜漢城租一千石).

406년 백제 전지왕이 解忠에게 하사한 ‘漢城租’ 그것은 무엇인가. 이

8) 『日本書紀』 卷14, 雄略天皇 20年(476) 冬 “百濟記云. 盖鹵王乙卯年(475)冬. 狛大軍來. 攻大城七日七夜. 王城降陷. 遂失尉禮國. 王及太后王子等皆沒敵手”

9) 『삼국사기』 권18, 長壽王 63년(675) 9월 조.

10) 『日本書紀』 卷14, 雄略天皇 20年(476) 冬 “高麗王大發軍兵. 伐盡百濟. 爰有少許遺衆. 聚居倉下. 兵糧既盡. 憂泣茲深.”

11) 정운용, 「한강유역 회복과 관산성 전투」, 『泗泚都邑期の 百濟』(百濟文化大系 研究叢書 5), 2007, 126쪽. “476년 2월 백제가 漢北의 민호를 大豆山城으로 이주시켰다는 기록은 백제의 관할권이 여전히 한강유역에 미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호영은 그것을 백제의 일반관료들이 신라와 유사한 형태로 녹봉을 받은 간접적 자료로 보았다.<sup>12)</sup> 그렇다면 漢城租는 한성의 稅穀倉庫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稅穀들이 한강 중상류에서 한성의 倉庫에 집적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백제의 國富의 근원이기도 했을 것이다.<sup>13)</sup>

그렇다고 해서 한강수로가 일방적인 수취의 도구로만 이용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도학은 “백제는 인천 지역을 장악하여 얻어지는 소금을 교역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백제가 소금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 해안을 끼고 있지 못한 한반도 중부내륙 지역 가운데서도 水浦를 배경으로 교역이 발달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북한강과 남한강수계역들이 백제의 직접적인 소금공급 대상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이들 지역은 인천 일원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한강 수로를 이용하여 육로보다 비교적 용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서영일은 원주 법천리 유적에서 출토된 바다 생선뼈는 남한강 수로를 통해 서해와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로 보았다.<sup>14)</sup>

한강 중상류에서 생산된 물자들이 하류로 내려오고 서해의 물산이 하류를 거쳐 중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물류 유통이 존재했다. 이는 空船을 줄이고 滿船을 늘이는 도항 운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400년 광개토왕대 상류인 國原지방이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면서,<sup>15)</sup> 한성백제는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475년 한성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한강 유역 지배의 주도권이 고구려에 넘어갔다.

---

12) 李昊榮, 「三國時代의 財政」, 『國史館論叢』 13, 1990, 102~104쪽 참조.

13) 津田左右吉, 「羅·濟 경계고」(이부오·장익수 譯), 『新羅史學報』 16, 2009, 341쪽에서 한성백제가 한강의 상류의 충주 부근을 영유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14) 李道學, 「伯濟國의 성장과 소금 交易網의 확보」, 『百濟研究』 23, 1992.

李道學, 「古代國家의 成長과 交通路」, 『國史館論叢』 74, 1997, 166~167쪽.

서영일, 「漢城 百濟의 南漢江水路 開拓과 經營」, 『文化史學』 20, 2003, 21쪽

15) 광개토왕이 국원을 포함한 한강 중상류역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396년 그가 백제 수도 漢城을 포위하고 阿莘王의 항복을 받아냈다. 무엇보다 고구려가 국원을 점령하지 않고, 400년 신라에 步騎 5萬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엄청난 보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한강을 이용하여 군량을 모우지 않으면 어렵다. 철원→춘천→홍성→원주→충주→문경 코스는 한국의 초원길이다.

한강수로 활용이 힘들어지자 백제는 熊津으로 천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직후 『삼국사기』에 漢山 · 漢山城 · 漢城 등이 백제 활동지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475-551년에 고구려가 한강 유역 전체를 지배했다는 통설적 이해와 맞지 않은 부분이다. 동성왕 · 무녕왕대(479-523) 축성 · 순행 지역과 對고구려 교전 지역을 살펴보면, 백제의 활동이 한강유역을 넘어 예성강 유역에까지 나타난다. 그 때문에 475년 이후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sup>16)</sup>

그래도 기록은 부정할 수 없다. 백제가 고구려와 전쟁을 지속하여, 한강 하류를 영유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고,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했다.<sup>17)</sup> 『日本書紀』 卷15, 顯宗天皇 3年(487) 是歲 조를 보자.

이 해(487) 紀生磐宿禰가 任那를 점거하고 高麗와 교통하였으며, 서쪽에서 장차 三韓의 왕 노릇을 하려고 官府를 정비하고 스스로 神聖이라고 칭하였다. 任那의 左魯·那奇他甲背 등이 계책을 써서 百濟의 適莫爾解를 爾林中에서 죽이고 <爾林은 高麗의 땅이다> **帶山城을 쌓아 동쪽 길을 막고 지켰으며, 군량을 운반하는 나루(津)를 끊어 군대를 굶주려 고생하도록 하였다.** 百濟의 왕이 크게 화가 나, 領軍古爾解·內頭註·莫古解 등을 보내 무리를 거느리고 帶山城에 나아가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生磐宿禰는 군대를 내보내 맞아 쳤는데 膽力이 더욱 왕성하여 향하는 곳마다 모두 깨뜨리니 한 사람이 백 사람을 감당할 정도였다. (그러나) 얼마 후 군대의 힘이 다하니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고 任那로부터 돌아왔다. 이로 말미암아 百濟國이 左魯·那奇他甲背 등 300여 인을 죽였다.<sup>18)</sup>

16)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 2014, 117쪽.

17) 김수태, 앞의 책, 2007, 110쪽.

金賢淑 「高句麗 漢江流域 領有 支配」, 『百濟研究』 50, 2009, 48쪽에서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했지만 백제의 반격이 의외로 완강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영역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18) 『日本書紀』 卷15, 顯宗天皇 3年(487) 是歲 조. “紀生磐宿禰跨據任那. 交通高麗將西王三韓整脩官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 他甲背等計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 <爾林高麗地也> 築帶山城距守東道. 斷運糧津令軍飢困. 百濟王大怒遣領軍古爾

위의 기록에서 보이는 爾林과 帶山城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sup>19)</sup> 다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487년 左魯 등이 고구려와 협력하여 백제의 장군 適莫爾解를 爾林(고구려 영역)에서 죽이고, 帶山城을 쌓아 백제의 東道를 막고, 또한 군량을 운반하는 강나루 길을 끊어 백제의 군대가 굶주리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자 백제 동성왕은 군대를 보내 적을 격파하고 보급 수로를 열었다.

백제 또한 강나루 보급의 효율성을 선호했다. 하지만 위의 사건은 당시 고구려가 한강의 중상류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백제의 보급수로가 언제든지 단절될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백제의 중국 수출 품목에도 영향을 주었다.

人蔘은 百濟의 것을 중하게 여기는데 형체가 가늘고 단단하며 희다 기운과 맛은 上黨(중국 태행산맥)에서 나는 것보다 박(薄)하다. 다음으로는 高麗의 것을 쓰는데 高麗는 바로 遼東이다. (고구려의 인삼은) 형체가 크며 허(虛)하고 연(軟)하여 百濟의 人蔘만 못하다 百濟는 지금 高麗에 臣屬되었는 바 高麗에서 바치는 人蔘에는 (고구려産·백제産) 두 가지 종류가 곁해서 있으니 어느 것을 취해 쓰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쓰기에는 모두 上黨에서 나는 人蔘만 못하다.<sup>20)</sup>

위의 기록을 남긴 陶弘景은 劉宋 元嘉 29년(452)에 태어나서 梁 大同

---

解。內頭莫古解等。率衆趣干帶山攻。於是。生磐宿繡進軍逆擊。膽氣益壯。所向皆破。以一當百。俄而兵盡力竭。知事不濟。自任那歸。由是。百濟國殺佐魯那奇。他甲肖等三百餘人。”

19) 청주 증평 읍성으로 이어지는 미호천과 보광천 유역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두 냇물은 나룻배도 운항할 수 없다. 한편 백제 東道를 東韓之地로 보고 運糧津을 풍기의 낙동강 상류로 보기도 한다(홍성화, 『칠지도와 일본서기』, 2021, 경인, 70~76쪽). 과연 경북 북부가 웅진 백제의 활동 범위일까.

20) 陶弘景編,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4, 207쪽. “人乃重百濟者 形細而堅白 氣味薄於上黨 次用高麗 高麗即是遼東 形大而虛軟 不及百濟 百濟今臣屬高麗 高麗所獻兼有兩 種止應擇取之 爾實用並不及上黨.” 양정필·여인석, 「삼국-신라통일기 인삼 생산과 대외교역」, 『醫史學』 제13권 제2호(통권 제25호), 2004년 12월, 179쪽에서 재인용.



2년(536)에 85세로 죽었다. 19세에 왕의 侍讀官이 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나 41세에 사직하고 은거하면서 『本草經集注』를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그의 『本草經集注』 편찬은 493년 이후가 된다. 하지만 그가 출사하여 황제를 모시던 471년 이후의 기억도 集注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는 백제가 고구려에 臣屬되어 그 인삼이 고구려를 통해 중국 남조에 유입되고 있다고 했다.

당시 강원도 태백산맥 줄기 부근에서 인삼이 주로 생산되고 있었고,<sup>22)</sup>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면서 영서 지방의 백제 인삼생산지도 차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전쟁의 결과 백제産 인삼의 해외 판매권이 고구려의 수중에 들어갔다.<sup>23)</sup>

475년에 결정타를 맞은 백제와 그것을 목격한 신라를 하나로 묶어준 것은 고구려에 대한 공포였다. 481년 3월 미질부(포항 흥해) 전투, 484년 7월 모산성 전투, 494년 7월 견아성 전투, 495년 8월 치양성 전투에서 羅濟同盟軍이 고구려의 침공을 물리쳤다.<sup>24)</sup>

앞서 신라는 지속적인 倭의 침공도 받았다. 하지만 500년 이후 그것은 갑자기 중단되었다. 畿內倭 세력은 장기 분열에 들어갔다. 신라는 이

21) “隱居先生，在乎茅山岩嶺之上，…覽本草藥性，以爲盡聖人之心，故撰而論之(隱居 선생께서 茅山의 岩嶺에 계실 적에… 또 本草經의 藥性을 살펴보고는 성인께서 마음을 다하신 것이라 여겨 이를 정리하여 논한다.)” 陶弘景編. 앞의 책, 1쪽.  
金溶珠 「本草經集注에 대한 書誌學的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3권-2, 2010, 192-193쪽.

22) 양정필 · 여인석, 앞의 논문, 2004, 181쪽 “주로 태백산맥 등의 주요 산맥을 따라 인삼 산지가 분포하고 있고 남해 및 서해안 등의 해안가와 평야지대에서는 인삼이 산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奈靈郡 本百濟 奈巳郡”(『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朔州 조)이라 하여 영주지역이 백제의 영역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홍성화는 백제가 한때 경북북부에까지 세력을 뻗었다고 보았다. 홍성화, 앞의 책, 2021, 73쪽.

23) 李道學, 「百濟 熊津期 漢江流域支配 問題 認識」, 『郷土서울』 73, 2009, 74~76쪽에서 “6세기 초에 저술된 『本草經集注』에 5세기 후반 갑작스런 人蔘루트의 변화된 상황을 전한다.” 라고 하였다.

24) 『삼국사기』 권3, 昭智王 조.

틈을 타서 512년 대가야(半破)를 침공하였고, 우산국을 점령하고, 522년 대가야와 혼인동맹을 맺고, 524년 가야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sup>25)</sup>

527년 畿內倭에게 독립을 꿈꿔왔던 九州倭의 수장 磐井에게 신라는 자금과 병력을 제공하여 倭國의 內戰을 부추겼다. 528년 일본 고대 최대의 내전인 磐井亂이 일어났고, 패배한 九州倭의 세력이 절멸했다. 하지만 畿內倭도 그 힘이 소진되었다. 그러자 529년 신라의 異斯夫는 금관가야를 대대적으로 약탈했다. 이후 국제상황도 신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531년 고구려가 장기간 내분에 들어갔고, 같은 해 磐井亂 前後에 임시로 봉합되었던 畿內倭의 內訌도 터졌다. 고구려의 安臧王이 피살되었고, 畿內倭의 繼體天皇과 그의 자식들이 살해되었다. 532년 금관가야의 仇亥王이 신라에 자진 투항했다.<sup>26)</sup>

### Ⅲ. 진흥왕의 國原 순행과 漢江하류 장악

540년 신라 진흥왕이 즉위했다. 이듬해 왕은 신라의 대외 팽창을 주도한 異斯夫를 兵部令으로 임명하여 국방을 총괄하게 되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했던 異斯夫는 타국의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 내분을 조장하기까지 하였다.

548년 고구려가 獨山城을 공격하자 신라가 구원하여 백제는 위기를 넘겼다.<sup>27)</sup>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550년 정월 백제가 고구려의 道薩城을 함락시키고, 3월 고구려가 백제의 錦峴城을 함락시켰다. 異斯夫는 양자가 힘이 빠진 틈을 노려 두 성을 모두 차지했다.<sup>28)</sup> 그렇지

25) 徐榮教, 「異斯夫의 加耶 침공과 半破의 逆襲」, 『新羅史學報』 40, 2017, 1~27쪽.

26) 徐榮教, 「新羅의 磐井亂 개입과 金官加耶 併合」, 『韓國古代史探求』 29, 2018, 43~74쪽.

27) 『삼국사기』 권4, 眞興王 9년(548) 2월 조.

28) 『삼국사기』 권4, 眞興王 11년(550) 정월 조. 道薩城·錦峴城의 위치는 알 수 없다.

만 백제는 침묵했다.<sup>29)</sup>

(551년)是歲。百濟 聖明王(성왕)이 친히 (백제)군대(衆)와 2國兵 (2國은 新羅와 任那이다.) 으로 高麗를 쳐서 漢城之地를 획득하였다. 또 진군하여 (남)平壤을 討하고, 6郡의 땅을 회복하였다.<sup>30)</sup>

551년 신라는 동맹군인 백제와 함께 한강 하류 방면으로 진군했다. 여기에는 가야의 병력도 있었다. 백제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북진이었다. 백제가 한성과 (南)平壤<sup>31)</sup> 등 6군을 점령했다. 『삼국사기』 권44, 居柒夫傳에도 羅濟연합군의 북진이 보인다.

(진흥왕) 12년(551) 辛未에 왕이 居柒夫와 구진 대각찬, 비태 각찬, 탐지 잡찬, 비서 잡찬, 노부 파진찬, 서력부 파진찬, 비차부 대아찬, 미진부 아찬 등 8명 장군으로 하여금 백제와 협력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백제인들이 먼저 平壤을 격파하고, 거칠부 등은 승세를 몰아 죽령 이북 고현 이내의 10개 군을 빼앗았다.<sup>32)</sup>

진흥왕이 백제와 협력하여 고구려를 쳤다. 이는 『日本書紀』(欽明天皇 12年(551) 是歲 조) 기록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참전한 신라 장군은 居柒夫를 비롯한 8명이었다. 양국은 南平壤(양주)를 격파하여 서울 북부까지 차지했고, 그 승세를 타고 居柒夫 등이 竹嶺 이북 高峴 이내의 10개 군을 차지했다.

29) 노중국,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고구려의 漢江流域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11, 2006, 42~43쪽.

30)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2年(551) 是歲 조, “百濟聖明王親率衆及二國兵 (二國謂新羅。任那也) 往伐高麗。獲漢城之地。又進軍討平壤。凡六郡之地。遂復故地。”

31) 『삼국유사』 권2, 紀異2 南扶餘 前百濟, “...13대 近肖古王 때인 咸安 元年(371년)에 이르러 고구려의 南平壤을 빼앗아 도읍을 北漢城 지금의 楊州로 옮겨 105년을 지냈다...”

32) 『삼국사기』 권44, 居柒夫傳.

- ① 12년(551) 봄 정월, 연호를 개국으로 바꾸었다.  
3월, 왕이 순행 중에 娘城에서 묵으며, 于勒과 그의 제자인 尼文이 음악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히 그들을 초청하였다. 왕은 河臨宮에 머무르며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두 사람은 각각 새 노래를 지어 연주하였다.
- ② 이에 앞서 가야국의 가실왕이 열두 달을 음률로 상징하는 12현금을 만들고, 우적으로 하여금 이에 맞는 악곡을 짓게 하였다. 그러나 가야국이 혼란스러워지자 우국은 악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귀순해왔었다. 이에 따라 그 악기의 이름을 가야금이라고 하였다. 33)
- ③ 于勒은 其國이 장차 어지러워지려고 하자, 樂器을 가지고, 新羅 眞興王에게 투항하니, 왕이 그를 받아주고 國原에 安置시켰다. 34)

① 553년 3월 娘城(국원)에 행차한 진흥왕이 우륵을 불렀다. ② 이전에 가야 왕이 작곡을 의뢰할 정도로 음악에 뛰어난 우륵이었다. ③에서 진흥왕이 그를 國原에 안치시켰다는 것은 550-551년 직전에 신라가 그 지역을 고구려로부터 탈취했다는 증거이다.35)

진흥왕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國原은 남북의 요충이었다.36) 한성에서 남쪽으로 가는 사람이 배를 타고 國原에 모여 두 고개(죽령과 조령)를 넘어 소백산맥 이남의 각 지역에 도달하고, 소백산맥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각각 두 고개를 넘어 國原에 모여서 다시 배를 타고 한성에 도달할 수 있다.37)

---

33) 『삼국사기』 권4, 眞興王 12년(551) 정월 조.

34) 『삼국사기』 권32, 잡지1 樂, “…于勒以其國將亂, 携樂器, 投新羅眞興王. 王受之, 安置國原, …”

35) 전덕재, 「신라의 北進과 서북 경계의 변화」, 『韓國史研究』 173, 2016, 89~93쪽에서 「적성비」 건립 시기를 540년대 후반으로 비정하고, 우륵이 신라에 투항한 시기를 548~549년으로 추정하여, 550년 이전에 신라가 단양과 충주 지역을 먼저 확보했다고 보았다.

36) 李道學, 앞의 논문, 1997, 163쪽에서 “고구려가 (국원성)別都를 설치한 배경은, 소백산맥 이남의 신라와 가야지역을 경영하기 위해 대동강에서 서해 연안과 한강 그리고 충주를 중간 거점으로 하여 낙동강을 연결하는 거대한 전략 수로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3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4, 忠州牧, “흥귀달의 記에, 中原은 남북의 要衝이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가는 사람이 물에 뜨고 육지로 달려 중원에 모여 두 고개(조령과 죽령)

(충주의) 창고 可興倉: 옛날에는 德興倉이라 일컬었고, 또 慶原倉이라 일컬었다. 가흥역 동쪽 2리에 있다. 예전에는 金遷 서쪽 언덕에 있었는데, 世祖 때에 여기로 옮기고 경상도 여러 고을과 本州의 陰城 · 槐山 · 淸安 · 報恩 · 丹陽 · 永春 · 堤川 · 鎭川 · 黃澗 · 永同 · 淸風 · 延豐 · 靑山 등 고을의 田稅를 여기에서 거두어 배로 실어 날라 서울에 이르는데, 水路로 2백 60리이다.<sup>38)</sup>

위의 자료는 조선의 그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자의 흐름이 보인다는 점이다. 소백산맥 이남의 경상도 여러 지역과 충청도의 음성 · 청안 · 보은 · 진천 · 황간 · 영동 · 청풍 · 연풍 · 청산(靑山)의 田稅들이 육로로 충주(國原)에 집중되었다. 다만 단양 · 영춘 · 제천 등 고을의 그것은 남한강 상류의 수로를 통해 그곳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보인다. 國原의 가흥창에 집적된 세곡들은 배에 선적되어 260리의 거리의 서울로 옮겨졌다. 지리적으로 볼 때 國原에서 한성으로의 運糧은 원활했다. 이는 다음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진흥왕) 14년(553) …가을 7월, 백제의 동북 변경을 取하여 新州를 설치하였다. 아찬 武力을 그곳의 軍主로 임명하였다.<sup>39)</sup>

553년 7월 신라는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탈환했던 한강 하류 지역을 取하여 新州를 설치했다. 김유신의 조부인 武力이 그 지역의 軍主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신라는 북진의 결실을 독식했다.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하류를 탈취했다는 말인가. 그렇다고는 볼 수도 없다. 동일 사실을 전하고 있는 『日本書紀』를 보자.

(552년) 그해(是歲) 百濟가 漢城과 平壤을 버렸다(棄). 이로 인하여 新羅가 漢城에 入居했다. 지금(今) 新羅의 牛頭方과 尼彌方이다 <地名은 未詳이다> .<sup>40)</sup>

를 넘어 목적지에 도달하고,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는 자도 두 고개를 넘어 중원에서 물과 육지를 경유하여 서울에 도달하는데,…”

3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4, 忠州牧, 倉庫 조.

39) 『삼국사기』 권4, 진흥왕 14년 7월 조.

40)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3年(552)是歲 조, “百濟棄漢城與平壤, 新羅因此入居漢

위의 기록은 552년 백제가 한성과 (남)평양을 버렸다(棄)고 한다. 신라가 비어있는 한성지역에 무혈 입성하였고, 牛頭方과 尼彌方을 차지했다.<sup>41)</sup> 백제는 왜 그곳을 포기했을까. 만일 한강이 청주-천안-수원을 지나 서울로 흐르는 流路였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백제는 한성까지 비효율적인 육로보급을 해야 했다.

물론 충남 해안에서 바다를 통해 한성으로 軍糧을 운반했을 수도 있다.<sup>42)</sup> 하지만 그것이 원활했다면 백제가 한성지방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풍랑·급류·암초 등의 위험변수가 있는 바닷길은 國原에서 한성으로 흐르는 신라의 내륙수로에 비해 속도·안정성·신뢰성이 떨어진다. 이점을 백제의 수뇌부들도 알고 있었던 것을 보인다.

어쩌면 551년 백제 聖王이 한성지역을 탈환할 때 신라가 한강을 통한 보급을 해 주었을 수도 있다. 북진하던 聖王의 군대에는 신라의 병력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에게는 무기뿐만 아니라 식량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백제가 한강 하류를 차지한 직후 어느 시점에 그것은 중단되었을 것이고, 한성으로 보급이 원활하지 않자 백제가 버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에서 군대가 적의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물자 부족으로 퇴각할 경우가 적지 않다. 이후에도 백제가 보급문제로 우세한 군대를 한성지역에 장기간 주둔시킬 수 없었던 것이 신라가 그곳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 크레펠트(Martin van Creveld)에 의하면 보급품을 운반할 때 수로 쪽이 훨씬 쉬었기 때문에 군대의 전략 기동은 하천의 流路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었고, 선박은 운반 능력이 말이 끄는 짐수레보다 훨씬 뛰어난데다 사료 같은 추가적인 요구가 없기에 보급부대를 잘 조직하는 지휘관일수록 수로에 의존했다고 한다.<sup>43)</sup>

城. 今新羅之牛頭方, 尼彌方也. 〈地名未詳〉.”

41) 津田左右吉, 『眞興王征服地域考』, 『朝鮮歷史地理』 第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眞興王 征服地域考』(이부오 譯), 『新羅史學報』 18, 2010, 358쪽.

42) 김수태, 앞의 책, 2007, 109쪽.

여기서 박성현의 지적은 소중한 암시를 준다. 하남 선동에서 출토된 명문 기와들은 통일기 신라 漢州 주치의 국영(國) 蟹口(이성산성 북쪽 한강과 蟹川[계내]의 합류口) 船家の 지붕을 올리는데 사용된 것으로, 漢州의 여러 군현에서 수운을 통해 납품한 것이다. 여기서 임진강·예성강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조세운송체계가 상정된다고 한다.<sup>44)</sup>

고려 태조 왕건은 벽진군 출신 李愬言이 귀부해 오자 충주, 원주, 광주, 제주(단양)의 倉穀 2,200석과 소금(鹽) 1785석을 하사였다. 위 지역들은 모두 남한강 수로의 주요 기항지이다. 신라 간선로인 五通 가운데 하나인 鹽池通의 명칭을 고려하면, 통일신라시대에 남한강 수로에는 소금 유통과 관련한 鹽庫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sup>45)</sup>

왕건 재위 시기에 갑자기 남한강을 오가는 穀鹽 도항운수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려는 신라의 그것을 물려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 권79, 지33 식화2를 보면 고려 조운선 수에 대한 기록이 있다.

“靖宗 때에 12倉 漕船의 수를 정하였다. …德興倉(충주)에는 20척, 興元倉(원주)에는 21척을 두었는데 아울러 平底船 1척에 200석을 실을 수 있었다.”

고려 초 德興倉은 충주 일원과 경상도 지역 세곡의 집산지였으며, 가장 넓은 收稅 구역을 보유한 조창이었다. 興元倉은 한강의 지류인 섬강이 남한강에 합류하는 지점(원주시 부론면 흥호리)에 설치 운영되었다. 고려 정종(1034~1046) 때 충주와 원주에는 한 번에 4000석·4200석

43) 마르틴 반 크레펠트 저, 앞의 책, 2010, 31쪽

44) 박성현, 「신라 통일기 漢州의 물자이동과 漕運」, 『역사와 현실』 121, 2021, 33~63쪽.

45) 『고려사』 권92, 열전5 왕순식 부 李愬言전, “永時年十八太祖以大匡思道貴女妻之拜愬言本邑將軍加賜傍邑丁戶二百二十九.又與忠原廣竹堤州倉穀二千二百石塩一千七百八十五石…”

서영일, 「남한강 水路의 물자유통과 興元倉」 『史學志』 37, 2005, 198쪽. 鹽池通은 현 경주에서 현 경기 서해안에 이르는 간선로였다고 한다(서영일, 「新羅 五通考」, 『白山學報』 52, 1999).

의 곡물을 한강을 통해 개경과 인접한 예성강으로 운반할 수 있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는 지리상으로 볼 때 신라가 한강 수로를 통해 그 하류의 요새들(아차·이성·행주·오두산성)은 물론이고, 임진강 하류의 요새인 칠중성 등에도 보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라가 한성지방을 사수하는 데 있어 한강은 더없이 유용한 공구였다. 그러한 연장이 부재한 백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 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津田左右吉의 지적은 유의미하다.

“신라가 고구려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자 백제는 이 때문에 거의 생명이 위태로운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 백제는 백방으로 힘을 다해 스스로 구하는 방책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백제는 북방의 신라를 배제할 필요가 있었으나, **한강 방향을 향하여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헛되이 많은 수고가 따르는 일이었다. 오히려 보은·충주 방향을 위협하여 신라 본국과 漢山지방의 연락을 끊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백제는 이때부터 날카로운 의지와 군비를 닦아 이 지방에 대해 침략하게 되었다. **이것이 보은·충주 방향에서 두 나라의 충돌이 극도로 격렬했던 이유이다.**”<sup>46)</sup>

“동(『삼국사기』 권5, 太宗武烈王) 2년(655) 조에서도 [고구려와 백제·말갈이 군사를 연합해 우리 북쪽 영토를 침략하여 33성을 취했다]라고 했는데, 당시 **백제·신라의 항쟁지는 주로 충주평원에 있었으므로** 소위 33성도 역시 같은 지방이었을 것이다.”<sup>47)</sup>

백제가 한성지역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한강 하류가 아니라 상류인 國原 지역에 공격을 집중했다고 본 津田左右吉의 견해에 동의를 표한다. 전략적으로 볼 때 하류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상류에 대한 점령과 지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자에 와서 옥천 관산성, 청주 상당성, 세종 금성산성, 증평 추성산성 등 소백산맥 서쪽 요새들을 신라의 진출 루터로 보는 견해들이 제기

46) 津田左右吉, 『羅濟 경계고』, 2009, 362쪽.

47) 津田左右吉, 『眞興王 征服地域考』, 2010, 368쪽.



었다고 한다.<sup>48)</sup> 이러한 시각은 핵심을 놓쳤다고 판단된다. 언급한 城들과 청주→증평→음성→충주에 이르는 회랑에 자리 잡은 요새들(특히 음성 수정산성 등)은 신라가 백제의 공격으로 한강 수로를 보호하기 위해 몇 겹으로 축조한 要塞線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津田이 암시한 바와 같이 백제가 청주 · 세종에서 증평을 거쳐 음성을 지나 충주를 공격하여 함락시킨다면, 한강하류와 본국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 신라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 IV. 北漢山城 · 晝長城의 兵站線, 南漢江

661년 고구려가 신라의 북한산성(아차산성)을 공격했다. 이 사건은 『三國史記』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김유신전 그리고 『삼국유사』 태종춘추공, 4곳에 기록되어 있다.

- ① (661년) 5월 9일[11일이라는 설도 있다.], 고구려 장군 뇌음신이 靺鞨 장군 생해와 군사를 합쳐 述川城을 공격했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北漢山城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砲車를 벌려놓고 돌을 날려 보냈다. 그 돌에 맞은 담장과 집은 번번이 무너졌다. 성주인 대사 동타친은 성 밖에 마름쇠를 던져 놓아 사람과 말이 다니지 못하게 하고, 또한 安養寺 창고(廩廡)를 헐어 그 재목을 가져다가 성 안의 무너진 곳마다 망루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곳에 굶은 밧

48) 윤병엽, 「서영교, 신라의 漢江유역 점령과 國原에 대한 토론문」, 『신라의 북방진출과 娘城』 제33회 수원문화학술회의,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회의실, 2022, 11, 25, 104~105쪽.

앞서 윤성호, 「신라의 道薩城·錦峴城 전투와 國原 진출」, 『한국고대사연구』 87, 2017에서 550년 도살성, 금현성, 낭성을 확보한 신라가 551년 3월 이전에 국원을 평정했다고 보았다(청주·진천→증평→음성→충주). 그가 도살성을 증평, 낭성을 청주, 특히 금현성을 진천으로 고정하고 내린 결론이다. 충주를 상실한 고구려가 백제의 금현성을 공격할 수 없다고(앞의 논문, 226쪽) 그는 보고 있다. 하지만 그의 지적대로 548년~550년 이전에 「신라단양적성비」가 세워졌다면(앞의 논문, 231쪽), 한강의 流路를 볼 때 신라가 단양 쪽에서 국원을 공격하여 차지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된다.

줄로 그물을 엮고, 마소의 가죽과 솜옷을 걸어 매고, 그 안쪽에 弩砲를 설치하여 성을 지켰다. 이 당시 성안의 남녀가 2천 8백 명 뿐이었는데 성주 동타천이 어린이와 힘 못 쓰는 자들까지도 격려하여 20여 일 동안이나 강한 적과 대치하였다. 그러나 식량이 떨어지고 힘이 다했다. 그는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기도하였다. 그 때 돌연 큰 별이 적진에 떨어지고 우레가 울리고 비가 오면서 천지가 진동하였다. 적들은 겁이 나서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왕은 동타천을 가상하게 여기고 大奈麻로 발탁하였다.<sup>49)</sup>

② (661년) 여름 5월, (고구려 보장)왕이 장군 뇌음신으로 하여금 말갈군을 거느리고 신라의 북한산성을 포위하였다. 열흘이 되도록 포위를 풀지 않았다. 신라의 군량 수송이 차단되어 성안에서는 위협과 공포를 느꼈다. 갑자기 큰 별이 우리의 병영에 떨어지고 우레가 치며 비가 오고 벼락이 쳤다. 뇌음신 등은 의심스럽고 놀라서 퇴각하였다.<sup>50)</sup>

③ 용삭 원년(661) 봄에...고구려와 말갈은 신라의 정예병이 모두 백제에 출병하여 국내가 비었으므로 신라를 공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군사를 출동시켜 수로와 육로(水陸)로 동시에 진격하여 북한산성을 포위하였다. 고구려는 성의 서쪽에 진을 치고 말갈은 성의 동쪽에 주둔하여 10일 동안 공격을 계속하자 성 안은 공포와 두려움에 싸였다. 그때 갑자기 큰 별이 적의 진지에 떨어지고 또한 뇌우와 함께 벼락이 쳤다. 그러자 적들은 당혹하고 놀라며 포위를 풀고 도주하였다.<sup>51)</sup>

④ 漢山城 안에 있는 군사들은 구원병이 오지 아니하므로 원망을 하여 서로 바라보고 울기만 할 뿐이었다. 적병이 이를 급히 치려고 하자 홀연히 광채가 남쪽의 하늘 끝으로부터 오다가 벼락이 되어서 砲石 30여 곳을 때려 부수었다. 적군의 활과 화살과 창이 부서지고 군사들은 땅에 엎어지더니 한참 후에 깨어나 흩어져 돌아갔다. 아군도 돌아왔다.<sup>52)</sup>

① 661년 5월 고구려군이 신라의 북한산성(아차산성)에 쳐들어왔다.

49) 『삼국사기』 권5, 太宗武烈王 8년 5월 조.

50) 『삼국사기』 권22, 寶藏王 20년 5월 조.

51) 『삼국사기』 권42, 金庾信 中.

52) 『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조

石砲가 동원되었고, 포격이 시작되었다. 돌에 맞은 성벽 곳곳이 무너졌다. 허물어진 그 틈으로 고구려군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라군이 마름쇠를 뿌렸고, 그 자리에 망루를 세우고 弩砲를 설치했다. 靺鞨이 북한산성(아차산성)보다 우선 공격한 것은 여주의 述川城이었다. 서영일이 지적한 바와 같이 靺鞨의 述川城 공격은 이전부터 반복되던 것이고, 그 때문에 한성백제가 남한강 수로를 지배하는데 지장을 받았다고 한다.<sup>53)</sup>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嬰陽王 14년(603) 조에 북한산성(아차산성)의 지리적 조건에 관한 소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성이 한강 이북에 있었고, 성안에서 한강을 건너오는 장면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조망권이 담보된 위치이다. 이는 현재 아차산성의 지리적 조건과 부합한다. 이 때문인지 기왕에 이 기록의 북한산성을 아차산성으로 추정하였다.<sup>54)</sup> 더구나 아차산성 시굴 조사 결과 ‘北’ ‘漢’ ‘漢山□’의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었다. 발굴보고서에서는 기와 편을 같은 문장의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 ‘北漢山□’으로 해석하였고, 이것을 신라 북한산성으로 비정하였다.<sup>55)</sup> 7세기 신라 북한산성이 아차산성임이 유력해진 셈이다.<sup>56)</sup>

③에서 고구려군은 城의 서쪽에 진을 쳤고, 靺鞨은 동쪽에 진을 쳤다고 한다. “水陸으로 동시에 진격하여 북한산성을 포위하였다.”라고 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고구려군은 배를 타고 漢江口를 거슬러 올라와 상륙했을 가능성이 크다.<sup>57)</sup> ④에서 고구려군은 무계가 나가는 석포 30포대를 가져왔다고 한다. 물론 그 함선의 활용도는 병력과 식량 그리고 공성기 운반에 거치는 것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53) 서영일, 「漢城 百濟의 南漢江水路 開拓과 經營」, 『文化史學』 20, 2003, 25~30쪽.

54) 김영상, 「阿旦那城과 長漢城에 대한 고찰」, 『鄕土서울』 51, 1992, 21~23쪽.

55) 『峨嵯山城-試掘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 205~207쪽, 212쪽.  
任孝宰·尹相惠, 「峨嵯山城의 築造年代에 대하여」, 『淸溪史學』 16·17, 청계사학회, 2002.

56) 본 문단은 張彰恩의 글이다. 장창은, 「아차산성을 둘러싼 삼국의 영역 변천」, 『史叢』 48, 2014, 141~142쪽.

57) 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漢山州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 2021, 76쪽. “수로를 이용하여 포차 등의 공성장비와 식량 등을 보급하였더라도...”

②에서 고구려 연합군이 북한산성(아차산성)으로의 식량 수송을 차단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호영은 “太宗武烈王 8년 고구려군이 北漢山城을 포위하여 20여 일을 싸우자 군량이 다했다는 바, 이때 城內에는 男女가 2,800명이었다고 했다. 이는 山城內의 軍倉에는 20일분의 군량이 저축되었고 이후 다시 타처에서 공급받을 예정이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sup>58)</sup>

고구려 연합군이 일단 북한산성(아차산성)의 보급로를 끊어 놓고 공격을 시작한 것이 확실하며, 여주 술천성에 대한 선제공격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여주에서 서북쪽으로 25리에 위치한 川寧廢縣이 술천성의 故址라고 전하고 있다.<sup>59)</sup> 『大東輿地圖』를 보면 천녕폐현의 위치는 오늘날의 여주군 흥천면·금사면 梨浦里에 해당한다. 규장각에 소장된 『麗州邑地』에도 梨浦里가 川寧古縣이라고 기록하고 있다.<sup>60)</sup>

梨浦는 여울로서 도하지점이며,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는 포구로서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술천성은 이포나루를 통제하고자 하는 군사적 목적으로 축조된 성으로 보이며, 國原에서 출발한 조운선은 그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

靺鞨이 利浦를 공격하여 타격을 주고 북상하여 북한산성(아차산성) 동쪽에 진을 쳤으며, 한강 하구에서 배로 진입한 고구려군은 성의 서남쪽 아래 위치한 광진 나루에 식량과 장비를 하역한 후 성벽으로 접근하여 포대를 설치하고 공격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sup>6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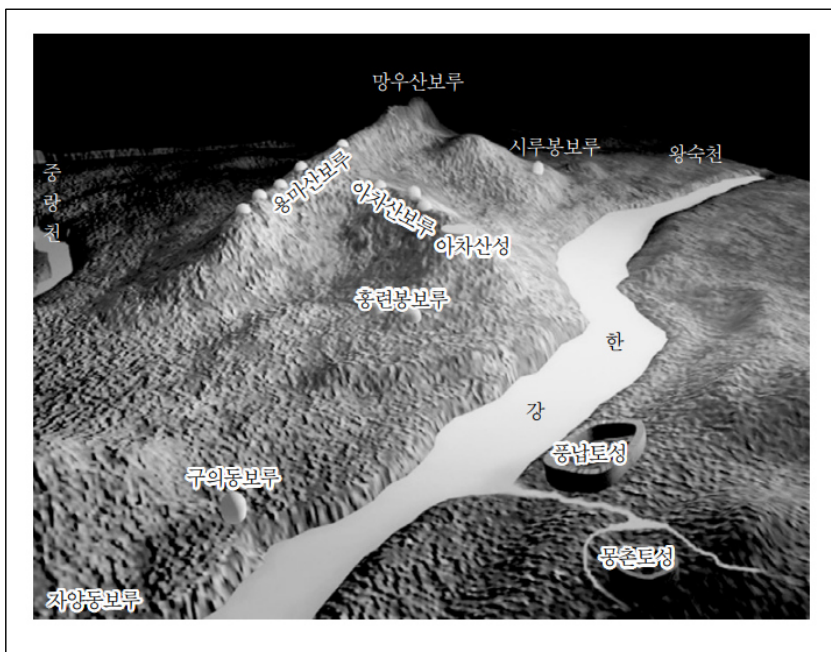
---

58) 李昊榮, 앞의 논문, 1990, 102쪽 참조.

59) 『삼국사기』 권35, 雜記, 地理, 漢州, “沂川郡 本高句麗述川郡 景德王改名今 川寧郡.” 『신증동국여지승람』 권7, 京畿 麗州牧 古蹟, “川寧廢縣 本고구려 述川郡인데… 州 서북쪽 25리에 있다.” 津田左右吉, 「眞興王 征服地域考」, 2010, 368쪽.

60) 전호수, 「여주군의 역사」, 『여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I, 세종대학교박물관, 2004, 29~30쪽.

61) 윤성호,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2017, 242쪽에서 예성강 하구에서 출발한 고구려 수군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북한산성을 우회하여 술천성을 공격했다고 보았다.



<그림 1> 아차산 일원의 유적 분포도. 최종택, 「아차산 고구려 보루 발굴 10년, 성과와 의의」, 『韓國史市民講』 44, 일조각, 2009, 201쪽 재인용.

아차산성은 서울 광진구와 경기 구리시 사이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200m 산정에서 시작해 동남쪽으로 한강을 향하여 경사진 산 중턱 위쪽을 둘러싼 1,043m의 석성이다. 門址는 동쪽·서쪽·남쪽에 남아 있는데, 발굴 결과 6세기 후반기 이후에 신라가 쌓은 北漢山城이 유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차산성은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성의 서남쪽 아래에 위치한 광진리루가 그것이다.

서영일, 「아차산성 주변의 고대 성과와 교통로」, 『史叢』 81, 고려대역사연구소, 2014, 91쪽.

물론 이때 하역을 마친 고구려의 선박들이 북한산성(아차산성) 아래의 한강을 봉쇄하여 신라의 수로보급을 원천 차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원활한 보급을 위해 군대는 배에서 적하가 가능한 강을 따라 진군하므로 수로를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sup>62)</sup>

62) 마르틴 반 크레펠트 저, 앞의 책, 2010, 35쪽 참조.



<그림 2> 동국여도지의 南漢山城圖 경기도박물관 소장. 城의 앞으로 한강이 흐른다.

672년 正月 나당전쟁 와중이었다. 신라는 한산주에 둘레 4360보에 달하는 거대한 畫長城(남한산성)을 쌓았다.

漢山州에 畫長城을 쌓았다. 둘레가 4360步였다.<sup>63)</sup>

문무왕 12년(672) 신라는 해발 500m의 남한산에 둘레 8km가 넘는 대규모 산성을 쌓고 唐과의 전쟁에 대비하였다. 성 내에는 대형 창고를 지어 많은 군량미와 병장기를 비축하였다. 길이 53m가 넘는 대형 건물에는 기와 한 장의 무게가 20kg에 달하는 특대형을 사용하였다.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돌과 흙을 교대로 판축 하여 견고하게 대지를 조성하고, 벽체는 두께 2m가 넘도록 하여 기둥이 받는 하중을 분산시켰다. 이 대형 창고에 당대 최고 수준의 건축기술이 투여되었다. 인조 2년(1624) 조선은 청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남한산성을 수축하였다. 畫長城의 옛터를 따라서 성을 쌓고, 그 석재를 재활용하기도 하였다.<sup>64)</sup>

63) 『삼국사기』 권7, 文武王 12年 春正月, “築漢山州畫長城, 周四千三百六十步.”

64) 심광주, 「畫長城 축성기술과 남한산성」, 『한국성곽학보 叢書』 21, 2012, 128~153

여기서 『승정원일기』(권9, 인조 3년(1625) 을축 10월 7일 조)에 보이는 남한산성으로의 곡물 운반 기록이 주목된다.

김시국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비변사가 보내온 공문에, ‘9월 28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할 때, 남한산성에 군량을 비축하는 일이 오늘날 제일의 급선무인 만큼, 한강 상류에 위치한 고을의 田稅米와 三別收米 및 (충주)可興倉에 있는 米와 豆를 해조로 하여금 산성 안으로 적절히 실어 날랐다가 겨울이 지난 뒤에 도로 가져다 쓰도록 定奪하였기에 공문을 보냅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강 상류에 위치한 驪州, 利川, 楊根, 砥平, 廣州 등 고을의 三稅는 원 수량 자체가 부족하고 (충주) 가흥창에 비축된 米와 豆도 **강이 얼어붙을 때가 임박한 까닭에 여러 차례 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성에 군량을 넉넉히 수송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참으로 답답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앞서의 다섯 고을과 水站의 관관들에게 통지하여 강과 물으로 운반한 뒤에 실제 수량을 書啓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쉽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sup>65)</sup>

정묘호란(1627)이 일어나기 두 해 전의 일이었다. 이때 조정에서 남한산성에 곡물을 집적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여주 · 이천 · 양근 · 지평 · 광주 5곳의 三稅는 수량 자체가 부족하고, 충주 가흥창에 비축된 米와 豆는 양은 충분하지만 강이 결빙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실어 오기가 어렵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한강 중상류의 여주, 이천, 양근, 지평, 광주, 충주(가흥창)에 비축된 쌀과 콩이 한강 수로를 타고 옮겨져 남한산성의 창고를 채웠음을 알 수 있다. 신라 晝長城(남한산성)의 군량창고도 남한강 유역의 고을에서 배로 운반되어 채워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다. 필자는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며, 이보다 한강이 가까운 二聖山城(漢城)<sup>66)</sup> 등도 그러했을 것이다. 신라가 한성지역을 사수하는데 남한강의

쪽의 요약문.

65) 『승정원일기』 권9, 인조 3년(1625) 을축 10월 7일(임오).

66) 박성현, 「신라의 ‘남·북 한산성’ 축조와 경영」, 『역사문화연구』 79,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1, 85쪽에서 이성산성(한성)은 한강을 도하할 수 있는 광진(廣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였다.

수로 병참선의 역할이 컸다고 판단된다. 한강수로는 신라에 더없이 유용한 도구였다.

## V. 맺음말

552년 신라가 한강 유역을 석권한 이후 麗濟에 대한 방어를 염두에 두고 가늘고 긴 군사적 경계 지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麗濟의 양면 공격으로부터 그곳을 끝까지 사수해냈다. 필자는 그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한강이라는 자연 수로에 주목했다.

400년 광개토왕이 남진하여 國原지방을 차지하면서 백제의 수취 물량은 감소하였고, 475년 한성이 고구려군에게 결정타를 맞았다. 장수왕은 7일 만에 한성을 함락시키고 蓋鹵王과 太后, 王子 등을 모두 살해했으며, 남녀 8천을 잡아서 돌아갔다.

한강 유역 지배권이 고구려에 넘어가면서 백제는 熊津으로 천도를 했다. 재화가 오가던 한강수로가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백제의 중국 수출 품목에도 영향을 주었다. 493년 이후에 편찬된 南朝 宋 출신 陶弘景의 『本草經集注』를 보면 백제가 고구려에 臣屬되어 그 인삼이 고구려를 통해 중국에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당시 강원도 태백산맥 줄기 부근에서 인삼이 주로 생산되고 있었고,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면서 영서 지방의 백제 인삼생산지도 그 소유로 넘어갔던 것이다.

475년 이후 백제와 신라를 하나로 묶어준 것은 고구려에 대한 공포였다. 481년부터 495년까지 고구려에 대항한 羅濟同盟軍의 군사행동이 있었다. 548년에도 고구려가 백제 獨山城을 공격하자 신라가 이를 구원하였다. 하지만 2년 후 신라가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질렀다. 550년 정월 백제가 고구려의 道薩城을 함락시키고, 3월 고구려가 백제의 錦峴城을 함락시켰다. 신라의 異斯夫는 양자가 힘이 빠진 틈을 노려 두 성을 모두 차지했다. 그렇지만 한강 유역의 고토 회복을 꿈꾸던 백제는 침묵했다.



551년 羅濟연합군이 한강 하류 방면으로 진군했다. 백제가 한성과 (南)平壤 등 6군을 차지하는데 신라가 병력을 보내 도왔다. 승세를 타고 신라의 居柒夫 등이 竹嶺 이북 高峴 이내의 10개 군을 차지하였다.

그해 진흥왕이 國原을 방문했다. 그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553년 7월 신라가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탈환했던 한강 하류 지역을 取하여 新州를 설치했다. 신라가 비어있던 한성지역에 무혈 입성하였고, 牛頭方과 尼彌方을 차지했다.

그러면 왜 백제는 그곳을 포기했을까. 앞서 동성왕과 무령왕대 백제는 한강 하류 유역을 탈환하기 위해 고구려와 전쟁을 지속하여, 성과를 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고, 안정적이지 못했다. 한강 중상류가 고구려 수중에 있는 한 백제가 하류를 사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구려군이 언제든 강을 따라 보급을 받으며, 하류로 진군해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551년 신라가 한강 중상류를 장악하자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었다. 당시 백제는 漢城까지 비효율적인 육로보급을 해야 했다. 충남 해안에서 바다를 통해 軍糧을 운반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원활했다면 백제가 한성지방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역사를 통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물자 부족에 의해서 무너졌다.

반대로 신라가 확보한 한강 하류를 사수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주둔군에 대한 중상류로부터의 수로 보급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661년 고구려가 신라의 북한산성(아차산성)을 공격할 때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고구려에 부용된 靺鞨軍이 공격한 곳은 여주의 述川城이었다. 그것은 남한강을 타고 내려오는 신라의 식량 수송에 장애를 주기 위해서였다. 북한산성(아차산성)의 신라인들이 보급이 차단되어 위기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일부 고구려군은 배를 타고 漢江口를 거슬러 올라와 상륙했다. 그 함선의 활용도는 병력과 식량 그리고 공성기 운반에 거치는 것이 아니었다.

靺鞨이 여주 이포나루를 공격하여 그 기능을 파괴하고 북한산성(아차

산성) 동쪽에 진을 쳤으며, 한강 하구에서 배로 진입한 고구려군은 성의 서남쪽 아래 광진 나무에 식량과 장비를 하역한 후 성벽으로 접근하여 포대를 설치하고 공격을 하였다. 물론 그때 하역을 마친 고구려의 선박들이 한강 수로를 봉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672년 正月 나당전쟁 와중이었다. 신라는 한산주에 둘레 4360보에 달하는 거대한 晝長城(남한산성)을 쌓았다. 근자에 성 내에는 대형 창고를 지어 많은 군량미와 병장기를 비축한 유적이 발굴되었다.

1625년(인조 3) 10월 7일 한강 중상류의 여주, 이천, 양근, 지평, 광주, 충주(가흥창)에 비축된 쌀과 콩이 한강 수로를 타고 옮겨져 남한산성의 창고를 채웠다. 순리적으로 볼 때 신라 晝長城(남한산성)·二聖山城(한성)의 군량 창고도 그러했을 것이다. 國原지방에서 한강을 이용한 보급품 운송은 신라가 하류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버팀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논문은 2022년 10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승정원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日本書紀』

김수태, 『백제의 전쟁』, 주류성, 2007.

陶弘景編.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4.

마르틴 반 크레펠트 著, 『보급전의 역사』(우보형 譯), 플래닛미디어, 2010.

末松保化, 『任那興亡史』, [大八洲史書, 1949], 吉川弘文館, 1956.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홍성화, 『칠지도와 일본서기』, 경인, 2021.

今西龍, 「百濟略史」(1930 未定本), 『百濟史研究』, 近沢書店, 1934.

今西龍, 「新羅と和親の繼續: 熊津在都時代」, 『文教の朝鮮』 77, 朝鮮教育會, 1932.

金溶珠 「本草經集注에 대한 書誌學的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3권-2, 2010.

吉川政司, 「六世紀前半の日朝關係」, 『立命館史學』 1, 立命館史学会, 1980.

金賢淑 「高句麗 漢江流域 領有 支配」, 『百濟研究』 50, 2009.

노중국,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關係-고구려의 漢江流域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11, 2006.

노중국, 「신라 진흥왕의 한강 유역 점령과 巡狩」, 『郷土서울』 81, 2012.

李基東, 「新羅의 風土와 그 역사적 特性」, 『千寬宇還曆紀念論叢』, 1985; 『新羅社會史研究』 일조각, 1997.

李基白 · 李基東 共著, 『韓國史講座』 1[古代篇], 일조각, 1982.

李道學, 「百濟 熊津期 漢江流域支配 問題 認識」, 『郷土서울』 73, 2009.

李道學, 「永樂 6年 廣開土王의 南征과 國原城」, 『孫寶基 停年論叢』 知識産業社, 1988.

李昊榮, 「三國時代의 財政」, 『國史館論叢』 13, 1990.

박성현, 「신라 통일기 漢州의 물자이동과 漕運」, 『역사와 현실』 121, 2021.

박성현, 「신라의 남북한산성 축조와 경영」, 『역사문화연구』 79, 외대역사문화연구소, 2021.

- 徐榮教, 「新羅의 磐井亂 개입과 金官加耶 併合」, 『韓國古代史探求』 29, 2018.
- 徐榮教, 「異斯夫的 加耶 침공과 半破의 逆襲」, 『新羅史學報』 40, 2017.
- 서영일, 「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유역 방어체계」, 『고고학』 9-1호, 2010.
- 서영일, 「남한강 水路의 물자유통과 興元倉」, 『史學志』 37, 2005.
- 서영일, 「新羅 五通考」, 『白山學報』 52, 1999.
- 서영일, 「아차산성 주변의 고대 성곽과 교통로」, 『史叢』 81, 고려대역사연구소, 2014.
- 서영일, 「漢城 百濟의 南漢江水路 開拓과 經營」, 『文化史學』 20, 2003.
- 심광주, 「晝長城 축성기술과 남한산성」, 『한국성곽학보 叢書』 21, 2012.
- 양기석, 「5-6세기 전만 신라와 백제의 관계」, 『신라문화학술제논문집』 15, 1994.
- 양정필 · 여인석, 「삼국-신라통일기 인삼 생산과 대외교역」, 『醫史學』 제13권 제2호(통권 제25호), 2004년
- 윤성호, 「신라의 道薩城·錦峴城 전투와 國原 진출」, 『한국고대사연구』 87, 2017.
- 윤성호,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2017.
- 李道學, 「古代國家의 成長과 交通路」, 『國史館論叢』 74, 1997.
- 李道學, 「伯濟國의 성장과 소금 交易網의 확보」, 『百濟研究』 23, 1992.
- 전덕재, 「신라의 北進과 서북 경계의 변화」, 『韓國史研究』 173, 2016.
- 전호수, 「여주군의 역사」, 『여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I, 세종대학교박물관, 2004.
- 정운용, 「한강유역 회복과 관산성 전투」, 『泗泚都邑期の 百濟』(百濟文化大系 研究叢書 5), 2007.
- 존 키건, 「병참과 보급」(4장 보론) 『세계전쟁사』(유병진 옮김), 까치, 1996.
- 주보돈,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關係-신라의 漢江流域 진출과 관련하여-」, 『北方史論叢』 11, 2006.
- 津田左右吉, 「羅·濟 境界고」(이부오·장익수 譯), 『新羅史學報』 16, 2009.
- 津田左右吉, 「眞興王 征服地域考」(이부오 譯), 『新羅史學報』 18, 2010.
- 최종택, 「아차산 고구려 보루 발굴 10년, 성과와 의의」, 『韓國史市民講』 44, 일조각 2009.
- John Keegan, A History of Warfare, Random House, New York, 1993.
- Martin van Creveld, Supplying War: Logistics from Wallenstein to Patt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Abstract

## Silla ruled the Han River basin and Kukwon(國原)

Seo, Young-kyo

After Silla took over the Han River basin in 552, it built a fortress to defend the area to prevent both Goguryeo and Baekje from tightening north and south, and Silla defended it until the end. What made it possible was the supply of Silla using the Han River.

In 475, Goguryeo troops attacked and captured Hanseong, the capital of Baekje. Baekje, which was hit by a decisive blow, gave up the Han River basin and moved its capital to Woongjin.

Later, it was the fear of Goguryeo that brought Baekje and Silla together.

Since 481, the two countries have worked together to fight against Goguryeo. Seventy years later, change came. In 551, the allied forces of Baekje and Silla marched down the Han River and recaptured it from Goguryeo. Silla then occupied the middle and upper reaches of the Han River.

In 553, Baekje gave up the lower reaches of the Han River, and Silla entered there without blood. Since then, Baekje has never been able to recapture the Han River basin. It was not easy to distribute land routes from Sabi (Buyeo, Chungcheongnam-do), the home of Baekje, to Hansung (Seoul). On the contrary, Silla was able to defend the Hansung area to the end because the supply of water from the middle and upper reaches of the Han River continued.

In 661, Goguryeo attacked the Hanseong area of Silla

(Bukhansanseong Fortress). Just before, Goguryeo blocked the supply route by attacking Sulcheonseong Fortress (Yeoju), which controls the waterway in the middle of the Han River. Here, it can be seen that the transportation of supplies using the Han River was a support for Silla to protect the downstream area.

In 672, Silla built Seojangseong Fortress (Namhansanseong Fortress). A large food depot was built in the castle. C. In 1625, there was a case in which food stored in the middle and upper reaches of the Han River was transferred through the Han River and filled the warehouse of Namhansanseong Fortress. This shows the type of military supply in Silla.

**keywords :**

Kukwon, Han River, Han Fortress, Bukhan Fortress, Juchang Fortress, Namhan Fortress Fortress, Sulcheon Fortress

## 7세기 중반 신라 밀교의례의 실행 주체 -명랑의 정체성에 대한 검토-

박 광 연\*

- I. 머리말
- II. 명랑의 정체성에 대한 선행 연구
- III. 명랑의 불교 수학 : 7세기 중반 당·신라 불교계
- IV. 명랑의 문두루법 실행 : 신주, 밀교문헌, 밀교의례
- V. 맺음말

### 국문초록

사천왕사가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明朗을 비롯한 당시 중앙 교단의 승려들이 신라 사회가 불교계에 요구하는 바를 훌륭하게 완수하였기 때문이었다. 국가 존망의 위기 속에 明朗은 佛法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신라인들에게 심어 주었다. 사천왕사에서 행한 文豆婁法은 신라 최초의 국가 주도 밀교의례였지만, 의례 집행자인 명랑을 밀교승이라 규정할 수는 없다.

진골귀족 출신의 명랑은 유학 기간(660년대 전후로 추정함) 동안 당에서 황실의 후원 아래 주류 불교를 수학하였을 것이다. 당시 당에서는

\* 동국대 WISE 캠퍼스 국사학전공 조교수/ kypark@dongguk.ac.kr

신유식학이 유행하고 있었다. 밀교의 수용도 본격적이었으니, 새로운 밀교문헌을 빈번하게 역출하였고 불상을 동반한 밀교의례도 설행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밀교의례를 주관한 사람이 밀교승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무척천의 요청을 받아 십일면관음도량을 설행한 法藏은, 전공이 화엄이었다. 밀교의례의 주관자가 밀교승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밀교승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8세기 전반의 신라에서도 밀교의례를 행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 주제어

---

밀교, 밀교의례, 신인, 문두루, 명랑, 사천왕사



## I. 머리말

2006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 옛 사찰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천왕사지 발굴은 사천왕사 연구의 방아쇠를 당겼다.<sup>1)</sup> 77년 만의 본격적인 발굴이었다고 한다.<sup>2)</sup> 발굴을 통해 공개된 물질 자료들과 공간을 『삼국사기』의 문무왕대 기록, 『삼국유사』의 명랑 관련 기록들과 연결시키는 해석들이 쏟아졌고,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명랑은 『삼국유사』의 단골 등장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기이」 제2 ‘文虎王法敏’, 「의해」 제5 ‘二惠同塵’ ‘義湘傳教’, 「신주」 제6 ‘惠通降龍’ ‘明朗神印’에 명랑과 사천왕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한다.<sup>3)</sup>

이 기록들에 대한 해석의 기본 틀은 이미 1960-1970년대에 형성되었다. 명랑, 사천왕사, 문두루법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가 밀교, 둘째가 호국, 셋째가 신인종이다. 밀교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문두루법의 사상적 배경이 『灌頂經』 권7 「불설관정복마봉인대신주경」에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가장 먼저 제기된 견해이다.<sup>4)</sup> 호국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금광사, 사천왕사라는 사찰 이름의 논거가 『金光明經』에 있음을 내세웠다.<sup>5)</sup> 마지막 신인종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명랑이

- 
- 1) 차순철·최장미, 「2006년도 사천왕사지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의」, 『신라사학보』 8, 2006. 2008년 10월에는 2년간의 발굴 성과를 ‘사천왕사’ 특별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박물관)을 통해 공개하면서 ‘신라 호국의 염원, 사천왕사’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도 개최하였다. 발굴 이전에도 밀교, 호국 등의 주제로 개별적인 연구들이 있었는데, 1996년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7이 ‘낭산과 사천왕사’ 특집이다.
  - 2) 「경주 사천왕사 터, 77년 만에 재발굴키로」(매일신문, 20060426) <http://news.imaei1.com/>
  - 3) 『삼국유사』 원문·번역문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db.history.go.kr/>
  - 4) 박태화, 「신라 밀교 전래고」, 『불교사학논총:조명기박사화갑기념』, 동국대학교도서관, 1965. 이후 『관정경』으로 문두루법을 설명하는 논문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소개하지 않음을 양해바란다.
  - 5) 고익진, 「불교사상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미친 영향」, 『동국대학교논문집』 12, 1973, 52~53쪽; 김상현, 「고려시대의 호국불교 연구-금광명경 신앙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학술논총』 1, 1976, 14쪽.

신인종 조사이고, 사천왕사, 원원사가 신인종 사찰이며, 『관정경』, 『관불삼매해경』, 『금광명경』이 신인종 소의경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였다.<sup>6)</sup>

이후 사천왕사의 문두루법은 『관정경』과 『금광명경』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고 이해하게 되었고, 사천왕사의 건축, 공간, 유구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이후에도 문두루법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밀교사 맥락 속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더해갔다.<sup>7)</sup> 명량이 신인종을 창립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여래의 법신에 근원을 두고 나타나는 공덕으로서의 호국을 강조하였다는 해석도 있고,<sup>8)</sup> 중대 왕실의 한화정책 하에 보편적 성격의 밀교를 수용하여 唐의 普集會壇의 영향을 받아 密壇을 제작하고 사천왕신앙도 밀교신앙으로 전개하였다는 해석도 있었다.<sup>9)</sup> 이때까지는 사천왕신앙은 『금광명경』, 문두루법은 『관정경』에 기반하고 있다고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sup>10)</sup> 이후 사천왕신앙을 통한 진호국가 사상도 『관정경』에 내포되어 있음을 밝힌 연구가 발표되었다.<sup>11)</sup>

- 
- 6) 문명대, 「신라 신인종 연구-신라밀교와 통일신라사회」, 『진단학보』 41, 1976, 189~213쪽.
- 7) 밀교가 신라의 왕권을 뒷받침하는 이념이었음을 강조하는 연구 흐름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안흥·자장과 선덕여왕, 원광과 진평왕, 김유신·명량과 문무왕, 혜통과 효소왕, 보천과 성덕왕의 관계에서 밀교를 설명하고 있다(고익진, 「신라밀교의 사상 내용과 전개 양상」, 『한국밀교사상연구』, 동국대출판부, 1986; 장지훈, 「신라 불교의 밀교적 성격」, 『선사와 고대』 16, 2001; 이세호, 「신라 중대 왕권과 밀교」, 『동국사학』 49, 2010 등 참조). 그리고 『삼국유사』 체제를 분석하면서 「신주」편이 밀교와 관련 있음을 논해왔다(김영태, 「삼국유사의 체제와 그 성격」, 『동국대학교논문집』 13, 1974, 17쪽; 이도흠, 「『삼국유사』의 구조 분석과 의미 해석」, 『한국학논집』, 1995, 440쪽; 이연숙, 「일연의 『삼국유사』 편찬 의도에 관한 일고찰-신주편을 중심으로」, 『동의어문논집』 9, 1995, 135~153쪽; 김두진, 「삼국유사의 체제와 내용」, 『한국학논총』 23, 2000, 23~24쪽; 정병삼, 「『삼국유사』 신주편과 감동편의 이해」,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2, 2011, 9~14쪽 등).
- 8) 김상현, 「사천왕사의 창건과 의의」,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7, 1996, 135~136쪽; 김복순, 「『삼국유사』 ‘명량신인’조의 구성과 신인종 성립의 문제」,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2, 2011, 220~227쪽에서도 신인종의 신라성립설을 주장하였다.
- 9) 김연민, 「신라 문무왕대 명량의 밀교사상과 의미」, 『한국학논총』 30, 2008, 1~37쪽.
- 10) 윤선태, 「신라 중대 성전사원과 밀교」, 『선사와 고대』 44, 2015, 15~16쪽.

이와 같이 사천왕사 건립과 문두루법 시행의 논거를, 『금광명경』이나, 『관정경』이나, 『금광명경』과 『관정경』이나 등과 같이, 불교 경전의 내용 분석을 통해 설명해왔다. 이 과정에서 문두루법에 참여한 유가명승을 유식승으로 서술하기도 하고,<sup>12)</sup> 신인종승<sup>13)</sup> 또는 밀교승이라 보기도 하였다. 명랑의 정체성은 과연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7세기 중반 당과 신라의 불교계가 처했던 정치 상황과 불법 연구의 전개 속에서 명랑의 수학 내용을 추론하고, 당에서의 밀교의례 시행 사례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사천왕사에서 문두루법을 주관한 명랑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670년 명랑이 주관한 문두루법은 신라 최초 국가 주도의 밀교의례라는 의의가 있다.<sup>14)</sup> 그러므로 명랑의 정체성에 대한 규명은 이후 신라 사회에서 확산되는 밀교의례의

- 
- 11) 장익, 「명랑의 문두루법과 진호국가밀교」, 『밀교학보』 16, 2015a, 28~32쪽. 이 논문에서는 『관정경』 권7의 오방대신과 7신왕의 문두루는 병자의 치병과 사택의 보호를 설할 뿐 진호국가의 개념은 없다고 하면서 『관정경』 권5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권5의 12神王, 四天王, 鎮函 등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관정경』은 고대의 諸神신앙이 사천왕신앙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보이며, 칠불신앙의 불교적인 권능에 의해 개인의 除災招福을 넘어 호국과 호법의 진호국가불사로 승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 12) 김복순, 「신라 화엄종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97쪽; 김복순, 「8-9세기 신라 유가계 불교」, 『한국고대사연구』 6, 1992, 38~42쪽; 김남윤, 「신라 법상종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144~145쪽.
- 13) 명랑이 신인종을 창립하였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도 일찍이 제기되었다. 고익진은 명랑이 문무왕 10년에 작법양진하고 신인종조가 되었다는 기록은 당시에 신인종을 성립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신인종의 사상 전통이 그것에서 발단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고익진, 앞의 논문(1986), 160쪽). 그러므로 명랑과 신인종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신인종에 대한 규명이 선행해야 하는데 이 글에서 함께 함께 다루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어 별도의 논고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 14) Henrik H. Sørensen이 고려시대 신인종과 충지종을 다룬 논문에서 『삼국유사』 기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문두루법이 11세기에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김연미의 비판이 있었다. Youn-mi Kim, "(Dis)assembling the National Canon: Seventh-Century "Esoteric" Buddhist Ritual, the Samguk Yusa, and Sach'onwang-sa." In *New Perspectives on Early Korean Art: From Silla to Koryŏ*, edited by Youn-mi Kim (Cambridge, MA: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2013): 123~191.

성격을 파악하는 데 버리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신라에서의 밀교 수용의 역사와 역사적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II. 명랑의 정체성에 대한 선행 연구

명랑의 가문, 특히 외가는 불교에 깊이 귀의한 진골 귀족이었다. 그의 할아버지가 아들 낳게 해달라며 친부 관음보살상을 만들게 했던 김무림 이고,<sup>15)</sup> 그의 외삼촌이 선덕왕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불교 교단을 통솔했던 대국통 자장이다. 이러한 집안 분위기에서 성장한 남간부인(법승랑)은 세 아들을 승려로 길러냈고, 명랑이 막내였다.

명랑을 유식승으로 정의하는 단서는 金光寺,<sup>16)</sup> 四天王寺,<sup>17)</sup> 瑜伽明僧<sup>18)</sup>이다. ‘금광’ ‘사천왕’이라는 명칭이 『금광명경』과 관련 있고, 『금광명경』을 활용한 것은 그가 유식승(또는 법상종승)이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9)</sup> 신라 때 『금광명경』에 의거한 정법치국론을 전개한 이들도,<sup>20)</sup> 신라·고려 때 『금광명경』에 의거한 의례를 주관한 이들도 유식승이었다는 것이 주장의 논거이다.<sup>21)</sup> 그리고 문두루법 시행 때 참여한 12명의 유가 명승이 『유가사지론』을 중시하던 유가유식에 밝은 승려를 의미한다고

15) 『삼국유사』 권4, 「의해」5, 자장정율.

16) 『삼국유사』 권4, 「신주」6, 명랑신인.

17)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9년(679).

18) 『삼국유사』 권4, 「신주」6, 명랑신인.

19) 『한국불교찬술문헌총목』(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동국대출판부, 1976)에 수록된 신라 승려의 『금광명경』 주석서로는 원효의 『금광명경소』 8권,憬興의 『金光明經略意』 1권, 『金光明經述贊』 7권, 『金光明最勝王經略贊』 5권, 『金光明最勝王經疏』 10권, 遁倫의 『金光明經略記』 1권, 太賢의 『金光明經述記』 4권, 『金光明經料簡』 1권이 있다. 원효 이외에 경홍, 둔륜, 태현은 유식승으로 분류한다.

20) 김상현, 「7세기 후반 新羅佛敎의 正法治國論」, 『신라문화』 30, 2007 참조. 대표적인 인물이 경홍이다.

21) 남동신, 「고려 전기 금석문과 法相宗」, 『불교연구』 30, 2009. 『금광명경』에 의거한 의례를 거행한 신라 인물로는 태현이 있다.

보았다.<sup>22)</sup>

한편 명량을 밀교승으로 규정하는 단서는 神呪, 密壇法,<sup>23)</sup> 神印(문두루),<sup>24)</sup> 神印宗祖<sup>25)</sup>이다. 『삼국유사』 「신주」편은 일연이 밀교승들만 별도로 편성한 편이라 하고,<sup>26)</sup> 밀단법, 즉 문두루법이 밀교 경전인 『관정경』에 의거한 밀교의례이고, 명량을 신인 대덕 또는 신인종조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밀교승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견해에서는 유가명승도 삼밀유가를 수행하는 밀교승이라고 보았다.

사료에 입각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입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료를 벗어나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두 방향으로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먼저 명량이 수학했던 7세기 중반 전후로 유행한 불법 및 불교계의 상황을 파악해보고, 다음으로 신주·밀교의 개념과 밀교의례 시행 사례를 통해 명량의 활동이 지니는 의미를 따져보고자 한다.

명량이 불법을 수학하는 과정에서 당에 유학했던 경험은 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의 유학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632년(선덕왕1)~635년(선덕왕4) 당에 유학을 다녀왔다는 「명량신인」의 기록을 그대로 인정하는 연구자도 있지만, 문두루법을 처음 시행한 670년(문무왕10)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다녀왔을 것이라 보기도 한다. 후자의 근거는 670년 김천존이 명량을 문무왕에게 추천할 때 ‘최근에 [近]’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었고,<sup>27)</sup> 637년(선덕왕6)에 유학가 643년(선덕왕12)에 귀국한 그의 외삼촌 자장보다는 늦게 다녀왔을 것이라는 추론이 보태졌다.<sup>28)</sup> 필자는 후자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명량의 유학 시

22) 김복순, 앞의 논문(1992); 김남윤, 앞의 논문(1995) 참조.

23) 『삼국유사』 권4, 「의해」5, 의상전교.

24) 『삼국유사』 권4, 「신주」6, 혜통향릉.

25) 『삼국유사』 권4, 「신주」6, 명량신인.

26) 정병삼, 앞의 논문, 15쪽.

27) 『삼국유사』 권2, 「紀異」2, 文虎王法敏, “角干金天尊奏曰 近有明朗法師入龍宮傳秘法以來 請詔問之”

28) 고익진, 앞의 논문(1986), 151쪽.

기가 660년을 전후한 때라고 생각하지만, 630년대부터 660년대까지의 당과 신라 불교계의 사정을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 Ⅲ. 명량의 불교 수학 : 7세기 중반 당·신라 불교계

7세기 전반 隋에서 唐으로의 정권 교체로 중국 불교계는 혼란스러웠다. 북주 무제가 자행한 폐불(574-577)을 기억하는 불교계 지도자들은 교단의 안정을 강구하였으나 당 고조(재위 618-626)는, 수 문제·양제와 달리, 교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불교보다 도교와 유교의 우위를 내세우다가 626년 5월 불교·도교 沙汰 조서를 반포하였다.<sup>29)</sup>

현무문정변으로 황제에 오른 이세민이 자신의 지지를 끌어내고자 사태를 중지시켰지만,<sup>30)</sup> 태종(재위 627-649)은 貞觀 초부터 여러 차례 승려들을 사태하였고, 私度者是 극형에 처한다는 조서를 반포하였다.<sup>31)</sup> 637년(정관11) 道僧格을 제정하여 도사, 승려 처벌 일부를 국가가 집행하도록 하는 등 교단을 철저히 정부 관리 하에 두고자 하였다. 흉년이 들거나 비가 내리지 않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회를 개설하거나 부모(고조와 太目皇后)<sup>32)</sup> 및 전몰 장병들의 명복을 빌고자 사찰을 건립

29) 강문호, 「부혁의 배불론과 당초의 불교정책」, 『신라문화』 30, 2007, 278~284쪽. 621년(고조 무덕4) 傅奕은 「唐上廢省佛僧表」를 올려 각종 佛事와 승니들의 탐욕에 따른 폐해를 나열하며 불교를 천축으로 돌려보낼 것을 주장하였다. 고조가 이 표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624년 7월 신하들에게 부혁의 상서에 대해 토론하게 하였고, 625년에는 국학에 행차하여 ‘도교가 제1, 유교가 다음, 불교가 마지막’이라는 순서를 정하였다. 626년 5월에는 불교·도교 사태 조서를 내려, 비구, 비구니, 도사, 여관 중 부지런히 수행하고 계율을 지키는 자들은 大寺, 大觀에 거주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하였으며, 도읍에는 사찰 3곳, 도관 2곳만 남기고, 諸州에는 1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게 하였다.

30) 陳昱珍, 「道世與『法苑珠林』」, 『中華佛學學報』 5, 1992, 243~245쪽.

31) 道宣, 『續高僧傳』 卷20, 靜琳(T50, 2060, 591a). 도선의 『속고승전』은 645년(정관 19)에 일단 완성되었으나 그 후 보수되었는데, 그 하한은 665년(인덕2)이다.

32) 鎌田茂雄, 「唐代佛教의發展」, 『中國佛教史6-隋唐의 佛教(下)』, 東京大學出版會, 1999. 628년(정관2) 5월 19일 칙명에 의해 先帝의 기일에는 장경사에서 설재 행향하

할 뿐이었다.<sup>33)</sup>

태종을 이은 고종(재위 649-683)도 불교 교단에 강압적이었다. 662년(용삭2) 강제로 승려가 군왕과 부모에게 예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하고<sup>34)</sup> 자주 內殿으로 도사와 승려를 불러 논쟁하게 하였는데 이때 불교측 입장을 대변하던 대표가 道宣(596-665)이었다.<sup>35)</sup> 이렇듯 7세기 전반~중반 당에서는 국가·국왕의 통제 하에 불교계가 성장하였다.

도선은 한편으로는 불교를 신앙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다른 한편으로는 三寶를 비방하고 훼손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말하면서 국왕이 ‘護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36)</sup> 교단의 안정에 국왕의 의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사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도선의 인식은 7세기 전반 장안 불교계의 보편적 정서였고, 이때 장안을 다녀간 자장, 명랑 등 신라의 유학승들은 당 불교계의 정서와 현실을 목도하였을 것이다.

600년(진평왕22) 원광의 귀국을 전후하여 신라에서는 학문 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유학을 떠나는 이들이 생겼다. 智明, 曇育, 安弘(579-640) 등이 있는데, 지명은 585년(진평왕7)~602년(진평왕24) 진에서, 담육은 596년(진평왕18)~605년(진평왕27) 수에서, 안홍은 601년(진평왕23)~605년(진평왕27) 수에서 수학하였다. 579년~593년 사이 진평왕은 대륙으로 사신을 보내지 않았지만, 이 와중에도 유학을 떠나는

---

는 것을 恒式으로 하게 하였다.

33) 강문호, 앞의 논문, 294~296쪽. 630년에는 매월 27일에 『인왕경』과 『대운경』을 전독하게 하였다.

34) 『廣弘明集』 卷25, 議沙門敬三大詔(T52, 2103, 284a).

35) 石井公成, 최연식 옮김, 「당대 불교의 전성」, 『동아시아 불교사』, 씨아이알, 2020, 145~147쪽.

36) 藤善眞澄, 『道宣傳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2, 158~159쪽; 박광연, 「의적의 『법화경집험기』 편찬 배경과 특징」, 『역사와 현실』 66, 2007, 278~279쪽에서 재인용. 다음은 元照의 『芝園遺編』에 수록된 도선의 저술 가운데 護法住持部に 속하는 것들이다. 『廣弘明集』 30권, 『集古今佛道論衡』 3(4)권(664), 『東夏三寶感通錄』 [集神州三寶感通錄] 3권(664), 『釋門護法儀』 1권, 『護法住持儀』 1권, 『佛法東漸圖贊』 2권(660)

승려들은 있었다. 594년 수와의 외교가 성립된 이후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자 유학승은 신라 사신의 배를 타고 함께 귀국하였다.<sup>37)</sup>

6세기 후반에는 智顓(538-597)가 활동했던 金陵으로 가는 신라승들도 있었지만, 수와의 외교가 성립한 이후에는 수의 도읍인 大興으로, 당이 건국된 뒤에는 長安으로 향했다. 대흥으로 갔던 안홍이 수 문제의 환대를 받아 國刹인 大興善寺에 머물렀다는 것으로 보아,<sup>38)</sup> 다른 신라승들에 대한 수·당 황실 측의 대우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학승들은, 개인의 선택과 인연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당시 불교계 주류의 사상을 배웠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출가승들은 기본적으로 佛法 즉 경전과 논서를 배우고, 禪觀을 익히며, 교단 생활에 필요한 계율을 실천하고, 각종 법회에 필요한 의례를 숙지하였다. 그밖에 天文, 曆算, 醫方, 呪術 등을 더 익히기도 하였다.

7세기 전반 大興·長安에서 성행했던 불법으로는 삼론학, 섭론학, 지론학, 정토교, 삼계교 등이 있다. 鳩摩羅什(344-413)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남조 이래 계승·발전하던 삼론학[중관]과 眞諦(Paramârtha, 499-569)가 번역한 『섭대승론』에 의거한 섭론학[유식]이 유행하였다. 645년 玄奘(602-664)의 귀국 이후 삼론학은 쇠퇴한 반면,<sup>39)</sup> 유식 계통은 『십지론』에 의거한 지론학, 因明, 『대승기신론』과 여래장사상에다가 현장이 자은사 역장에서 번역한 『성유식론』 등 새로운 유식 논서들까지 더해지면서 연구가 활발해졌다.<sup>40)</sup> 폐불 시기에 옳은 말법 인식의 영향으로 정

37)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對隋 외교와 請兵」, 『신라사학보』 52, 2021, 15쪽.

38) 『해동고승전』 권2, 「유통」 1-2, 釋安畝. 원문에는 大興聖寺라고 되어 있지만 大興善寺일 것이다.

39) 鎌田茂雄, 「隋唐の諸宗」, 앞의 책(1999) 참조.

40) 유식학 논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아비달마, 구사론, 성실론도 익혔다. 현장의 예를 들어보겠다. 그는 출가 후 東都 慧日도량에서 嚴法師에게 『섭대승론』을 배웠다. 당시 혜일도량에는 法准의 제자인 淨願과 혜원의 제자 辯相이 있었는데, 번상도 『섭대승론』에 뛰어났다. 성도에서 道基(573?-637)에게 『아비달마』를 배웠고, 622년 구족계를 받은 뒤 장안으로 가는 길에 趙州에서 道深에게 『성실론』을 배웠다. 장안에 도착해서는 大覺寺에서 道岳(568-636?)에게 『구사론』을, 法常(567-645)과 僧辯(568-642)에게 『섭대승론』을 배웠다. 현장이 친숙 유학을 결심한 이유가



토교나 삼계교를 실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고, 이미 번역이 끝난 廣律(십송율, 사분율, 마하승기율 등)과 戒本들을 연구하는 율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중남산에서는 『화엄경』 연구도 시작되었다.<sup>41)</sup> 밀교문헌의 역출도 활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남조와 교류가 많았던 백제 불교계는 7세기 전반까지도 삼론학이 융성하였다가 7세기 중반 이후에는 신유식학을 수용하였다.<sup>42)</sup> 반면 신라 불교계에서는 일찍부터 수 황실의 후원을 받아 성장한 섭론학이 주류적 흐름이었다. 신라에서 섭론학을 적극 수용한 데는 아마도 圓光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589년 원광이 수의 도움으로 갔을 때 당시 새롭게 유행하던 『섭대승론』을 배운 뒤 강의로 이름을 떨쳤고, 신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 강의하였다고 한다.<sup>43)</sup> 자장도 귀국한 후 『섭대승론』과 『보살계본』을 강의하였다고 한다. 7세기 중반의 신라 불교계에는 원광, 자장 이후의 섭론학 전통이 계승되었고, 백제·고구려 그리고 입당 유학생들을 통해 신유식학도 수용되었다. 의상처럼 일부 화엄을 수학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문무왕 즉위 이후 중앙 교단에서 활동한 憬興, 順憬, 法位, 玄一, 義寂, 遁倫, 道證 등 대부분의 승려들을 현대 학자들은 유식승으로 분류하고 있다.<sup>44)</sup>

진골귀족인 명량은 국가의 후원 하에 유학을 갔을 것이므로, 당에서 당시 주류였던 섭론학이나 신유식학을 접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자신의 집을 내어 만든 사찰 이름을 금광사라 하고, 전쟁 승리를 기원하며 창건한 사찰명을 사천왕사로 지은 것은 『금광명경』을 중시한

---

학자들마다 너무 달라 『십칠지론』의 원본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鎌田茂雄, 「玄奘の大翻譯事業」 앞의 책(1999) 참조).

41) 石井公成, 최연식 옮김, 앞의 책 참조.

42) 최연식, 「백제 후기의 불교학의 전개과정」, 『불교학연구』 28, 2011, 217~218쪽. 성왕대에 남조의 성실열반학을 수용하였고, 위덕왕대에 북조의 禪法과 지론학이 전래되었고, 무왕대에 삼론학을 수용하였기에 『대승사론현의기』 같은 저술이 나올 수 있었고, 일본에서 활동한 삼론학 전공 승려들이 많았다고 한다.

43) 『삼국유사』 권4, 「의해」5, 원광서학.

44) 오형근, 「신라 유식사상의 특성과 그 역사적 전개」, 『한국철학연구(상)』, 1978, 254~265쪽 등. 7세기 후반에 활동한 이들인데, 모두 생몰년이 명확하지 않다.

유식승의 입장이라는 해석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sup>45)</sup> 당시 신라에서 유식학 용어나 『법화경』, 『금광명경』, 『무량수경』 등 유식 전공 승들이 중시했던 경론을 숙지하지 않고서는 중앙 교단에서의 대화에 끼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명랑의 저술로 전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면, 그는 경론의 해석서를 쓸 만큼 교학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 IV. 명랑의 문두루법 설행 : 신주, 밀교문헌, 밀교의례

13세기 『삼국유사』의 찬자가 명랑을 「신주」편에 수록한 것은, 그가 문두루법이라는 밀교의례를 처음 설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神呪와 密敎는 같은 개념의 용어일까? 밀교승의 정의를 생각할 때 늘 궁금한 것이 있다. 4세기에 활동한 佛圖澄(232-348)과 帛尸梨蜜多羅(?-?)가 활동 양상이 비슷한데, 현대의 학자들은 왜 불도징은 신이승이라고만 하고, 백시리밀다라는 최초의 밀교승이라고 하는 것일까?

(불도징은) 진 회제 영가 4년(310)에 낙양으로 와서 大法를 흥포하고자 마음먹었다. 神呪를 잘 외웠고 鬼物을 부릴 수 있었다.<sup>46)</sup>

백시리밀은 呪術을 잘 외워 바라는 것이 모두 징험이 있었다. 처음 강동에 아직 呪法이 있지 않았는데, 백시리밀이 『공작왕경』을 역출하고 여러 神呪를 밝혔다.<sup>47)</sup>

45) 당이나 신라의 유식승들은 수많은 경전을 유식학 용어와 개념으로 풀이했고, 『금광명경』은 천태 지의처럼 다른 전공의 승려들도 인용하고 있으므로 『금광명경』에서 이름을 가져온 것만으로 명랑이 유식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저술이 남아 있는 이 시기 신라의 유식승들이 『금광명경』을 중시한 것은 분명하다.

46) 『高僧傳』 권9, 「神異」上, 竺佛圖澄(T50, 2059, 383b21-22), “以晋懷帝永嘉四年來適洛陽 志弘大法 善誦神呪 能役使鬼物.”

47) 『高僧傳』 권1, 「譯經」上, 帛尸梨蜜多羅(T50, 2059, 328a11-12), “密善持呪術 所向皆驗 初江東未有呪法 密譯出孔雀王經 明諸神呪.”

불도징이 신주를 잘 외우고 귀물을 부렸다고 한다. 왕조의 통치자들이 불교를 처음 받아들인 직접적인 계기가 가뭄이나 질병 등 골치아픈 문제를 해결해주는 승려들의 신통력인 경우가 많았다. 불도징은 그의 신통력 덕분에 後趙의 石勒(재위 319-333)과 石虎(재위 334-349)의 존경을 받으며 교화에 나섰다. 한편 永嘉 연간(307-313)부터 建康에서 활약한 백시리밀다라도 주술에 뛰어나 징험이 있었고 신주에 밝았다고 한다. 이 문장의 주술과 신주는 동의어로 보인다. 불도징이나 백시리밀다라는 모두 신주를 잘하고 신통력이 있는 승려였던 것이다.

신주를 외고 귀물을 부렸던 불도징의 행동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大力神을 부려 귀신들을 잡아 김양도의 병을 치유한 일본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sup>48)</sup> 사전에서는 밀교의 개념을 顯敎와 대비하여 설명하는데, 설교하는 방식에 따라 언어·문자로 붓다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현교라 하고, 겉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밀교라고 한다.<sup>49)</sup> 교의의 내용에 따라 현교와 밀교를 구분하기도 한다. 『大智度論』에서는 여러 보살이 무생법인을 얻어 번뇌가 끊어지면 육신통을 갖추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祕密이라고 하였다.<sup>50)</sup> 『대지도론』에 의거할 경우, 불도징의 신주도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불도징은 밀교승이라고 명명하지 않는 것일까. 위 인용문에서 불도징과 백시리밀다라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공작왕경』의 역출이다. 費長房(fl.562-598)이 찬한 『歷代三寶紀』에서는 백시리밀다라가 번역한 것이 3부 11권의 經呪라고 하고 있다.<sup>51)</sup> 그렇다면 밀교승이라 불리기 위해서는 신통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밀교문헌을 역출이라는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신주·비밀은 밀교의 필수 요소이나 충분 요

48) 『삼국유사』 권5, 「신주」6, 密本摧邪.

49) 『佛光大辭典』 참조.

50) 『大智度論』 卷4(T25, 1509, 825), “佛法有二種 一祕密二顯示 顯示中 佛辟支佛阿羅漢皆是福田 以其煩惱盡無餘故 祕密中 說諸菩薩得無生法忍 煩惱已斷 具六神通 利益衆生.” 이 구절의 현시를 소승, 비밀을 대승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장익, 「인도 밀교의 형성과정」, 『한국불교학』 74, 2015b, 10쪽).

51) 『歷代三寶紀』(T49, 2034, 68c07), “東晋沙門帛尸梨蜜多羅 三部一十一卷經呪.”

건이 아니고, 밀교승의 기본 요건은 밀교문헌에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신주와 밀교의 개념에 대한 학계의 최근 논의들을 좀더 살펴보았다. 일찍이 인도에서 밀교의 출현이 대승불교 다음이라는 견해도 있었고, 중국에 밀교 종파가 존재했다고 보는 이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승도 별도의 교단이라고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sup>52)</sup> 밀교도 독자적인 교단(종파)이나 사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sup>53)</sup> 동아시아 밀교는 특히나 밀교문헌의 한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서 밀교문헌의 한역은 3세기부터 시작되지만, 밀교문헌이 급증하는 것은 5세기부터라고 한다.<sup>54)</sup> 5세기 밀교를 중국학자 呂建福은 ‘다라니밀교’라 하면서, 기원상으로는 다라니와 신주가 구별되지만, 다라니와 신주가 안식국, 월씨국, 구자국 등에서 융합되어 다라니와 신주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한다.<sup>55)</sup> 즉 신주에 다라니가 더해지면서 밀교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sup>56)</sup> 다라니를 독송하며 수행을 하기도 하고, 다라니를 독송하며 의례를 행하기도 하였다. 특정 의례에 사용하는 다라니를 모아서 ‘신주경’ ‘다라니경’의 형태로 정리하기도 함으로써 밀교문헌이 증가하였다.<sup>57)</sup>

52) 渡辺章悟, 「大乘教團のなぞ」, 『新アジア佛教史02 インドⅡ-佛教の形成と展開』, 佞成出版社, 2010, 189~197쪽.

53) 장익, 앞의 논문(2015b), 11~12쪽; 이승혜, 「구미학계의 중국 밀교 논쟁: 연구사적 조망」, 『불교학연구』 53, 2017, 140쪽에 의하면, 2002년 Robert H. Sharf의 ‘On Esoteric Buddhism in China’라는 글에서 발표된 이후 밀교 개념과 존재 형태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졌다고 한다.

54) 呂建福, 『中國密教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147~148쪽. 주술에 능한 승려들이 5세기부터 확인되는데, 이들은 주술로 비를 빌거나 귀신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한다. 5세기에 번역되어 유통된 密典으로는 『虛空藏菩薩神呪經』, 『八吉祥經』, 『藥事琉璃光經』, 『無量門破魔陀羅尼經』, 『觀世音懺悔除罪呪經』 등이 있다.

55) 呂建福, 앞의 책, 151쪽.

56) 장익, 앞의 논문(2015b), 11쪽.

57) 기존의 대승경전에 다라니를 부가하기도 하였는데, 「다라니품」이 있는 경전명을 『대정장』 수록 순서대로 몇 개만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悲華經』 「陀羅尼品」, 『大般若波羅蜜多經』 권508 「第三分陀羅尼品」, 『勝天王般若波羅蜜經』 「다라니품」, 『妙法蓮華經』 「다라니품」, 『大方等大集經』 「寶幢分」 17, 「제구중다라니품제육」, 『合部金光明經』 「銀主陀羅尼品」, 『金光明最勝王經』 「最淨地陀羅尼品」, 『入楞伽經』 「다라니품」

이처럼 밀교문헌의 전래라는 측면에서 중원에서 밀교의 수용을 5세기로 소급하지만, 본격적인 밀교의 전래는 인도에서 밀교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7세기 이후이다. 7세기 중반 이후 당에서의 밀교문헌의 역출 양상도 이전과 달라졌다. 梵僧 那提가 655년 장안에 도착한 후 칙명에 의해 자은사에 머물면서 대승경전과 밀교문헌을 번역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이 이를 무시했다는 사례를 들어 현장이 밀교에 침묵했거나 무관심하였다고 보기도 하지만,<sup>58)</sup> 『不空羂索神呪心經』, 『十一面神呪心經』, 『呪五首經』, 『勝幢臂印陀羅尼經』, 『諸佛心陀羅尼經』, 『拔濟苦難陀羅尼經』, 『八名普密陀羅尼經』, 『持世陀羅尼經』, 『六門陀羅尼經』 등의 밀교문헌이 현장의 역장에서 역출되었다.<sup>59)</sup> 이렇듯 황실의 후원 하에 밀교문헌이 다수 번역되었는데, 智通도 황제의 칙명으로 복인도승이 바친 『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 2권 등을 번역하였다. 652년(또는 653년) 장안에 온 阿地瞿多(無極高)는 승려들과 英公 李世勣 등의 귀족들을 慧日寺 浮圖院에 초청하여 653년 3월 10일부터 654년 4월 15일에 걸쳐 『陀羅尼集經』 1부 12권을 번역하였다. 또한 밀교문헌과 관련한 도상들과 의례들이 함께 전해졌다.<sup>60)</sup>

명량이 660년을 전후하여 당에 유학하였을 때, 그는 자은사 등 당의 주요 사찰에서 역출된 밀교문헌들과 밀교도상 및 밀교의례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西明寺 道世(?-683)가 편찬한 『法苑珠林』이나 『諸經要集』에서 『관정경』을 여러 차례 인용하고 있고, 당의 승려들이 『관정경』 12권 가운데 11권 『관정수원왕생시방정토경』과 12권 『관정발제과죄생사득

」 등이다. 이러한 ‘다리니품’들이 포함한 문헌을 밀교문헌(밀교경전)이라 부르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5세기 이후에 본격화된 흐름으로서의 다리니밀교와는 성격이 다르다.

58) 심재관, 「인도-동남아시아의 해양 실크로드와 7-8세기 밀교의 확산」, 『아시아리뷰』 8-2(16), 2011, 222쪽. 한편 鎌田茂雄은 인도승 那提가 자은사에 있었는데 당시 현장의 명망이 높아 세상이 드러나지 못했고, 그가 직접 범본을 역출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게 맡겨 『八曼荼羅經』 등 3부만을 역출하였다고 해석하였다(鎌田茂雄, 앞의 책(1999) 참조).

59) 鎌田茂雄, 앞의 책(1999), 298~300쪽.

60) 심재관, 앞의 논문, 224~226쪽.

도경』을 즐겨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sup>61)</sup> 『관정경』이 널리 읽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62)</sup>

이상의 밀교의 개념과 중원에서의 수용 양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두루법을 행한 명랑의 정체성을 따져 보겠다. 우선 그는 밀교문헌을 역출하지 않았다. 문두루법 시행 이외에 일상 생활에서 다라니 독송한다거나 하는 행위도 없었다. 오로지 그는 불법으로 당군을 물리쳐달라는 국가의 요청을 받아 『관정경』이라는 밀교문헌에 의거하여 문두루법이라는 밀교의례를 시행하였을 뿐이다. 밀교 개념의 핵심이 다라니, 밀교문헌, 밀교의례라고 한다면, 명랑은 『관정경』이라는 문헌에 의거하여 문두루비밀법이라는 의례를 시행하면서 다라니를 독송하였을테니 밀교승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밀교의례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밀교승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sup>63)</sup>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7세기 중후반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밀교의례를 행하였고 누가 주관하였는지를 찾아보았다. 몇 사례가 있었지만, 유명한 法藏(643-712)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법장은 일찍이 智嚴(602-668) 문하에서 화엄학을 수학하였고, 훗날 宗密(780-841)에 의해 화엄 제3조로 규정된 인물이다. 법장은 지엄을 찾아가 『화엄경』을 배웠지만, 그가 도첩을 받은 것은 지엄이 죽은 이후인 670년이었다. 그는 무

---

61) 옥나영, 「신라시대 밀교경전의 유통과 그 영향」,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17, 28~35쪽.

62) 신라 문두루법처럼 『관정경』을 직접 적군의 침입을 막는 의례에 활용한 사례는 없어서 명랑이 『관정경』을 약간 변형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김상현, 앞의 논문(1996), 138쪽).

63) 그동안 밀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8세기에 활동한 선무의, 불공을 대표적인 밀교승으로 설명해왔다. 선무의, 불공과 이전 밀교 관련 승려들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불교사흐름 속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출가 승려들은 불법 수학, 선관 수행, 계율 수지, 의례 주관 등 여러 업을 수행하는데, 7세기 무렵까지는 대체로 수학하는 불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전공을 구분하였다. 교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계율 전문가 율승, 의례 전문가 아사리 등이 등장하게 된다. 밀교승의 정의도 이러한 불교 교단의 변화 속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7세기 중후반 밀교의례 실행 주체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측천이 어머니 榮國夫人을 위해 건립한 西太原寺에서 출가하였다.<sup>64)</sup> 690년 武周를 세운 무측천은 불교 우위의 정책을 고수하며 승려들을 후원하였는데,<sup>65)</sup> 후원받던 승려 가운데 한 명이 법장이었다. 695년에 무측천은 법장에게 만분계를 주고 현수라는 호를 하사하였다. 무측천과 법장은 가마다 시게오(鎌田茂雄)가 “법장의 화엄종이 무측천의 전제왕권 강화와 무주혁명에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다”<sup>66)</sup>고 평가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다. 그의 전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신공 원년(697) 거란이 명을 어겨 군대를 내어 토벌하게 하였다. 특별히 법장에게 불경과 교법에 의거해 적의 공격을 저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법장이) 아뢰었다. “만약 적들을 꺾어 굴복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청컨대 여러 법을 따라주십시오.” 그 말을 따르게 하였다. 법사는 목욕하고 옷을 바꿔입고서 십일면(관음)도량을 건립하고 관음상을 세웠다. 행도한 지 처음 며칠 동안 오랑캐들은 왕의 군대를 둘러싼 무수한 신왕 무리들을 보았고, 어떤 이들은 관음상이 허공에 떠서 오는 것을 목도하였다. 개양의 무리들이 서로 두려워 나아가지 못하여 승리의 보고를 올렸다. 천후[무측천]가 조서를 내려 위로하였다. “성 바깥의 병사들이 하늘북의 소리를 듣고, 진실로 시골 마을의 적들이 관음상을 보았다. 맛있는 술이 진영에 흘러 넘치고, 선인의 수레가 군대 앞에서 대장기를 끌었다. 이는 신병이 없애버린 것이니 대개 (관음보살의) 자애의 힘으로 가피하신 것이다.”<sup>67)</sup>

697년 거란의 침공에 직면한 무측천은 법장에게 진호 범회를 열어줄

64) 木村清孝(1992), 정병삼 외 옮김, 「화엄교학의 대성」, 『중국화엄사상사』, 민족사, 2005 참조.

65) 『舊唐書』 卷6, 「本紀」 6, 則天皇后; 박광연, 「동아시아의 ‘王即佛’ 전통과 미륵불 공예」, 『사학연구』 110, 2013, 97쪽.

66) 남동신, 「의상 화엄사상의 역사적 이해」, 『역사와 현실』 20, 1996, 49~51쪽에서 이 견해를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67) 『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T50, 2054, 283c16~25), “神功元年 契丹拒命 出師討之. 特詔藏依經教遏寇虐 乃奏曰 若令摧伏怨敵 請約左道諸法. 詔從之. 法師盥浴更衣 建立十一面道場 置光音像. 行道始數日 羯虜觀王師無數神王之衆 或囑觀音之像浮空而至 犬羊之群相次逗撓. 月捷以聞 天后優詔勞之曰 城之外 兵士聞天鼓之聲 良鄉縣中 賊衆觀觀音之像. 酒流甘於陳塞 仙駕引轟於軍前 此神兵之掃除 蓋慈力之加被.”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장은 십일면관음도량을 개설하여 십일면관음상을 만들게 한 뒤 行道하였다. 행도란 불상, 법당, 탑 등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예불을 올리는 것으로, 법장이 십일면관음상을 돌면서 예불을 드리자 神王 무리들이 나타나고 관음상이 떠다니는 신이가 나타났다고 한다. 십일면관음도량에서 법장이 사용한 문헌[經教]은 6세기 후반 耶舍崛다가 한역한 『十一面光世音神呪經』이거나 阿地瞿다가 한역한 『다라니집경』 가운데 「십일면신주심경」이거나 현장이 한역한 『십일면신주심경』이었을 것이다. 십일면관음도량은 바로 밀교의례였다.

7세기 들어 다라니염송에 상 숭배가 도입되는 밀교의례의 형태가 나타났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일면관음도량이었다.<sup>68)</sup> 명량이 당군의 침입에 문무왕의 명령을 받아 사천왕사를 건립하고 문두루법을 시행하여 맞선 것처럼, 법장도 거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무축천의 명령을 받아 십일면관음상을 주조하고 십일면관음도량을 열었던 것이다. 무축천이 숭리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사찰인 光宅寺의 七寶臺에 703-704년 불상을 조성할 때 전체 32점 가운데 7점의 십일면관음상을 만들었는데, 이 칠보대에서도 행도를 행했을 것이라고 한다.<sup>69)</sup>

법장은 십일면관음도량뿐만 아니라 睿宗(재위 684-690, 710-712) 때 가뭄이 지속되자 “隨求即得大自在陀羅尼라는 경이 있는데, 만일 단을 곁하고 이 摠持語를 서사하여 용추에 던지면 반드시 잡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구즉득대다라니」를 활용한 작법을 행할 것을 권하였고, 실제 悟真寺의 龍池에서 작법을 행해 효험이 있었다고 한다.<sup>70)</sup> 이밖에도 법장은 687년 비를 청할 때, 695년 건양(겨울이 따뜻해지는 이변)을 바로 잡을 때, 708년에도 비를 청하면서 밀교의례를 행했고, 그때마다 영험이 있었다고 한다.<sup>71)</sup>

68) 최선아, 「주문, 상, 만다라: 밀교 의례의 전개과정」, 『인문과학연구논총』 37-4, 2016, 216쪽.

69) 배영진, 「장안 광택사 칠보대의 십일면관음상과 회파의례」, 『석당논총』 61, 2015, 272쪽.

70) 옥나영, 앞의 박사학위논문, 174쪽.

71) 木村清孝, 정병삼 외 옮김, 앞의 책 참조.



이상 법장의 사례를 통해 밀교문헌에 의거한 밀교의례를 주관하였다고 해서 밀교승이라 불리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 교단에서 활동하던 승려가 통치자의 요청으로 밀교의례를 시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는 법장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라의 중앙 교단에서 활동하던 명랑이 문무왕의 명을 받아 문두루비밀법을 행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명랑을 밀교승이라 단정해왔지만, 명랑의 정체성이 밀교에만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sup>72)</sup> 그는 신라 중앙 교단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위기 상황에 국가가 불교계에 기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7세기 중후반에 신라 사회에서 불법으로 적군을 물리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밀교의례를 행하였고, 그 의례가 효험이 있다고 신라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신라에 밀교를 본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고, 또한 8세기 전반에 신라에 밀교 문헌·도상·의례들이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 V. 맺음말

이에 채색 비단으로 절을 짓고, 풀로 오방신상을 만들고, 유가명승 12명과 명랑을 우두머리로 하여 문두루비밀법을 행하였다. 그때에 당과 신라의 군사가 싸우기도 전에 풍랑이 크게 일어 당나라의 배가 모두 물에 침몰하였다.<sup>73)</sup>

왕은 신인 대덕 명랑에게 명하여 임시로 밀단법을 개설하여 물리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는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sup>74)</sup>

7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논문에서 명랑을 밀교승, 신인종승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었던 근거는 『삼국유사』였다. 「신주」편에서 명랑을 왜 밀교, 신인종과 연관지은가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신인종을 다루면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다.

73) 『삼국유사』 권1, 「기이」2, 문호왕법민.

74) 『삼국유사』 권4, 「의해」5, 의상전교.

명랑은 용궁에 들어가 신인을 얻었다. 조사는 신유림에 절을 세워 자주 이웃 나라의 침입을 물리쳤다.<sup>75)</sup>

문무왕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 하다가 법사를 초청해 비법을 펼쳐 당을 물리쳤다.<sup>76)</sup>

『삼국유사』에 나오는 명랑 이야기의 주제는 명료하다. 명랑이 문두루법을 펼쳐 당을 물리침으로써 신라가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명랑은 이후로도 자주 이웃 나라의 침입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679년(문무왕19) 사천왕사가 완공된 후, 사천왕사는 왕경의 성전사원 가운데서도 위상이 가장 높은 사찰이 되었다. 신라하대 들어 황룡사가 최고 성전사원 자리를 대신하였다고 하지만, 사천왕사의 성전사원으로서의 기능은 9세기 후반까지도 지속되었던 듯하다. 낭혜화상이 입적한 후 890년 그의 문인인 昭玄大德 通賢이 진성왕에게 탑명을 요청할 때 사천왕사 상좌 慎符가 함께 하였다는 기록이 이를 보여준다.<sup>77)</sup> 경명왕(재위 917-924) 때 사천왕사 벽화의 개가 짓고 사천왕사 오방신상의 활줄이 끊어지는 신라 멸망의 징조가 나타났다고 한다.<sup>78)</sup> 이러한 이야기들도 황룡사와 더불어 사천왕사가 신라 말까지 여전히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이었음을 말해준다.

사천왕사가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천왕사의 창건을 주도한 명랑이 신라 사회가 불교계에 요구하는 바를 훌륭하게 완수하였기 때문이었다. 국가 존망의 위기 속에 명랑은 佛法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신라인들에게 심어 주었다. 사천왕사에서 행한 문두루법은 국가 주도로 행한 신라 최초의 밀교의례였지만, 의례 집행자인 명랑을 밀교승이라 규정할 필요는 없다. 7세기 중후반 동아시아에서

75) 『삼국유사』 권4, 「신주」6, 혜통황룡.

76) 『삼국유사』 권4, 「신주」6, 명랑신인.

77) 「聖住寺朗慧和尚塔碑」, “遂與門人昭玄大德釋通賢四天王寺上座釋慎符 議曰 師云亡君爲慟 奈何吾儕忍灰心木舌 缺緣飾在三之義乎 迺白黑相應 請贈諡暨銘塔.”

78) 『삼국유사』 권2, 「기이」2, 경명왕, “第五十四景明王代貞明五年戊寅 四天王寺壁畫狗鳴 說經三日壤之 大半日又鳴 七年庚辰二月 皇龍寺塔影倒立於今毛舍知家庭中一朔又十月四天王寺五方神弓絃皆絕 壁畫狗出走庭中還入壁中.”

밀교의례의 주관자가 밀교승에 한정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武則天의 요청을 받아 십일면관음도량을 개최한 범장은, 전공이 화엄이었다. 밀교의례의 주관자가 밀교승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밀교승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8세기 전반에도 신라에서 밀교의례를 행했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 이 논문은 2022년 11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三國遺事』 <https://db.history.go.kr/>  
『海東高僧傳』 <https://db.history.go.kr/>  
「聖住寺朗慧和尚塔碑」 <https://db.history.go.kr/>  
『大智度論』 (T25, 1509)  
『歷代三寶紀』 (T49, 2034)  
『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 (T50, 2054)  
『高僧傳』 (T50, 2059)  
『續高僧傳』 (T50, 2060)  
『宋高僧傳』 (T50, 2061)  
『廣弘明集』 (T52, 2103)

- 鎌田茂雄, 「隋唐の諸宗」, 『中國佛教史6-隋唐의 佛教(下)』, 東京大學出版會, 199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한국불교친술문헌총록』, 동국대출판부, 1976.  
藤善眞澄, 『道宣傳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2.  
呂建福, 『中國密教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木村清孝(1992), 정병삼 외 옮김, 『중국화엄사상사』, 민족사, 2005.  
石井公成, 최연식 옮김, 『동아시아 불교사』, 씨아이알, 2020.

- 강문호, 「부혁의 배불론과 당초의 불교정책」, 『신라문화』 30, 2007.  
고익진, 「불교사상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미친 영향」, 『동국대학교논문집』 12, 1973.  
고익진, 「신라밀교의 사상내용과 전개양상」, 『한국밀교사상연구』, 동국대출판부, 1986.  
김복순, 「『삼국유사』 ‘명랑신인’조의 구성과 신인종 성립의 문제」,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2, 2011.  
김상현, 「고려시대의 호국불교 연구-금광명경 신앙을 중심으로」, 『단국대학술논문총』 1, 1976.  
김상현, 「사천왕사의 창건과 의의」,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7, 1996.

- 김상현, 「7세기 후반 新羅佛敎의 正法治國論」, 『신라문화』 30, 2007.
- 김연민, 「신라 문무왕대 명랑의 밀교사상과 의미」, 『한국학논총』 30, 2008.
- 남동신, 「의상 화엄사상의 역사적 이해」, 『역사와 현실』 20, 1996.
- 남동신, 「고려 전기 금석문과 法相宗」, 『불교연구』 30, 2009.
- 渡辺章悟, 「大乘敎團のなぞ」, 『新アジア佛敎史02 インドⅡ-佛敎の形成と展開』, 佼成出版社, 2010.
- 심재관, 「인도-동남아시아의 해양 실크로드와 7-8세기 밀교의 확산」, 『아시아리뷰』 8-2(16), 2011.
- 문명대, 「신라 신인종 연구-신라밀교와 통일신라사회」, 『진단학보』 41, 1976.
- 박광연, 「의적의 『법화경집합기』 편찬 배경과 특징」, 『역사와 현실』 66, 2007.
- 박광연, 「동아시아의 ‘王卽佛’ 전통과 미륵불 궁예」, 『사학연구』 110, 2013.
- 박태화, 「신라 밀교 전래고」, 『불교사학논총:조명기박사화갑기념』, 동국대학교도서관, 1965.
- 배영진, 「장안 광택사 칠보대의 십일면관음상과 회과의례」, 『석당논총』 61, 2015.
- 오형근, 「신라 유식사상의 특성과 그 역사적 전개」, 『한국철학연구(상)』, 1978.
- 옥나영, 「신라시대 밀교경전의 유통과 그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윤선태, 「신라 중대 성전사원과 밀교」, 『선사와 고대』 44, 2015.
- 이승혜, 「구미학계의 중국 밀교 논쟁: 연구사적 조망」, 『불교학연구』 53, 2017.
- 장익, 「명랑의 문두루법과 진호국가밀교」, 『밀교학보』 16, 2015(a).
- 장익, 「인도 밀교의 형성과정」, 『한국불교학』 74, 2015(b).
-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對隋 외교와 請兵」, 『신라사학보』 52, 2021.
- 정병삼, 「『삼국유사』 신주편과 감통편의 이해」,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2, 2011.
- 陳昱珍, 「道世與『法苑珠林』」, 『中華佛學學報』 5, 1992.
- 차순철·최장미, 「2006년도 사천왕사지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의」, 『신라사학보』 8, 2006.
- 최선아, 「주문, 상, 만다라: 밀교 의례의 전개과정」, 『인문과학연구논총』 37-4, 2016.
- 최연식, 「백제 후기의 불교학의 전개과정」, 『불교학연구』 28, 2011.

## In the middle of the 7th century, the conductor of esoteric rituals in Silla

-Review of Myeongnang's identity-

Park, Kwang-yeon

The reason Sacheonwangsa Temple could become a representative temple of Silla was because the monks of the central religious order at the time, including Myeong-rang (明朝), brilliantly fulfilled what Silla society demanded of the Buddhist community.

In the crisis of national survival, Myeong-rang instilled in the Silla people the belief that they could defeat the enemy with the words of the Buddha. The esoteric rituals performed at Sacheonwangsa Temple was the first esoteric ritual of Silla, led by the state, but at that time, the person in charge of the esoteric ritual did not have to be an esoteric monk.

Since Esoteric Buddhism was introduced in earnest from India in the 7th century, the acceptance of Esoteric Buddhism was also active. New esoteric literature was frequently published, and esoteric rituals accompanied by Buddhist statues were also conducted.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person who supervised this esoteric ritual was not limited to esoteric monks. At the request of Wu Zetian, Fa Zang (法藏) who preached the Eleven-faced Avalokiteshvara ceremony, his major was Hwaeom.

The fact that esoteric rites are not limited to esoteric monks indirectly indicates that esoteric rites could have been performed in

Silla even in the first half of the 8th century, when the existence of esoteric monks was not confirmed.

**keywords :**

Esoteric Buddhism, Tantrism, esoteric ritual, mudrā, Sacheonwangsa Temple, Eleven-faced Avalokitêśvara ceremony, Myeong-rang





# 孤村 裴正徽의 삶과 문학론 연구

- <文說>을 중심으로 -

이 규 필\*

I. 들어가며
II. 家系와 生涯
1. 家系와 가학연원
2. 生涯와 官曆
III. 고촌의 著述 概探
1. 『고촌집』의 체제와 내용
2. 『逐日瑣錄』과 『逐日漫錄』
IV. <文說>과 孤村의 文學論
1. ‘以理爲主’의 문학론과 六經 중심의 秦漢 고문 지향
2. ‘文以達意’를 표방하는 意境과 天機의 창작론
V. 나가며

## 국문초록

孤村 裴正徽(1645~1709)는 성주군에서 태어나 현종과 숙종조에 걸쳐 관료의 삶을 살다 간 문인학자이다. 이유 없는 낙방과 수차례의 파직을 겪으면서도 右副承旨와 慶源府使에 올랐던 孤村의 官曆은 이 시기 영남 남인 관료의 영광과 좌절의 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성과 상징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문학적 감수성이 남달랐던 孤村은 시문 창작에도 뛰어났고, 문장에 관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담은 <文說>을 남겨 조선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부교수/ 1900908@knu.ac.kr

중후기 비평사에도 이채로운 족적을 남겼다.

‘以理爲主’를 표방하는 고촌의 達意論은 한강의 고장 영남의 선비답게 理氣論과 흡사한 형식을 이루고 있지만, 문장을 載道나 明理 또는 經世의 도구로 보는 사유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 또 미수의 영향을 받아 六經과 진한고문을 중시하고 있지만 文氣나 氣數 등 ‘氣’를 중시하는 여타 의고문과 계열의 인물들과 달리 理를 중시한다.

고촌의 경우 ‘達意’를 ‘작가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는데, 小技 또는 末藝 의식에서 벗어나 창작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한시 분야에 사용되던 意境과 天機 미학의 개념을 결합시켜 나름의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문학 이론을 정립하였다. 짧은 글에 이처럼 완결된 구성과 체계를 갖춘 문학 이론을 발표한 경우는 우리 문학사에서 그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독보적이고 놀라운 성취이다.

◆ 주제어

孤村 表正徽, 文說, 以理爲主, 達意論, 意境과 天機

## I. 들어가며

孤村 裴正徽(1645~1709)는 성주군 대가면 全仁마을(지금의 道南里)에서 태어나 현종과 숙종조에 걸쳐 관료의 삶을 살다 간 문인학자이다. 몇몇 단순 정보를 담은 듯 보이는 이 짧은 문장에는 그러나 고촌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실마리가 숨겨져 있다.

무엇보다 성주라는 지역은 낙동강을 따라 퇴계학과 남명학이 만나는 지역이자 寒岡 鄭述(1543~1620)라는 걸출한 학자를 배출해낸 이래 영남의 학문을 회통하고 주도해온 고장이다. 또 조선에서 인조23년(1645)에서 숙종35년(1709)이라는 이 시기는 17세기에서 18세기로 이행되는 일대 전환기이자 우리 역사와 지성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들(이탈테면 예송논쟁과 호락논쟁)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격화된 당쟁이 정점으로 치닫기 시작한 시기이도 하지만 동시에 후기 조선의 황금기인 영정조 시대의 학문적 문화적 맹아들을 싹틔우기도 한 양면의 얼굴을 가진 시기이다.

‘관료’라는 말의 의미도 만만찮다. 몇 차례의 換局이 연이어 일어났던 숙종조는, 어느 당의 입장에서나 그러하겠지만 영남남인의 처지와 상황에서도 정치적으로든 학문적으로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유 없는 낙방과 수차례의 파직을 겪으면서도 右副承旨와 慶源府使에 올랐던 고촌의 官曆은 이 시기 영남남인 관료의 영광과 좌절의 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한강의 고장 성주에서 태어나 근기남인의 영수 眉叟의 영향 아래 관직 생활을 했던 고촌은 방금 서술한 몇몇 국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연구 의의를 지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촌이 주목받아 마땅한 이유는 단순히 위에 열거한 몇 가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평생 관료의 삶을 살았던 고촌은 時務와 政治論에 대해 특유의 예리하고 선진적인 시각의 글들을 남겼으며, 학문과 관련해서도 기질의 변화를 주제로 주목을 요하는 논설을 남겼다. 이들은 거의 효종~숙종조에 걸치는 시기 조선 지성계의 經世觀과 시대의식 및 학문

적 논쟁의 주제들과 대단히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는 글들이다.

게다가 문학적 감수성도 남달랐던 고촌은 詩에도 뛰어나 다수의 수작을 남겨 『大東詩選』에 3편이 피선되었으며,<sup>1)</sup> 문장에 관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담은 <文說>을 남겨 조선 중후기 비평사에도 이채로운 족적을 남겼다.

상술한 여러 지점들은 1차적으로 고촌이라는 한 개인의 사상과 문학을 조명하기 위해서도 연구가 요청되지만, 17세기 영남 관료의 실상과 영남 문학사를 규명하기 위해, 나아가 17세기 조선 지성사와 문학론의 전개를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구가 필요하다. 그만큼 고촌이 남긴 글들은 중요하고 문제적이다.

다만 본고에서 이들을 모두 다루기는 어렵다. 본고가 고촌에 관한 첫 연구인만큼 우선 고촌의 삶과 사회적 관계망, 『고촌집』과 저술들 등 고촌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 정보를 간략히 제공하는 한편, 고촌의 글 가운데 문학비평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文說>을 조명하여 그의 문학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집의 여러 글 가운데 가장 먼저 <文說>을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글이 고촌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문설>의 분석은 1차적으로 고촌 문학론의 특성을 밝히는 작업이겠지만, 이 작업이 17세기 우리 문단에 전개된 문학론의 한 국면을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리라 기대한다.

---

1) 1918년 張志淵이 新文館에서 신활자로 출간한 『大東詩選』 권3, <禿魯江>, <高山里鎮>, <狄踰嶺>이 피선되어 실렸다.

## II. 家系와 生涯

### 1. 家系와 가학연원

고촌의 시조는 高麗壁上功臣 裴位俊이다. 그의 11세손이 折衝將軍 慶尙左水使 都萬戶로 청백리에 녹선된 裴締이다. 배치의 5세손이 書巖 裴德文(1525~1603)이며, 6세손이 임진왜란에 무공을 세운 西岡 裴楔(1551~1599)이다.<sup>2)</sup> 배설의 두 아들 藤庵 裴尙龍(1574~1655)과 愧齋 裴尙虎(1594~1632) 형제는 모두 학문과 문장에 뛰어나 각각 문집을 남겼다. 고촌은 괴재 배상호의 손자로, 선고는 裴世緯(1625~1686), 모부인 豐川盧氏는 盧諭의 따님이다.<sup>3)</sup>

고조부 서암 배덕문은 대가면 도남리 후포 뒷개마을에서 태어나 1553년 別科에 급제하였다. 成均館學諭, 注書 등을 거쳐 1561년부터 彦陽縣監, 漢城庶尹, 盈德郡守, 蔚山郡守, 古阜郡守 등을 역임했다. 普雨가 문정왕후의 신임을 얻어 국정을 농단하자, 귀향하여 書巖精舍를 짓고 독서에 전심하는 한편 寒岡 鄭述(1543~1620) 등과 교유하면서 강론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星州 탈환 및 수호에 큰 공을 세웠으며, 왜란이 끝난 후 司宰監正에 올랐다. 1610년 原從功臣에 추록되었고, 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書巖先生實記』가 전한다.<sup>4)</sup>

증조부 裴楔은 1583년 별시 무과에 급제하고 典牲署主簿를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우도방어사 趙傲(1541~1609)의 군관으로 南征하였다가 조경이 황간·추풍령 전투에서 패하자 항병을 규합,

2) 고촌의 上系는 『書巖先生實記』에 실린 <書巖公遺事>와 『藤庵集』에 실린 <世系圖>를 참고했다. 문친각본 『孤村集』에 실린 <世系圖>는 이와는 조금 다르다. 추후 정밀한 고증을 요한다.

3) 이 부분의 上係는 『孤村集』 卷6, <遺事> 참조.

4) 裴錫一, 『書巖先生實記』 下, <書巖公遺事>/ 배상룡, 『藤庵集』 卷3, <祖考行通訓大夫 司宰監正墓表> 참조. 『書巖先生實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藤庵集』은 안동국학진흥원(박미경)에서 2014년에 번역하였다.

왜적과 대항하였다. 합천군수, 부산첨사, 진주목사, 밀양부사를 거쳐 선산부사가 되어 金烏山城을 쌓았다. 1597년 다시 경상우수사가 되었다. 증손 裴碩徽가 지은 『家範』에 시조 2수가 전한다.<sup>5)</sup>

裴尙龍은 배설의 첫째 아들로 자가 子章, 호가 藤庵이다. 조부 서암에게 수업하여 11세부터 六經을 배웠다. 12세에 조부의 명으로 한강을 보였으며, 14에 향시에 합격하였다. 18세에 성주 초전에서 旅軒 張顯光(1554~1637)을-여헌의 처가가 초전의 冶城宋門이다-, 서울에서 認齋 崔暉을 보았다. 『藤庵集』에 한강과 여헌에게 올린 편지가 남아 있다. 한강에게는 특히 많은 영향을 받아 33세에는 무휼에서 한강을 모시고 『주자대전』을 강독하고, 35세에는 회연서원 강독회에 참여하였으며, 38세는 한강을 배행하여 山泉庵을 유람하였다. 蘆谷寓舍가 불타올 때에는 한강을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五先生禮說』를 교정했으며, 44세 되던 1617년에는 한강을 모시고 동래온천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 이런 일련의 종유에서 보고 배운 것을 <寒岡先生言行錄>으로 정리하였다. 등암은 眉叟 許穆(1595~1682)과도 인연이 깊어 미수에게 준 5편의 편지가 『등암집』에 실려 있다.<sup>6)</sup>

裴尙虎는 배설의 둘째 아들로 자가 季章, 호가 愧齋이다. 1624년 進士試에 합격하여 太學(성균관)에 유학하였으며, 이때 문명을 날리며 당대의 명사들과 교유하였다. 伯氏 배상룡과 함께 한강을 사사하여 학문을 성취하였다. 『愧齋集』 2책을 남긴바 서문을 柳疇睦이 썼다. 권1에는 <偶吟>를 비롯하여 시 12제 14수, <題詩壁間>을 비롯한 賦 4수, 書 2편(조카 世維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序 1편(送浪翁赴湖西幕序), 상량문 1편(檜淵書院상량문), <石湖二夫子>를 비롯한 表 5편, 策 3편(問造化, 問用兵, 問禮讓)이 실려있다. 권2, 권3, 권4는 부록 上·中·下이다. 권2(부

5) 배설의 생애와 활약상에 대해서는 『亂中雜錄』, 『燃藜室記述 宣祖朝 故事本末』,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등 참조.

6) 배상룡, 『藤庵集』 <藤庵先生年譜> 참조. 『藤庵集』의 경우 문집종간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문집 편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전종합DB 『藤庵集』의 <解題>를 참고할 수 있다.

록 상)에는 괴재의 遺事, 家狀, 行狀, 墓碣銘이 실려있다. 권3(부록 중)에는 祭文, 輓詞, 교유 인물들과 주고받은 贈答詩文이 실려있다. 권4(부록 하)에는 <諸賢記聞>, <家錄>, <道川書院奉安文>, <常享祝文>, <상량문>, <書院移建時告由文>, <書院重建記>가 실려있다.

誰知草澤狂歌裏  
虛老人間一世豪

누가 알아주라 초야에서 호탕한 노래 부르며  
인간 세상에 속절없이 늙어가는 일대 호걸을<sup>7)</sup>

위는 괴재가 읊은 七言絕句 <偶吟>의 轉結句인데, 짧은 두 줄에 드러나는 강렬한 氣像과 개탄이 젊은 날 품었던 그의 포부와 남다른 기개를 짐작케 한다.<sup>8)</sup>

정리하자면 고촌의 가학 연원은 세 가지 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절충장군 배치 裴絺, 고조부 書巖 裴德文과 증조부 西岡 裴楔 이래 家傳되어 내려오는 충정과 의리, 등암 배상룡과 괴재 배상호 이래 계속되어온 성주의 寒岡과 서울의 眉叟의 학문적 영향, 그리고 조부 괴재 이래 전해 온 문학적 재능과 기개이다. 이 셋은 고촌을 이해하는 꼭지점이다.

## 2. 生涯와 官曆<sup>9)</sup>

### 1) 생장과 유년 시절의 독서

고촌은 선고 裴世緯와 비위 西河 盧氏 사이에서 1645년 정월 4일에 星州 全仁里 世第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 골격이 빼어나고 목소리가 맑아 부친 배세위가 기대하였다고 전한다. 5세에 모부인 西河 盧氏의 상을 당했다.

고촌이 글을 처음 배운 것은 당시 아동 교육이 시작되던 7세 무렵인

7) 배상호, 『槐齋集』 卷1, <偶吟>.

8) 배상호, 『槐齋集』 참조. 『槐齋集』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9) 이 부분은 대체로 『孤村集』에 실린 <遺事>와 <行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특정한 발언이나 작품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따로 원문을 밝히지 않는다.

마, 伯祖父 藤庵 裴尙龍(1574~1655)께 나아가 『資治通鑑』, 『漢書』, 『史記』 등을 수학하였다. 이중 『資治通鑑』을 읽을 때, 석 달이 지나 등암이 외위보라고 명하자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 등암이 “漢儒 가운데 누가 가장 훌륭하나.” 묻자 고촌은 곧바로 董仲舒라고 대답하였다. 그 이유를 물어보자 어린 고촌은 “義를 바로잡을 뿐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道를 밝힐 뿐 功을 생각지 않는다.”는 동중서의 말을 인용하며 ‘이것이 유자의 말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깜짝 놀란 등암은 집안을 일으킬 재목으로 고촌을 지목하였다고 한다.<sup>10)</sup>

8세에 이미 筆法이 좋다고 평가받았다. 이에 고을 어른 30인이 산수를 유람하고 돌아와 <同遊錄>을 기록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어린 고촌은 묻지 않고도 同遊에 참여한 어른들의 生年(나이)과 이름, 字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차례대로 쓰니 좌중의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겼다고 한다.<sup>11)</sup>

## 2) 科文 수련과 學問 연마

9세 이후 10여 년간의 행적은 소상하지 않다. <遺事>에는 “10세에 性理의 학문에 뜻을 두었다.”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 판단되며, 아무래도 이 시기에 고촌이 가장 마음을 썼던 일은 科文 연마라고 해야 함당한 추론일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遺事>에는 ‘과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眞儒를 볼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였다’는 고촌의 진술을 실어놓았는데,<sup>12)</sup> 이 진술은 오히려 이 시기의 고촌이 科文 연마에 얼마나 매진하고 있었는지를 반대로 시사하는 증거라고 보인다. 과거 공부로의 매진이 오히려 참된 공부에 대한 고민과 같

10) 裴正徽, 『孤村集』 卷6, <遺事>, “先生問曰, 汝知漢儒孰最賢? 對曰董仲舒其人也. 先生曰何以知之? 曰正其義不謀其利, 明其道不計其功, 是儒者之言. 以是知之. 先生大加稱歎曰, 異日大吾門者, 必此兒也.”

11) 裴正徽, 『孤村集』 卷6, <遺事>, “八歲而筆法頗妙. 鄉長老三十餘員, 遊山水, 歸路由全仁, 使公寫同遊錄. 公承命執筆, 不問年歲, 名字隨次書之, 一座異之.”

12) 裴正徽, 『孤村集』 卷6, <遺事>, “痛俗士之紛競, 慨眞儒之不見.”



망을 한층 강렬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다만 22세 정월 초하루에 <元朝五箴> 곧 <志道箴>, <自新箴>, <主一箴>, <爲己箴>, <立懦箴>을 지었다거나, 또 持敬 공부에 집중하였다는 기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3)</sup> 고촌이 지은 다섯 편의 箴은 晦齋 李彦迪의 <元朝五箴>을 본 따 지은 것이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성리학적 색채가 농후하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고촌이 10대부터 성리학에 침잠하여 깊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文面 그대로 믿기는 어렵겠지만, 진지한 관심과 노력지 않은 성취가 있었음도 분명한 사실로 추측된다.

20대 이후로도 고촌은 과거 공부에 정진하는 한편 성리학에 끈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2세 가을 과거에 낙방한 뒤 상경하여 남대문 밖에 거처를 정하고 삼각산 아래를 오가며 공부할 때, 名利에 골몰할까 두려워 <惺惺箴>을 지은 일이 있다.<sup>14)</sup> 여기에서도 당시 고촌의 공부가 과문 연마에 그 중심이 있었지만, 성리학 공부를 통해 출세욕과 영예욕을 다스리고 있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공부는 결실을 보아 25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그 무렵 경기도 연천에 있던 미수 허목을 찾아뵈었다. 고촌이 미수를 찾아간 것은 미수가 한강의 제자이자 백조부 등암과 교분이 있던 사이였기 때문일 터인데, 성주에서 나고 자란 고촌이 秦漢古文을 중시하는 近畿南人系와 상당히 흡사한 문학을 제출한 것은 미수에게 받은 영향이라 생각된다.

이어 27세 되던 1671년에 庭試에서 합격했으나 主試官에게 미움을 받아 罷榜되었다. 하지만 가을에 三場에서 연이어 장원하는 쾌거를 이루었다.<sup>15)</sup>

13) 裴正徽, 『孤村集』 卷6, <遺事>, “公年二十二歲, 於是求道之志, 作元朝五箴以自警.”

14) 裴正徽, 『孤村集』 卷6, <遺事>, “及遊漢中, 懼其奔波於紛華, 沮喪於名利, 又作惺惺箴.”

15) 『문과방목』에는 1673년(현종14) 식년시에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을과 7위’로 기재되어 있어 <유사>나 <행장>의 기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고촌의 문과 합격과 파방, 최종 합격 시기 및 등위와 관련한 전말에 대해서는 추후의 고찰을 요한다.

### 3) 환로에서의 시련과 성취

고촌은 29세(현종14)에 승정원 注書에 임명되고, 이듬해 외직으로 남원 鰲樹丞에 除授되었다.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32세에 奉常寺 奉事, 成均館 學諭, 성균관 典籍 兼 東學教授를 거쳐 禮曹佐郎 兼 春秋館記事官 등을 거쳤다. 33세에 다시 외직 茂長 縣監으로 나가 학교를 세워 인재를 육성하였다. 이내 내직으로 들어와 司諫院 正言에 제수되었는데, 당시 직언을 잘하기로 이름나 ‘殿上虎’로 일컬어졌다. 이후로도 환로에서 역량을 드러내어 34세에 持平, 禮曹佐郎, 兵曹正郎, 弘文館 應教 등의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 무렵 고촌에게 처음 시련이 찾아온다. 1679년(숙종5) 거제도도 좌천된 것이다. 禮訟論爭에서 미수를 지지하다 서인파 숙종의 미움을 산 것이 빌미가 되었다.<sup>16)</sup> 이후로도 이 일은 꽤 고촌을 괴롭혀 1680년에는 암행어사가 고촌을 誣告하여 파직시키려 시도하였고, 결국 黃澗으로 좌천되었다.

1683년, 마침내 고촌은 잠시 관직에서 물러나기로 하고 성주 印懸山 남쪽 자락에 은거하였다. 골짜기 이름을 性巖으로 바꾸고 性巖精舍를 지어 학문에 정진하였다. 나이 39세, 고촌의 1차 사환은 이렇게 막을 내린다.

전리로 돌아온 뒤 42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44세까지 거상하고 45세가 되던 해까지 고촌은 고향에서 자제들과 경서를 통독하고 강의하며 『性理問答』 1권을 완성하였다. 그 목차는 ‘爲學次第’, ‘立志先後’, ‘收心持敬’, ‘動靜存察’, ‘道義性理’ 등의 조목이었다.<sup>17)</sup> 또 1688년(44세) 3월 13일 상주로 가는 길에 <化氣質說>을 지었다.

잠깐의 은거기를 지나 45세에 기사환국(1689)을 맞아 고촌은 다시 조정에 나아갔다. 처음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을 때 고촌은 완강히 사양

16) <遺事>에서는 고촌을 ‘己未四臣’이라 하고 있지만, 나이와 영향력 등을 비롯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고촌이 淸南을 대표하는 四臣이 되기는 어려울 듯하고, 청남 四臣이 유배될 때 좌천되어 귀양간 것으로 보인다.

17) 裵正徽, 『孤村集』 卷6, <遺事>, “公纔經巨創, 無意宦遊, 與鄉子弟, 通讀講義, 作性理問答一卷. 其目有爲學次第, 立志先後, 收心持敬, 動靜存察, 道義性理等條.”

하였다. 하지만 결국 상경하였는데, 당시 葛庵 李玄逸(1627~1704)이 대 사헌으로 있었던 점도 그 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이해 겨울 인현왕후 폐위 사건에 반대하다가 綾州牧使로 좌천되었다.

1690년 46세에 밀양박씨의 상을 당했다. 거상 중인 1691년에 사간원 정언에 제수한다는 명이 내려와 <辭正言疏>를 지어 사양하였고, 이듬해 1692년 48세에 사헌부를 잠시 거쳐 다시 江界府使로 나갔다. 이어 49세 되던 1693년에 義州府尹에 제수되었으며, 50세에 同副承旨에 올랐다. 그러던 중 1694년 갑술환국을 만나 富寧으로 유배되었다. 당시 유배지에서 4년을 보내는 동안 일체 문밖 출입이 없었다고 전한다. 고촌의 2차 사환은 여기서 끝을 맺는다.

1697년 53세에 고촌은 해배되어 향리로 돌아왔다. 이 시기에는 아침 저녁로 가묘에 배알하고 초하루보름으로 茶祀를 거행하며 農桑을 권장하고 아동을 교육하였다. 또 후학 장려를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 후학 양성에 전념하는 한편 會老堂에서 향약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풍속을 크게 진작시켜 범 죄 없는 고장을 만들었는데,<sup>18)</sup> 그 진말이 <會老堂記>에 정리되어 갈무리져 있다. 그리고 성주의 향리에서 지속적으로 淸南의 의리를 유지하며 <嶺儒辛巳疏>, <請止兩臣建院疏>, <嶺儒乙卯疏> 등을 지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며 노론의 권력독점과 전횡을 막으려 노력했다. 62세 되던 1706년에 가천의 孤村으로 거처를 옮기고 自號를 孤村老人이라 하였다. 또 園內에 정자를 짓고 ‘式好亭’이라 편액하고, <式好亭記>를 지었다.<sup>19)</sup>

62세 12월에 慶源府使로 부임하였고, 64세 되던 1708년 여름 부인 興陽李氏가 세상을 떠나 사직하고 돌아오다 학질에 걸려 이듬해 1709년 2월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4월 초8일에 指南洞 子坐原 선고 참

18) 裴正徽, 『孤村集』 卷6, <遺事>, “丁丑有還. 公居家, 晨昏拜家廟, 朔望行茶祀, 勸農桑課兒童. 時值春和景明, 則以竹杖芒鞋, 徜徉於佳山麗水之間, 與田翁牧叟, 娓娓終日. 以獎進後學爲己任, 與鄉人修鄉約於會老堂, 勸善懲惡. 於是鄉風大振, 無有犯科者.”  
19) 裴正徽, 『孤村集』 卷6, <遺事>, “丙戌, 移卜伽川之孤村, 自號曰孤村老人. 又築亭於園內, 扁其軒曰式好亭.”

관공의 묘소 아래에 안장하였다.

고촌은 영남 남인으로서 근기의 淸南 계열과 맞닿아 있어 그 관력의 영욕과 정치적 좌표가 淸南 계열의 성쇠와 거의 일치한다. 태생적으로 학문은 성주의 한강 학문에 바탕을 두었고, 관직에 진출한 이래로는 경기의 미수 학문과 정치적 입장을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또 환로에서 만난 안동의 葛庵에게 학문적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은바, 인현왕후 폐위를 반대한 것이나 갑술환국에 유배된 것이나 그 입장과 궤적에서 갈암과도 겹치는 지점이 적지 않다. 요컨대 고촌의 생애와 관력은 현종에서 숙종조에 걸친 남인 계열 인사들의 연대 양상과 부침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 Ⅲ. 고촌의 著述 概探

#### 1. 『고촌집』의 체제와 내용

『고촌집』은 2종이 있다. 하나는 5卷 2冊本(경상대 문천각본)이고, 하나는 6卷 3冊本(국립중앙도서관본)이다. 문천각본은 출판 경위를 알 수 없고, 국중본은 1940년 대구 비산동 144번지에서 李光魯에 의해 石印本으로 간행되었다.

5卷 2冊(경상대 문천각본): 13행 22자, 花紋魚尾, 石印本, 간사지 및 연대미상<sup>20)</sup>

6卷 3冊(국립중앙도서관본): 10행 22자, 花紋魚尾, 石印本, 대구시, 1940년

문천각본과 국중본은 몇 가지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천각본은 序文이楷書로 되어 있고, 국중본은 行書가 섞인 草書로 되어 있다. 문천각본은 <檀君朝裴氏得姓上系>와 <星州裴氏世系圖> 및 목차가 실려 있고,

20) 다만 발문이 작성된 시기 등을 근거로 1902~3년 무렵에 간행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국중본은 <上系>와 <世系圖>가 빠진 채 목차만 실려있다. 내용 차이는 거의 없고, 다만 시 <和主令獻贈韻> 1편이 국중본에서 추가된 정도이다. 문천각본은 책의 맨 말미에 李義國과 방후손 裴圭煥이 1902년(壬寅) 7월에 쓴 발문이 있고, 국중본은 裴圭煥의 발문 대신 8세손 裴貞煥의 발문으로 교체되어 있다.

1902년에 작성된 배규환의 발문을 보면 裴相文의 주도로 수년간 족보와 소목을 정리하고 詩文을 수습 편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胄孫 裴道煥이 간행을 주도하여 처음에 5卷 2冊으로 成書한 것으로 판단된다.<sup>21)</sup> 그 후 30여 년이 지난 뒤 새로이 간행사업을 기획하여 <上系>와 <世系圖>를 빼고 권1의 47면에 앞의 <和主令獻贈韻>을 추가하여 삽입하는 한편, 권1을 두 권으로 분권하였다. 그리고 말미에 배규환의 발문 대신 배정환의 발문을 실어 6권 3책으로 成書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5권 2책의 문천각본은 제일 앞에 楷書로 된 許傳의 序文, <檀君朝裴氏得姓上系>, <星州裴氏世系圖>, 목차가 실려 있고, 권1에 詩 181제 255수· 輓詞 52제 59수, 제2권에 賦 2편· 疏 10편· 書 8편· 雜著 32조, 제3권에 上梁文 2편· 序 7편· 跋 4편· 記 4편· 箴 6편· 說 5편· 辨 2편· 祝文 9편, 제4권에 祭文 16편· 墓碣銘 6편· 傳 2편· 通文 2편· 行狀 6편, 제5권에 부록 99편(만사 85편· 제문 11편· 유사 1편· 행장 1편· 묘갈명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책(214면)에는 序文, 上系, 世系圖, 목차, 권1, 권2가 묶여 있고, 2책(200면)에는 권3, 권4, 권5가 묶여 있다.

6권 3책의 국중본은 제일 앞에 草書로 된 許傳의 序文, 목차가 실려 있고, 제1권에 詩 98제 155수, 권2에 詩 84제 106수가 실리고, 권3부터는 卷數만 다를 뿐 작품 편차는 같다. 말미에 이의국과 배정환의 발문 2편이 실려 있다. 1책(175면)에는 권1과 2가, 2책(176면)에는 권3과 4가, 3책(177면)에는 권5와 6, 그리고 발문이 묶여 있다.

21) 裴圭煥, 『孤村集』(문천각본) 卷5, <跋文>, “族叔相文氏, 爲是之懼, 汲汲於先事者, 蓋亦有年. 修譜而分其子姓, 序其昭穆, 使宗族翕然敦睦. 且與胄孫道煥, 謀刊先集事.”

## 2. 『逐日瑣錄』과 『逐日漫錄』

고촌이 기록한 日錄은 2종이 있다. 이중 『逐日瑣錄』은 己巳換局 시기 관직에 있을 때의 일록이고, 『逐日漫錄』은 만년에 고향 성주로 돌아와 있을 때의 日錄이다. 2종 모두 필사본이며, 고촌의 친필본으로 추정된다.

『逐日瑣錄』: 불분권 1권, 평균 12행 25자, 134면, 필사본

『逐日漫錄』: 불분권 1권, 평균 11행 20자, 252면, 필사본

『逐日瑣錄』은 충남 논산 강경 가지말의 향토사학자 鵲村 趙炳喜(1910~2005)가 1985년에 전주 중앙동의 골동품상 李順基 씨에게 구입한 것인데, 조병희 역시 고촌의 친필본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사환국이 일어나던 1689년 9월 14일부터 1697년 7월 17일까지 관직 생활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97면에는 1659년 大造殿에서 효종이 승하한 것과 관련한 기록이 있다. 이는 당시 예송논쟁과 봉당정국 등과 관련하여 남인의 시각을 이해하는 중요한 史料가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逐日漫錄』은 현재 선생의 종손(배영호)이 소장하고 있다. 고촌이 관직에서 물러나 전리에서 학문과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이던 1702년부터 1705년 12월 28일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 시기에 만난 영남의 인사들 및 그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 고촌은 예송논쟁과 관련하여 李端夏가 쓴 현종의 행장 일부분을 고칠 것과 관련하여 영남유생을 대표하여 상소한 일이 있다.<sup>22)</sup>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남인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주요 정보들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요컨대 『逐日瑣錄』과 『逐日漫錄』은 고촌이 관직생활을 할 때와 물러나 전원에 은거할 때 남긴 일상의 기록이다. 여기에는 남인 인사들의 관계망이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당시 조정과 학문에 관한 남인의 시

---

22) 1705년에 진사 朴鳳祥을 대신해 작성한 <嶺儒疏>를 말한다. 문천각본 권2에 실려있다.

각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는바, 고촌 개인사는 물론 영남지성사와 17세기 한국 봉당사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매우 귀한 史料라고 할 수 있다.

#### IV. <文說>과 孤村의 文學論

고촌은 영남 남인계 지식인 중에서는 유례가 드물게 문장에 관한 전문적 담론 <文說>을 남겼다. 유교 사회에서 문장은 오랫동안 小技로 인식되었고, 더구나 북송의 程子 형제가 문장이 도학 공부의 의지에 방해가 된다<sup>23)</sup>고 언명한 이래 문장 탐닉에 대한 경계는 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조선 지성계의 기본적인 인식이고 일종의 문화였다. 서울과 기호의 지식인들이 문학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긍정하여 전문적 담론을 발표하기 시작할 때에도 영남 지성계에서는 문장에 대한 경계가 심한 편이었고, 제목에 문학론을 표방하고 전문적인 이론을 남긴 경우는 많지 않았다.<sup>24)</sup> 이런 상황에서 고촌의 <문설>은 그야말로 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고촌의 <문설>은 上下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편은 572자, 하편은 596자이다. 장편의 문장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문학론에 해당하는 글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도 꼭 짧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이중 상편은 문학론에 대한 고촌의 본질적 사유를 기록한 글이다. ‘문장은 理致를 위주로 한다’는 대전제를 정리한 문학론, 곧 고촌 문학론의 원론이다. 하편은 이 원론을 바탕으로 한 창작론이다.

23) 『近思錄』卷2, <爲學>, “問作文害道否? 曰: 害也. 凡爲文, 不專意則不工, 若專意則志局於此. 又安能與天地同其大也? 書曰: 玩物喪志, 爲文亦玩物也.”/『近思錄』卷11, <教學>, “明道先生曰, 憂子弟之輕俊者, 只教以經學念書, 不得令作文字. 子弟凡百嗜好皆奪志, 至於書札, 於儒者事最近, 然一向好著, 亦自喪志.”

24) 序文과 편지 등에 문학적 견해를 드러낸 경우는 매우 많지만 제목에 문학론을 표방하여 전문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정리한 글은 실상 그리 많지 않았으며, 영남에서는 더욱 드물어 여헌 장현광 1인을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 1. ‘以理爲主’의 문학과 六經 중심의 秦漢 고문 지향

상술했듯 상편은 고촌 문학론의 원론이다. 이 가운데도 다시 전반부는 문학의 정의와 성격을 밝힌 원론의 원론이라고 할 수 있고, 후반부는 이 원론을 바탕으로 고문 지향의 성격과 독서론을 논한 학습론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고촌 문학론의 원론부터 살펴보자면 ‘文以理爲主’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理를 중시하는 논리이다. 이에 관한 고촌의 견해를 먼저 들어보기로 한다.

문장은 理를 위주로 하니, 理가 명징하면 문장이 공교하다. 천지간에 가득한 것은 理가 아님이 없다. …(중략)… 영고성쇠를 반복하는 정치적 변화와 회로애락이 교차하는 감정적 기복이 천만 가지로 다르지만 본체는 理이고 작용은 氣이다. 이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며 시각이나 청각으로 느낀다. 하여 외물에 영향을 받아 마음이 감동하고, 意로 발현되어 문장으로 펼쳐진다. 이것이 문장이 理에 뿌리를 두는 이유이다.<sup>25)</sup>

국운의 성쇠와 政局의 상황 변화, 또는 개인적인 감정의 변화 같은 것들은 모두 氣의 작용이지만 그 所以然을 이루는 본체는 理이다. 시각과 청각으로 세상의 현상을 접하고 그로 인해 내면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언어로 펼쳐내는 것이 문학이지만 그 근본은 어디까지나 理라는 것이 고촌 문학론의 출발이다.

고촌의 문학론은 종래의 道文論의 사유를 理氣論의 논리 형태로 변환시킨 것이다. ‘理가 명징하면 문장이 공교하다’는 선언도 그러한 사유의 결과이다. 이 원론은 근원적으로 다음 두 가지 화두를 안고 있다. 하나는 그 理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理를 어떤 언어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

25) 裴正徽, 『孤村集』 권3, <文說>, “文以理爲主, 理明而文工矣, 盈天地間者, 莫非理也. …… 治亂興亡之相代而相嬗也, 悲懼愕怡送遭而迭遷也, 雖萬不齊, 而理爲之體, 而氣爲之用焉. 人之處乎其間者, 有感乎見, 有觸乎聞, 接於外而動於中, 發乎意而宣乎文, 此文之所以本乎理也.”



해답을 고촌은 經傳과 諸子書 및 역대 史書에서 찾고 있다.

理는 알기 어렵고 밝히기 어렵다. 때문에 성인이 理를 六經에 실어놓았다. … (중략)… 諸子書와 歷代 史書에 이르기까지 전아하여 준칙이 있으며, 가지런하여 법도가 있으며, 준정하여 거만하지 않으며, 진실하여 속되지 않으며, 화려하여 부화하지 않은 글들은 또한 理를 근본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sup>26)</sup>

氣의 작용으로 발현되는 인간과 자연의 현상은 그 양태가 너무나 다양하기에 理는 알기도 어렵고 규명하기도 어렵다. 성인이 六經을 지은 것은 그러한 理를 밝혀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고촌은 말한다. 고촌의 생각대로라면 선비에게 六經은 필독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촌의 공부론 또는 독서론이기도 한데, 이 육경을 바탕으로 하여 글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므로 결국 고촌의 ‘고문학습론’이다.

고문 학습에서 六經과 함께 읽어야 할 책이 諸子書와 歷代 史書이다. 이들은 모두 理를 근본으로 하여 법도와 진실함을 간직하고 있는 글들이다. 고촌이 六經과 秦漢 고문을 지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文辭를 닦아 작가의 궤범에 맞게 하여 후세 천만 학자의 이목을 밝게 띄워주려면 반드시 六經에 근거하여 뿌리를 두고 百家를 채집하여 참고해야 한다. …(중략)… 理가 명징하면 意가 화창하고, 意가 화창하면 문장이 활달하다. …(중략)… 아, 문장이 공교하기를 바란다면 어찌 理에서 찾지 않을 수 있겠는가. 理가 명징하기를 바란다면 어찌 성현의 경전에서 찾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27)</sup>

육경을 중심으로 진한 고문을 지향한다는 고촌의 ‘以理爲主論’의 결론부이다. 전반부에서 ‘理가 명징하면 문장이 공교하다.’라고 선언한 이유

26) 裴正徽, 『孤村集』 권3, <文說>, “理難知也, 難明也, 聖人以是理而載諸六經. …… 以至諸子之編歷代之史, 典而有則, 行而有法, 律而不媮, 婉而不淫, 實而不俚, 華而不浮者, 亦莫不以理爲之本焉.”

27) 裴正徽, 『孤村集』 권3, <文說>, “如欲修辭而合乎作者之軌, 照映乎將來千萬世之耳目, 則必須根據六經以本焉, 採別百家以參焉. … 理明而意暢, 意暢而文達. … 嗚呼, 欲文之工, 盍求諸理, 欲理之明, 盍求諸聖經賢傳哉?”

에 대해 ‘리가 명징하면 意가 화창하고, 意가 화창하면 문장이 활달하다’고 그 단계를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 이어 ‘리가 명징하기를 바란다면 성현의 경전에서 찾아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마지막에 ‘성현이 이치를 밝혀 담아놓은 글이 六經이기 때문에 작가의 궤범에 맞게 문장을 지으려면 육경을 중심으로 백가를 학습해야 한다.’라고 총결하였다. 정연한 삼단논법이다. 창작을 위한 前段階 곧 고문학습에 관한 이론까지만 다룬 상편은 이렇게 완결된다.

상편에서 주장하는 문학론은 17세기 조선 문단의 비평사적 흐름 속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六經과 諸子書, 그리고 兩漢의 史書를 중시하는 고촌의 논리는 秦漢古文派의 논리와 유사하다. 진한고문을 지향하는 의고문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은 月汀 尹根壽(1537~1616)에 의해서이고, 이후 象村 申欽(1566~1628), 芝峯 李暉光(1563~1628), 浦渚 趙翼(1579~1655)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이 의고문의 정착에 기여하였다.<sup>28)</sup> 한편 육경고문을 지향하는 가장 큰 움직임의 하나가 17세기초 眉叟 許穆(1595~1682)을 비롯한 近畿南人系 문인들에 의해 주도되기도 했다.<sup>29)</sup> 이런 측면에서 17세기 문단의 흐름 및 眉叟와의 관계 속에서 고촌 문학론의 특성을 얼마간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점이 있다. 학파를 막론하고 육경 중심의 선진고문을 강조하는 문인들은 대체로 몇 가지 공통점을 보인다. 첫째는 ‘육경’이나 ‘선진’이라는 말에서 예상되듯이 尙古主義的 경향성을 띤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고주의는 막연히 ‘시대상의 옛’을 지향하는 古董 취향의 ‘好古’가 아니다. ‘주자학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眉叟에서 茶山으로 이어지는 근기남인계의 상고주의는 이러한 특성이 짙

---

28) 이에 대해서는 강명관, 「16세기 말 17세기 초 의고문과 수용과 진한고문파의 성립」, 『한국한문학회』 18, 한국한문학회, 1995; 강명관, 「16세기 말 17세기 초 진한고문파의 산문비평론」, 『대동문화연구』 41, 대동문화연구원, 2002; 하지영, 「18세기 진한고문론의 전개와 실현양상」, 이화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참조.

29) 眉叟를 중심으로 한 근기남인의 선진양한산문 추구는 송혁기, 「17세기 말~ 18세기 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하지영, 「18세기 진한고문론의 전개와 실현양상」,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4 참조.

다. 이를 선행연구들에서는 흔히 ‘성리학적 세계관’ 혹은 ‘제도론적 문학관’에서의 일탈이나 분리 또는 주자학에 대한 상대화 등으로 특징 지운다.<sup>30)</sup>

둘째는 문장학적 측면에서 선진고문의 ‘古氣’에 관심이 있다. ‘古氣’란 선진고문의 ‘簡奧하고 古勁한 문체’를 뜻한다. 청음 김상헌은 조선 문장에 대해 春亭 卞季良 이래 모두 唐宋고문을 추수하였다고 하며 그것을 館閣體라 지목하고 ‘軟美’하다고 평한바 있다.<sup>31)</sup> 또 柳夢寅은 구양수의 문장을 두고 ‘평이하여 深味가 없어[弛緩無深味]’ ‘처음 읽자마자 따분하더니 입을 때마다 하품이 나고 졸음이 쏟아진다’고 혹평하였다.<sup>32)</sup> 이 ‘軟美’ 혹은 ‘弛緩’이라는 평어는 저 ‘簡奧’나 ‘古勁’과는 매우 이질적이다. 당송고문이 法과 典範 곧 ‘격식’을 지향하며 이른바 文從字順라고 일컬어지는 평담한 문체를 지향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평어이다. 말하자면 진한고문파의 논리는 자유롭고 개성 넘치며 고풍스러운 기상의 문체를 추구하는 문학론이다.

따라서 ‘古氣’에 관심이 있는 진한고문파 문학론의 핵심은 ‘文體’ 곧 ‘氣’에 있다. 진한고문파의 문장론에 ‘簡易’, ‘奇絶’, ‘古氣’, ‘文氣’, ‘養氣’, ‘修辭’, ‘綴辭’ 등의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모두 ‘文體’와 ‘氣’를 중시하는 논리 곧 ‘以氣爲主’의 논리이다.

상술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고촌의 논리는 독특하다. <文說> 상편에서 밝힌바 문장의 전범을 육경과 제자서 및 兩漢의 史書에 두고 있는 것은 진한고문파의 논리와 통한다. 그러나 ‘문장은 이치를 위주로 한다’는 ‘以理爲主’의 대전제는 ‘以氣爲主’의 의고문파의 논리와 상반된다. 전술했듯 성리학의 載道論을 넘어 주자학의 理氣論의 사유와 논리에 가깝다. 고촌이 도달하고자 상정한 이상적 문체도 진한고문파의 ‘簡易·奇絶

30) 앞의 주에 소개한 선행연구들의 주장이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31) 金尙憲, 『月汀集』 부록. <月汀先生集跋>, “竊概我朝文苑, 自卞春亭以下, 率皆規唐漢宋, 樂習軟美, 號爲館閣體, 顧於古文辭, 大有徑庭.”

32) 柳夢寅, 『於于集』 卷4, <答崔評事有海書>, “余樂之, 力求諸中朝, 得本集熟觀之, 其文弛緩無深味. 一讀之, 便令人厭, 每見其書, 輒伸欠而思睡矣.”

·古氣’ 등과는 다른 ‘文從字順’ 곧 韓歐 고문론의 논리와 닿아있다.<sup>33)</sup>

고촌의 문학론에는 진한고문파, 당송고문파, 성리학파의 문학론이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다. 이는 이들 세 유파의 문장이 지닌 장단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장점을 취하기 위한 고민에서 얻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에 없던 참신한 논리이다. 재미있게도 이와 유사한 논리가 한층 발전하여 다듬어진 예를 18세기 근기 남인 海左 丁範祖(1723~1801)의 문학론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다.

천지의 理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心이고, 천지의 精華가 심에 있는 것이 文이다. …(중략)… 따라서 문장의 得失은 理의 明暗에 있다. …(중략)… 三代之 文은 理가 문장으로 드러난 것이다. 漢唐의 文은 문장을 잘 지어 理를 담았으나 理가 온전치 않고, 宋의 文은 理를 중시하여 문장을 지었으나 문장이 理를 담지 못했다. …(중략)… 문장으로 담지 못하는 理야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理가 없는 문장은 보지 못했다. 理가 온전치 않은 문장이야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문장이 없는 理는 보지 못했다. …(중략)… 理를 주로 하여 문장을 완성하면 삼대의 문장인들 무에 불가능하다고 漢·唐·宋을 云爲하는가.<sup>34)</sup>

海左 역시 石北 申光洙와 함께 眉叟의 先秦古文 지향을 계승한 인물로 그 고문론의 전반은 대체로 진한고문파의 주장과 같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六經을 중심으로 理를 유난히 중시했다는 것인데, 바로 고촌의 논리와 상통하는 지점이다.<sup>35)</sup> 이런 측면에서도 17세기 고문론의 전개와 남인 문단의 흐름에서 고촌의 문학론은 보다 면밀한 탐토가 필요하다.

33) 고촌은 이를 <文說>에서 ‘言從字順’이라 표현하였다.

34) 丁範祖, 『海左集』 권38, <原文>, “天地之理, 在人爲心, 天地之精, 在心爲文. …… 故文之得失, 理之明晦. …… 三代之文, 理而文者也; 漢唐之文, 文而理者也, 而理不勝也; 宋之文, 理而文者也, 而文不及也. …… 文不及之理存焉可也, 吾未見無理之文也; 理不勝之文存焉似也, 吾未見無文之理也. …… 主理而成文, 則奚三代之弗能而漢·唐·宋云也.”

35) 다만 海左는 ‘理’를 중시하는 문학론을 펴면서도 동시에 ‘氣數’를 중시하였다. 고촌은 시대에 따라 文氣가 쇠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런 지점에서 고촌과 해좌는 그 사유의 바탕과 논리가 다르다. 海左 丁範祖의 문학론은 이규필, 『海左 丁範祖의 文學論과 散文世界』,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년 참조.

## 2. ‘文以達意’를 표방하는 意境과 天機의 창작론

<문설> 하편은 고촌의 ‘古文創作論’이다. ‘文以達意’라고 요약되는 이 창작론은 상편의 ‘意暢而文達’라는 언급을 역으로 전개한 논리이다. 구성은 意境과 그 附論인 天機에 관한 담론이다. 그중 의경에 관한 부분도 개념을 설명한 원론과 실제 작법론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 먼저 의경 담론의 원론 부분이다.

문장으로 意를 표달하니, 意가 자연스레 표현되면 그만이다. 바야흐로 境界가 意에 접촉하고 意가 문장에 펼쳐질 때에 境界와 意와 文이 완전히 융화되어 마치 조화옹이 사물을 빚는 것처럼 저마다 제 모습을 갖추고 저마다 제 개성을 드러낸다. …(중략)… 만물의 진면목이 각각 그 지극함을 얻은 뒤에라야 文이라 할 수 있다.<sup>36)</sup>

고촌은 작가의 意(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했다. 이른바 達意論이다. 이는 공자가 말한 ‘辭達而已’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가의 대표적 문학론이다. 결국 ‘文以達意 意暢而止’는 고촌이 공자의 ‘辭達而已’를 자신의 이론으로 정리한 말이다.

達意라는 오랜 연원의 유가적 문학론은 ‘화려한 수사를 지양한다’는 기본 정신은 명확하지만, 그러나 ‘意를 표현한다’는 그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 고촌은 ‘境’의 개념을 가져와 설명한다. 境界는 간단히 말해 작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상계이다. 이 경계는 자극·시각·청각·촉각의 자극-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반응을 일으킨다. 반응이란 감정이나 의사의 촉발이다. 이것이 ‘境接乎意’이다. 고촌은 이 촉발된 감정이나 의사를 글로 표현한 것이 문학이라고 있다. ‘意宣乎文’은 그것을 가리킨다.

36) 裴正徽, 『孤村集』 권3, <文說>, “文以達意, 意暢而止, 方其境接乎意, 而意宣乎文也. 境與意與文, 混淪昭融, 如化工之賦物, 各形其形, 各色其色, …(중략)… 萬物之情, 各得其至然後, 方可謂之文矣.”

意·境·文. 이 셋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요 영역이지만, 문장 창작에서 어느 하나가 빠지거나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긴밀한 상호작용의 연관 속에 있다. 문장 창작에서 이들의 관계를 고촌은 조물주가 사물을 빚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담긴 감정이나 의사를 사물에 오롯이 담아 각각의 모습과 개성을 빚어내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작가의 창작에 대입하여 설명하면, 작가는 현상계의 자극으로 촉발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글 속에 오롯이 담아 각각의 문장에 개성과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논리이다. 예를 들면 꽃을 보고 글을 쓰되 그냥 겉모양만 묘사하면 죽은 글이 된다. 꽃[境]을 보고[接] 느낀 자신의 진솔한 감정[意]을 완벽히 글[文] 속에 담아 표현해야[宣] 비로소 꽃이 가진 아름다움의 그 진면목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럴 때에 비로소 진정한 문학이 된다고 본 것이다. 곧 意境論이다.

문장에서 奇를 추구하여 鯨呿·鼈擲·牛鬼·蛇神과 같은 것이 있으면 그 意가 詭譎한 것이고, 문장에서 艱을 추구하여 孤峯·危石·斷岸·絕壑과 같은 것이 있으면 그 意가 難澁한 것이다. 우뚝이 떠받혀 높은 岱岳이나 길은 喬雲과 같이 意가 편안하지 못함이 있고, 웅장하게 고무시켜 江斷의 八月潮水나 배를 집어삼킬 듯한 滄海와 같이 意가 진정되지 못함이 있으면, 어찌 이것을 문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sup>37)</sup>

意境論를 서술한 부분의 말미에 고촌은 ‘意가 전달되고 문장이 자연스레 구사되어 만물의 진면목이 저마다 지극함을 얻는 것일 뿐이니, 세상에 문장을 짓는 것은 여기에서 끝난다.’<sup>38)</sup>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意達文暢’을 강조하여 자신의 주장을 재천명하였다. 다음으로 자신의 논리가 정당함을 반증하기 위해 문장이 奇詭함과 艱險함을 추구했을 때의 병폐와

37) 裴正徽, 『孤村集』 권3, <文說>, “求文於奇, 有如鯨呿鼈擲牛鬼蛇神, 而其意也詭; 求文於艱, 有如孤峯危石斷岸絕壑, 而其意也澁. 推之使高, 有如岱岳之蒙·喬雲之垂, 而意未穩; 作之使雄, 有如潮驅八月海運吞舟, 而意不襯, 曾是以爲文乎?”

38) 裴正徽, 『孤村集』 권3, <文說>, “意達而文暢, 萬物之情, 各得其至而已, 世之爲文者, 畢乎是.”

그 이유를 서술하였다. 위의 인용문은 바로 그 병폐와 관련한 서술이다. 기이한 문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意가 靑靑해서이고 간헐한 문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意가 難澁해서이며, 또 意가 편안하지 않으면 과장된 표현을 하고, 意가 진정되지 않으면 과격한 표현을 한다는 것이 고촌의 생각이다. 고촌에게 이러한 문장들은 ‘자신의 진심으로 만물의 진면목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 高揚’이 개입되는 것이므로 좋은 문장이 될 수 없다. 인위적 고양은 곧 기괴하고 과도한 수사를 낳는다는 논리인데, 고촌의 의경론은 이러한 지점에서 ‘개성과 자유로움’을 내세우며 ‘奇絶’과 ‘修辭’를 표방하는 일반적인 진한고문파의 논리와 차별성을 갖게 된다.

다음은 의경론의 후반부인 작법론 부분이다.

문장을 짓는 道가 있다. 바로 意를 따라 완성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병사가 印章을 따라 전환하고 장수가 符節을 따라 행진하는 것과 같다. 意를 찾을 때[尋意]엔 향배를 살피고 완급을 고찰하되 마치 한나라 조정의 노련한 법관이 비리를 다스릴 때 한 줄의 문서로 명쾌히 조사하듯이 한다. 意를 열 때[開意]엔 단락과 문단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체의 의미를 두루 통하게 하되 마치 바다의 파도가 도도히 멈추지 않아 일사천리로 빠져나가듯이 한다. 意를 닫을 때[闔意]엔 치밀하게 꼭꼭 싸서 물을 담아도 새지 않게 하여 마치 함곡관을 한 번 닫으면 육국의 제후들이 감히 도발할 기회를 엿볼 수 없듯이 한다.

意가 유장한 곳에서는 요점을 찾고 조리를 간추린다. 意가 얇은 곳에서는 살기를 구하다가 도리어 죽고, 길이 끊어진 곳에서 살길을 만난다.<sup>39)</sup>

‘문장을 짓는 道’란 실제 창작상의 작법을 말한다. 고촌은 문장 작법을 ‘의를 따라 완성하는 것[隨意而成]’이라고 정리한 다음, 尋意, 開意, 闔意로 나누어 논리를 피력하였다. 尋意는 ‘숨겨진 의미를 찾는다’는 뜻인데 비리를 캐는 수사관에 비유하였다. 開意는 ‘작가의 감정과 의사를

39) 裴正徽, 『孤村集』 권3, <文說>, “爲文有道, 隨意而成, 譬之兵隨印轉, 將逐符行. 尋其意也, 審向背究繁歇, 有如漢庭老吏治賊, 一文必覈; 開其意也, 支分節解, 曲暢旁通, 有如歸海之濤, 滔滔不舍, 一瀉千里; 闔其意也, 包藏縝密, 盛水不漏, 有如函谷一閉, 六國諸侯, 莫敢窺兵. 意之長處, 則鉤要素妙, 挈領提綱; 意之短處, 則死于求活, 絕處逢生.”

표출한다’는 뜻인데 일사천리 도도한 썰물에 비유하였다. 闢意는 ‘감정과 의사를 꼭꼭 눌러 함축한다’는 뜻인데 관문을 굳게 걸어 잠근 함곡관에 비유하였다. 정리하자면 사물의 진면목과 그것을 보고 느끼는 작가의 意를 수사관처럼 날카롭게 포착하고 파도처럼 도도하게 구사하고 함곡관처럼 단단히 함축하라는 것이다. 문장의 開闢法을 의경론과 연결시킨 독창적인 논리인데, 여기에 尋意를 더하여 보완시켰다.<sup>40)</sup>

말미에는 창작 과정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 대해 간결한 경계를 덧붙였다. 작가의 意가 넘칠 때에는 그것을 다 표현하려다 자칫 문장이 지리멸렬해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작가의 意가 얇을 때에는 억지로 풍부하게 하려다 도리어 망칠 위험이 높으니 과감히 생략함으로써 생명력을 얻으라고 경계한 것이다. 오늘날 글쓰기 교육에 곧바로 적용해도 좋을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한 조언이다.

마지막으로 天機와 관련한 부분이다.

문장과 글자가 자연스러워 각각 제자리를 얻는 것이 마치 …(중략)… 방과 섬돌이 제자리를 얻은 것처럼 질서정연해진 뒤에야 만물의 진면목이 저마다 지극함을 얻어 造化가 솟아나고 天機가 생동한다. …(중략)… 이것이 문장의 법도요 후학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니, 문장에 종사하는 자가 어찌 여기에 힘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41)</sup>

‘意가 감동하여 전달되고 문장이 구비되어 자연스레 표현되는 것’<sup>42)</sup>이 고촌의 지향하는 문장의 완성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다. 그것은 건축에 비유하자면 구조와 배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훌륭한 건축물이 되듯이 문장에 쓰인 모든 표현과 글자가 각각 제자리

40) 문장의 開闢을 達意論과 연결시켜 완성한 문학론은 고촌의 경우가 유일하다. 또 尋意는 다른 작가의 경우 대체로 文章 讀法과 관련하여 언급할 뿐 고촌처럼 作法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경우는 드물다.

41) 裴正徵, 『孤村集』 권3, <文說>, “言從字順, 各職其職, …… 戶牖墻庭, 各有定處, 不相紊亂, 然後萬物之情, 各得其至, 造化流出, 天機活潑. …… 此其文章之軌度而後學之規範也, 從事於文者, 盍用力焉?”

42) 裴正徵, 『孤村集』 권3, <文說>, “意舉而達, 文備而暢.”



를 얻어 균형과 조화를 잘 구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샘솟는 造化와 생동하는 天機를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천기는 완벽한 達意, 곧 意境을 진실한 문장으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고촌은 이렇게 ‘言從字順’의 의미를 ‘天機’와 연결시켜 풀고 있다.

孤村의 達意論이 우리 문학비평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 논리가 ‘意境’·‘天機’의 개념과 연결시켜 체계화한 문학론이라는 데 있다. 意境은 작가의 정신이 사물의 정신과 만나 교유할 때 빚어지는 감흥을 작품으로 구현해낸 것을 가리키는 문학예술비평용어이다. 다만 이 비평용어의 사용은 주로 산수화나 문인화와 같은 회화 방면에서 주로 사용되어왔고, 문학에 있어서는 주로 詩歌의 비평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sup>43)</sup>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경의 개념을 그다지 사용되지 않아 그것이 비평이나 창작의 이론과 관련하여 사용된 예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韓國文集叢刊에서 찾아보자면 容齋 李荇<sup>44)</sup> 이후 시구 등에서 간간히 보이고, 이후 퇴계를 비롯한 성리학자 혹은 문학자들의 전원 감흥이나 경치 감상의 흥취 등 그 사용이 매우 한정적으로 발견된다.<sup>45)</sup> 문학비평과 관련해서도 白軒 李景奭<sup>46)</sup>이나 明谷 崔錫鼎,<sup>47)</sup> 臺山 金邁淳,<sup>48)</sup> 한말의

43) 외부 세계의 物象과 작가의 주관적 정서가 만나 이루어지는 ‘意境’은 동아시아 예술론에서 심미의식의 최고경지로 꼽힌다.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본격화된 이 의경론은 주로 회화나 서예, 詩歌 등과 관련한 예술론에서 발달해온 미학비평론인데, 고촌은 이를 자신의 문학론에 변용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의경론의 일반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광수, 「중국 문화에서 ‘意境’의 예술적 개념」, 『문화사학』 31, 한국문화사학회, 2009를 참조할 수 있다.

44) 李荇, 『容齋集』 卷3, <仁王晚翠>, “形將言兩忘, 意與境俱遠.”

45) 李滉, 『容齋集』 卷23, <答趙士敬乙丑>, “田家得雨, 喜騰郊野. 對山聽泉, 境與意會.” / 崔昌大, 『崑崙集』 卷14 <楡岾寺重建募緣文>, “且也四方遊士之登吾山入吾寺者, 歲累數百人, 方其意與境會, 賞與心融也.”

46) 李景奭, 『白軒集』 卷30, <北渚集序>, “於文喜讀西京書, 詩不作長慶以下語, 意與境會, 文質彬彬, 氣豪而程古, 調諧而造理.”

47) 崔錫鼎, 『明谷集』 卷26, <兪知中樞府事李公墓誌銘>, “爲詩, 感物興懷, 不數數於劇鉞, 意境超悟.”

48) 金邁淳, 『臺山集』 卷8, <書龍湫詩後>, “意境字面, 恰恰相符, 殆若一席贈酬, 亦云奇矣.”

蘆沙 奇正鎮<sup>49)</sup> 등이 단편적으로 사용한 예가 발견되는데 이들은 모두 詩와 관련된 것이고, 산문비평과 관련해서는 臺山의 언급<sup>50)</sup>이 거의 유일하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예들 역시 전부 단편적인 평어에 불과하다. 이것을 문학비평이나 창작론, 그것도 고문(산문)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명한 글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天機로 말하면 조선 시대의 천기에 관한 논의는 적지 않아 成俔, 許筠 등을 비롯해 매우 많은 作家들이 견해를 제출하였다. 시기별 계열별 다양한 논의가 제출되었지만 여러 견해를 간추리면 天機는 대개 작가 개인의 창조적 영감이나 진솔한 감정 등의 의미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詩와 관련한 담론이다. 하여 17~8세기에 이르러서는 주자학의 교조적인 교화주의를 벗어나 감정의 긍정과 개성의 표출이라는 특징을 지닌 이론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받아 조선 후기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詩論으로 평가받으며 그와 관련한 논문이 족출했다.<sup>51)</sup> 요컨대 천기론은 대부분, 장르로써는 ‘詩’와 관련하여, 성격으로써는 작품 창작 과정에서 작가의 天機를 작품에 온전히 발현하기 위한 요건이나 방법론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곧 ‘시 창작론’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이다.

孤村의 경우는 이 전형적 카테고리에서 벗어나 있다. 장르로써 고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창작론으로서가 아니라 意境을 온전히 구현해낸 문장의 자연스런 결과로써 천기를 언급하고 있다. 곧 산문 문체론의 성격을 띤다.<sup>52)</sup>

49) 奇正鎮, 『蘆沙集』 卷24, <華山遺蹟跋>, “華山處士金公平生, 脫畧冗鎖, 結情高朗, 境與意會, 輒以詩發之, 所得甚富, 行狀所載四五年間積成卷軸一語, 此其證也.”

50) 金邁淳, 『臺山集』 卷7, <登東臺記>, “記有二, 境也意也. 其境則據書而核, 其意則斷章而微, 核不容贅, 微不容臆, 此余所以逡巡而未敢應者也.”

51) 천기론에 대해서는 김홍규, 『조선후기의 시경론과 시의식』,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장원철, 「조선후기 문학사상의 전개와 천기론」, 경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2를 비롯하여 이동환, 「조선후기 천기론의 개념 및 그 문예사상사적 관련」, 『한국한문학회연구』 28, 2001; 김형술, 「천기론의 비평사적 의의와 산시 창작의 공효」, 『한국한시연구』 22, 2014 등 다수를 참조할 수 있다.

52) 참고로 19세기의 노론계의 고문대가 淵泉 洪奭周(1774~1842)가 천기와 관련시킨 문학론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고문대가인 연천의 경우도 천기와 관련한 담론은

천기에 대한 고촌의 언급이 창작과 관련한 뚜렷한 논리를 갖추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다. 그러나 <文說> 하편을 찬찬히 읽어보면 고촌의 경우 창작론은 意境과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고 天機는 그 부론적 성격이 짙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고촌의 경우 작가의 창조적 영감이나 진솔한 감정 등을 천기가 아니라 의경의 논리와 연관지어 창작론으로 정립하고, 그 구현의 이상적 결과를 천기의 생동으로 본바, 의경과 천기를 연결시켜 고문론의 창작론과 문체론을 정립한 것이다.

길게 논의해온 <文說>의 구조를 간략히 정리하여 표로 제시한다. 문설의 정연한 체계와 논리가 선명히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표 1> <文說>의 구조

상편	572자	원론		문학론의 대전제	以理爲主
				문학의 정의·성격	發意宣文
		학습론		필독서 범위	六經, 諸子, 歷代史書
				공효	理明, 意暢, 文達
하편	596자	창작론	원론	창작의 목적	達意
				창작의 원리	意境
			작법론	주의사항 1	意詭, 意澁
				주의사항 2	意未穩, 意不襯
		작법의 실제		尋意, 開意, 闔意	
		공효		言從字順, 天機活潑	

시와 관련한 창작론이다. 영남의 문장가 신유환의 경우 사마천이나 유종원의 글과 관련하여 천기를 언급한바 있다 다만 고촌의 경우처럼 정리된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사마천이나 유종원의 글을 읽으면 기운이 감응하여 천기가 동한다'는 정도의 단편적인 견해 피력에 그친다.

## V. 나가며

고촌의 가계와 가학 연원, 생장 환경, 관력 등에서 한강 정구, 미수 허목, 영남, 남인, 17세기 등의 어휘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修學과 독서 이력, 당파, 고촌의 저술과 문집에 실린 詩文에 이르기까지 이 어휘들은 일관되게 소환된다. 본고가 고촌의 글 가운데 가장 먼저 <文說>을 주목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고촌은 영남 남인으로서 드물게 문장에 관해 전문적으로 논한 글 <文說>을 남겼다. 이 글은 몇 가지 지점에서 매우 주목을 요한다. 먼저 載道論 혹은 貫道論의 사유를 바탕으로 문장 수련과 창작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던 영남-이와 관련한 기본 입장은 퇴계학과든 남명학과든 크게 다르지 않다-에서 문장에 관한 전문적인 담론을 썼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이미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영남의 경우 16~17세기 초 旅軒 張顯光(1554~1637)이 <文說>을 남겼지만, 종래의 재도론적 사유를 공고히 천명하는 일종의 원론 재천명 성격이 강한 글이다. 전문적인 문장 담론이라 하기에는 어렵다.

둘째 시기상 17세기 후기 산문 문학론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배가된다. 문집에 전문적인 문장담론을 남긴 인물들을 간단히 나열해보면 여헌과 蛟山 許筠(1569~1618)은 고촌보다 약 1세기 앞서며, 근기남인의 海左 丁範祖(1723~1801), 소론의 양명학자 修山 李種徽(1731~1797), 노론의 醇庵 吳載純(1727~1792) 등은 18세기 인물들이다. 老村 林象德(1683~1710) 역시 고촌보다 약 40년 뒤에 태어난 사람으로 그의 <文論>은 18세기 초기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촌과 가까운 시기에는 근기 남인 玉洞 李滉(1662~1723)의 <論文體>가 있을 뿐이다. 요컨대 16세기와 18세기 산문 비평사를 잇는 17세기 문론으로써 고촌의 <文說>이 갖는 의미는 간단치 않다.

내용에서는 더더욱 재미있다. 여헌의 <文說>이 六經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도론적 사유로 經天緯地의 문장을 천명하고 있으며 문장 학습과 창작에 관한 이론은 일절 없다. 이는 문장을 도구로 파악하는 사

유의 소산이다. ‘以理爲主’를 표방하는 고촌의 達意論은 한강의 고장 영남의 선비답게 理氣論과 흡사한 형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문장을 載道나 明理 또는 經世의 도구로 보는 사유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sup>53)</sup> 또 미수의 영향을 받아 六經과 진한고문을 중시하고 있지만 文氣나 氣數 등 ‘氣’를 중시하는 여타 진한고문과 계열의 인물들과 달리 理를 중시하며, 공자의 ‘辭達’을 변용한 ‘達意論’를 제출하였다.

이 ‘達意’라는 용어의 개념도 고촌은 조선 지식인 일반이 사용한 것과 그 의미와 외연이 약간 다르다. 흔히 ‘修辭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이 말은, 자신에게는 자랑 섞인 겸사로 남에게는 ‘진정한 학문 선비’라는 칭찬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고촌의 경우 ‘작가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小技 또는 末藝 의식에서 벗어나 창작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로 예술이나 시가 분야에 사용되던 意境과 天機 미학의 개념을 결합시켜 나름의 독창적인 문학 이론 체계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예는 산문분야는 물론 우리 문학비평사에서 현재로서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보적이고 놀라운 성취이다.

글의 구성과 체계 및 이론적 완성도에 있어서도 고촌의 <文說>은 주목받아 마땅하다. 여헌의 경우 원론만 천명하고 있을 뿐이며, 허균의 <文說> 역시 원론적인 견해를 밝힌 부분이 대부분이고 작법과 관련해서는 篇法·章法·字法과 관련한 수사법을 소개하는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였다. 玉洞의 <論文體>는 문체의 변화와 문장의 역할에 대해 단편적인 생각을 짧은 문장으로 나열한 정도에 그치고, 老村의 <文論>은 文氣를 중시하여 독서를 중심으로 한 문장 학습 방법을 주로 논하였으며, 修山の <文說> 역시 주로 독서 태도에 관한 것이다. 醇庵의 <文論>

53) 문장으로 道를 밝힌다거나 理를 밝힌다는 것은 전형적인 道本文末의 사유로, 이는 조선 지성계의 기본적 인식이었다. 따라서 문학의 효용에 대한 견해를 밝힐 때 대전제처럼 표방한 문장에 고촌의 논리와 유사한 표현이 많다. 다만 이런 사유를 구체화하여 문학이론으로 정립한 예는 실로 드물며, 있다 하더라도 도덕주의 또는 경세론적 문학관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달의론으로 연결시킨 고촌의 논리가 의미를 지닌다.

은 문장의 층위를 나누고 立言之文을 지향하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었을 뿐 역시 이론적 체계를 갖춘 본격 산문론이라 하기는 어렵고, 해좌의 <原文>도 짧은 편폭에 자신의 원론적 입장만을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고촌 <文說>은 문학론의 원론과 학습론, 창작론과 미학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체제와 논리를 갖어 하나의 완결된 문학론을 정립하였다는 것이다. 문집 내의 여러 서발문이나 논설문에 자신의 문학론을 다양하고 섬세하게 피력한 작가는 매우 많지만, 짧은 한 편의 글에 문학이론에 대해 이렇게 완결된 구성과 체계를 갖춘 경우는 우리 문학사에서 그 유사한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고촌의 <文說>은 우리 산문 비평사에 큰 획을 그었다 할 수 있다. 그만큼 문제적이다.

이제까지 고촌은 문학사에서 거론되지 않은 인물이었다. 이제 <文說>을 조명하며 그 연구의 필요성을 학계에 보고한다. 이제 본고를 계기로 17세기 산문 문학론과 창작에 대한 연구가 한층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한편 고촌 문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요청한다.

※ 이 논문은 2022년 10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裴德文, 『書巖先生實記』, 국립중앙도서관  
裴尙龍, 『藤庵集』, 안동국학진흥원, 2014  
裴尙虎, 『愧齋集』, 국립중앙도서관  
裴正徽, 『孤村集』, 경상대 문천각본  
裴正徽, 『孤村集』, 국립중앙도서관본  
裴正徽, 『孤村集』, 성주문화원, 2022  
裴正徽, 『逐日瑣錄』, 후손가 소장  
裴正徽, 『逐日漫錄』, 후손가 소장  
張志淵, 『大東詩選』, 新文館, 1918  
張顯光, 『旅軒集』, 한국문집총간
- 강명관, 「16세기 말 17세기 초 의고문과 수용과 진한고문파의 성립」, 『한국한문학 연구』 18, 한국한문학회, 1995.  
강명관, 「16세기 말 17세기 초 진한고문파의 산문비평론」, 『대동문화연구』 41, 대동문화연구원, 2002.  
김흥규, 『조선후기의 시경론과 시의식』,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김형술, 「천기론의 비평사적 의의와 산시 창작의 공효」, 『한국한시연구』 22, 2014.  
송혁기, 「17세기 말~ 18세기 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이광수, 「중국 문화에서 ‘意境’의 예술적 개념」, 『문화사학』 31, 한국문화사학회, 2009.  
이규필, 「海左 丁範祖의 文學論과 散文世界」,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이동환, 「조선후기 천기론의 개념 및 그 문예사상사적 관련」, 『한국한문학연구』 28, 2001.  
장원철, 「조선후기 문학사상의 전개와 천기론」, 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2.  
하지영, 「18세기 진한고문론의 전개와 실현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A Study on the Life and Literature of Ko-Chon(孤村) Bae Jeong-Hui(裴正徽)

Lee, Gyu-pil

Ko-Chon(孤村) Bae Jeong-Hui(裴正徽)는 was born in Seongju-gun (星州郡) as a poet and bureaucrat and died from 1645 to 1709. He failed several tests without any reason and was dismissed from office, but became a high-ranking official. His history has a symbolism that shows the glory and frustration of Yeongnam's southern bureaucracy. He had a good literary sensibility, and he also wrote well. He also organized his literary theories and published them in the <Moonseol(文說)>.

Kochon's literary theory, 'which claims to providence reason(以理爲主)', is a "literary theory that expresses emotions and intentions.(達意論)" It is a form similar to 'LeeGeeRon(理氣論)'. However, it deviates from the idea of viewing sentences as a tool of philosophy and politics. In addition, under the influence of Mee-Su(眉叟), the Yukgyeong(六經) and the ancient writings of the Han Dynasty of the Qin Dynasty(秦漢古文) are emphasized, but they do not value 'Gee(氣)' but 'Lee(理)'

Ko-Chon's theory of literature active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reation, breaking away from the stereotype that "literature is only a trivial skill." He established his own systematic and original literary theory by combining the aesthetic terms 'Uigyeong(意境)' and 'Chungi(天機)' used in the art field with literary theory. It is rare in our literary history to publish a literary theory with such a complete composition and system in short writing.



**keywords :**

Ko-Chon(孤村) Bae Jeong-Hui(裴正徽), Moonseol(文說), which claims to providence reason(以理爲主), literary theory that expresses emotions and intentions.(達意論), Uigyeong(意境) and Chungi(天機)



## 松隱 安昌濟의 在滿 시기(1910~1931)의 移居와 交遊詩 고찰

韓 吉 路\*

- I. 서론
- II. 在滿시기 移居의 배경과 抒情의 면모
- III. 交遊詩에 나타난 詩意와 在滿 유림의 내면 세계
- IV. 결론

### 국문초록

1910년대를 즈음하여 滿洲 일대는 이역의 故土,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이는 한인들의 만주 이주와 관련되는데 이주민에는 한국 유림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이들에게 이곳은 이민족의 지배를 피해 여생을 보낼 避世의 땅이자 전통을 수호하고 조국의 독립을 도모할 기회의 땅이었다. 경남 의령 출신의 松隱 安昌濟(1866~1931) 역시 이러한 행렬에 동참한 유학자이자 문인이었다. 만주로 떠난 그는 이후 단 한 차례도 고국 땅을 밟지 않고 22년간 그곳에 머물렀다. 하지만 1931년에 지역에서 발생한 소요 중 慘禍를 당하고 만다. 이런 배경에서 현전하는 그의 한시는 약 90수에 불과하지만 그의 시는 在滿 시기의 삶과 내면을 매우 밀도

\* 길림대학 한국(조선)어학과 부교수 / [philosmind@jlu.edu.cn](mailto:philosmind@jlu.edu.cn)

있게 담고 있다. 이 가운데 交遊詩는 송은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함께 머물던 동지들의 내면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유시에는 ‘객수·애환·비탄·회한’ 등으로 혼재된 자기 내면과 함께 이역에서 만난 天涯知己를 향한 위안과 격려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詩會나 壽宴이 있을 때면 서로 정답을 나누는 과정에서 소외된 이산인의 감정에서 잠시 벗어나 고국의 溫情을 느끼며 마음의 여유를 찾기도 했다. 流民이자 遺民이었던 이들의 교류는 대내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길게 이어지지 못했지만 송은은 그 짧은 교류 속에서 강한 동지애와 동포애를 체감했음을 시를 통해 드러냈다. 요컨대 그의 시는 이산인의 객수와 애환을 담으면서도 천리이역에서 만난 동지들을 향한 깊은 人間愛와, 온몸으로 체감되고 각인된 祖國愛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근대 한시의 특수한 국면으로 향후 송은 개인을 포함한 재만 유림의 한시 작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발굴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 주제어

송은 안창제, 『松隱遺稿』, 在滿儒林, 근대 한시, 이산문학.

## I. 서론

‘滿洲’<sup>1)</sup>라는 공간은 한민족에게 대단히 특별한 장소였다. 이곳은 옛 고조선 및 고구려 지역으로 현재까지도 고분 및 산성 등을 통해 당시의 실상을 반추할 수 있다. 또한 병자호란 이후 남만주 瀋陽은 민족적 치욕과 분한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이 일대가 한민족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것은 근대기 한인들의 이주와 정착이 시작된 것과 연관된다. 한민족의 만주 이주는 1905년 갑박에 의한 을사조약과 이어진 1910년 강제병합 이후 폭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만주 일대는 ‘이역의 고토’에서 ‘이주민들의 정착지’가 되어 생존을 위한 한인들의 분투와 객수가 점철된 공간으로 변모했다.<sup>2)</sup>

한편, 같은 시기 조국을 떠나 이곳으로 이주한 인물군에는 망국과 국난의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自靖’을 도모하는 동시에 조국의 독립에 일조하려던 유림도 있었다. 영남지역 老儒가 중심이었던 이들은 畢生의 소신과 의리를 이곳 만주 일대에서 고수하고 또 견지하면서 조국의 독립에 일조하려 했다. 이른바 구지식인들의 집단 이주가 성사되면서 이곳은 단순한 삶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 이들에 의한 ‘정치·문화’적 투쟁 공간이라는 성격도 추가된다. 만주라는 새로운 삶과 수양의 공간으로 이주한 유림은 무장투쟁을 준비하거나 한중 孔敎운동을 합작하며 조국의 독립과 민중들의 자립을 도왔다. 또한 척박한 만주 땅의 초야에 은거하며 망국의 한을 읊고 세도의 衰微를 통탄하며 鬱悶 가득한 여생을 보내기도 했다.

경남 의령 출신의 松隱 安昌濟(1866~1931) 역시 이러한 행렬에 동

---

1) 본고에서 지칭하는 만주는 현재 중국 동북 삼성 일대(遼寧·吉林·黑龍江)를 의미한다.  
2) 이곳에 머물던 대다수 한인들은 水田 개발에 종사하며 정착을 시도한 농민들이었다. 이주 조선인에 의한 벼농사는 만주 일대의 중요한 농업적 토대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요녕성 일대의 벼농사는 만주의 그 어떤 작물 발달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 (김영, 「중국 요녕성의 벼농사와 조선인 이민사회, 1875~1931」, 『한국학연구』 2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96쪽.)

참했다. 경술국치로 조국이併呑되자 3개월 만에 즉시 기술을 이끌고 만주로 떠난 그는 이후 단 한 차례도 고국 땅을 밟지 않고 22년간 그곳에 머물렀다.<sup>3)</sup> 하지만 1931년에 만주사변의 병화 속에, 결국 중국인에 의해 일가족이 몰살되면서 만주에서의 삶은 비참하게 종료되고 말았다. 평생을 일제에 항거했던 그가 도리어 일속으로 몰리며 참화를 당하는 비극적인 아이러니 속에 삶을 마감한 것이다.<sup>4)</sup>

송은에 대한 연구는 현재 초기 단계이다. 이는 그가 오랜 기간 이역 생활을 하며 그의 저작 상당수가 유실된 것과 연관되는데 다만 『松隱遺稿』(3권 1책)가 현전하고 있어 그 대략을 살필 수 있는 상황이다.<sup>5)</sup> 이에 본고는 그의 유고를 중심으로 22년간 이역 만주에 머물며 조국의 광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유도의 수호와 자기신념을 獨守했던 그의 삶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자 한다. 그의 생애와 문학은 지역사를 넘어 한국 유학사 및 근대기 민족사(이민사) 그리고 근대 한문학사와도 접

---

3) 1년 뒤인 1911년 그의 형 수파 안효제도 이곳에 이주했다. 참고로 수파에 대한 연구도 점차 진척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국역 『수파집』발간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중국행의 동기와 우국, 한시에 나타난 만주에 대한 공간인식, 그의 일생을 통해 드러난 경륜과 절의” 등이 고찰되었다. (국역수파집간행위원회, 『(국역)수파집』, 신지서원, 2008; 이은영, 「수파 안효제의 서간도 망명과 우국시」, 『한문학보』 25, 우리한문학회, 2011; 정경주, 「수파 안효제의 경륜과 절의」, 『남명학연구』 33, 남명학회, 2012; 황명환, 「수파 안효제의 한시에 나타난 만주 공간 인식과 그 의미」, 『영남학』 7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4) 李憲柱, 『松隱遺稿』 卷3, <墓誌銘>, “嗚乎! 觀公之一生所事, 不過與日人抗爭, 而今反以日屬而死.” 단 이때 그의 손자였던 安冕世는 화를 피하여 귀국했다. 참고로 『松隱遺稿』(3卷1冊)는 1965년에 간행되었고 현재 경상대학교 도서관 문천각에 소장되어 있다. 저본과 원문은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고문헌시스템(<http://nmh.gsnu.ac.kr>)을 활용했다.

5) 현재까지 송은에 대한 단독 연구는 이은영(「송은 안창제의 서간도 망명시 연구」, 『대동한문학』 41, 대동한문화회, 2014, 495~525쪽.)가 유일하다. 이은영은 송은의 생애 전반과 함께 유고에 드러난 그의 시 세계를 분석하며 그의 문학에는 ‘이역 생활에서 오는 진한 회한과 우국 의식, 그리고 조국의 광복에 대한 기대’ 등이 특징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진술했다. 해당 논문은 송은의 삶과 이역생활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어 본고 역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본 연구에 의지하면서 약술된 내용을 보완 및 보충할 예정이다.

맥되어 주목할 필요성이 상정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먼저 만주 이주 이후, 반복된 移居의 ‘동인과 배경’을 조명해보고 관련 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현지에 머물던 유림과 송은이 나눈 한시들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在滿 지역 유림이 함께 공감하고 또 공유하고 있던 내면세계를 조명하려고 한다.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상대와의 교감과 상호 이해가 중심이 되는 ‘交遊詩’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시들은 송은 개인의 내면과 함께 당대 재만 유림의 집단적 내면세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송은의 삶의 궤적과 동지들과 나눈 시를 통해 在滿 유림들의 삶과 내면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근대기 在中 유림의 실상에 대한 밀도 높은 고찰에 일조하고자 한다.

## II. 在滿시기 移居의 배경과 抒情의 면모

安昌濟의 자는 仲陽, 호는 松窩·松隱, 본관은 順興으로 宜寧에서 태어났다.<sup>6)</sup> 18세가 되던 1883년 부친의 권유에 따라 무과에 급제하여 다음 해에 龍驤衛副司果에 제수되었지만, 당시는 벼슬할 시대가 아님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에 정진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그는 개화파에 대해 직언으로 상소한 일로 1년여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sup>7)</sup> 또 1905년에는 각도 유림을 대표하는 疏首로 상경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인 守坡 安孝濟(1850~1912)와 함께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귀향한 바 있다. 그리고 1910년 대한제국이 강제병합 되자 그해 10월 요동으로 몸을 옮겼다가 돌아온 뒤, 11월 25일 가족들을 이끌고 만주로

6) 본래 그의 호는 고향 의령의 松山에서 유래한 ‘松窩’였지만 국토가 이민족에게 강제 점거된 것을 “無松之邦”이 된 것으로 탄식하며 호를 ‘松隱’으로 고쳤다고 한다. (安和鎭, 『松隱遺稿』卷3, <松隱序>, “余曰: 吾在國居松山, 故以松窩爲號, 今寄此無松之邦, 更號以松隱者.”)

7) 이후 그는 晚求 李種杞(1837~1902)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婦兄인 弘窩 李斗勳(1856~1918)과 교유하며 배움에 힘썼다. (李憲柱, 앞과 같음, “公嘗師事西洛李晚求先生, 而又與婦兄弘窩公, 往來磨礱, 資益弘多.”)

향하였다.<sup>8)</sup> 즉 이 시기 만주로 향한 다른 유림과 유사하게 그 역시 ‘차라리 길가에서 죽을지언정, 의리상 원수들과 함께 같은 하늘아래서 살 수 없다.’라는 신념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다.<sup>9)</sup>

그가 潔身을 위한 潔土로 낙점하여 최초로 정착한 곳은 柳河縣이었다.<sup>10)</sup> 동생 송은을 만나기 위해 류하현을 찾아온 수과에게 이곳의 면모는 자못 살만한 공간, 즉 可居地로 인지되었다. 이곳에는 良田이 있었고 흙도 고왔으며 산 또한 높지 않아 이른바 “名基勝地”, 즉 이름난 터에 빼어난 땅으로 각인되었다.<sup>11)</sup> 하지만 송은의 거처는 이와 상반되었다. 아래는 수과의 언술이다.

또 20리를 들어가 비로소 동생의 우소에 도착했다. 사방을 두른 것은 모두 산이요, 林木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 해와 별이 그늘지고 어두웠으며 눈이 쌓인 彌山뿐이라 사방에는 인가가 없었다. 대개 사슴과 곰, 꿩과 토끼, 돼지와 노루 따위의 소굴이었으니 사람의 종적이 이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며칠 머무르며 나랏일에 생각이 미치니 나도 몰래 방성대곡하고 말았다.<sup>12)</sup>

8) 이은영, 앞의 논문, 2014, 500~501쪽.

9) 李憲柱, 앞과 같음, “庚戌國亡, 則公尤痛不欲生曰: 吾寧死於道路, 義不可與讐人共戴天日也.”

10) 柳河縣은 현재 吉林省 通化市에 속한다. 吉林省 省都 長春과 通化的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압록강 철교의 북쪽으로 약 320km 떨어져 있다. 1909년 봉천성 海龍府에 예속되었고 1920년 봉천성에 직속되었다. 한편, 그가 이주한 1911년 즈음 이곳에는 경북 출신의 안동 유림 金東三·柳寅植 등이 집결하고 있었고 대종교 인사들 역시 가세하고 있었다. 이어 신흥강습소가 설립되면서 재중 지역 무장투쟁의 중요 거점이자 민족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숙화, 『경북인의 대종교 수용과 국외 항일운동』, 『고조선단군학』 42, 고조선단군학회, 2020, 82쪽.)

11) 安孝濟, 『守坡集』 卷3, <遼河日記>, “早朝促行, 過小垣坪, 良田美土五六十里, 家不滿百, 山不高而甚美, 樹不疏而甚秀, 多有陽宅之可居者, 名基勝地, 自有待時而然歟!” (황명환, 『守坡 安孝濟의 한시에 나타난 만주 공간 인식과 그 의미』, 『영남학』 7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141쪽 참조.)

12) 위와 같음, “又入二十里, 迺舍弟所寓, 而四環皆山也, 林木參天, 日星陰翳, 積雪彌山, 四無人家. 蓋麋鹿熊羆雉兔豕獐之巢穴, 人跡不到處也. 居數日, 念及國事, 不覺放聲大哭.”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송은의 첫 거처는, 수파가 도착하기 전 목격했던 주변 풍경과는 이질적이게도 매우 궁벽한 산에 위치하여 함께할 이웃조차 없는 적막한 곳이었다. 흡사 스스로를 만주 땅에 ‘유배’시킨 것과도 같은 거처의 풍경이었다. 이 장소는 송은이 만주로 이거한 목적과 그의 내심을 대단히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주변과 동화되거나 인근의 한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기보다 은거를 통해 절의를 고수하고 자기 수양을 도모하려던 그의 강한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 수파의 언급처럼 국사를 생각하면 절로 눈물짓게 만드는 이 공간에서 송은은 망국의 회한과 객수를 홀로 감당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파의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송은이 머문 우소의 주변에는 무장투쟁을 준비하던 穎石 李石榮(1855~1934)·勉庵의 문인으로 의병 활동 끝에 만주로 건너와 독립운동을 지속하던 深湖 蔡相德(1862~1925)<sup>13)</sup>·국사를 마음을 두며 家産을 일삼지 않은 채 서남으로 漂泊하며 동지를 구하고 있던 金士赫<sup>14)</sup>·鄭俊煥·申元模 등이 함께 머물고 있었다.<sup>15)</sup> 다만 상술한 것처럼 이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후 그는 鄭元夏·李象羲·李承熙·李建昇 등과 교류하

13) 본관은 平康, 호는 深湖로 황해도 沙里院 출신이다. 최익현의 문인으로 황해도 일대에서 의병 투쟁에 나서다 만주로 망명했다. 1922년 일대의 한인 무장 단체들이 협력하여 결성한 大韓統軍府의 총장에 선임되었고 이후에도 주재소 습격과 같은 항쟁을 이어갔다. 1925년 陸軍駐滿參議府가 일군에 참패하자 자결하였다. 1995년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14) 안효제, 위와 같음, “有客一人來, 到語時事, 同是天涯淪落人, 而姓名士赫, 以國事爲心, 不事家産, 漂泊西南, 求同志之人也. 一見之地, 許以平生, 留九日而辭去矣.” 수파의 평가나 언급을 고려해 보면 이 인물은 대한제국 무관학교 1회 졸업생으로, 군대해산 이후 기호 유림 맹보순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당시 만주 지역에서 동지들을 규합하고 있던 金赫(1875~1939)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

15) 이들에 대한 수파의 인물평을 통해 당시 송은의 관점 역시 추정해 볼 수 있다. 수파는 李恒福의 후손 이석영이 처벌을 한 채 청나라 복식을 하며 야소교를 배우고 있다는 소식에 다소 실망했다. 반면 면암의 문인 채상덕에 대해서는 ‘사상의 비범함과 의논의 英發이 사람을 敬服하게 만든다.’라고 극찬했다. 즉 이들 형제는 개신 유림으로 무장투쟁을 지향했던 이석영의 노선에 큰 공감을 드러내기보다 면암의 문인과 같은 전통적 방식을 선호하는 의사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은영, 앞의 논문, 2011, 434쪽.)

며 지냈는데 이들은 류하현이 아닌 안동현에 머물던 인사이기에 결국 수과의 영향으로 판단된다.<sup>16)</sup>

이 사이 1916년 12월 안동에 머물고 있던 수과가 風으로 인한 마비 증세로 병이 위급하더니, 마침내 이역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 이에 송은은 안동으로 건너가 형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준비했다. 하지만 당시 서간도 일대의 현지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 1914년 盧相益과 安孝濟를 방문하기 위해 안동을 찾은 李炳憲이 “거처의 荒陋와 물정의 완고함이 내지에 비해 僻峽”하다고 말하고 또 중국의 장례문화가 “평원의 들이나 구둑에 亂葬”하는 수준이라며 탄식한 바 있다.<sup>17)</sup> 실제로 李基仁 역시 1916년 李承熙의 사후, 광활한 평원이 펼쳐진 봉천에서 전통 상례에 따른 장묘에 큰 어려움을 겪다 끝내 返葬을 택했다.<sup>18)</sup> 송은 역시 형을 잃은 애통과 함께 음력 12월 겨울의 만주의 상황 앞에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안동에서 수과의 卜葬을 정한 뒤 “우리 백형을 묻으려 하나 어찌 흙도 없단 말인가, 지금 이곳 安東은 옛 首陽山이구나. 수양산이 주나라 땅 안이라 부끄럽다 하여, 어찌 유골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는가.”라며 깊은 탄식을 토하였다.<sup>19)</sup> 그는 시를 통해 수양산에 들어가

---

16) 李憲柱, 앞과 같음, “既而本邦人士. 如鄭汶園元夏李石洲象義李大溪承熙李耕齋建昇諸公, 相繼來會結隣.” 한편 汶園 鄭元夏는 汶園 洪承憲와의 착오로 인해 기재된 것으로 鄭元夏의 호는 綺堂이다. (이은영, 앞의 논문, 2014, 11쪽.)

17) 李炳憲, 『中華遊記』 卷1, <遼塞見聞錄>, 翰墨林書局, 1916, 3면, “貧戶四集, 居處之荒陋, 物情之頑, 比內地僻峽, 尤甚.”; 『中華遊記』 卷2, <湖山遊汎錄>, 15면, “比中國人之亂葬於原野溝瀆者, 何啻天壤.”

18) 이기인에 따르면 1916년 2월 이승희의 사후 장묘를 위해 주변의 여러 장지를 살펴보니 현지는 ‘장지(葬地)가 중후하지 않아 길 곁에다가 포개어 쌓아’두고 있었고 타인에 의한 훼손도 염려되어 결국 반장을 결정했다. (『韓遺遺稿』 卷7, <年譜>)

19) 『松隱遺稿』 卷1, 「伯兄卜葬後述懷」, “欲埋吾伯奈無土, 今此安東古首陽, 猶愧首陽周地內, 肯令遺骨返家鄉.” 이은영(2014, 505쪽)은 이 시를 1919년 수과를 返葬하면서 읊은 시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필자는 전체의 詩意를 고찰해보면 시는 수과를 이곳에 장례하며, 殷에 대한 절의를 견지했던 夷齊가 결국 주나라 땅에 묻힌 것처럼 그의 형 역시 안동에 묻히는 것이 무방하다고 여기는 그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1916년 2월, 송은은 이승희의 반장 결정을 심히 반대하며 그의 유지에 따라

採薇하며 貧寒한 삶을 살다 끝내 죽음과 절의를 맞바꾼 夷齊의 예를 형의 죽음과 연결하며, 절의를 지킨 형의 죽음을 숭고하게 기렸다. 수과의 죽음 이후 그는 거처를 봉천으로 옮겼는데 아래는 봉천으로 떠나는 그의 심사를 담고 있다.<sup>20)</sup>

自柳河縣搬移向奉天贈別諸益 柳河縣에서 奉天으로 떠나며 여러 벗들과 증별하다

君惜送吾我惜離, 그대들 나를 보냄을 아쉬워하나 난 떠남이 애석하나니  
 含情未吐發爲詩. 머금은 정 토해보지 못한 채 떠나며 시를 써 보네.  
 殊方幸與同隣久, 이역에서 다행히 더불어 함께 이웃한지 오래되었는데  
 千里遽將獨遠移. 천리 길을 갑작스레 홀로 멀리 떠나게 되었다오.  
 風霜鶴髮分堪恨, 풍상에 鶴髮되어 한스러운 마음 나누어 견뎠으니  
 江海鷗踪會有期. 江海의 갈매기 자취처럼 만날 날 기약해 보세나.  
 試看庭花春早晚, 정원의 꽃 살펴보니 봄이 온 듯한데  
 北枝莫若向南枝. 북쪽 가지는 남쪽 향한 가지만 못할 것일세. <sup>21)</sup>

시에는 이역에서 만난 동지들과의 이별을 앞둔 그의 착잡하고도 悶懣한 그의 내면이 극진히 녹아있다. 그들은 적막하고도 척박한 이역에서 만난 동지이자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받는 ‘이웃’이었기에 별리를 앞둔 서글픈 정서는 더욱 길게 드러나 있다. 또한 고향과 더 먼 북쪽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에 드리운 고국을 향한 애수와 이산자의 불안도 동시에 표출되어 있다. 떠나는 길에서 그는 “다른 이에게 빌렸던 撫順 동쪽의

현지에서 장례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한길로, 「삼주 이기원의 삶과 한주학(寒洲學) 전승의 일면 고찰」, 『한국민족문화』7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15쪽.) 결국 이 작품은 1916년 12월 수과의 죽음 이후의 이듬해 2월 17일 안동현 河深溝에 장례를 결정한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정경주, 앞의 논문, 49쪽)

20) 현재 그의 이주 시기를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松隱遺稿』를 통해 추론해 보면 대략 1917년부터 7월 즈음을 기점으로 봉천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松隱遺稿』 卷1, <丁巳(1917)七月既望與西狂綠樵兄弟及丁陶菴教燮金西洲思鎮李石洲文周李鳳山寅燮李基珽高永翰共船遊于丁香屯東湖>.)

21) 『松隱遺稿』 卷1.

밭이랑에, 부자가 몸소 농사지어 곤궁을 보낼 수 있었다네. 배 채우는 곡식과 몸 가리는 실에 어찌 족함을 헤아리겠는가, 採薇歌 부르고 나라 그리워하며 푸른 하늘 우리르리라.”고 밝혔다.<sup>22)</sup> 즉 그곳에 가서도 이산인의 곤궁을 운명처럼 여기면서도 고국을 향한 연모와 節義의 뜻을 굽히지 않으리라는 소회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그가 봉천으로 향한 동기나 배경은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확정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그의 형 수과의 죽음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본래 송은은 류하현에 계속 거주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곳은 비록 인적 없는 험지였지만 ‘나라 잃은 뒤 죽지 못하고 남아 있는 無窮한 恨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와, 고국과 이국의 가운데에서 나라를 굽어보고 우러러보며 부끄러운 자신을 되돌아 볼’ 공간으로는 충분했다.<sup>23)</sup> 하지만 수과는 송은에게 속세와 단절된 류하현의 거처를 떠나 諸賢이 거주하고 있는 안동현으로 이주할 것을 제안했다. 즉 ‘입적하지 않고 녹을 먹지 않으며 원수들이 지배하는 영토가 아니라면 거주 못 할 이유가 없기에 세속과 단절된 심산유곡에 머무는 것을 재고하고 피세를 택한 한국의 사대부들과 從遊’하기를 간곡히 청한 것이다.<sup>24)</sup> 송은은 마지막까지 수과의 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형의 죽음 이후 그는 생전 형이 자신에게 제안한 그 情意를 다시금 상기하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송은 개인의 염원도 있었다. 그는 이주 후 滄江 金澤榮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적을 博覽하고 의리를 講究하여, 앞으로 斯學이 中州에서

22) 『松隱遺稿』 卷1, <路中(二首)>, “(其二)借人田畝撫縣東, 父子躬耕可送窮. 穀腹絲身何足計, 薇歌戀國仰蒼穹.” 한편 이은영(2014)은 본시를 “망명길에서 지은”(509쪽) 작품으로 보았지만 본고는 “借人田畝撫縣東”의 시구를 참조하여 무순의 동쪽에 위치한 류하현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봉천으로 떠나는 길에서 창작한 작품으로 해석하였다.

23) 『松隱遺稿』 卷1, <歎世(九首)>, “(其七)失國當年我去東, 苟存不死恨無窮, 生而猶不修生職, 俛仰中間反愧躬.”

24) 安孝濟, 『守坡集』 卷2, <答五弟昌濟>, “又移此安東縣, 與吾邦士大夫避世來者相從遊, 猶勝於隱峽, 汝亦搬來于此, 兄弟同死生可也. 不入籍, 不食祿, 不居讎人領土, 何往不可, 而何必離群絕俗, 深居山谷爲哉? 汝量宜進退也.” (이은영, 2014, 510쪽 참조)

크게 진작”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속내를 표출한 바 있다.<sup>25)</sup> 이런 배경에서 재만 지역 유림과 국내 유림이 합세하여 설립한 ‘동삼성한인공교회’가 안동에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근거지로 삼은 ‘봉천’은 그의 이상과 부합되는 장소였다. 반면 이 시기 류하현에는 李始榮의 등장과 더불어 무장투쟁 및 신식교육 중심의 민족 교육의 역량이 재결집되었고 만몽조약(1914) 체결 여파로 한인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가 더욱 늘어난 상황이었다.<sup>26)</sup> 요컨대, 그의 봉천행은 ‘형과 관련된 개인적인 연고와 자신의 이상, 또 류하현과 봉천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국면과 일경의 감시’ 등을 그 배경으로 거론할 수 있다.

1917년을 기점으로 봉천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창제는 이곳에서 다양한 인물들과 직접 교류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는 이승희의 사후 西川 趙貞奎와 함께 봉천 일대 유림의 구심점 같은 역할을 했던 陶菴 丁敦燮 · 西洲 金思鎭 등을 포함하여 여러 인사들과 서로 교제했는데, 상당수는 松川 金鍾洛(?~?)처럼 봉천에 와서 처음 알게 된 인물들이었다.<sup>27)</sup> 이런 교류 속에서 그는 전과는 달리 조직 활동도 시작하며 보폭을 넓혔다. 주목되는 활동으로는 1922년 華西의 문인 華南 朴長浩(1876~1922)를 도와 3.1운동 이후 만주 지역에 설립된 大韓獨立團의 활동을 조력한 것이다.<sup>28)</sup> 또 민국 시기의 유학자이자 문인이었던 중국

25) 『松隱遺稿』卷2, <與金滄江>, “博覽書籍, 講究義理, 使斯學, 將可大振於中州耶?”

26) 1917년 鐵嶺領事官의 정보 보고에 따르면 이 무렵 당국은 류하현을 대단히 주목하고 있었다. 이 해 자신들이 소위 “排日派 巨頭”로 지목한 李始榮이 柳河縣 三源浦로 돌아오면서 다시금 무장투쟁 세력이 집결하고 있었다. 또한 이 류하현 인근의 각종 한인 학교들이 단결하여 韓人學校聯合大運動會를 開催하는 등 지역 일대의 민족교육의 역량 또한 강화되고 있었다. (古澤幸吉(鐵嶺領事官 海龍分館主任), 『柳河縣地方 朝鮮人에 관한 調査進達의 건』,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 - 在滿洲の部』6, 1917.08.14. 이하의 일본 정보문서 관련 정보는 모두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누리집(<https://db.history.go.kr>)에 공개된 것을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표기 날씨는 발신인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27) 『松隱遺稿』卷1, <挽金松川>, “瀋陽旅舍晚來親, 一語方知世誼人.”

28) 3.1운동 이후 봉천성과 류하현 일대에 한인들이 규합하여 1919년 4월 대한독립단을 조직했는데 당시 박장호는 총재로 추대되어 단체를 이끌었다. 송은과 박장호와의 인연은 한인들의 입적과 치발령에 반발하여 송은이 趙鏞懿과 함께 각처에 문서를

인 靈峯 夏震武(1854~1930)와 교류하며 그의 문도가 설립한 修學會의 東三省分會長을 역임한 사실도 확인된다.<sup>29)</sup> 즉 봉천 이주 이후 그는 전에 비해 큰 폭의 대내외적 활동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이후 그는 또 다시 이주를 선택했다.<sup>30)</sup> 구체적인 이유와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봉천을 벗어난 배경에는 유도의 회복과 독립의 쟁취라는 그의 염원이 여러 대내외적 상황과 부딪히며 난맥상을 드러낸 영향으로 판단된다. 먼저 이승희의 사후, 봉천 유림의 결집력이 크게 떨어지며 결국 조정규를 포함 이곳에 머물던 대다수 유림이 국내로 귀국하거나 각지로 흩어진 사실과 연결할 수 있다. 또한 1917년 張勳의 복벽사건 이후 중국 공교회 활동이 매우 위축되고 공교(유학)에 대한 중국 내의 정서가 심히 부정적으로 변한 것 역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sup>31)</sup> 더욱이 당시 중국 내의 한인들의 상황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즉 192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일어난 ‘일제와 중국 사이에서의 갈등과 표류, 그리고 이른바 현지 정책에 대한 융화 및 동화’를 겪고 있던 한인들의 상황’ 역시 경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sup>32)</sup>

---

둘러 이를 만류하였는데 이 글을 보고 박장호가 송은을 찾아온 것에서 출발했다. 그가 박장호를 도와 대한독립단의 활동을 한 것은 공교롭게도 박장호가 암살당한 1922년으로 추정된다. 송은이 남긴 祭文에 따르면 1922년 봄 그들은 현재 辽宁省铁岭市开原市的 柴河堡에서 만났다. 박장호는 조직에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며 송은에게 부탁했고 송은은 그를 도와 본국에 독립운동 거금을 보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박장호는 암살당하고 말았는데 후속 연구에 의해 그자는 밀정 金憲으로 밝혀졌다. (『松隱遺稿』 卷1, <祭華南朴公文>, “遂去國渡遼, 逗遛南北時, 自清國官廳, 有韓人入籍薙髮之令, 昌濟與趙鏞懿論文于各處, 公見此文, 而來會始承顏接辭. …… 今春邂逅于柴河堡, 語余曰: 吾今老矣, 百劫餘喘, 無意於世, 然此近, 所謂社會組織, 了無主管, 余不可不更盡殘力, 而當送人于內地運動巨貨, 而後事可成, 故方裝送某人云云, 公竟以此被害, 必用人, 不慎之致也.”) 박장호의 삶과 만주에서의 행적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했다. (강대덕, 『華南 朴長浩의 學統과 抗日獨立運動』, 『의암학연구』 6, 의암학회, 2008, 81~117쪽)

29) 이은영, 2014, 501~502쪽.

30) 『松隱遺稿』 卷1, <送別芮一海大植許是山苾李菊史熙八搬移北滿>.

31) 한길로, 「1910년대 지방 유림의 중국 이주 과정과 귀향의 동인 고찰」, 『인문논총』 79-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174쪽.

32) 이명화, 「1920년대 滿洲 지방에서의 民族教育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독립

이런 배경에서 그는 봉천을 다시금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다양한 인물과 교류하며 스스로의 활동 폭을 넓혔던 그에게 봉천은 특별한 장소로 각인되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은 관련 시가 남아있는 장소 또한 봉천이었다. 아래의 시는 봉천에서 만나 함께 同苦同樂했던 한인 유림에 대한 그의 회고이다.

憶瀋陽諸益 심양의 여러 벗들을 떠올리며

百感彌中此歲頭, 온갖 감정이 심중에 가득한 이 새해 벽두  
懷鄉餘淚又并州. 고향 생각에 남은 눈물 또 다시 并州로 가누나.  
瀋陽西畔多情友, 심양 西畔의 다정했던 벗들  
夜夜清儀夢裡留. 밤이면 밤마다 청아한 모습으로 꿈속에 남는다네.<sup>33)</sup>

또다시 한 해를 넘겨 이역에서 맞는 새해 벽두, 그의 마음에 찾아온 복잡다단한 회한이 시의 기저에 흐르고 있다. 떠날 수 있을 뿐 잇을 수 없는 고향 생각에 이어, 이역 속의 고향처럼 느껴졌던 심양을 떠올리며 깊은 상념에 빠진 그의 悲感과 哀愁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홀로 자정하며 통한의 세월을 보냈던 류하현을 벗어나 遼河평원이 펼쳐진 봉천을 누비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짊어진 무게를 덜어내던 그 순간의 감정이 새해를 맞는 그의 고독과 만나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로 흩어진 다정했던 벗들 또 이미 고인이 된 동지들은 이제 꿈에서밖에 만날 수 없음이 자명하기에, 이처럼 그의 비탄은 한층 더 깊어 층위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언제 어떤 경위로 봉천을 떠났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즉 1920년

---

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295쪽.

33) 『松隱遺稿』卷1. 참고로 并州는 본래 지금의 중국 山西省 太原市에 있다. 中唐의 詩人 賈島(779~843)는 이곳 병주에서 10년 간 관직 생활을 했는데 자신의 고향인 장안을 그리워하며 지냈다. 이후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자 병주가 고향처럼 느껴져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는 작품이 있다. 즉 병주는 비록 타향이지만 오랜 추억으로 말미암아 고향처럼 느껴지는 것을 의미한다. (『全唐詩』卷472, <渡桑乾>, “客舍并州已十霜, 歸心日夜憶咸陽. 無端更渡桑乾水, 却望并州是故鄉.”)

대 중·후반의 기록이 사실상 전무한데, 이는 그가 마지막 정착지에서 유하현에서의 생활 그 이상의 은둔을 지속했을 것으로 추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1931년, 22년간 이어진 해외 생활이 마침내 마감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윽고 일본이 또한 만주를 병탄할 계획으로 萬寶山에 쟁의를 일으켰는데 만인들이 패배를 지지하지 못하고는 이내 우리나라 사람을 日屬으로 여겨 (우리에게) 화를 옮기며 한을 품었다. 대저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사정이나 실질을 불문하고 다짜고짜 남김없이 戕殺하였는데 공 또한 이를 면하지 못하고 일가 처자가 동시에 殲盡되고 말았다. 신미(1931) 8월 13일이었다.<sup>34)</sup>

위 인용문은 1931년에 발생한 이른바 장춘 ‘만보산 사건’을 송은 일가족의 최후와 연결하고 있고 「묘지명」 역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35)</sup> 하지만 이는 정정이 필요한 지점이다. 우선 「묘지명」은 송은이 사망한 장소를 “만주의 淸源縣”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長春이 배경이 된 만보산 사건과 충돌된다.<sup>36)</sup> 반면 「행장」은 “만주지란(滿洲之亂)”, 즉 9월 18일에 발생한 만주사변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위에서의 언급은 1931년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착오로 추정된다.<sup>37)</sup> 사실 송은의 서거 시기인 음력 8월 13일(양력 9월 24일)을 고려하면, 순국에 가까운 최후의 장소는 만주사변의 피해가 막심했던 청원현으로 판단된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7월에 발생한 만보산에서의 충돌은 특별한 인명

34) 金梲, 『松隱遺稿』卷3, 〈墓碣銘〉, “既而日本又有并吞滿洲之計, 而起爭萬寶山, 滿人敗不能支, 則乃以我人爲日屬, 而移怒逞憾. 凡遇我人, 不問情實, 輒戕殺無遺 公亦與在不免, 而一家妻子同時殲盡, 辛未(1931)八月十三日也”

35) 李憲柱, 「墓誌銘」, “日本既并吾韓, 又欲進圖滿洲, 與滿人爭於萬寶山, 滿人既敗乃目我人爲日屬, 遇之輒, 恣殺無遺, 公亦遭不幸, 而一家妻子同時被禍.”

36) 위와 같음, “安公以年六十六之, 辛未八月十三日卒于中國滿洲之淸源縣.”

37) 許鉞, 『松隱遺稿』卷3, 〈行狀〉, “滿洲之亂, 淸兵驅日人竝鮮人, 而殺害之, 公亦同時被害. 實辛未八月十三日也. 한편 〈行狀〉에 기재된 장소인 ‘滿洲 奉天省 淸原縣 大孤家子’이 최후의 거주지로 추정된다. 현재 이곳은 ‘辽宁省抚顺市淸原县大孤家子镇’로 장춘에서 약 220km 떨어져 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충돌이었다.<sup>38)</sup> 하지만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9월 만주사변 때의 소요로 인해 발생했는데 만주사변에서 패배한 중국 군인들과 동요한 민중들의 소요와 폭동이 발생한 것이다.<sup>39)</sup> 관련 보도 역시 10월을 기점으로 발견된다. 보도에 따르면 “滿洲事變이 발생하자 여지없이 兵火에 유린되고 말았다.”며 일대에 산집했던 309명의 동포들이 숨졌다고 전했는데 여기에는 청원현도 포함되어 있었다.<sup>40)</sup> 또한 “청원현의 70여 가구가 전부 이산 하였다.”<sup>41)</sup>는 보도, 또 이 기간에 ‘연락이 두절 되어 외부와 차단된 청원현 인군이 그 피해가 가장 컸다.’라는 기사도 이어졌다.<sup>42)</sup> 즉 「행장」과 「묘지명」의 언급 그리고 서거 시기 및 당시의 보도를 통해 종합해보면, 그는 청원현에서 삶을 마감한 것으로 귀결된다.

류하현에서 봉천으로 또 청원으로 몸을 옮긴 그의 삶의 궤적은 일제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해 중화의 땅으로 건너와 유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을 지켜온 삶의 원칙을 관철시키고자 고투했던 근대기 在滿 유림의 일면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경계에 놓여 빈한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도, 유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에도 동참했던 이 시기 유림의 행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그의 삶의 궤적과 활동은, 전통적으로 이어진 유자 본분을 상기하며 ‘유자로서의 저항’의 길을 개척하려 했던 식민지 시기 在滿 유림의 표상과도 같았다.

38) 이준식, 「만보산 사건과 중국인의 조선인식」,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2012, 237쪽.

39) 보도에 따르면 당시 피해지역은 奉天·撫順·淸源·鐵嶺·開原·輝南일대였다. (《朝鮮日報》, “到處에 敗兵暴擧로 同胞의 被害莫大”, 1931.10.20.)

40) 《東亞日報》, “避亂同胞二千九百, 犧牲者三百九名”, 1931.11.05. 이날 보도에 따른 청원현의 희생자를 보면 송은의 예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淸原縣. ▲韓之東氏의 家族六人 ▲白昌道氏의 夫妻二人 ▲朴老人 ▲朴燦一氏 ▲朴元淑氏 ▲朴承觀氏의 婦人과 女兒 ▲金基豐씨의 家族五人.”)

41) 《東亞日報》, “猝寒까지 掩襲한滿洲, 離散하는 同胞慘狀.”, 1931.10.10.

42) 《東亞日報》, “淸源縣同胞 慰護會 組織”, 1931.12.07.

### Ⅲ. 交遊詩에 나타난 詩意와 在滿 유림의 내면 세계

일반 유자들의 교류에도 모두 각별한 사연과 곡진한 사정들이 존재하겠지만, 이역 만주에서 동포이자 동지를 만난 당시 재만 유림의 교류는 더 폭넓은 의미를 지닌다. 송은이 남긴 여러 시들은 이들의 교류 국면과 소통 양상을 잘 보여주는데, 특히 이들 사이에는 지역과 학파를 넘어선 깊은 연대와 신뢰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43)</sup> 그러하기에 만주 지방에 함께 머물며 탄생된 교유시는 송은 개인뿐만 아니라 당시 재만 유림의 사상과 현실 인식, 그리고 내적 고뇌와 변민의 일면까지도 유추할 수 있게 만든다.<sup>44)</sup>

43) 사실 당시 봉천 유림의 중심에는 한주학과와 연관된 인물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李震相과 송은의 스승 李種杞은 성리설에 대한 이견을 보였던 사이이다. (임종진, 「晩求 李種杞의 성리학적 입장에 대한 검토」, 『퇴계학과 유교문화』 43,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8, 95~131쪽.) 하지만 그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호 지방의 유림 卞石 權丙夏(서울)·我山 鄭在鳳(청주), 또 의병 출신으로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是山 許苾(1855~1932, 선산)·대한제국 무관을 지낸 뒤 지속적으로 의병 활동을 지속하다 만주로 건너와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松石 姜在天(?~?) 등과도 시를 주고받았다. 즉 국내에서 여전히 학파나 지역을 기반으로 교류했던 당대 유림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 것이다.

44) 『송은유고』에는 모두 64제 89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3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주에서 창작된 작품이며 작품은 크게 ‘挽詩와 自述 그리고 交遊’로 구분된다. (이은영, 2014, 503~504쪽) 이 가운데 교유시는 모두 26제 31수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그의 시 세계의 중요한 지점을 점유하고 있다. 각 시제는 아래와 같으며 직접적인 교유의 면모를 확인하기 위해 만시는 논외로 두되 관련 인물과의 작품을 선별해서 참조했다.

酬唱 13수	同安西狂往馬和寺興鄭雲圃權卞石共吟(三首), 丁巳(1914)秋七月既望與西狂綠樵兄弟及丁陶菴金西洲李石洲李鳳山李基珽高永翰共船遊于丁香屯東湖, 靜安堡雪中會話, 酬鄭雲圃鄭雲石, 卞石座上與西狂綠樵鄭堦思叔成建初拈韻, 西狂榻上與卞石夜吟, 柳愚石座上與成愚川鄭南岡權卞石敍懷, 成愚川曹松川往遊撫順鐵嶺地與鄭雲圃朴稼軒鄭漁隱蔣南坡柳芝峰鄭南岡歷訪同往愚川家戲吟, 同九老及崔樞庵往曹松川家與鄭我山吳錫洪共吟, 成愚川曹松川自瀋陽三百里逶迤來訪與李溪隱金松川共吟, 奉天城外與知舊話。
--------	---

遺稿에 수록된 교유시에서 가장 주목되는 詩情은 내면에 가득한 ‘고뇌의 토로와 상호 위안 및 격려’의 면모다. 송은 스스로 “요동의 객지 생활 어찌 이리 힘들고 고되는지, 추위와 배고픔이 닥친 이 몸 진실로 곤궁하구나.”<sup>45)</sup>라고 자탄한 것처럼 당시 재만 지역 유림의 기본적 삶의 조건 자체가 대단히 열악했다. 겨울이 반년에 가까운 이곳 기후의 특성은 그들의 객수와 애환을 가중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언어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사실상 고립된 그들에게 모국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숙내를 터놓을 수 있는 동료들은 ‘依支’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支持’의 존재였다. 즉 일반적인 의지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지지의 관계였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말로 다 읊기지 못하는 자신의 깊은 내면의 심연을 시를 통해 토로하는 것은 곧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의미까지를 포괄하게 된다. 아래는 밀양 출신으로 晚求와 俛宇의 문인인 西狂 安和鎭(1868~?)과 함께 撫順의 馬和寺를 방문한 송은이, 한계를 陪從했던 서울 출신의 午石 權丙夏(?~?)와 雲圃 鄭琇(?~?)<sup>46)</sup> 등과 함께 나눈 시이다.

次韻 7수	次韓駿教老耕堂韻, 次權重洛壽親韻, 次成愚川愚字韻(三絶), 次朴公枕溪亭韻, 次洛峰亭韻.
送別 4수	自柳河縣搬移向奉天贈別諸益, 臨發呈安西狂, 送姜松石還漢陽, 送別芮一海許是山李菊史搬移北滿.
贈詩 5수	贈成愚川, 中國人筆談示志(二首), 和呈金石居, 次李溪隱韻贈楊汕翁.
壽宴 1수	賀鄭敬翁甲宴.
懷古 1수	憶瀋陽諸益.

45) 『松隱遺稿』卷1, <自嘆>, “胡爲辛苦客遼東, 寒餓逼身自固窮

46) 자세한 이력은 미상이다. 다만 수파의 挽詩에 따르면 그는 약 8년간의 압록강 인근에서 만주 일대에서 머물다 당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守坡集』卷6, <挽章鄭琇>, “身任綱常重, 八年鴨水灣, 大名埋不得, 播在華夷間.”) 무순과 철령을 방문한 송은이 鄭琇와 나눈 다른 수창시(<成愚川曹松川往遊撫順鐵嶺地與鄭雲圃朴稼軒鄭漁隱蔣南坡柳芝峰鄭南岡歷訪同往愚川家戲吟>)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이곳에 상주한 인물로 추정된다.

同安西狂往馬和寺與鄭雲圃琇權午石丙夏共吟

安西狂과 함께 馬和寺를 갔다가 雲圃 鄭琇와 午石 權丙夏와 함께 읊다

殊方懷古頻垂淚, 이역에서 옛적 떠올리니 누차 눈물 드리우고  
 壯士悲秋不勝情. 장사들과의 서글픈 가을에 정을 가누지 못하였다네.  
 神明舊域誰光復, 神明한 옛 지역에서 누가 광복을 보아,  
 傳與千秋大義明. 大義의 밝음을 천년토록 전하겠는가.(其三)<sup>47)</sup>

함께 만나 반가운 감정이 가라앉은 뒤, 고향과 옛일 생각에 차오르는 눈물을 피할 수 없음을 이들 모두에게 동일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역에서 함께 읊는 시에는 悲感이 가득하다. 그들은 함께 과거 고구려 동명왕의 고사를 간직한 신명한 고토에서 조국의 광복과 유도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대해 보았지만 사실 그것이 대단히 요원한 것임은 모두가 자각하고 있었다.<sup>48)</sup> 당시 일제는 만주진출을 가속화하면서 한인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고 한인들을 향한 중국 지방 정부의 시선 역시 따스하지 않았다. 또한 조국의 독립은 기약하기 어려워지는 형국이었다. 그러하기에 조국과 중화민국, 그리고 일제의 사이에 던져진 이들 앞에 ‘광복’이 찾아오는 것이란 사실 아득해 보였다. 다만 시에는 만주 땅에 머물며 수천 년간 이어온 “大義”를 후대에 기필코 전해보리라는 굳센 믿음이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의의 전래는 다름 아닌 그들 자신들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전승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 가치를 마지막까지 견지하고 고수하려는 의지를 함께 다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래의 시 역시 미증유의 난세라 할 수 있는 당대를 대하는 이들의 내면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47) 『松隱遺稿』 卷1, <同安西狂往馬和寺與鄭雲圃琇權午石丙夏共吟>. 참고로 馬和寺는 현존하지는 않지만 현재 남아있는 지명을 통해 추정해보면, 현재 抚顺市에 위치했던 사찰로 판단된다. (현재 抚顺市 抚顺县 新小线에는 馬和村이 있는데 그 지역에 前馬和寺와 后馬和寺라는 지명이 상존하고 있다.)

48) 실제로 송은은 이곳의 옛 고구려 땅이라고 여기며 동지들과 동명왕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李憲柱, 앞과 같음, “嘗以滿洲舊爲高句麗地, 與同志設祭東明王. 亦可見托意之深矣.”)

次成愚川愚字韻(三絶) 成愚川の 愚字를 차운하다

智人處事每如愚, 지혜로운 사람의 處事는 매번 어리석은 것 같으나  
行後看之必不愚. 행동 후를 살펴보면 반드시 어리석지 않았었지.  
亂世圖生全節計, 난세에서 삶의 모색은 온전히 절의의 계획일 뿐이나니  
殊方耕讀亦堪愚. 이역에서 밭 갈고 독서하며 또한愚를 감내하는 것이네.(其二) 49)

송은은 성중호의 호 ‘愚’를 운자로 사용하여 그의 지향과 내심을 반추하고 있다. 노구를 이끌고 이역 땅에 머물며 주경야독하는 고투와 같은 삶은 택한 성중호의 삶은 사실 송은 자신의 삶과 동일한 것이었다.<sup>50)</sup> 그러하기에 성중호의 愚를 논하는 이 시는 곧 자신과 동시에 현지 유럽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타인이 알아주지 않고 기피할 수도 있는 깊은 노고를 스스로 자처하고, 또 대전환기의 시기에 홀로 節義를 오롯이 도모하는 그의 삶은 일부 세인들에게 일면 愚로 비쳐질 수 있는 면모다. 하지만 識字이고 또 儒者이기에 이 愚는 스스로 자처하고 견뎌내야 하는 愚임을 보여주고 있다. 난세 중의 난세에서 ‘愚가 아닌 智’를 드러내는 것은 지사의 도리이자 태도가 아니기에 그들은 공자가 그 愚를 칭찬했던 甯武子の 길을 걷는 동지가 되어 함께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소원하고 있다.<sup>51)</sup> ‘愚人 아닌 愚人’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49) 『松隱遺稿』 卷1, <次成愚川愚字韻>. 참고로 愚川 成鍾護(?~?)는 창녕 출신이다. 1910년대 만주 지역에 머물다 1914년 고향 출신의 金昌鉉(점필재의 후손), 權丙夏, 李相義의 동생 李啓東과 함께 이승희를 찾아 봉천 정착을 건의하며 이주를 도왔다. (『韓溪遺稿』 卷7, <年譜>)

50) 실제로 1917년 봉천에 머물던 정돈섭도 이와 유사했다. 「行狀」에 따르면 정돈섭은 봉천 덕홍보에 머물 때 “농장 덕홍보를 접지하고 그곳의 황무지와 못을 개간했는데 공은 날마다 삼태기와 썰이를 잡고 직접 밭 갈아 심으며 아침에 나갔다고 저물녘 돌아왔다. 밤에는 소매를 정제하고 책상 앞에 마주하고는 심경(深更)에 이르도록 울곧이 앉아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 피로가 이미 심한 것을 걱정했다.”고 했다. 즉 이 시기 재만 지역 유럽들은 과거의 권위에 기대어 개척사업을 관망하는 것이 아닌, 직접 현장에 위치하여 함께 땀 흘려 일하면서도 학문 역시 등한시하지 않으며 유자의 본분을 고수하며 생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길로, 「도암 정돈섭(陶庵 丁敦燮)의 삶과 시 세계 고찰」, 『한민족어문학』 96, 한민족어문학회, 2022, 226쪽.)

51) 참고로 <次成愚川愚字韻> 其二에는 “오늘 누가 甯武子를 알겠는가. 성인은 나라에

난세를 맞은 이들의 대처이자 원칙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시정은 ‘別離에서의 悲歎’이다. 이미 조국 그리고 가족들과 분리되어 홀로 이역에 머물던 이들의 별리는 일반의 별리와는 자못 그 의미와 결이 다르다. 이때의 별리에는 곧 정착의 실패로 인한 이주 혹은 이곳에 당도했을 때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별리는 이역으로 건너 온 최초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상당수 발생하기에 더욱 처연하게 다가 올 수밖에 없었다. 아래는 송운이 봉천에서 북만주로 이거할 때의 상황을 담고 있다.

送別芮一海大植許是山苾李菊史熙八搬移北滿

一海 芮大植(?-?) · 是山 許苾<sup>52)</sup> · 菊史 李熙八과 송별하고 북만주로 이사하며

忘年交契晚相親,	나이를 잊은 교분 나누며 늘그막에 서로 친해졌으니
同是天涯滄落人.	함께 천애를 떠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一代嶠南俱世族,	한 시대 嶠南에서 세족을 이루다가
幾時朔北接芳隣.	어느 때에 朔北에서 좋은 이웃으로 만났으랴.
論心不隱言何諱,	마음을 논함에 숨김 없었으니 말에 무엇을 삼가고
觸世無嫌意必伸.	혼탁한 세상에도 꺼릴 것 없어 뜻을 필히 펼쳤었지.
莫恨今朝離別苦,	오늘 아침 이별의 고통 한으로 여기지 마옵소서.
疏儂從此躡公輪.	모자란 몸이나 이를 쫓아 공들의 경륜을 이어가려 합니다. <sup>53)</sup>

도가 어지러울 때의 우직함을 深歎하셨다네.(今日誰知甯武子, 聖人深歎亂邦愚)”라는 구절이 있다. 甯武子는 공자의 제자로 공자는 그에 대해 “영무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혜롭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었으니, 그 지혜는 다를 수 있으나 그 어리석음은 다를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論語 公冶長』, “甯武子邦有道則知, 邦無道則愚, 其知可及也, 其愚不可及也.”)

52) 是山 許苾(1855~1932)은 선산 출신으로 본관은 김해이며 만주에서 동북항일연군 및 중공당 北滿省委에서 무장투쟁을 벌였던 許亨植(1909~1942)의 부친이다. 1915년 형들과 함께 일가족이 만주 일대로 이주했다. 허필은 1922년 만주에서 군자금 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어 동대문 경찰서에 구금되었는데 이 때 그는 백이숙제의 고사를 거론하며 절식하였다고 전한다.(『독립신문(상해판)』 “義人 구금 뒤 絶食”, 대한민국 4년(1922).08.29, 장세운, 「許亨植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374~375쪽)

嶠南은 영남의 별칭이고 朔北은 북방을 지칭하는데 본고에서는 만주 일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만주로 건너온 영남 인사들이 친애의 이웃이 되어 나눈 교류는 시에서 언급된 것처럼 “不隱”하고 “無嫌”한 것이었다. 혼탁한 세상을 피해 이역으로 건너와 情誼를 나누며, 서로 하지 못할 말이 없고 펼치지 못할 뜻 없이 가깝게 지내던 이들에게 또다시 찾아온 이별은 한이 가득할 뿐이다. 하지만 어쩌면 이는 淪落人과 같은 자신에게 다가온 익숙한 숙명과도 같기에 송은은 마주한 情恨을 담담하게 응시하고 있다. 서로의 내면과 처지를 가장 잘 아는 동지들과 함께 머문 기간, 그들이 보여준 삶의 자취와 의기를 가슴에 담고 다시 북만주로 향하는 그는 자신의 착잡한 심사를 위와 같이 읊으며 이별을 대하고 있다.

심양에서 겪은 송은의 송별에는 국내로 돌아가는 인사와의 송별도 있었다. 이 시기 국내로의 복귀는 사실상 이주 초기 목표를 잠시 미루고 후일의 도모를 의미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그러하기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또 이역에 남는 사람 모두 비통하고 스산할 수밖에 없었다.

送姜松石在天還漢陽 한양으로 돌아가는 松石 姜在天과 송별하다

滿洲邂逅即相親,	만주에서 해후한 뒤 곧장 서로 친해져
晚托孤懷好作隣.	늘그막 孤懷을 의탁하며 좋은 이웃 되었지.
每聽君言消鄙吝	매번 그의 말 듣고는 비루한 마음 씻어냈고
應知我性亦狂眞	응당 나의 본성 또한 狂眞함을 알게 되었다네.
杯樽到處風流足,	도처에 술잔과 술동이로 풍류 족하였고
書劔行裝義氣新.	행장의 책과 검으로 의기 새롭게 일으켰네.
送子漢陽余在藩,	그대를 한양으로 보내고, 나는 심양에 있을테니
明朝悵悵去留人.	내일 아침 悵悵할 떠나고 남는 사람이라네. <sup>54)</sup>

53) 『松隱遺稿』卷1. 菊史 李熙八의 이력과 행적은 미상이다.

54) 『松隱遺稿』卷1, <送姜松石在天還漢陽>. 참고로 松石 姜在天(?~?)은 경북 安東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대한제국 육군 護衛領官으로 있던 중 1907년 8월 일제의 군대해산 조처에 반발, 호남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長城에서 일군과 수차례 교전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중국 동삼성으로 건너가 항일운동을 계속하다가 일경에

무과에 급제한 바 있던 송은과 책과 검으로 무장하고 있던 독립운동가 강재천이 봉천에 머무르며 서로 어떻게 우의를 다졌는지 떠올려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강재천과의 교유는 곧 그의 내면에 여전히 무장투쟁에 대한 고려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에서 송은은 먼저 금방 친밀한 관계를 나누던 좋은 이웃이었던 그와의 이별을 앞두고 지난날의 추억을 회고하고 있다. 이어 고된 이역 생활 속에서도 풍류를 잊지 않고 또 예리한 식견과 날카로운 의기를 품고 있는 강재천을 향한 인간적인 경탄과 신뢰를 동시에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송은은 떠나가는 자와 남는 자의 마음 모두에 그지없는 아쉬움과 섭섭함이 가득할 것임은 쉬이 예견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쉽게 사라지지 않은 감정임을 알기에 비교적 무던히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고국과의 작별 그리고 어렵게 만난 지기이자 이웃과의 송별까지, 송은을 포함한 재만 유림은 이렇듯 ‘二重’ 이별과 마주하며 깊은 애환을 감내하며 지냈다.

만주 일대를 배경으로 탄생한 대부분의 시의 기저에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실에 대한 탄식과 고국을 향한 향수 그리고 이산자의 애수가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와는 다소 상반되는 抒情도 발견되는데 이는 동지의 回甲과 관련된 壽詩가 그것이다. 그의 시는 당시 이역 땅에서 진행된 壽宴의 분위기를 유추하게 만든다.

賀鄭敬翁柱直甲宴 敬翁 鄭柱直的 회갑연을 축하하며

今年甲子屬中元, 금년의 회갑은 中元에 속하니

壽宴翁家天祿存. 옹 집의 壽宴에는 天祿이 있구려.

---

게 붙잡혀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일제의 정보 보고에 의하면 1919년 9월 21일, 심양역에 도착한 京奉線 열차 안에서 爆彈이 발견되자 봉천영사관이 “極力搜索”에 나섰는데 이 일로 그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고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그들의 교유 기간은 대략 3~9월로 비정된다.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누리집(<https://e-gonghun.mpva.go.kr>), 關東軍參謀部, 「[在滿 韓人의 獨立運動狀況],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12』, 1919.09.27.)



祝受華封同一弟, 華封 받음을 축하함은 한 아우도 같으니  
 身兼箕福又多孫. 몸예箕福이 겸하고 자손 또한 많이 보옵소서.  
 前宵屋照南星彩, 어젯밤 집에 南斗星의 광채가 비취  
 是日筵開北海樽. 이날 자리에 북해의 술동이를 열었구나.  
 鐵樹花陰琴瑟奏 鐵樹에 꽃 그림자 드리우고 琴瑟의 곡조 들리니  
 來賓孰不賀而言 어떤 내빈인들 축하의 말 건네지 않으리오.<sup>55)</sup>

中元은 음력 7월 보름 즉 百中이고, 華封은 華封三祝<sup>56)</sup>으로 壽·富·多男子를 의미하며 箕福은 箕가 설한 ‘洪範九疇’에 등장하는 五福<sup>57)</sup>을 이른다. 또 南斗星<sup>58)</sup>은 형상이 北斗星과 비슷하여 붙여진 별자리로 天子의 壽命이나 宰相의 爵祿 등을 맡았다고 알려져 있다. 鐵樹花陰는 ‘鐵樹開花’<sup>59)</sup>에서 유래한 것으로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는 현상이나 실현되기 어려운 일을 의미하는데 시에서는 그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한 수사로 활용되었다. 이역에서 맞이한 동지의 회갑연에 참석한 송은의 마음에 모처럼 찾아온 喜氣가 감지된다. 내면에 가득한 근심과 우환을 잠시 내려놓고 동지의 장수와 자손들의 번영을 기원하며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이 시간, 잠시 그의 내면에 다소간의 여유가 찾아온 듯하다.<sup>60)</sup> 유사한 시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발견된다.

次權重洛壽親韻 權重洛의 壽親에 차운하다

北地君家南極回, 북쪽 땅 그대의 집에 남쪽 끝 온기가 돌아

55) 『松隱遺稿』卷1. 鄭柱直의 호는 漁隱인데 이외의 정보는 미상이다.

56) 『莊子·天地篇』.

57) 즉 壽·富·康寧·攸好德·考終命을 이른다. (『書經·洪範』)

58) 『高宗實錄』 29에는 1892년 고종과 황실 그리고 문부백관이 모여 勤政殿에서 外進饌을 행할 때 致詞文에 “술을 올리며 南斗星에 祝壽하오니 은혜를 널리 베풀며 만년토록 장수하시어 해와 달처럼 밝게 빛나시옵소서.(“酌以南斗, 恩波施廣, 長祝於萬, 日月炳.”, 고종 29년 9월 24일 기유 1번째 기사)”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59) 『五灯会元』卷20, 「焦山师体禅师, “铁树开花, 雄鸡生卵.”

60) 참고로 1926년 10월 1일, 송은 또한 이역 만주에서 자신의 예순 번째 생일을 맞았다. 이때의 정회는 「老布回甲」(『松隱遺稿』卷1)에서 확인된다.

小春時節鐵花開. 음력 시월 小春의 시절 鐵花가 피었구나.  
佳賓滿座爭爲賀, 자리에 가득한 귀한 손님 축하를 다투며  
旨酒盈樽數獻盃. 좋은 술 통에 가득 채우고 누차 술잔 올린다네.<sup>61)</sup> (下略)

小春은 『荊楚歲時記』에서 유래한 말로 음력 10월이 봄처럼 따뜻하다고 하여 일컬어진 용어이다.<sup>62)</sup> 시는 壽宴의 분위기와 풍경을 잘 보여준다. 각지에 흩어져 지내던 동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덕담을 건네고 술을 주고받으며 회포를 푸는 和氣 가득한 그곳의 온도를 잘 묘사하고 있다. 비록 그곳은 척박하고 건조한 지역이지만 동포들의 온기가 있어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던 내면의 끈을 잠시 이완할 수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여유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도 불현듯 스치는 고향과 부모에 대한 간절함 역시 끝내 외면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그는 “천애를 떠돌며 부모 떠난 恨에, 慶事를 만났음에도 진실로 그 뜻을 절로 가누기 어렵구나.”라며 축수를 기원하는 마음과 함께 다소 서글퍼진 자신의 내면을 내비쳐 보기도 했다.<sup>63)</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교유시는 봉천성 일대에서 창작된 것이 다수로 추정되는데, 함께 시회를 갖거나 우소를 방문하는 풍경이 담겨 있고 또 祝壽의 내용도 발견되었다. 각지 거처에 산재하여 寓居하던 이들은 종종 함께 모여 모국어를 사용하며 함께 정담을 나누고, 또 그들의 文語인 한자를 사용하여 말로 못다 한 소회를 밝히며 고단한 이역 생활을 함께 견디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모두는 현지에 대한 동화를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 국내의 유학 전통과 문화를 굳건히 고수

61) 『松隱遺稿』 卷1. 권중락은 안동 출신으로 자세한 것은 미상이다. 1916년 당시 봉천에 머물렀고 이승희의 별세 소식에 이튿날 직접 그곳을 찾아 斂襲을 진행했다. 1919년부터 일제의 정보 보고에 이름이 올랐고 1920년 奉天(居留)朝鮮人會에서 조직한 滿洲農會의 평의원을 지냈다고 한다. (『韓溪遺稿』 7, 「年譜」, 「在奉 鮮人の 動靜 等에 관한 건」,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9』, 1919.04.15; 「獨立運動에 관한 건」, 1919.04.27, 「普通報 第1號」,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14』, 1920.01.14.)

62) (梁)宗標. 『荊楚歲時記』, “十月天氣和暖似春, 故曰小春.”

63) 『松隱遺稿』 卷1, <次權重洛壽親韻>, “天涯淪落離親恨, 遇慶誠難意自裁.”

하고 그것을 전승하려는 의지를 서로의 시를 통해 확인했다.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가늠하기 힘든 고독이 따르는 것임을 이미 잘 알고 있기에 진심을 담은 격려와 위안을 건넸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곧 같은 처지에 놓인 자기를 향한 위안이기도 했다. 요컨대 송은의 교유시는 이역에 머물며 고국의 현실을 애달파하면서도 조국의 독립과 유교 전통의 회복에 일조하고자 분주히 봉천 일대를 누비던 송은 개인과 당시 재만 한인 유럽의 삶과 내면까지를 곡진히 담고 있다.

#### IV. 결론

송은은 망국의 遺臣으로서, 남은 생 동안 절의를 다하고 潔土의 땅에서 선현의 뜻을 계승 및 전승하고자 만주를 찾았다. 일제에 대한 비타협의 의지를 자신의 몸으로 실행했고 또 증명했다. 만주 땅에 도착한 그는 지극한 貧寒과 지대한 悶鬱 속에서도 남은 여력을 다해 성리 전통을 수호하고 조국의 독립에 이바지하는 일에 동참했다. 개인적 수양만을 凝望하는 것이 아닌 조국의 현실을 주시하며 자신이 해야 하는 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결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단 송은만이 보여준 삶의 궤적이 아니었다. 사실 그곳에 머물며 송은과 교류했던 상당수 유럽들의 삶의 양상 역시 대동소이했고 또 직·간접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했기에 이역 만주에서 새롭게 만난 벗들과 급속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격의 없는 우의를 다질 수 있었다.

만주를 배경으로 창작된 송은의 시에는 이민족의 압제와 강제 지배를 피해 만주로 건너가 약 22년간 그곳을 지키다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송은의 곡진한 감정이 여실히 녹아 있었다. 그의 일상을 오롯이 품고 있는 한시에는 류하현에서 봉천으로, 다시 또 북만주 청원으로 이주를 거듭하는 과정에서의 소회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동지들과의 교유 역시 담겨 있었다. 그리하여 한시에는 ‘고독 · 애환 · 비탄 · 회한 · 객수’ 등의 감정이 점철되고 혼재된 고독한 流民이자 遺民이 된 송은의 내면

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또한 교유시는 망망한 이역에서 그와 함께 교류하며 암흑과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당대 만주 유림의 내면까지도 포괄하고 있었다. 이들은 각기 다소 상이한 배경과 목표를 갖고 만주에 도착했지만, 삽시간에 天涯知己가 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관계로 거듭났다. 이들 서로는 可矜한 현실 속에도 신념을 지속하고 번민 가득한 마음을 잠시 달랠 중요한 내적 의지처가 되었다. 또 詩會나 壽宴에서 그들이 함께 있는 공간은 다소나마 고국의 온기를 재현하고 있는 ‘이역 아닌 이역’이 되었다. 비록 식민지가 된 조국의 상황과 현지 만주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이들의 교류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지만 짧은 교류 속에서 창작된 시에는 서로를 향한 강한 동지애와 동포애가 표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곧 赤貧한 비주류의 삶을 함께 자처했던 동지들과 함께 나누는 깊은 층위의 人間愛였고, 관념적으로만 상기되던 것이 아닌 온몸으로 체감되고 각인된 祖國愛의 면모였다.

결론적으로 송은의 삶과 한시는 일제 식민지배 이후 현지 정착 및 독립운동 사이에 놓였던 재만 유림의 삶과 내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송은을 포함한 재외 유림의 한시에는 국내에서 창작된 한시에는 나타날 수 없는 특수한 경험을 담고 있기에 근대기 한국 한시사의 주목할 만한 유산이자 중요한 갈래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 한문학이라는 경계를 넘어 근대기 한국 이산문학의 초기 형태라는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도 수반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 향후 재만 유림의 문학 세계에 대한 면밀한 후속 연구와 발굴을 기약하는 바이다.

※ 이 논문은 2022년 10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松隱遺稿』, 『守坡集』, 『韓溪遺稿』, 『中華遊記』.  
『高宗實錄』, 『東亞日報』, 『朝鮮日報』.

- 강대덕, 「華南 朴長浩의 學統과 抗日獨立運動」, 『의암학연구』 6, 의암학회, 2008.
- 김 영, 「중국 요녕성의 벼농사와 조선인 이민사회, 1875~1931」, 『한국학연구』 2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 이숙화, 「경북인의 대종교 수용과 국외 항일운동」, 『고조선단국학』 42, 고조선단군학회, 2020.
- 이명화, 「1920年代 滿洲 지방에서의 民族教育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 이은영, 「수과 안효제의 서간도 망명과 우국시」, 『한문학보』 25, 우리한문학회, 2011.
- 이은영, 「20世紀初 儒敎知識人の 亡命과 漢文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은영, 「송은 안창제의 서간도 망명시 연구」, 『대동한문학』 41, 대동한문학회, 2014.
- 이준식, 「만보산 사건과 중국인의 조선인식」,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2012.
- 임종진, 「晩求 李種杞의 성리학적 입장에 대한 검토」, 『퇴계학과 유교문화』 43, 경북대학교 퇴계학 연구소, 2008.
- 장세운, 「許亨植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 정경주, 「수과 안효제의 경륜과 절의」, 『남명학연구』 33, 남명학회, 2012.
- 한길로, 「삼주 이기원의 삶과 한주학(寒洲學) 전승의 일면 고찰」, 『한국민족문화』 7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 한길로, 「1910년대 지방 유림의 중국 이주 과정과 귀향의 동인 고찰」, 『인문논총』 79-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 한길로, 「도암 정돈섭(陶庵 丁敦燮)의 삶과 시 세계 고찰」, 『한민족어문학』 96, 한민족어문학회, 2022.

嶺南學 제83호(2022)

황명환, 「守坡 安孝濟의 한시에 나타난 만주 공간 인식과 그 의미」, 『영남학』 7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교문헌시스템 (<http://nmh.gsnu.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

Abstract

A Study on the Move and Poetry of Songeun Ahn  
Chang-je during the Period of Residence in  
Manchuria(1910~1931)

Han, Gil-ro

Around the 1910s, Manchuria came to mean more than just the one's old territory. This was related to the migration of Koreans to Manchuria and included Confucian intellectuals. For them, it became a land of exile and served as an opportunity to preserve tradition and prepare for the independence of their country. Song Eun-eun An Chang-je (1866-1931) from Uiryeong, Gyeongsangnam-do, was also a Confucian intellectual and literary person who participated in this procession. After leaving for Manchuria, he never returned to his homeland and stayed there for 22 years. However, he lives were sacrificed during 1931. There are only about 90 poems, but his poems reflect the his life and inner side of the Confucian scholars living in Manchuria at the time. Among the Friendship Poetry, can be very remarkable because it is possible to check the inner side of not only song-eun but also colleagues. In the poem, he expressed his inner self, which was a mixture of "solitude, sadness, remorse, and alienation," and at the same time, he expressed comfort and encouragement to his friends met in Manchuria. At poetry meetings and sixtieth birthday parties with his colleagues, he briefly felt calm. His poem is a realistic expression of the Diaspora's loneliness, humanity toward his comrades, and also the intense love of his country. In short, his poem

raises the need for a detailed review and excavation of the works of Korean Confucian scholars in Manchuria, including Song Eun.

**keywords :**

Song Eun-eun An Chang-je, 『songeunyugo(松隱遺稿)』, Korean Confucian scholars in Manchuria, Modern Chinese Poetry of Korea, Korean diasporic literature.



## 서양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술가 청남(晴南) 이상정 연구

이 인 숙\*

- I. 머리말
- II. 서양화가 이상정의 활동
  - 1. 유소년기의 환경과 미술교사
  - 2. 개인전과 단체전
  - 3. 벽동사
- III. 조각가 이상정의 인보 3종
  - 1. 『청담인보』(1935년)
  - 2. 『청금산방인인』(1936년)
  - 3. 『청금산방금석고』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대구 출신의 청남(晴南) 이상정(李相定, 1897-1947)은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다. 이상정이 독립운동가인 동시에 서양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술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0대에 일본 도쿄에 수년 간 유학한 이상정은 계성학교에 재직하며 대구에 서양미술을 전파했고, 1921년 서양화 개인전을 열고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1923년 벽동사(碧

\* 경북대학교 강사 / de4e@daum.net

瞳社)를 조직해 미술운동을 벌였다. 이상정은 대구의 첫 한국인 미술교사이고, 대구에서 처음 서양화 개인전을 열었으며, 서양미술 분야에서 미술가 단체를 최초로 조직한 1920년대 대구 서양화단의 선구자였다.

미술운동과 계몽운동에 열심이던 서양화가 이상정은 1925년 29세 때 독립운동을 위해 하얼빈으로 망명했고 곧 중국군에 합류했다. 이상정은 이국땅을 표박하며 항일전선에 참여하는 와중에 전각에 심취해 많은 인장을 새겼고 자신의 전각 작품을 수록한 3권의 인보(印譜)를 남겼다. 이상정이 중국이라는 환경에서 서양화가에서 전각가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가학으로 한학을 배워 일찍부터 동양고전과 시서화의 소양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정이 남긴 3권의 인보는 국립중앙도서관 위창문고에 소장된 『청람인보(晴嵐印譜)』(1935년), 대구의 개인소장품인 『청금산방인원(聽琴山房印苑)』(1936년), 중국 홍콩의 개인소장품인 『청금산방금석고(聽琴山房金石稿)』 등이다. 수록된 전각 작품은 각각 200여 방, 240여 방, 100여 방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 손수 편집했고 자필 표제와 서문이 있는 이상정의 서예 자료이기도 하다.

이상정은 일제에 맞서 무력으로 투쟁한 장군인 독립운동가다. 동시에 이상정은 1920년대 대구에서 서양화가로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중국으로 건너간 1930년대는 전각가로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상정의 미술가로서의 면모를 밝힌 첫 논문인 이 연구를 통해 20세기 대구의 선구적 서양화가이자 전각가로 이상정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이상정, 청남, 청금산방, 전각가, 독립운동가, 대구

## I. 머리말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 중국으로 망명해 항일운동에 참여한 청남(淸南) 이상정(李相定, 1897-1947)은 중국군에서 참모직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은 독립운동가다. 군인인 이상정이 미술 분야에 업적을 남긴 미술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는 독립운동가 이상정의 미술가로서의 면모를 밝히고자 한다. 미술가 이상정은 국내에서는 선구적인 서양화가였고, 중국으로 망명한 이후에는 전각 작품을 남긴 전각가였다.

이상정이 서양화와 전각이라는 이질적인 두 분야의 미술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두 종류의 교육으로 인해 가능했다. 이상정은 어려서는 가학(家學)으로 한학(漢學)을 배우며 동아시아 고전 인문학과 시서화의 교양을 쌓았고, 10대에 수년 간 일본에 유학하며 미술, 군사학, 역사, 상업, 외국어 등 다방면의 신학문을 배웠다.<sup>1)</sup> 이상정은 대구와 도쿄에서 신구의 학문을 모두 배운 독특한 수학 과정으로 인해 서양화가로, 전각가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이상정은 서양화 창작활동을 하며 서양미술을 전파하는 다양한 미술운동을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운동, 사회운동을 주도적으로 하던 이상정은 29세 때인 1925년 5월 경 하얼빈으로 건너갔고 곧 중국군에 합류해 항일전선에 참여한다. 그런 중에 이상정은 전각에 심취해 많은 인장을 새겼고 자신의 전각 작품을 손수 편집한 세 권의 인보(印譜)를 남겼다.

먼저 서양화가로서 이상정의 면모를 그가 유소년기에 받은 교육과 당시 대구의 미술적 환경, 미술교사로서 끼친 영향, 개인전과 단체전 등 전시회를 통한 작품 활동, 그가 만든 미술가 단체 벽동사(碧瞳社) 등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망명 이전 이상정은 미술교사이자 서양화가, 미술운동가였다. 전각가 이상정에 대해서는 그가 남긴 전각 작품집인 3권의

1) 이 논문에서 이상정의 나이는 우리식 세는 나이임. 이상정의 생애는 이상규, 『국민혁명군 이상정의 북만주기행』, 민속원, 2020, 12~19쪽 「이상정 장군 연보」 참고.

인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고 서문을 분석해 1930년대 우리나라 전 각계에서 이상정을 자리매김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상정의 미술 활동에 주목해 그 업적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미술가 이상정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알려진 자료가 많지 않아 그의 발자취를 살펴보기 쉽지 않다. 관련 자료가 충분치 못한 이유는 이상정이 중국 망명 후 22년 동안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아 오랫동안 국내와 단절되었다는 점, 중국에서 이연호(李然皓)라는 가명으로 활동해 그가 대구 출신의 이상정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점,<sup>2)</sup> 광복 후 뒤늦게 1947년 귀국해 마땅한 조명을 받지 못한 점, 귀국 두 달여 만에 뇌일혈로 급서해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상정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료의 발굴과 복원, 섬세한 해석으로 극복되어야 할 부분이다.

독립운동가 이상정은 1920년대 대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서양화가이고, 1930년대에는 중국에서 많은 전각 작품을 남긴 전각가이다. 미술가 이상정에 대한 첫 논문인 이 연구를 통해 이상정을 선구적 서양화가이자 전각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서양화가 이상정의 활동

### 1. 유소년기의 환경과 미술교사

이상정은 유소년기에 한학의 기초에서부터 동아시아 고전에 대한 소양과 시서화의 교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었다. 부유한 집안이었던 데다 이상정이 10세 때인 1906년 무렵 큰아버지 이일우(1870-1936)가 수백종의 동서양 서적을 자비를 들여 구입해 세운 도서관 우현서루(友弦書

---

2) 이상정, 『중국유기(中國遊記)』, 청구출판사, 1950, 161쪽, 정하택의 「遺稿上梓에 際하여」에 나온다.

樓)가 설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sup>3)</sup> 이상정은 우현서루를 바탕으로 큰아버지가 운영한 사숙(私塾)에서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다.

우현서루는 외세의 침탈에 맞서 우리민족의 앞날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상정의 할아버지 이동진(1836-1905)의 뜻을 받들어 세워졌다.<sup>4)</sup> 이동진은 상업으로 자수성가하여 큰 재산을 모은 신흥부자로 가난한 친족을 위해 전답을 내놓아 의부(義富)를 실천한 인물임을 「이장서(李庄序)」로 알 수 있다.<sup>5)</sup> 우현서루는 현재 대구시 중구 수창동 101번지 일대에 있었다. 넓은 땅에 건물을 지어 많은 책을 구비하였으며, 기숙시설을 갖춘 우현서루는 당시 민족사회의 급선무였던 민지(民智) 계발과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물적 기반이었다.<sup>6)</sup>

우현서루는 전통시대 지식층 남성의 교유공간인 사랑(舍廊)의 역할을 했다. 사랑방, 사랑채를 경영한 정신은 우정과 환대이다. 경상도의 융성한 접빈객(接賓客)으로 우현서루가 일제의 핍박과 감시를 받는 우국지사들에게 제공한 조건 없는 독서와 체류는 조선시대 독서당이나, 요즘의 연구원과 같은 격려가 되었다.<sup>7)</sup> 우현서루는 영남 일대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지사들이 모여들어 시국을 담론하며 나라를 걱정하고 의기를 북

- 3) 우현서루에 대한 이른 기록이 1906년 10월 『대한자강회월보』 4, 42쪽에 나온다(최기영, 「이상정(1897~1947)의 재중독립운동」, 『역사학보』 200, 2008, 348쪽).
- 4) 이상정은 큰아버지 이일우에게 올린 ‘제문’에서 “書樓를 지은 일은 본래 조부가 만년에 품으신 遺志를 따라 부군께서 선친의 유지를 능히 이으신 것인데, 재력은 미치지 못하였지만 성실히 경영하시어 십여 년의 세월 동안 무수한 寒士들이 그 덕에 학문을 이루었으나 문독 禁습을 받고 중도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이상규, 『달구벌이 낳은 예술가이자 독립운동가 이상정과 이여성』, 민속원, 2021, 146쪽).
- 5) 「李庄序」는 이동진이 일가를 위해 전답을 내놓은 이씨 집안의 공동농장인 ‘李庄’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이동진·이일우 저, 박영호 역주, 『성남세고(城南世稿)』, 경진출판, 2016, 38~39쪽).
- 6) 우현서루에 대해서는 최재목·정다운·김찬우·곽재관, 「일제강점기 신지식의 요람 대구 「우현서루」에 대하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9, 2009, 211~225쪽 참고.
- 7) 讀書堂은 조선시대에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세운 기구로 湖堂이라고도 한다. 독서당 제도는 세종대의 賜暇讀書制로부터 비롯되었다. 세종은 집현전 소속의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했다.

돈우던 곳이다. 이곳을 다녀간 인물이 장지연, 이동휘, 박은식, 장지필, 조성환, 김지섭 등 150명이 넘었다고 한다.<sup>8)</sup>

1911년 경 우현서루가 불령선인(不逞鮮人: 불온한 조선인)을 양성한다는 이유로 조선총독부 학무과에 의해 강제 폐쇄되자 우현서루의 재원과 뜻은 교육단체인 강의원(講義院)으로 계승되고 이어서 교남학원(1921년)→대구교남학교(1924년)→대륜학교(1940년)로 이어져 대륜중학교(1942년), 대륜고등학교(1950년)로 대구 신교육의 한 줄기가 되었다.<sup>9)</sup> 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에 민족의 자강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이동진 가문의 진실한 뜻과 희생적 기부로 이루어진 우현서루는 그 시기와 규모에서 특히 빛난다.

이동진의 호 금남(錦南)은 이상정의 큰아버지 소남(小南), 아버지 우남(又南), 사촌형 긍남(肯南), 이상정 자신의 청남(淸南)과 막내 동생의 모남(慕南), 이상정의 외아들 승남(承南)까지 4대가 '남(南)'자 돌림 호로 이어졌다. 이상정의 호 청남은 할아버지 금남의 겸애(兼愛)의 정신을 잇고 아버지 우남을 잇는 위선위공(爲先爲公)의 정신이 담긴 호이다.

이상정이 어떻게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지만 그가 전통학문을 익히던 유소년기 대구에는 서예가이자 문인화가인 석재(石齋) 서병오(1862-1936)가 활약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 당시 대구의 유명인사인 서병오는 한미한 집안 출신임에도 서화를 매개로 홍선대원군 이하응(1820-1898)에게 어린 나이에 인정을 받았고, 중년에 중국을 여행하며 운미 민영익(1860-1914), 상해 화단의 원로 서예가이자 화가인 포화(蒲華, 1830-1911) 등 쟁쟁한 인물들과 교유했기 때문이다.<sup>10)</sup>

그림과 글씨를 통해 서병오가 한 시절 조선천하를 좌지우지한 최고의 권세가이자 왕족인 이하응과 민영익에게 인정받은 사실은 대구의 소년

8) 신동근, 「청남 이상정 장군 고」, 『승남이중회교수회갑기념수필및학술논문선집』, 승남이중회교수회갑기념학술논문집발간위원회, 1979, 14쪽.

9) 『대륜육십년사』, 대륜고등학교, 1981 참고.

10) 서병오에 대해서는 이인숙, 『석재 서병오 필묵에 정을 담다』, 중문출판사, 2018 참고.

들에게 미술이 하나의 재능을 넘어 최고의 교양이자 출세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충분했다. 더구나 이상정은 큰아버지 이일우가 서병오와 사돈이어서 서병오의 활약상을 더욱 잘 알았다.

서병오가 김진만(1876-1933)과 함께 베이징에서 강남까지 중국을 여행하며 현지의 명사들과 시서화로 교류하며 이름을 떨친 1909년 이상정은 13세의 소년이었다.<sup>11)</sup> 이 여행에서 서병오는 상해에서 민영익에게 유서 깊은 고연(古硯)을 선물 받았고, 당시 80세의 노대가 포화에게 <죽석도(竹石圖)>와 <행서 대련>을 직접 선물 받아 대구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명품으로 인해 서병오의 명성이 대구사람들에게 더욱 실감났을 것이다.<sup>12)</sup> 포화의 작품은 서병오의 방에 그가 작고할 때까지 걸려 있었고,<sup>13)</sup> 서병오는 이하응이 직접 써 준 서예 대련도 가지고 있었다.<sup>14)</sup>

1920년대는 서화가 민족문화를 담지한 분야로 소환되며, 교양의 범주에서 벗어나 미술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되며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켜 강습소가 출현하던 때다.<sup>15)</sup> 대구에서는 미술가가 되려는 젊은 층이 구미술과 신미술 두 분야에서 모두 활발하게 나왔다. 구미술인 서예와 사군자화로 미술가의 길에 들어선 신예로 서병주(1884-1956), 배효원(1898-1942), 서동균(1902-1978), 이원일(1906-?) 등이 있고, 신미술

11) 김진만은 독립군 군자금 마련을 위해 1916년 '대구 권총강도 사건'을 일으켜 대구형무소에서 8년 4개월 복역한 독립운동가이자 문인화가이다. 김진만에 대해서는 이인숙, 「근대기 대구의 문인화가 공석 김진만(靑石 金鎭萬, 1876-1933) 기명절지화 연구」, 『민족문화논총』 52, 2012, 483~485쪽 참고.

12) 서병오의 중국 여행과 민영익, 포화에게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이인숙, 「서화가 서병오의 중국행 시기와 기간에 대한 고찰」, 『대구경북연구』 17/2, 2018, 55~75쪽 참고.

13) 박근술, 「석재의 생애 연구」, 『논문집』 13, 한양여자전문대학교, 1990, 111쪽.

14) 김정숙, 『홍선대원군 이하응의 예술세계』, 일지사, 2004, 349쪽 도109 이하응, <행서 대련> “我書意造元無法 此老胸中亦有詩 應囑徐少年石齋 老石六十三叟”

15) 근대기 전통미술 교육은 서울에서 경성서화미술원(1911년)이 청년화가 양성을 위한 강습소 기능 중심의 서화미술회로 1912년 재 설립되며 시작되었고, 이어 평양에 기성서화미술회(1913년)가 설립되었다. 1920년대에는 대구의 교남시서화연구회를 비롯해 개성의 송도서화연구회(1922년), 부산의 동래서화연구회(1922년), 밀양의 밀양서화연구회(1923년) 등이 설립되었다. 근대기 서화강습소 설립에 대해서는 홍선표, 『한국근대미술사』, 시공사, 2009, 106~115쪽 참고.

인 수채화와 유화로 서양화가 되려한 이상정, 이여성(1901-?), 박명조(1906-1969), 서동진(1900-1970), 이인성(1912-1950) 등이 있었다.

구미술 쪽에는 교남시서화연구회, 신미술 쪽에는 영과회와 이어서 향토회로 결집해 미술활동을 이어갔다. 1922년에는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인 조선미술전람회가 창설되어 미술로 입신양명을 꿈꾸는 미술가 지망생의 열망을 더욱 부추겼다. 서병오는 조선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으로 첫 회부터 1929년 제8회까지 5차례 초빙되며 서울을 오르내렸다.<sup>16)</sup>

이상정이 12세 때 아버지 이시우(1877-1908)가 32세의 젊은 나이로 작고한다. 이상정은 4형제의 맏이로 상화, 상백, 상오 등 3명의 동생이 있다. 이상정의 동생들도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인물이다. 이상화(1901-1943)는 이름 높은 저항시인이고, 이상백(1904-1966)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며 체육인이고, 이상오(1905-1969)는 수필가이자 저술가이다. 아버지의 삼년상을 치른 후 홀어머니와 3명의 동생을 거느린 10대 중반의 가장 이상정은 도쿄로 유학을 떠난다.

이상정의 생애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라며 한학과 시서화의 교양을 익힌 전통학문 수학기, 도쿄에서 다양한 분야의 신학문을 배운 유학기, 대구로 돌아와 계성학교 미술교사를 비롯해 여러 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며 창작활동과 사회운동을 한 국내 활동기, 망명 이후 중국 활동기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상정의 일본 유학에 대해서는 날짜와 기간에 이견이 있는데 1912년(16세) 무렵부터 1917년 전후까지 도쿄성성학교(東京成城學校)에서 군사학을, 국학원대학(國學院大學)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며 아울러 미술, 상업, 영어 등을 배운 것으로 여겨진다.<sup>17)</sup> 성성학교는 육군사관학교 진

---

16) 김지영, 「석재 서병오(1862-1936)의 서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5쪽; 『매일신보』는 제7회 조선미전의 조선인 심사원 소개에서 서병오를 “조선 서화계에 새로운 방법론의 다각적인 제시로 시사한 바가 크며 온유한 미술대가인 동시에 고상한 인격자이며, 사계 인사로서 그를 경모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매일신보』1928년 4월 5일자).

17) 이상정이 1912년 12월 16일 도쿄에서 성성학교 중학과정 졸업을 인정받고 전문과 입학의 위해 큰아버지 이일우에게 학자금을 요청하는 편지가 전한다(이상규, 앞의



학을 위한 예비학교로 만들어진 사립 특수 군사학교여서 이곳에서 수학한 경험은 훗날 그가 중국군에 활동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sup>18)</sup> 그 사이 이상정은 경북 청도 출신의 한문이(1897-1966)와 결혼해 20세 때 딸 선희(1916-?)를, 22세 때 아들 중희(1918-1990)를 얻는다.

유학에서 돌아온 이상정이 21세 때인 1917년부터 1919년까지 계성학교에서 도화(圖畵)교사로 재직한 것이 교원명부에서 확인된다.<sup>19)</sup> 도화는 지금의 미술이다. 이상정이 계성학교 미술교사 시절 가르친 제자 서동진은 근대기 대구 서양화단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정은 대구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배후로 지목되어 서울로 피신한 동생 이상화와 마찬가지로 이때 대구를 떠나 도피하게 되면서 계성학교를 그만둔다. 이 시기에 평양의 광성고보,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 서울의 경신학교 등에서 교사생활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sup>20)</sup>

이상정의 제자 서동진 또한 삼일운동으로 퇴학당하자 서울로 올라가 휘문고보를 마쳤고, 일본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돌아와 서양화 창작활동을 하며 개인전을 여는 한편 1927년 ‘대구미술사’를 세운다. 대구미술사는 미술관련 인쇄를 중심으로 한 종합미술센터로 이곳을 통해 이인성, 김용조가 발돋움하게 되고 대구 서양화단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앞서 언급한 외에도 최화수, 김호룡, 배명학, 김용준, 이상춘, 이갑기, 서병기 등의 서양화가들이 근대기 대구화단에서 활동했다.<sup>21)</sup> 이상정이 뿌린 씨앗이 제자인 서동진을 중심으로 풍성하게 전개된 것이다.

이상정은 29세 때인 1925년 5월 경 홀어머니와 3명의 동생, 부인과

책(2021), 123~126쪽).

18) 최기영, 앞의 논문, 349~351쪽.

19) 『계성100년사』, 계성100사편찬위원회, 92쪽.

20) 평양 광성고보에서 이상정이 1921년 3월 28일 큰아버지 이일우에게 보낸 문안편지가 전한다. 발신인 단에 “平壤府 南山町 私立 光成高普 校內 姪子 相定 書”라고 했다(이상규, 앞의 책(2021), 127~129쪽).

21) 근대기 대구 화단에 대해서는 윤범모, 「향토회와 대구화단」, 『한국근대미술사학』 4, 1996, 6~99쪽 참고.

1남 1녀가 있는 고향을 뒤로하고 중국으로 떠났다. 이후 1947년 귀국할 때까지 만주와 내몽고 지역을 비롯해 베이징, 난징, 항저우, 난창, 충칭, 상하이 등 중국 땅을 표박(漂泊)하며 중국군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해 항일전선에서 활약했다. 대한민국정부는 1977년 이상정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1920-30년대 대구는 이상정과 동생 이상화, 이여성과 동생 이쾌대, 서동진 등 ‘청년유지’인 젊은 엘리트층을 비롯해 가난했지만 화가를 꿈꾸는 이인성, 김용조 등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에게 미술을 마음속에 새기게 한 미술 열기가 있었다. 이상화도 한 때 그림을 그렸다. 이러한 지역적 분위기의 저변에 서화를 발판으로 최상류층과 교유한 서병오의 유명세로 인한 서화 붐이라는 동력이 있었고, 직접적으로는 대구 서양화단의 문을 연 미술교사이자 선구적 서양화가인 이상정이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

## 2. 개인전과 단체전

삼일운동 직후 도피했던 이상정이 언제 돌아왔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1921년에는 대구에 있었다. 1950년 출판된 이상정의 유고집 『중국유기(中國遊記)』 첫머리에 실린 ‘장군의 약력’에 단기 4254년인 1921년 ‘대구에서 양화개인전람회 개최’라고 나오기 때문이다. 이상정의 서양화 개인전에 대한 기록은 현재 이것이 전부이다. 연도만 있을 뿐 날짜도 알 수 없고, 어떤 장소에서 했는지, 작품 내용이 어떤지, 출품작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수채화인지 유화인지 등을 알 수 없다. 다만 이 유고집 간행에 이상정과 이상화를 잘 알고 있는 대구의 문화계 인사 30명이 참여했고,<sup>22)</sup> 1950년이면 이상정이 작고한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 약력을 의심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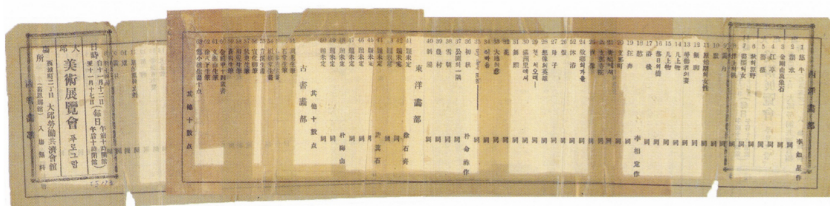
이상정의 ‘양화개인전람회’는 대구 최초의 개인전이자 대중 전람회가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상정이 서양 화가로 유화나

---

22) 이상정, 앞의 책, 164쪽.

수채화를 그려 대구 서양미술의 첫 장을 연 것은 분명하다. 이듬해인 1922년 1월 대구에서 서병오를 회장으로 서예가, 사군자화가들의 모임인 교남시서화연구회가 창립되고 이어서 5월 대구모 ‘서화전람회’가 열렸다.<sup>23)</sup> 이듬해 열린 교남시서화연구회의 제2회전은 ‘미술전람회’로 개최되며 서양화부, 동양화부, 고서화부 등 세 분야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미술전람회’는 1923년 11월 12일부터 6일간 노동공제회관에서 열렸는데 대구에서 서양화가 대구모로 선보인 첫 전람회였다. 이 때 나온 ‘대구 미술전람회 프로그램’(〈그림 1〉)에 출품자와 작품 제목이 나와 있다.



<그림 1> 1923.11.12-17 ‘대구 미술전람회’ 프로그램

이름이 언급된 서양화가는 3명으로 이여성, 이상정, 박명조의 작품이 각각 17점, 18점, 5점이며 ‘기타십수점(其他十數點)’이 서양화부에 출품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이상정의 출품작은 연번 18-35까지이며 작품 제목은 아래와 같다.

- <수(愁)>, <광분(狂奔)>, <지나정(支那町)>, <청도(靑嶋)에서>,  
 <지나사원(支那寺院)>, <초상(肖像)>, <고향(故鄉)의 가을>,  
 <목욕(沐浴)>, <한(恨)>, <모자(母子)>, <상상(想像)의 영웅(英雄)>,  
 <첸 치오래->, <만주리(滿洲里)에서>, <무도(舞蹈)>, <화(花)>,  
 <대지(大地)의 비(悲)>, <이 마음>, <마이 디어 미스(my dear miss)>

23) 서병오의 다양한 인물상과 교남시서화연구회에 대해서는 이인숙, 「석재 서병오(1862~1936)와 ‘교남시서화연구회’의 재인식」, 『민족문화논총』 45, 2010, 345~379쪽 참고.

제목은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상정의 작품은 아직 하나도 발견되지 못했다. 이상정의 서양화 작품 활동은 기록으로만 확인된다. 이 제목으로 보면 이상정이 풍경화, 초상화, 인물화, 누드화 등 다양한 장르의 그림을 그렸고, 사실적인 풍경이나 인물 외에도 근심, 분노, 한, 슬픔 같은 추상적인 감정도 주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청도(靑嶋)에서>, <만주리(滿洲里)에서>, <지나사원(支那寺院)>, <지나정(支那町)> 등 4점은 중국과 연관된다. 그가 삼일 만세운동 직후 도피했을 때 내몽골 지역의 만주리, 산동성 청도 등 중국을 여행했으며 그런 경험이나 스케치에 의거한 작품일 것으로 여겨진다.

1923년의 ‘미술전람회’는 “남국의 정조(情調)와 풍토를 가진 곳에서 처음 표현되는 예술의 빛”이며 “입장인 수는 매일 오륙백명에 달하는 성황을 이루어 좁은 공계회관이 더욱 복잡”한 상황이라고 보도되었다.<sup>24)</sup> “대구에 이만한 미술가가 있었는데 의심할 만함”이라는 기자의 감탄은 대중의 관심이 서양화에 쏠렸다는 사실과 대구미술의 중심이 서화에서 서양화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미술전람회’는 유화와 수채화 등 양화를 하는 서양화가, 서예와 전통회화를 하는 서화가, 고서화를 소장한 고미술 애호가 등 세 분야 미술인이 함께 참여한 점이 이색적이다. 서화와 서양화의 동반성장과 고서화 소장가인 미술 애호층의 존재감은 1920년대부터 나타나는 대구미술의 한 특징이다. 대구 미술계의 이러한 신규 소통적 성향은 이상정이 서양화가였다가 전각가로 전환할 수 있는 미술가로서의 바탕과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 3. 벽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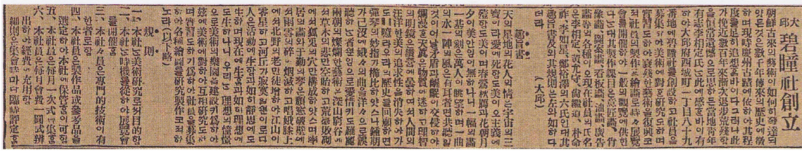
벽동사(碧瞳社)가 설립된 것은 1923년 11월의 ‘미술전람회’로부터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미술전람회’가 대성공을 거두고 새로운

---

24) 『동아일보』 1923년 11월 17일자, ‘대성황의 대구미전’

미술인 서양화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자 이러한 호응에 고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아일보』에 미술 연구를 위해 벽동사가 설립되었는데 “대구 서성정(1정목 89번지)에 있으며, 지난 14일 군방각(群芳閣)에서 대구에 있는 각 신문사 기자를 초대해 피로연을 개최”했다고 보도되고 있어 벽동사 창립일이 12월 14일임을 알 수 있다.<sup>25)</sup>

『매일신보』는 『동아일보』와 달리 벽동사 창립에 대한 취재 기사와 설립 ‘취지서’, ‘규칙’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그림 2>).<sup>26)</sup>



<그림 2> 1923.12.25 『매일신보』 ‘대구 벽동사 창립’

이 기사를 통해 이상정의 미술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맞춤법과 한문 투는 현대어 표기와 어법에 맞게 바꾸었다.

우리나라에서 옛부터 예술이 어떻게 발달해왔던가 하는 것은 수 천 년 전해오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주 고적을 보더라도 그 정도를 충분히 거슬러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 수 백년 이래 점차 퇴보(退步)할수록 함을 향상 유감으로 생각하던 대구의 청년유지 이상정씨는 이에 느낀 바 있어 대구부 서성정 1정목 89번지에 벽동사를 창설하고 사원(社員)을 모집하여 미술에 대한 연구도 하고 실습도 하여 최잔한 예술을 부흥시키고자 사원이 제작한 회화로 때때로 전람회를 개최하여 일반의 관람에 이바지한다고 한다. 그 제작 과목은 의장화(意匠畵), 초상화, 도안화, 관판화, 유화, 광고화 등 각종이다. 현재 사원은 이상정, 황윤수(黃允守), 상계도(尙繼道), 박명조(朴命祚), 이여성(李如星), 정유택(鄭裕澤) 등 여섯 명인데 그 취지서와 규칙은 오른쪽과 같다더라. (대구)

이상정이 주도한 벽동사에 서양화가 5명이 함께 했다. 제작 과목에

25) 『동아일보』 1923년 12월 21일자, ‘미술연구 碧瞳社 설립’(대구)

26) 『매일신보』 1923년 12월 25일자, ‘(대구)벽동사 창립’

들어있는 의장화, 도안화, 간판화, 광고화 등은 명백히 상업적 용도의 미술이고, 초상화는 주문에 의한 맞춤 제작이며, 유화는 재료부터 낫선 새로운 미술이다. 이러한 제작 과목을 보면 벽동사는 순수예술 창작을 서로 독려하기 위한 화가들의 모임이라기보다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분야에 미술을 접목하고 보급하려는 미술운동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했다. 이상정은 벽동사를 통해 서구의 문물이 밀려오는 근대라는 시대정신에 맞는 세련된 문화로서 미술을 생활 속 디자인으로 자리 잡게 하려 한 것이다. 이어서 신고 있는 취지서는 다음과 같다.

하늘의 별, 땅의 꽃, 사람의 정(情)은 우주의 삼보(三寶)이다. 사랑에 죽는 것도 아름다움이고, 이념에 죽는 것도 아름다움이며, 춘앵추안(春鶯秋雁)과 화조월석(花朝月夕)이 아름다움 아님이 없다. 한 폭의 그림, 한 점의 조각은 만인이 바라보며, 한 구비물, 한 줄기 바람은 귀가 있는 자라면 모두 듣는 것이다. 그러나 모순과 악착(齷齪)이 서로 침투하여 난만한 천진은 물질에 미혹되고 이지(理智)의 명경(明鏡)은 찬영(鑛營)에 흐려져 인간의 왕양(汪洋)한 아름다움에의 추구를 소실시켰다. 슬프다. 우리의 역사를 회고하면 탄금(彈琴)의 오묘한 명수가 즐비하였으나 종자기(鍾子期)가 죽으니 ‘아아(娥娥)’의 곡을 ‘양양(洋洋)’으로 잘못 듣는 자뿐이다. 애석하게도 신라와 고려 두 왕조의 찬란한 예술은 심산궁곡(深山窮谷)에서 초목의 슬픔만 헛되이 받고 있으며 황옥패체(荒屋敗砌)하여 여우와 토끼만 구멍을 내고 있다. 술거의 그림과 우륵의 금(琴)은 퇴창파벽(頽窓破壁)에서 눈비에 쇠쇄연멸(碎碎烟滅)하고 창아(唱娥)의 무릎 위에서 북야(北野)의 노쇠함만 무리를 더하여 강산이 영성(零星)하고 하구(河丘)가 적막할 뿐이다. 사람은 활동함에서 살고 마찬가지로 생각으로도 살며, 현실에 살고 마찬가지로 이상에도 산다. 우리는 이상을 동경하며 미술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에 미술에 대하여 상호 연구도 하고 실습도 하기 위해 사원을 모집하여 각종 회도(繪圖)를 연구하고 제작하고자 한다. (이하 생략)

이 취지서는 당시 27세인 이상정이 작성했을 것이다. 동양고전을 해박하게 인용한 의미심장한 문투와 미술을 대하는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이 먼저 눈에 띈다. 자연미와 예술미를 동등하게 보는 미(美)의 편재성에 대한 이상정의 인식과 신라, 고려의 예술에 대한 강한 자부심도

알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어려웠던 1920년대에 ‘황잔’한 상태에 있던 경주 고적의 가치를 인식한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 미술과 음악의 역사를 자부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역사와 민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대 미술의 쇠락을 탄식하며 ‘미술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 벽동사를 설립해 연구하고 제작 활동을 한다는 취지이다. 생각과 실천, 이상과 현실이 별개의 세계라는 사실을 천명하면서도 미술의 낙원을 건설하고 싶다는 자신의 이상을 위해 현실적 방법을 찾아 동지를 모으고 실천할 단체를 만들고 이런 사실을 공표한 이상정의 미술에 대한 열정을 알려주는 사건이 벽동사 설립이다.

이어서 ‘규칙’ 6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 매월 1회 모이며 회비 일원(一圓) 씩을 내 경비에 충당한다는 항목이 있다. 매월 모였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등 설립 이후 벽동사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벽동사의 벽동은 ‘푸른 눈동자’다. 말 그대로 검은색이나 갈색이 아닌 푸른 눈을 지닌 벽안의 비 아시아계 외국인을 뜻하기도 하고, 고전 문헌에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초탈한 인물의 시원한 눈빛으로 비유하기도 하며,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함 또는 신선의 용모를 묘사할 때 그 눈을 벽동이라고 한다. 나이 들어도 노쇠하지 않은 모습을 동안벽동(童顏碧瞳)이라고 했다. 이상정은 미를 보는 순수하고 색다른 눈, 세상의 눈을 뛰어넘는 예술에 대한 시선을 ‘벽동’이라는 이름에 담았다.

이상정은 1924년 6월 28-29일 이틀간 ‘대구 아동 자유화 전람회’가 열릴 때 서동진, 최윤수, 나지강 등과 함께 심사위원을 맡고 있어 어린이 미술교육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대구소년회 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 5세-12세의 유년부, 13세-17세의 소년부로 나누어 조양회관에서 전람회가 열렸다.

27) 『동아일보』 1924년 6월 1일자, ‘대구아동의 자유화전람회’

17세 이하의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구소년회에 앞서 대구청년회가 1920년 조직되어 있었다. 이상정은 대구청년회 발전에 앞장서며 이백원을 기부했는데 당시 기부자들 중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sup>28)</sup> 사회운동 단체인 대구청년회는 설립 이후 여러 차례 강연회를 열며 계몽활동에 앞장섰고 정구대회나 야구대회 등 체육 행사를 개최하며 대구 청년의 역량을 증진시켰다. 이상정은 이외에도 수양단, 용진단, 야구동맹회 등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참여하며 활발하게 사회운동을 했다.<sup>29)</sup>

이상정은 미술교사로서 서양화의 새로운 미적 이념을 전파했고, 서양화가로서 서양화 작품을 발표했다. 미술운동가로서 벽동사를 설립해 미술의 보급과 대중화에 앞장섰으며, 유소년들의 미술 활동을 후원했다. 이상정의 선구적 활동은 이후 대구의 소년작가들과 미술인, 음악인, 문학인들이 함께 참여한 1927년 영과회 창립으로 이어졌고, 영과회는 1930년 서양미술 그룹인 향토회로 계승된다.

### Ⅲ. 전각가 이상정의 인보 3종

#### 1. 『청람인보』(1935년)

이상정이 중국에 있을 때는 전각이 유행한 시기이긴 하지만 서양화가였던 이상정이 어떻게 전각에 심취하게 되어 직접 인장을 새기게 되었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어떤 관련 활동을 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동양고전을 익히고 시서화의 소양을 갖추었던 그에게 전각은 남선북마(南船北馬)로 떠돌던 이국땅에서 작업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펼치기 적합한 분야였다.

28) 『동아일보』 1920년 5월 26일자, ‘대구청년회 발전’

29) 『시대일보』 1924년 12월 17일자, ‘수양단 발회식 3백여명의 대성황’; 『시대일보』 1925년 1월 8일자, ‘용진단 창립식 改造 소년단과 연맹’; 『시대일보』 1925년 1월 21일자, ‘야구를 嘯聲에, 변경 조직되어’



서양화 도입기의 선구적 서양화가 중에는 절필하거나 전통미술로 전향한 예가 있는데 서양화에서 동양화로 돌아선 고희동(1886-1965), 김홍준(1904-1967) 등과 달리 이상정은 전각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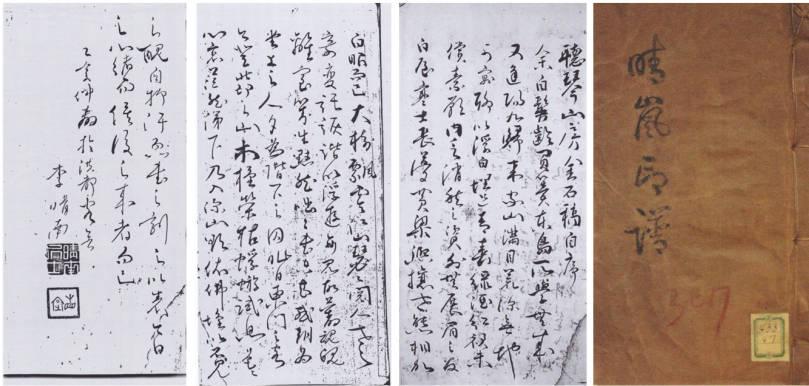
이상정이 망명 초기에 쓴 글을 모은 『중국유기』를 보면 고전 명문을 인용하며 그 지역과 관련된 역사를 해박하게 언급해,<sup>30)</sup> 젊은 시절부터 중국의 고전과 역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정은 중국으로 간 이후 거주하거나 여행한 지역의 고적을 빠짐없이 답사했고 여행기, 답사기를 남겼다. 서양화로 미술을 시작했지만 동양고전에 익숙하고 대구에서 서화가, 고서화 수장가들과 함께 ‘미술전람회’를 하기도 했던 그에게 전각은 그다지 벽이 높은 예술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상정은 시조와 한시, 여행기와 답사기 등의 운문과 산문을 신문학과 한문학으로 남긴 문학가이기도 하다.

이상정의 전각 작품을 찍은 작품집인 인보 3권이 전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위창문고에 소장된 『청람인보(淸嵐印譜)』, 대구의 개인소장품인 『청금산방인원(聽琴山房印苑)』, 중국의 개인소장품인 『청금산방금석고(聽琴山房金石稿)』 등이다(이하 ‘청람인보’, ‘인원’, ‘금석고’로 표기함).

그의 나이 40세 때 편집한 ‘청람인보’(〈그림 3〉)는 앞쪽에 1935년 2월에 쓴 「청금산방금석고자서(聽琴山房金石稿自序)」가 있고 수록된 인영(印影)은 200여방이다. 위창 오세창(1864-1953)이 소장했던 전적이 기록된 위창문고에 들어 있으나 오세창이 어떻게 ‘청람인보’를 소장하게 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sup>31)</sup>

30) 『중국유기』의 육필 원본인 『漂泊記』 ‘자서’에 의하면 이상정은 이 책을 1930년 음력 10월 난징에서 완성했다(이상규, 「이상정장군의 육필 유고 『표박기(飄泊記)』 분석」, 『동아인문학』 39, 2017, 92쪽).

31) ‘위창古433-47’로 소장되어 있는 『청람인보』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정보와 초록/해제정보 중에는 오류가 있다. 이 인보의 表題는 ‘淸嵐印譜’, 標題는 ‘聽琴山房金石稿’이며, 乙亥는 1935년, 전체 200장이 넘고 실린 印影도 200방이 넘는다.



<그림 3> 이상정, 『청람인보』 표지, '청금산방금석고자서(聽琴山房金石稿自序)'

‘청람인보’의 「청금산방금석고자서」는 7면에 달하는 긴 글로 마지막에 “을해(乙亥) 중춘(仲春) 어(於) 홍도객사(洪都客舍) 이청남(李晴南)”으로 서명하고 ‘청남거사(晴南居士)’, ‘상정(相定)’ 인장을 찍었다. 홍도는 강서성 난창(南昌)의 옛 이름이다. 자서에서 이상정은 자신의 일생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일에서부터 뜻밖의 액운을 만나 귀국한 일, 실의에 빠져 주색으로 청춘시절을 보내며 세상을 백안시한 일, 삼일운동으로 도피하며 이리저리 떠돌 때 불단(佛壇)에 의지하려 했던 일, 중국으로 떠나와 만주와 몽골에서부터 강북과 강남을 10여 년 종횡으로 떠돈 일 등을 은유적인 문학적 어조로 술회했다. 마지막에 진와(秦瓦), 한옥(漢玉), 금석(金石), 서화(書畫)를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며 ‘애지여명(愛之如命)’ 곧 목숨처럼 아꼈다고 하며, 고동(古董)을 수집하고 고대문자를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작품으로 내놓으며 뒤에 오는 자를 기다린다고 했다.<sup>32)</sup> 타국에서 지나간 삶을 회고하며 이 인보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한 이상정의 처연한 심정이 전해지는 글이다.

이상정은 중국으로 간 얼마 후 평양 출신의 권기옥(1901-1988)을 알

32) 「聽琴山房金石稿自序」는 이상규, 앞의 책(2021), 42~47쪽에 전문이 번역과 함께 실려 있다.

게 되었고 이들은 1926년 10월 ‘공동생활 개시식’을 치루고 같이 살게 된다.<sup>33)</sup> 권기옥은 삼일운동으로 실형을 산 독립투사로 중국에 망명해 윈난육군항공학교를 졸업하고 평위상(馮玉祥) 군대의 항공대에 비행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광복 될 때까지 중국군에 관여하거나 임시정부에 참여하며 함께 항일운동에 헌신했다.<sup>34)</sup> 1930년대까지는 권기옥의 비행사 활동이 이들 생활의 중심이 되고, 1940년대에는 이상정의 중국군 또는 임시정부 활동이 이들의 생활반경이 된다.<sup>35)</sup>

이상정과 권기옥은 1929년 봄 난징 시내에 정원이 딸린 집을 구입해 정착한다.<sup>36)</sup> 이 무렵 이상정은 난징에 가게를 열고 주변의 유적과 고궁을 답사하고 글을 쓰며 전각에 심취했다.<sup>37)</sup> 난징에서 멀지 않은 항저우와 상하이에는 당대 최고의 전각가 오창석(1844-1927)이 활동한 지역이다. 20세기 초는 전각이 크게 주목받던 시기다. 오창석은 서화를 다 잘했지만 전각으로 더욱 유명해 제백석(1864-1957)과 쌍벽을 이루며 이들의 전각 또한 남오북제(南吳北齊)로 명성을 떨쳤다. 이상정은 오창석이 1895년경부터 상하이에 천심죽재(千尋竹齋)를 마련해 정착한 민영익과 교류하며 많은 인장을 새겨준 사실을 대구에서부터 서병오의 일화를 통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민영익은 전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각예술을 호호(酷好)해 병중인 오창석에게 작품을 부탁할 정도였고 오창석도 기꺼이 새겨줄 만큼 민영익의 감식안을 인정했다.<sup>38)</sup> 이상정이 전각에 몰두하게 된 데는 민영익이 애인가(愛印家)였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민영익은 상해에 살며 그곳에서 발견한 복건성의 야생란인 건란을 직접 가꾸고 사생해 자신만의 난법인 운미란을 이루었다. 운미란은 중국

33) 이상정, 앞의 책, 28~29쪽.

34) 권기옥의 생애와 독립활동에 대해서는 권기옥 평전인 정혜주, 『날개옷을 찾아서』, 하늘자연, 2015 참고.

35) 최기영, 앞의 논문, 354~355쪽.

36) 정혜주, 앞의 책, 「권기옥 연보」 중 319쪽.

37) 이상규, 앞의 책(2020), 16쪽.

38) 백영일, 「오창석 전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66쪽.

망명의 고분(孤憤)으로 인한 민영익의 예술적 결과물이다.

이상정의 전각 또한 망명투쟁의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중국이라는 문화적 배경과 그의 예술적 자질이 만난 희귀한 열매다. 이상정의 인보 세 권은 한국전각사의 소중한 작품이며, 운미란과 함께 일제강점기 망명 한국인이 중국 땅에서 이룬 높은 예술적 성취이다. 이상정과 민영익은 고국을 떠나 이국땅에서 홀로 외롭게 자신의 예술세계를 이루었다.

이상정은 중국에서 벼루, 고서화, 금석문 등에 관심을 가졌고 민영익의 운미란 작품을 직접 소장했다. 이 사실은 1936년 동생 이상화가 형을 찾아 중국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이상정이 짐 속에 넣어준 고연(古硯)과 서화 중에 <이상정제민영익석란(李相定題閔泳翊石蘭)> (<그림 4>)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 4> 민영익,  
<이상정제민영익석란>

이 그림 윗부분에 이상정이 장문의 제화를 써넣어 이런 사실을 밝혀 놓았다.<sup>39)</sup> 이상화가 중국에 간 것은 이상정의 전사를 목격했다는 풍문을 전해 듣자 형의 생사를 확인하고 시신이라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sup>40)</sup> 이상화가 난징에 도착해보니 대구에서 들은 풍문은 헛소문이었다.<sup>41)</sup>

11년 만에 만난 형제는 십여 일을 즐겁게

39) 민영익, <李相定題閔泳翊石蘭> 제화, “臨歸以 幾幅書畫 數方古硯 藏其行裝也” 이 작품은 『이상화탄생백주년기념특별전』(대구광역시, 2001, 71쪽)에 실려 있으나 크거나 소장처 등은 현재 알 수 없다.

40) “장군이 華中戰線에서 戰死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전한 분이 있어”라는 말이 『중국유기』의 편집한 정하택의 「遺稿上梓에 際하여」에 나온다(이상정, 앞의 책, 161쪽).

41) 이상정은 큰아버지 이일우에게 올린 ‘제문’에서 “나쁜 소식이 퍼지고 사정을 잘못 전하여 온 집안이 발각 뒤집어지고 모친이 식음을 전폐하게 되자 舍弟 상화가 멀리서 찾아 왔습니다. 그 때 소자는 겨우 풀려나 형제가 기쁘게 손을 맞잡았는데”라고 이때를 회상했다(이상규, 앞의 책(2021), 145쪽).

함께 보냈다.<sup>42)</sup>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상화에게 주어 보냈던 <이상정제 민영익석란>에 이상정이 제발을 써 넣은 때는 어머니(김신자, 1876-1947)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해 대구에 와있던 1947년 9월 9일이다. 이상정은 이 글에 자신이 이 작품을 소장하게 된 경위, 민영익의 작품 제작 습관, 상화가 난징으로 왔을 때 이 그림을 보낸 추억, 귀국해 보니 동생은 이미 죽고 있는데 여전한 이 그림을 보는 ‘현연(泫然)’한 심경을 밝혀놓았다.<sup>43)</sup> 이 제발을 쓰고 두 달이 채 안 된 10월 27일 이상정은 뇌일혈로 급서했다.

## 2. 『청금산방인원』(1936년)

대구의 개인 소장품인 ‘인원’(<그림 5>)은 1936년 8월 난징에서 쓴 서문이 있고, 이상화의 인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 여류 이상화가 중국에서 귀국할 때 대구로 가져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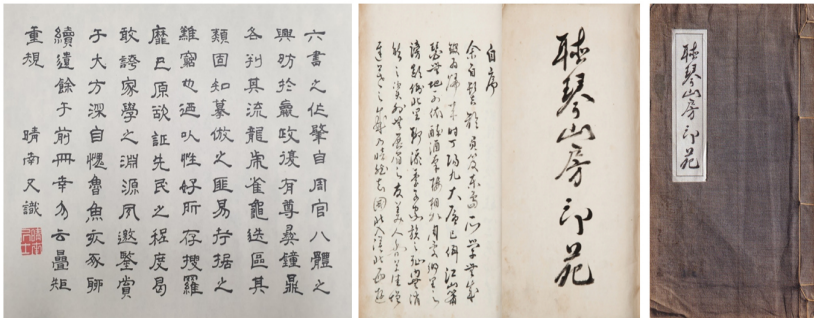
한 해 전 자신이 그동안 새겨놓았던 전각을 ‘청람인보’로 정리한 경험이 있던 이상정은 다시 한 권의 인보를 만들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생에게 주어 가족에게 자신의 유산으로 보존하게 했다. 3권의 인보 중 유일하게 호 대신 이상정으로 성명을 밝혔고 ‘이상정인’을 찍은 것은 고국으로 보낸 인보이기 때문이다. 수록된 작품은 239방으로 알려져 있다.

‘인원’의 서문은 3편으로 「자서(自序)」, 「대서(代序)」, 「청남우지(晴南又識)」 등이다. 「자서」와 「대서」는 이상정 특유의 달필 행초서이고, 「청남우지」는 예서이다.<sup>44)</sup> 「자서」의 내용은 ‘청람인보’의 「청금산방금석고자서」와 대동소이하다.

42) 민영익, <李相定題閔泳翊石蘭> 제화, “弟兄歡握 不覺喜極而泣 停停旬日 連衾同榻遊”

43) 민영익, <李相定題閔泳翊石蘭> 제화, “開箱見畫 物存而人非 觸手見弟物 閉目見弟容”

44) 『청금산방인원』은 2021년 대구미술관 ‘때와 땅’ 전시에서 원본을 사진으로 복제하여 재구성한 두루마리 형태로 공개되었다. 「自序」, 「代序」, 「晴南又識」 등은 전일주 선생의 번역을 참고했다(『때와 땅』, 54~55쪽).



<그림 5> 이상정, 『청금산방인원』 표지, 속표지, '자서(自序)', '청남우지(晴南又識)'

마지막 부분에 “갑골문(甲骨文)이나 주전(籀篆)의 글씨체를 어루만지며 목숨처럼 애호하면서, 효빈의 추태를 생각하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참고하고 새기면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전각에 쏟은 열정을 밝혀 놓았다. 이상정은 전각의 자료가 되는 고대 금석문을 애써 모았고 이런 자료를 참고하며 오랫동안 전각에 몰두했다.

「대서」는 누군가가 지어주어서 엮을 서문을 자신이 그 누군가를 대신해 스스로 쓴 글이다. 특이하게도 청나라 문인 포송령(蒲松齡)의 『요재지이(聊齋志異)』 「섭생(葉生)」편 마지막에 포송령이 ‘이사씨왈(異史氏曰)’로 붙인 평어 전체를 그대로 옮겨 썼다.<sup>45)</sup> 이 글의 아름다움과 절실함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섭생」은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계속 낙방해 뜻을 펴지 못한 가난한 서생이 이미 죽었는데 귀신이 되어 자신을 알아봐 준 지기자(知己者)를 따라갔다는 이야기다. 이상정은 타국에서 홀로 전각에 정진하는 자신의 처지가 평생토록 인정받지 못하고, 뜻을 펴지 못한 섭생과 같다고 느낀 것이다.

「청남우지」는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인 육서, 진나라 때의 여러 서체인 팔체, 고동기(古銅器)의 금문(金文) 등 문자의 연원을 언급하며 자학(字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금석학에 몰두해 탐구한

45) 포송령 저, 김혜경 역, 「섭생-은혜 깊은 서생」, 『요재지이』 1, 민음사, 2002, 78~79쪽.

결과를 이렇게 인보로 만들어 놓았으니 대방가의 감상을 바란다고 했다. 전체 문장은 아래와 같다.

육서(六書)가 지어진 것은 주관(周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팔체(八體)가 흥기 함은 진시황 때부터 비롯되었다. 다시 준이종정(尊彝鍾鼎)이 있으니 각각 그 부류가 판명되었고, 용호작귀(龍虎雀龜)는 그 부류를 선별하여 구분하니, 진실로 모방하기가 쉽지 않고 고찰하거나 근거하기가 끝없이 어려움을 알겠다. 이에 성품이 보존하는 것을 좋아하여 찾고 나열하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원래 옛사람들의 올바른 법도를 증명하고자 한 것이니, 어찌 감히 가학(家學)의 연원을 자랑하고자 하리오. 일찍이 대방가(大方家)의 감상을 요청하니, 노어(魯魚)나 헤시(亥豕)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깊이 부끄러워하노라. 다만 앞 책에 빠진 것을 이어 가고자 한 것이니, 행여 중첩된 것이라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청남(晴南)이 다시 적다.<sup>46)</sup>

마지막에 ‘중첩된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전 해에 꾸민 ‘청람인보’를 말할 것이다. ‘청람인보’, ‘인원’, ‘금석고’ 등에 보이는 다양한 자법(字法)이나 인풍(印風)을 보면 결코 짧은 시간의 일시적 관심으로 이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다. 전각은 자법(字法), 장법(章法), 각법(刻法)이라는 조형 요소로 구성되는 새김의 예술이지만 그 이전에 서예와 문자학, 고전 인문학에 대한 실력과 식견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 이상정은 오랜 시간 전각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전각의 본고장인 중국에서 많은 자료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었기에 이런 작품들이 가능했을 것이며, 당시 중국의 전각가들과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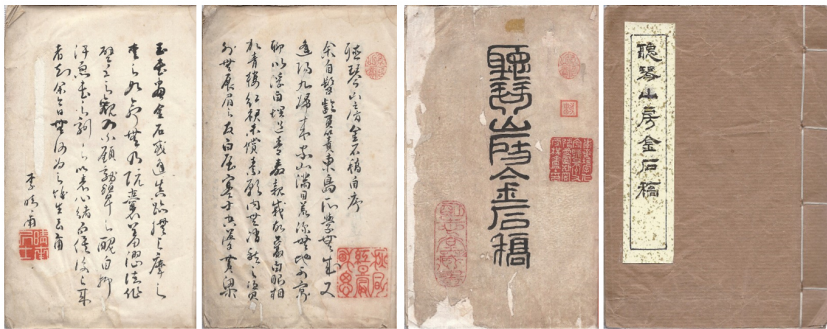
이상정은 인보의 표제(表題)나 서문에 호 청남, 중국에서 사용한 호 산은(汕隱)이 아니라 ‘금(琴)을 듣는 집’이라고 한 당호 ‘청금산방(聽琴山房)’을 주로 사용했다. 이 호는 다른데서는 보이지 않지만 금(琴)은 그가 1923년 벽동사를 창립할 때 지은 ‘취지서’에 나온다. 이 글에서 백아와 종자기의 지음(知音) 고사를 인용한 것은 드높은 예술적 경지를 구현하

46) “六書之作 肇自周官 八體之興 昉於嬴政 復有尊彝鍾鼎 各判其流 龍虎雀龜 迭區其流 固知摹倣之匪易 考據之難窮也 迺以性好所存 搜羅靡已 原欲証先民之程度 曷敢誇家學之淵源 夙邀鑑賞于大方 深自愧魯魚亥豕 聊續遺餘于前冊 幸勿云疊矩重規 晴南又識”

는 것, 그리고 그 경지를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것이라는 예술에 대한 이상정의 두 가지 이상을 나타낸다. 혼신의 힘을 기울인 자신의 예술적 결과물인 인보에 ‘청금’을 붙인 것은 이 두 가지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 3. 『청금산방금석고』

‘금석고’(〈그림 6〉)는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보이다.<sup>47)</sup> ‘금석고’는 대만의 전각자료 전문 누리집인 ‘진미인망(眞微印網)’에 이상정이 자각(自刻)한 인장을 편집하여 완성한 인보로 등록되어 있다. 전체가 110장이고 각 장에 한 방식 찍었다고 해 100여 점의 작품이 수록된 것으로 여겨진다.<sup>48)</sup>



<그림 6> 이상정 『청금산방금석고』 표지, 속표지, ‘청금산방금석고자서’

‘금석고’의 소장자는 홍콩의 경제인 서예가이자 수집가인 임장송(林章松, 1950년생)이다. 송음헌(松蔭軒) 임장송은 ‘인보의 왕’으로 불리는 인보 대소장가다.<sup>49)</sup> ‘금석고’가 어떤 목적으로 편집되었는지, 어떤 내용인

47) 이상규, 앞의 책(2021), 41쪽.

48) 眞微印網 <http://www.sealbank.net/>







49) 일본 전각 잡지 『樂篆』 80호(2014년 10월) 기사에 임장송을 인보 대수집가로 소개하며 ‘王様の印譜’라고 했다(<https://m.facebook.com/rakuten.sankeisha/>).



지, 어떻게 인보 전문 소장가의 소장품이 되었는지 등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금석고’는 표지에 냉금지(冷金紙)로 첩지(籤紙)를 붙이고 테두리에 계선을 그은 다음 그 안에 예서로 ‘청금산방금석고’로 표제(表題)를 썼고, 속표지에는 같은 제목을 전서로 썼으며, 「청금산방금석고자서」가 이어진다. 속표지에 4방의 인장을 찍었고, 자서의 처음과 끝에 3방의 인장이 있다. 모두 이상정의 자필이고 인장도 자각(自刻)이다. ‘금석고’는 이상정의 전서, 예서, 행서를 모두 볼 수 있는 서예 자료이기도 하다. 자서의 마지막 장에 ‘이청남’으로 서명한 위쪽에 세로로 길게 흰 부분이 있는데 혹 관서 부분이 나중에 지워진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금석고’의 속표지와 자서에 찍어놓은 인장의 인문(印文)은 <표 1>과 같다.

<표 1> 『청금산방금석고(聽琴山房金石稿)』 속표지, 서문의 인장

					
경주심상 (景州心賞)	화춘 (和春)	李燮垣字仁今號景州又號雪園別署雪樸齋主印	명지당장서 (明志堂藏書)	추풍홍두최상사 (秋風紅豆最相思)	청남거사 (晴南居士)

이 인장을 보면 이상정은 ‘금석고’를 호를 경주(景州), 재호(齋號)를 설원(雪園) 또는 설매암(雪樸齋)으로 사용한 이섭원(李燮垣)이라는 인물을 위해 꾸몄음을 알 수 있다. 이섭원이 명지당(明志堂)이라는 문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수집가로 여겨지지만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다. 자서 첫째 면의 인장이 ‘경주심상(景州心賞)’과 ‘추풍홍두최상사(秋風紅豆最相思)’여서 이섭원이 이상정과 친분이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자서의 내용은 앞의 두 인보와 비슷하다.

#### IV. 맺음말

이상정의 나이 14세 때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강제 병탄되는 비극이 벌어졌다. 망국이라는 참혹한 시대적 상황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면 20대부터 서양화가로 활동한 이상정은 예술가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독립운동가 이상정은 서양화가이자 전각가인 미술가이다. 이상정은 대구미술의 역사에서 ‘최초’ 기록을 여럿 갖고 있다. 최초의 한국인 미술교사이고, 최초로 서양화 개인전을 열었으며, 최초로 서양화 연구단체를 조직했고, 최초의 전각가이다. 이상정은 일본 유학을 통해 서양미술을 받아들였다가 중국으로 건너간 후 전각에 심취했다.

대구의 서양화가로서 이상정은 1917년부터 1919년까지 계성학교에 도화(圖畵)교사로 재직하며 서양화를 전파했다. 계성학교에서 이상정에게 배운 제자 서동진은 1927년 대구미술사를 설립해 이곳을 통해 이인성, 김용조 등을 길러낸다. 이상정은 1921년 서양화 개인전을 열었고, 1923년 ‘미술전람회’에 18점의 서양화를 출품했다. 아쉽게도 이상정의 작품은 제목만 일부 전할 뿐 작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정이 주도한 미술연구 단체 벽동사(碧瞳社)는 1923년 12월 14일 창립했다. 벽동사가 의장화, 도안화, 간판화, 광고화 등을 제작 과목으로 한 것을 보면 미술을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대중적으로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미술운동을 목적으로 했다고 여겨진다.

이상정이 어떻게 전각가가 되었는지 알기 어렵지만 29세 때인 1925년 하얼빈으로 망명해 중국 땅을 표박하던 그에게 전각은 재료와 제작 도구가 소지와 이동에 편리해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데다 동양고전과 시서화 소양을 갖추었던 그에게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펼치기 적합한 분야였다.

이상정의 전각 작품을 찍은 작품집인 인보 3권이 전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위창문고에 소장된 『청람인보(晴嵐印譜)』(1935년), 대구의 개인소장품인 『청금산방인원(聽琴山房印苑)』(1936년), 중국의 개인소장품인

『청금산방금석고(聽琴山房金石稿)』 등이다. 수록된 작품은 각각 219방, 239방, 100여방으로 알려져 있다. 중복 수록된 작품도 있을 것 같다. 모두 손수 편집했고 자필 서문이 있어 이상정의 서예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3권의 인보 자서는 대동소이한데 일본 유학에서부터 삼일운동 직후 고향을 떠났던 일, 중국에서 남북을 종횡으로 떠돈 자신의 일생과 전각을 목숨처럼 사랑하며 심취했음을 문학적 표현으로 서술했다.

이상정은 일제에 맞서 무력투쟁한 장군인 독립운동가인 동시에 다감한 심성과 예술적 감성을 지닌 예술가이다. 문무를 겸전한 예술가인 근대기 대구인 이상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연구를 통해 민족수난시기에 역사를 직면한 독립운동가 이상정의 미술가로서의 면모가 밝혀짐으로써 선구적 서양화가, 전각가로서 이상정이 새롭게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정의 전각 작품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 이 논문은 2022년 10월 2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계성100년사』, 계성100년사편찬위원회, 2006.

『대륜육십년사』, 대륜고등학교, 1981.

『때와 땅』, 대구미술관, 2021.

『이상화탄생백주년기념특별전』, 대구광역시, 2001.

김정숙, 『홍선대원군 이하응의 예술세계』, 일지사, 2004.

이상규, 『국민혁명군 이상정의 북만주기행』, 민속원, 2020.

이상규, 『달구벌이 낳은 예술가이자 독립운동가 이상정과 여성성』, 민속원, 2021.

이상정, 『중국유기(中國遊記)』, 청구출판사, 1950.

이인숙, 『석재 서병오 필묵에 정을 담다』, 중문출판사, 2018.

정혜주, 『날개옷을 찾아서』, 하늘자연, 2015.

홍선표, 『한국근대미술사』, 시공사, 2009.

김지영, 「석재 서병오(1862-1936)의 서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박근술, 「석재의 생애 연구」, 『논문집』 13, 한양여자전문대학교, 1990.

백영일, 「오창석 전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신동근, 「청남 이상정 장군 고」, 『승남이중희교수회갑기념수필및학술논문선집』, 승남이중희교수회갑기념학술논문집발간위원회, 1979.

윤범모, 「향토회와 대구화단」, 『한국근대미술사학』 4, 1996.

이동진·이일우 저, 박영호 역주, 『성남세고(城南世稿)』, 경진출판, 2016.

이상규, 「이상정장군의 육필 유고 『표박기(飄泊記)』 분석」, 『동아인문학』 39, 2017.

이인숙, 「근대기 대구의 문인화가 공석 김진만(肯石 金鎭萬, 1876-1933) 기명절지화 연구」, 『민족문화논총』 52, 2012.

이인숙, 「서화가 서병오의 중국행 시기와 기간에 대한 고찰」, 『대구경북연구』 17/2, 2018.

이인숙, 「석재 서병오(1862~1936)와 ‘교남시서화연구회’의 재인식」, 『민족문화논총』 45, 2010.

최기영, 「이상정(1897~1947)의 재중독립운동」, 『역사학보』 200, 2008.

최재목·정다운·김찬우·곽재관, 「일제강점기 신지식의 요람 대구 「우현서루」에 대하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9, 2009.

포송령 저, 김혜경 역, 「섭생-은혜 깊은 서생」, 『요재지이』 1, 민음사, 2002.

## A Study on Cheongnam Lee Sang Jeong, a Painter and Seal Engraver

Lee, In-suk

Lee, Sang-jeong (1897-1947), an independence activist from Daegu, was also a painter who worked in the art field. He went to Tokyo in his teens, studied Western painting, and then worked as an art teacher at Kyesung School. In addition, as a Western painter, he held the first private exhibition of Western paintings in Daegu, participated in a group exhibition, and established Byeokdongsa, an art research group, in order to conduct an art movement.

Lee, Sang-jeong, who went into exile in China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1925, joined the Chinese army and participated in the anti-Japanese struggle. In China, Lee, Sang-jeong was absorbed in seal engraving, leaving three books of seal collections. They include 『Cheongnaminbo』(1935) kept in the Wichang Library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heonggeumsanbanganwon』(1936) owned by a private collector in Daegu, and 『Cheonggeumsanbanggeumseokgo』 also in private hands in Hong Kong, China.

Lee Sang-jeong was an artist who worked as a Western painter and seal engraver in Daegu and China in the 1920s and 30s, as well as an independence activist who fought against the Japanese colonial rule by force. With this study, Lee, Sang-jeong, as an important cultural figure in Daegu in the 20th century, will be understood more meaningfully through shedding light on his presence as a Western

서양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술가 청남(淸南) 이상정 연구(이인숙)

painter and seal engraver as well as an independence activist who faced history with courage during the national crisis.

**keywords :**

Lee, Sang-jeong, Cheongnam, Cheonggeumsanbang, seal engraver, independence activist, Daegu





## [부 록]

- 『嶺南學』 연구윤리규정
- 『嶺南學』 논문심사규정
- 『嶺南學』 논문 심사서
- 『嶺南學』 논문투고규정
- 『嶺南學』 투고논문작성지침
- 『嶺南學』 편집위원회규정
- 회 보



## 『嶺南學』 연구윤리규정

2008년 5월 20일 제정

2019년 6월 13일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嶺南學』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嶺南學』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세부활동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嶺南學』의 연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2장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무

**제4조 (연구자의 정직성 의무)**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를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제5조 (표절 금지)**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제6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의 금지)**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논문의 연구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연구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7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금지)**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인용 및 참고 표시 의무)**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註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연구자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 (논문 수정의 의무)** 연구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3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의무

**제10조 (책임과 의무)** 편집위원은 『嶺南學』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11조 (논문집의 공정 편집)** 편집위원은 『嶺南學』에 투고된 논문을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개인적 친분 등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13조 (비밀 유지의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 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4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의무

**제14조 (성실 심사)** 심사위원은 『嶺南學』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 심사의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5조 (공정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학술적 신념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16조 (평가근거의 명시)** 심사위원은 평가 의견서에서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는 투고자 및 심사자의 인적 사항,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 논문 심사의 결과 등이 포함된다.

## 제5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8조 (윤리규정 서약)** 『嶺南學』에 투고하려는 연구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본 연구원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은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 (조사의 강제성)**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2조 (비밀 유지)**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심사 절차)** 위원회는 보고(또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집행하여야 한다. 투고자의 논문이 ‘제2장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위원회는 원장에게 징계를 건의한다.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결정된 사항을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4조 (제재)**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는 연구원 홈페이지 및 『嶺南學』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공포한다. 『嶺南學』 전자판 및 연구원 홈페이지 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는 향후 3년간 연구원의 학술 활동 및 『嶺南學』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제25조 (연구윤리 교육)** 위원회는 연구원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연구윤리의 교육은 연구원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석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내용은 자료집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제작한다.

**제26조 (규정의 개정)**

1. 위원장 또는 윤리위원 3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2. 재적 윤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북대학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嶺南學』 제13호가 간행되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嶺南學』 논문심사규정

2003년 6월 13일 제정

2013년 12월 16일 개정

2016년 3월 15일 개정

2019년 6월 13일 개정

1. **(목적)** 본 규정은 영남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논문집 『嶺南學』에 수록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절차와 관련 업무를 명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2. **(편집위원회의 의무)**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절차를 주관하며 학술지 간행의 책임을 맡는다.
  - ②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논문 심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 ③ 연구원 구성원의 투고 논문에 대해서도 일반 논문과 동일한 심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3. **(적격성 심사)**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적격성을 심사하여 투고된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 ① 본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② 학술 논문으로서의 기본 요건 충족 여부
  - ③ 적격성 심사에 의해 반려된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료를 반환한다.
4.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연구원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하고,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①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을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연구자에게는 심사의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 하에 대외비로 한다.

**5. (심사 절차)**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 ① 심사위원은 연구원에서 정한 ‘논문 심사서’를 근거로 심사를 해야 한다.
- ② 심사는 영역별 평가를 먼저 하고 이를 종합하여 종합판정을 한다.
- ③ 종합 판정은 ‘게재’, ‘수정 후 게재’, ‘반려’로 구분한다.
- ④ 심사서에는 심사자의 심사 소견과 수정 및 지적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⑤ 심사위원은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6. (게재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①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투고자는 연구원에서 정한 ‘수정 및 보완사항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수정요구 사항을 성실하게 수용했는지를 확인한 뒤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심사결과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 ③ 3인의 심사위원이 제출한 판정 소견 중 ‘반려’가 1인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논문심사 항목의 점수) ‘논문 심사서’의 점수는 각 항목 당 10점에서 5점 이하로 구분하며, 총점이 80점 이상이면 게재가, 79~65점은 수정 후 게재, 64점 이하는 게재불가로 각각 판정한다.
8. (게재 논문의 날짜 표시)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 결정된 논문은 투고 날짜, 심사기간, 게재 결정 날짜를 논문의 말미에 부기한다.
9. (이의 신청) 투고자는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투고자가 이의 신청을 할 때는 200자 원고지 5매 내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수락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 (심사 철회 요청) 투고자는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투고자가 심사철회를 요청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철회여부를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②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
  - ③ 심사철회가 결정되더라도 이미 심사가 진행된 경우 심사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11. (규정의 개정) 논문심사규정의 개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한다.
  - ① 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 ②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의 동

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2. [보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따른다.

## 『嶺南學』 논문 심사서

◎ **대상 논문:** 해당 논문의 제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b>논문 제목</b>	
--------------	--

◎ **심사자:**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b>성명</b>		<b>소속</b>		<b>직위</b>	
<b>주소</b>					
<b>이메일</b>		<b>연락처</b>			
<b>은행</b>		<b>계좌번호</b>			

◎ **심사일:** 심사를 완료한 일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월    일
------------------

◎ **심사 내용:** 아래의 해당란에 ●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항목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이하
요 건 심 사	학술 논문의 기본 형식						
	논제의 명료성						
	논문 구성의 적절성						
	용어 및 개념의 적합성						

	인용의 정확성 및 표절 여부						
내용심사	논문의 독창성						
	기존 연구의 활용						
	연구 방법의 참신성						
	자료 활용의 정확성						
	학문적 기여도 및 연구 의의						

◎ **게재 여부:** 아래의 해당란에 **실점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평가 (총점)	게재 가 (8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79~65점)	게재 불가 (64점 이하)
		점	점

◎ **판정 소견:** 항목별 심사 내용, 수정 및 지적 사항, 종합 소견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려(64점 이하)’로 판정하시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논문 투고자의 심정을 배려하여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嶺南學』 논문투고규정

2003년 6월 13일 제정

2015년 3월 27일 개정

2016년 1월 11일 개정

2018년 10월 1일 개정

2019년 6월 13일 개정

2019년 10월 25일 개정

1. **(목적)** 이 규정은 영남문화연구원 논문집 『嶺南學』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의 종류)** 논문은 기획논문과 일반투고논문으로 나뉘며,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일반투고논문은 기획과 무관한 개별적 자유투고 논문을 가리킨다.
3. **(원고의 분량)** 논문은 편집된 논문집 기준으로 35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 쪽수는 본문, 각주, 도표, 그림,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4. **(원고의 조건)** 논문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국문으로 논문 제목, 필자명, 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영문으로 제목, 필자명, 초록, 주제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외국어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글로 해야 한다.

5. **(간행 일자 및 투고 기한)** 논문집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4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기한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마감일이 연기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투고된 논문은 3월 31일, 4월 30일까지 투고된 논문은 6월 30일, 7월 31일까지 투고된 논문은 9월 30일, 10월 31일까지 투고된 논문은 12월 31일에 발행하는 논문집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획발표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원고의 제한)**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7. **(심사료 및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한 후 심사료 9만원을 송금한다. 게재료는 없으나 사사표기일 논문일 경우에 30만원의 게재료를 부과한다. 최종 조판 쪽수가 35쪽을 넘을 경우에 초과 게재료(쪽당 10,000원)를 부과한다. 게재료는 논문 심사가 완료되고 게재가 확정되면 영남문화연구원으로 납부한다.
8. **(문서 작성)**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嶺南學』 투고논문작성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논문 투고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9. **(제출 원고)** 제출하는 논문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미완성 논문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반려할 수 있다. 논문은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ync.knu.ac.kr>)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 논문에는 투고자의 개인 정보나 투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담지 않는다.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http://check.kci.go.kr/>)를 이용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연구윤리규정 준수) 투고자는 『嶺南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투고자의 투고 행위를 통해 준수 서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저작권 이용에 관한 동의)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이양된다. 투고자의 투고 행위를 통해 저작재산권의 이양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규정의 개정) 논문투고 규정의 개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한다.
  - ① 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 ②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효력이 발생한다.



## 『嶺南學』 투고논문작성지침

2003년 6월 13일 제정

2015년 3월 27일 개정

2016년 1월 11일 개정

2019년 6월 13일 개정

1. (기본 원칙) 투고 원고가 ‘투고논문작성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 2. (저자 표기)

① 투고자의 소속은 성명 다음에 각주를 달고 각주에 내용을 작성한다. 투고자의 소속과 전자우편 주소를 병기한다. 게재 확정 후 편집과정에서 일괄 \*로 변경한다.

② 투고자의 소속,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등), 전자우편 주소를 병기한다.

<예> 홍길동<sup>1)</sup>

1) 경북대학교 영남학과 조교수 / youngnamhak@knu.ac.kr

③ 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인명과 인명 사이에 ‘·’(국문) 혹은 ‘&’(영문)를 삽입한다. 단, 필자가 제1저자와 교신저자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제1저자를 먼저 제시하고 각주에서 제1저자임을 밝힌다.

<예> (필자명) 홍길동\* 김길동\*\*

(각 주) \* △△대학교 영남학과 조교수, 제1저자.

\*\* ○○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원장, 교신저자.

3. (章·節 표기) 장과 절의 기호 표기 방식은 I. 1. 1) (1) / II. 1. 1) (1) / III. 1. 1) (1) / IV. 1. 1) (1)의 순서로 한다.

<예> IV. 李天封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파에서의 위상

1. 寒岡學의 수용과 師門의 협찬활동
  - 1) 寒岡學의 수용 양상
  - 2) 川谷書院 증건론
2. 이천봉의 寒岡認識과 寒岡顯揚論
  - 1) 寒岡認識
  - 2) 寒岡顯揚論과 이천봉의 문과적 위상

#### 4. (본문의 작성)

- ①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 ② 본문 작성시 활자크기는 한글 10포인트, 인용문과 각주는 9포인트로 한다.
- ③ 문단 모양은 기본적인 작성방식을 따른다. 왼쪽 여백(0), 오른쪽 여백(0), 들여쓰기 (0), 문단 위(0), 문단 아래(0), 낱말 간격(0), 정렬 방식(양쪽 혼합), 줄 간격 160%, 문단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5. (한자 표기) 본 학술지의 특성상 한자를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어의 가독성을 위해 자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6. (인용문 작성) 본문의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7. (인용시 작성) 본문에 인용된 시의 경우는 원시를 먼저 쓰고 풀이를 병립하여 작성한다.

<예> 派者同水                      갈래가 쳐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百川雖異則水 온갖 넷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

8. (문헌 표기) 단행본·문집·학회지 등은 『 』으로 표기하며, 논문(학위논문 포함)·단행본 속의 작은 제목 등은 「 」으로 표기한다.

<예>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 후기 지배 계층의 재생산 구조」, 『한국사학보』 32, 2008.

추체협, 「근기 퇴계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9. (작품 및 인용 표기) 작품명은 < >, 원문인용·대화 등은 “ ”, 간접인용 및 강조는 ‘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曹植, 『南冥集』 卷2, <遊頭流錄>, “新雨水肥, 激石漬碎…….”

10. (표·그림·사진의 구분)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사진 등의 구분은 < >로 표기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11. (각주 번호) 각주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예>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sup>1)</sup> 심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sup>2)</sup>

12. (중복 인용) 중복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앞의 책’ 혹은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같은 저자의 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연도와 영문소문자로 구분한다.

<예> 백두현, 앞의 책, 22쪽.

황위주, 앞의 논문, 17쪽.

정우락, 앞의 논문(2013a), 213쪽.

13. (참고문헌 작성) 각주와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책이름, 편집

기관(혹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페이지(쪽)의 순서로 기록한다. 참고문헌은 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연구논문과 저서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예> 김학수, 「寒岡(鄭述)神道碑銘'의 改定論議와 그 의미」, 『조선시대 사학보』 42, 2007, 41~42쪽.

김훈식, 「한훤당 김굉필에 대한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영남학』 22, 2013, 71~72쪽.

14. **(초록 작성)**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300단어 내외로 한다.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되 논문의 내용을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15. **(영문 성명)** 영문 초록의 영문 성명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예> Lee, Sang-pill / Park, Jin-cheol

16. **(연구비 사사 표기)** 연구비의 출처를 밝히거나 논문의 성격을 언급할 경우는 논문제목 뒤에 각주를 달고 내용을 작성한다.

<예> 광개토왕릉비의 문장구성과 서사구조<sup>1)</sup>

1)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7.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

## 『嶺南學』 편집위원회규정

2000년 6월 15일 제정

2019년 6월 13일 개정

1. **(목적)** 이 규정은 영남문화연구원 규정 '제5장 편집위원회' 조항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3. **(임기)**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편집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연구원의 논문집인 『嶺南學』의 기획, 편집
  - ②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 ③ 심사가 끝난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 ④ 논문투고규정, 투고논문작성지침, 논문심사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개정여부
5.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학회지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6. **(편집이사)** 편집이사는 다음과 같은 실무를 담당한다.
  -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의뢰, 심사의견 종합, 심사결과 통고 및 수정 요구사항의 전달

- ② 학회지의 간행에 필요한 교정
- ③ 편집위원회 회의록 작성

7. (회의) 편집위원회는 『嶺南學』의 간기마다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후 보

### I. 학술연구과제

#### 1. 영남문화연구원

##### 1) 낙동강 유역의 수리시설과 수리공동체 문화

발주기관 :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 김재호(영남문화연구원)

기간 : 2020. 7. 1. ~ 2025. 6. 30.

##### 2) 초월하는 언어: 동아시아 번역문학으로 읽는 한중일 근대 문체의 탄생

발주기관 :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 이시활(영남문화연구원)

기간 : 2020. 7. 1. ~ 2025. 6. 30.

##### 3) 일제강점기 교육의 성찰: 식민주의적 모범과 불온의 탄생 경로와 비판적 접근

발주기관 :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 이경숙(영남문화연구원)

기간 : 2020. 7. 1. ~ 2025. 6. 30.

##### 4)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2단계 1기 3차년도)

발주기관 : 한국고전번역원

책임자 : 정병호(한문학과)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5) 삼국유사 군위본 역주 제작 사업

발주기관 : 군위군청

책임자 : 정우락(국어국문학과)

기간 : 2022. 3. 1. ~ 2022. 12. 31.

6) 경북 주요종가 영상물 및 소개책자 제작(13차년도)

발주기관 : 경상북도

책임자 : 정우락(국어국문학과)

기간 : 2022. 5. 1. ~ 2023. 4. 30.

7) 일기를 통해 본 조선후기의 혼례와 가족 관계의 변화

발주기관 :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 김정운(영남문화연구원)

기간 : 2022. 7. 1. ~ 2027. 6. 30.

8) 서양의 유교 사상 수용 양상 고찰

발주기관 :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 김혜영(영남문화연구원)

기간 : 2022. 7. 1. ~ 2027. 6. 30.

9) 조선 후기 영남 문인의 권역별 학술교류와 관계망 연구

발주기관 :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 김기엽 (영남문화연구원)

기간 : 2022. 7. 1. ~ 2027. 6. 30.



## 2. 퇴계연구소

### 1) 경주 편액자료집 편찬3 번역 및 해제

발주기관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책임자 : 정병호(한문학과)

기간 : 2022. 6. 16. ~ 2023. 4. 28.

### 2) 조선의 서남아시아, 아랍세계 인식과 문물교류

발주기관 :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 박세욱(퇴계연구소)

기간 : 2022. 7. 1. ~ 2027. 6. 30.

### 3) 임진왜란 체험 문학 연구

발주기관 :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 박정민(퇴계연구소)

기간 : 2022. 7. 1. ~ 2027. 6. 30.

## II. 학술대회 및 학술행사

### 1. 영남문화연구원

#### 1)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제1차 학술대회

일시 : 2022. 9. 30.(금) 13:00

장소 :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 B102호

주최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한강학연구원

후원 : 경북대학교, 원복학술기금

발표자

- \* 정우락(경북대) : 강안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 \* 홍원식(계명대) : 낙중학 10년, 회고와 과제
- \*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강학의 호서 확장과 황종해의 계승 양상: 명체적용지학의 수용과 강안학의 확장
- \* 장운수(대구교대) : 강안학의 학문 정체성과 몇 가지 문제점 검토
- \* 박인호(금오공대) : 낙동강 강안 지역의 역사서 편찬과 학문사적 의의
- \* 최은주(한국국학진흥원) : 낙동강 연안의 누정제영 창작과 그 의미 -구미 선산의 매학정을 중심으로-
- \* 조유영(제주대) : 낙동강 연안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낙동강 중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 \* 백운용(경북대) : 낙동강 연안 선유시회의 양상과 의의

#### 2) 제11회 성주 역사인물 학술발표회

주제 : 서암 여효증 고촌 배정휘 선생의 학문과 사상

일시 : 2022. 10. 27.(목) 13:00

장소 : 성주군청

주최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성주문화원  
발표자

- \* 이규필(경북대) : 고촌 배정휘선생의 삶과 학문
- \* 전병철(경상대) : 서암 여효증 선생의 삶과 학문

### 3) 인문국제학술주간 국제학술대회

주제 : 소통의 인문학

일시 : 2022. 11. 9.(수) ~ 11. 11.(금)

장소 :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 학술회의실 I, II

주최·주관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영남문화연구원, 인문학술원,  
퇴계연구소,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  
4단계 BK21사업 교육연구단(팀) 등

#### - 11.9.(수)

- \* 최재천(이화여자대학교) :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소통(疏通)과 통섭(統攝)
- \* 최정규(경북대학교) : 공존의 토대로서의 호혜

#### - 11.10.(목)

- \* 홍창성(미네소타 주립대학교 모어헤드) : 절대진리의 불교적 분석과 해체
- \* 유선경(미네소타 주립대학교 맨케이토) : 공정한 유전자: 생명 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 \* 노양진(전남대학교) : 탈유편의 기호학과 의사소통의 문제
- \*\* 황갑연(전북대학교) : 공자의 소통 이념과 방법/ 토론: 이규 필(경북대)
- \*\* 우에다 키헤이나리치카(가쿠슈인대학) : 670년대 신라와 당 의 대립과 소통/ 토론: 손홍호(경북대)
- \*\* 차이전평(국립대만대학) : 공자의 문명관과 17, 18세기 동아 시아 화이론(華夷論) / 토론: 이승율(경북대)

- \* 안토네타 브루노(로마대학) : 공수: 샤머니즘에서 조상 및 신들과 소통하기
- \* 신보람(전북대학교) : 냉전 초기 탈진영적 과학 협력
- \*\* 표시는 영남문화연구원 추천

#### 4) 제8회 “영호남의 대화” 학술대회

주제 : 영호남 근대 학문의 형성

일시 : 2022. 12. 21.(수) 13시~18시

장소 :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 B102호

발표자 및 토론자

- \* 주제 1: 하기락과 근대성의 문제 -해방과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발표 : 정낙림(경북대), 토론 : 김기성(전남대)
  - \* 주제 2: 개신유학의 사유 지평 -이을호의 자생적 한국 실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 : 김경호(전남대), 토론 : 임종진 (경북대)
  - \* 주제 3: 일제강점기 지역 사범교육 -사회적 문화에서 통치기술로 전환의 제도화  
발표 : 이경숙(경북대), 토론 : 최유준(전남대)
  - \* 주제 4: 남도민속학의 형성과 기반 조성, 동은(東隱) 지춘상(池春相)  
발표 : 박종오(전남대), 토론 : 안승택(경북대)
  - \* 주제 5: 여신성(與神性)을 통해 본 김동리 소설의 전근대·근대·탈근대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  
발표 : 전계성(경북대), 토론 : 최창근(전남대)
  - \* 주제 6: 호남지역 근현대시 문단 활동의 전개와 지역 정신사적 추이  
발표 : 최혜경(전남대), 토론 : 박용찬(경북대)
- ☞ 종합토론 : 좌장 정병호(경북대)

## 5) 영남문화의 원류 신라(2) 학술대회

일시 : 2022. 12. 28.(수) 13:00

장소 :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온라인 ZOOM으로 진행)

발표자 및 토론자

\* 주제 1: 「경주남산신성비」와 신라 중고기 역역동원체계의 확립

발표 : 강나리(고려대), 토론 : 홍승우(경북대)

\* 주제 2: 신라 天柱寺에 대한 예비적 고찰

발표 : 이현태(국립경주박물관), 토론 : 김동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주제 3: 관문성 석각과 신라의 역역동원체제

발표 : 하시모토 시게루(경북대), 토론 : 선석열(부경대)

\* 주제 4: 신라 하대 초기 祥瑞物과 왕권강화

발표 : 손홍호(경북대), 토론 : 이장웅(한성백제박물관)

♣ 종합토론: 좌장 이영호(경북대)

## 6) 릴레이 삼국유사 특강

일시 : 2022. 12. 13.(화), 20.(화), 27.(화) 15:00 ~ 17:00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다목적홀

주최 : 영남문화연구원, 중앙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

좌장 : 이영호(경북대)

- 12.13.(화)

\* 주보돈(경북대 명예교수), 21세기, 왜 삼국유사인가- 왕력

\* 노중국(계명대 명예교수), 한국 고대의 로맨스와 정치적 함의- 기이 2

- 12.20.(화)

\* 강중훈(대구가톨릭대), 새로운 시각으로 본 한국사- 기이 1

\* 김복순(동국대 명예교수), 고려승이 발견한 신라 불국토-홍법 ~ 탐상

- 12.27.(화)

\* 정우락(경북대), 신라 고승과의 대화-의해

\* 이종문(계명대 명예교수), 한 메모광이 발로 쓴 역사-신주~효선

## 2. 퇴계연구소

### 1) 기획학술대회

주제 : 대구의 근현대 학술과 문화예술

일시 : 2022. 10. 22.(토) 14:00

장소 : 인문한국진흥관 102호

주최 : 대구학회

주관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 2) 기획학술대회

주제 : 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의 학문과 사상

일시 : 2022. 10. 28. (금) 13:00~17:00

장소 : Zoom 회의

주최 : 태민국학연구원

주관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발표자

- 기초발표

\* 정병호(경북대) : 李德弘의 生涯와 艮齋集 解題

- 주제발표

\* 이정화(동양대) : 艮齋詩에 나타난 학문인식

\* 추제협(계명대) : 艮齋 李德弘의 철학과 퇴계학의 계승

\* 전재동(충북대) : 필사본 四書質疑의 가치와 李德弘 經學의 위상

\* 송석현(경북대) : 艮齋 李德弘의 관직활동과 임란 대책

☞ 종합토론 : 좌장 : 정병호(경북대)

### 3) 기획학술대회

주제 : 영천의 지산학맥과 행적

일시 : 2022. 11. 12.(토) 14:00

장소 : 영천시 대창면 문화센터

주최 및 주관 : 지산학연구소,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발표자

- \* 김한신(고려대) : 조선후기 조호익 기록의 축적과 기억의 정립
- \* 조 순(대가대) : 지산 조호익의 영천 학맥
- \* 박순교(경북대) : 지산 조호익의 시대와 운명
- \* 토론자 : 박소희(경운대), 정병호(경북대), 이병훈(영남대)

### Ⅲ. 각종 위원회와 간담회

#### 1. 영남문화연구원

##### 1) 실무소위원회

일자 : 매주 목요일 12시

장소 : 인문한국진흥관 302호 자료실, 비빔가

안건 : 2022년 학술행사 추진계획 논의

##### 2) 간담회

일자 : 매달 말 목요일 12시

장소 : 인문한국진흥관 302호 자료실, 비빔가

안건 : 2022년 학술행사 추진계획 논의

##### 3) 운영위원회

일자 : 12월 15일(목) 12시

장소 : 인문한국진흥관 302호 자료실, 비빔가

안건 :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원장 추천

#### 4) 『영남학』 83호 편집회의

##### (1) 1차 편집회의

일자 : 2022. 11. 16.(수) 17시

장소 : 인문한국진흥관 302호

안건 : 『영남학』 83호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 외 2건

(총 16편 투고, 2편 반려, 14편에 대한 심사자 선정)



(2) 2차 편집회의

일자 : 2022. 12. 6.(화) 17시

장소 : 인문한국진흥관 302호

안건 : 『영남학』 83호 투고논문 심사 최종 판정

(총 투고논문 14편 중 10편 게재 게재율 71%)

5) 송년회

일자 : 12월 29일(목) 16:30

장소: 인문한국진흥관 203호

안건 :2022년 수행 과제 발표 등

2. 퇴계연구소

1) 운영위원회

일시 : 2022. 11. 29.(화)

장소 : 인문한국진흥관 퇴계연구소 421호

안건 : 학술대회 개최, 연구비 수주

## IV. 영남문화연구원 개설강좌

### 1. 한문국역연수실 강좌

1) 2022년도 2학기에는 근묵 수업을 비대면 화상강의로 개설함.

대상	교재	담당교수	강의시간	비고
전체	근묵(權墨)	황위주(경북대 한문학과 교수)	월요일 18:30~21:30	실시간 비대면 화상수업
전체	삼국유사(三國 遺事)	이영호(경북대 사학과 교수)	화요일 18:30~20:30	실시간 비대면 화상수업

### 2. 한문교육원 대구강원 강좌

2022년도 2학기(2022. 9. 1 ~ 2022. 12. 23.)

현재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3강좌 비대면 화상수업으로 운영

대상	교재	담당교수	강의시간	비고
1학년	대학·논어 III	김재열(한문교육원 대구강원 강사)	금요일 10:00 ~ 13:00	실시간 비대면 화상수업
1학년	대학·논어 IV	박대현(한문교육원 대구강원 강사)	금요일 15:00 ~ 18:00	
1학년	고문진보후집 II	송희준(한문교육원 대구강원 강사)	목요일 18:30 ~ 21:30	
1학년	소학 II	이갑규(한문교육원 대구강원 주임교수)	토요일 09:30 ~ 12:30	
2학년	중용·맹자 III	김윤조(계명대 한문교육과 교수)	금요일 10:00 ~ 13:00	
2학년	중용·맹자 IV	이상필(전 경상대 한문학과 교수)	금요일 15:00 ~ 18:00	실시간 비대면 화상수업
2학년	고문진보전집 II	황위주(경북대 한문학과 교수)	토요일 09:30 ~ 12:30	

2학년	통감절요 II	이갑규(한문교육원 대구강원 주임교수)	목요일 14:00 ~ 17:00	
3학년	시경 II	이갑규(한문교육원 대구강원 주임교수)	월요일 14:00 ~ 17:00	
3학년	행초고문서입 문 II	하영휘(한문교육원 대구강원 강사)	금요일 10:00 ~ 13:00	실시간 비대면 화상수업
3학년	주역 I	이세동(경북대 중문학과 교수)	금요일 15:00 ~ 18:00	
3학년	주서백선 II	김홍영(한문교육원 대구강원 강사)	목요일 14:00 ~ 17:00	

### 3. 한국국학진흥원 부설 한문교육원 기초한문특강

2022. 9. 6.(화) 개강(총 15주)

현재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대면 화상수업으로 운영

대상	교재	담당교수	강의시간	비고
전체	논어	이규필(경북대 한문학과 교수)	화요일 19:00 ~ 21:00	실시간 비대면 화상수업

## V. 영남문화연구원 실무위원 및 운영위원

<b>실무위원</b>	이영호(사학과), 박균섭(교육학과), 이규필(한문학과), 정우락(국어국문학과), 정병호(한문학과), 안승택(고고인류학과)
<b>운영위원</b>	이영호(사학과), 박균섭(교육학과) 이규필(한문학과), 정우락(국어국문학과), 박용찬(국어교육과), 최은숙(국어국문학과), 황위주(한문학과), 이세동(중어중문학과), 김주현(국어국문학과), 이성주(고고인류학과), 정재훈(사학과), 정병호(한문학과), 조재모(건축학부), 안찬순(중어중문학과), 박충환(고고인류학과), 안승택(고고인류학과), 정낙림(철학과)

## VI. 기타

### 1. 영남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임용

- 이탈리아 카포스카리 베네치아대학교 이효진 교수
- 기간 : 2022년 1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2. 한국학술정보 KISS 홈페이지 유지 보수 건

- 상호 : 한국학술정보(주)
- 유지 보수 기간 : 2021년 11월 1일 ~ 2022년 10월 31일

### 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홈페이지 호스팅 1년/보안 서버인증서 갱신(1년)

- 상호 : 디맥스
- 유지 보수 기간 : 2021년 12월 15일 ~ 2022년 12월 14일

### 4. 퇴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임용

- 박세욱(2022. 7. ~ 2027. 6.)
- 박정민(2022. 7. ~ 2027. 6.)

#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 1. 영남문화연구원

한글도메인 : 영남문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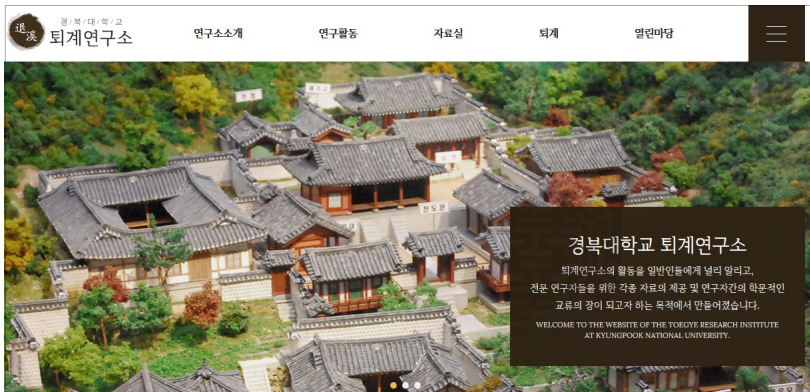
<http://ynculture.knu.ac.kr/>



## 2. 퇴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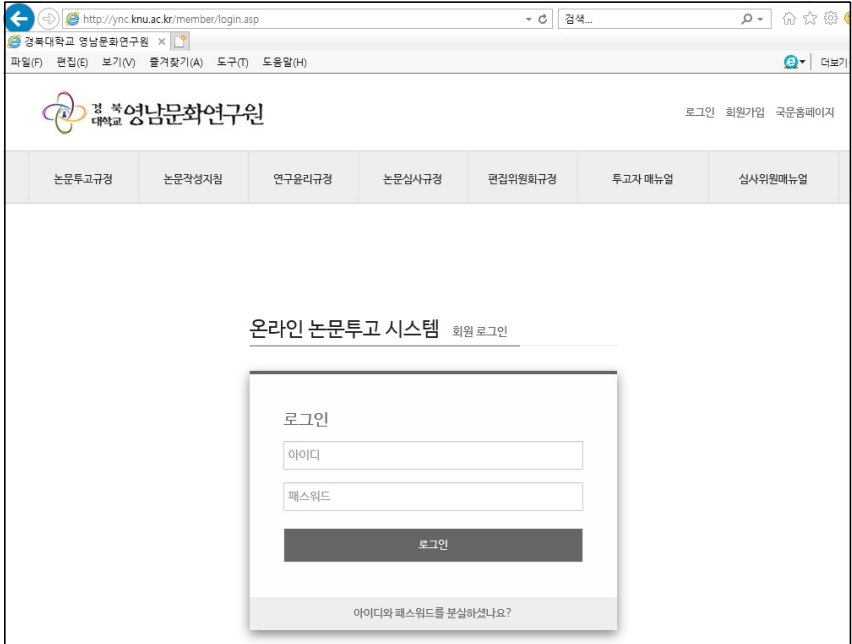
한글도메인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http://toegye.knu.ac.kr/>



### 3. 영남학 온라인 투고 시스템

http://ync.knu.ac.kr/



## ■ 편집위원

위원장 : 정우락(국어국문학과)

이사 : 이승율(철학과)

교내위원 : 김경남(사학과), 김덕호(국어국문학과), 박균섭(교육학과),  
이영호(사학과), 임종진(철학과), 정병호(한문학과)

교외위원 : 김수태(충남대), 신해진(전남대), 이종묵(서울대),  
차장섭(강원대), 최재목(영남대)

해외위원 : 姜劍雲(中國 河北大), 井上直樹(日本 京都府立大)

편집간사 : 안주홍(경북대)

## ■ 연구윤리위원

위원장 : 황위주(한문학과)

위원 : 김덕호(국어국문학과), 김창록(법학과), 정낙림(철학과),  
조재모(건축학부), 하세헌(정치외교학과), 황태진(사학과)





# 嶺南學

제 83 호

2022년 12월 20일 印刷

2022년 12월 31일 發行

발행처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퇴계연구소

발행인 / 이영호·정병호

주 소 / **영남문화연구원** 우)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인문한국진흥관 308호)

**퇴계연구소** 우)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인문한국진흥관 421호)

전 화 / 영남문화연구원: (053)950-6312, 6311(Fax 겸용)

퇴계연구소: (053)950-6430, 6883(Fax 겸용)

홈페이지 / 영남문화연구원: <http://ynculture.knu.ac.kr/>

퇴계연구소: <http://toegye.knu.ac.kr/>

온라인투고시스템: <http://ync.knu.ac.kr/>

이 메 일 / 영남문화연구원: [youngnam@knu.ac.kr](mailto:youngnam@knu.ac.kr)

퇴계연구소: [toegye@knu.ac.kr](mailto:toegye@knu.ac.kr)

인쇄처 / 도서출판 동방 (053)424-8557

